

各司膳錄

# 각사등록 충청도편 2

## 역사기후 자료집

忠淸監營啓錄

錦營啓錄

公文編案



국립기상박물관  
National Meteorological Museum of Korea



## 각사등록 역사기후 자료집 충청도편 2

各司臚錄 7책, 忠淸監營啓錄·錦營啓錄 1855년(철종 6)

1861년(철종 12)

1871년(고종 8)~1878년(고종 15)

1895년(고종 32)

公文編案 87책,

1896년(건양 1)~1900년(광무 4)



各司膳錄  
각사등록  
역사기후  
충청도편 2  
자료집

忠清監營啓錄  
錦營啓錄  
公文編案





## 목 차

일련번호	서기 / 왕력	등록(책)	각시등록(책)	쪽수
0309-0361	철종 6년, 1855년	총청감영계록 4책	각시등록 7책	8
0362-0373	철종 12년, 1861년	총청감영계록 5책	각시등록 7책	68
0374-0413	고종 8년, 1871년	총청감영계록 6책	각시등록 7책	85
0414-0449	고종 9년, 1872년	총청감영계록 6책	각시등록 7책	131
0450-0491	고종 10년, 1873년	금영계록 7책	각시등록 7책	169
0492-0518	고종 11년, 1874년	금영계록 7책	각시등록 7책	217
0519-0547	고종 12년, 1875년	금영계록 7책	각시등록 7책	251
0548-0598	고종 13년, 1876년	금영계록 7책·총청감영계록 8책	각시등록 7책	282
0599-0619	고종 14년, 1877년	총청감영계록 8책	각시등록 7책	340
0620	고종 15년, 1878년	총청감영계록 8책	각시등록 7책	370
0621	건양 1년, 1896년	공문편안 32책		371
0622-0625	건양 2년, 1897년	공문편안 61책		372
0626	광무 1년, 1897년	공문편안 61책		376
0627-0640	광무 2년, 1898년	공문편안 41책		377
0641-0644	광무 4년, 1900년	공문편안 87책		393





---

각사등록 역사기후 자료집  
충청도편 2

---

0309. 1855년(철종 6) 2월 17일(양력 4월 3일)

忠淸監營啓錄 4책(165a~165a) /各司臚錄 7책 忠淸道篇 2책(91a~91b)

今月十六日卯時量始雨，間間霏微，至同日申時仍爲開霽，臣營下測雨器水深爲四分是白如平。各邑所得多寡，隨其報來，鱗次陳聞計料。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이번 달 16일 묘시쯤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간간이 부슬부슬 내리다가 같은 날 신시에 이르러 이내 개었는데 저의 감영 측우기 수심이 4푼이었습니다. 각 고을에 내린 양은 보고가 오는 대로 잇따라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 0310. 1855년(철종 6) 2월 21일(양력 4월 7일)

忠淸監營啓錄 4책(165a~165b) /各司臚錄 7책 忠淸道篇 2책(91b~91b)

道內農形及今月十六日卯時量始雨，至同日申時開霽，測雨器水深爲四分緣由，已爲馳啓爲白有在果。續接各邑所報，則伊日之雨，懷仁·文義·淸州·鎭川·淸安等五邑 得一鋤，公州·全義·魯城·恩津·連山·鎭岑·懷德·定山·青陽·扶餘·石城·林川·鴻山·燕岐等十四邑 浥塵是如爲白乎跡。農形段，秋耨青色漸新，春耨幾盡耕播，糞田鍤役，方張爲之是如爲白有臥乎所。向後農形及未報邑雨澤，待其報來，鱗次陳聞計料，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충청도 내 농사 상황 및 이번 달 16일 묘시쯤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같은 날 신시에 이르러 측우기 수심이 4푼인 연유는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그날 비로 회인·문의·청주·진천·청안 등 5개 고을은 1서가 내렸고, 공주·전의·노성·은진·연산·진잠·회덕·정산·청양·부여·석성·임천·홍산·연기 등 14개 고을은 먼지만 적실 정도였다고 합니다.

농사 상황의 경우, 가을보리는 푸른빛이 점점 새로워지고 봄보리는 거의 다 갈아서 씨를 뿌렸으며 밭에는 거름을 주고 가래질이 한창이라고 합니다. 이후의 농사 상황 및 아직 보고하지 않은 고을의 우택은 보고가 오기를 기다려 잇따라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 0311. 1855년(철종 6) 2월 24일(양력 4월 10일)

忠淸監營啓錄 4책(165b~166a) /各司臚錄 7책 忠淸道篇 2책(91b~91c)

今月十六日雨澤, 懷仁等十九邑所得分數, 已爲馳啓爲白有在果. 續接各邑所報, 則伊日之雨, 前啓外, 沃川·黃澗·靑山·丹陽等四邑 得一犁, 永同·報恩·陰城·忠州·槐山·淸風·延豐·堤川·永春等九邑 得一鋤, 韓山·舒川·庇仁·藍浦·保寧等五邑 浥塵是如爲白有等以. 緣由馳啓爲白臥乎事.

이번 달 16일 우택으로 회인 등 19개 고을에 내린 양은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그날 비로 앞서 보고한 것 외에 옥천·황간·청산·단양 등 4개 고을은 1려가 내렸고, 영동·보은·음성·충주·괴산·청풍·연풍·제천·영춘 등 9개 고을은 1서가 내렸고, 한산·서천·비인·남포·보령 등 5개 고을은 먼지만 적실 정도였다고 합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0312. 1855년(철종 6) 2월 27일(양력 4월 13일)

忠淸監營啓錄 4책(166a~166a) /各司臚錄 7책 忠淸道篇 2책(91c~91d)

今月二十六日丑時量始雨，或霏或灑，至同日辰時，仍爲開霽，臣營下測雨器水深，爲一寸二分是白如乎，各邑所得分數，隨其報來，鱗次陳聞計料，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이번 달 26일 축시쯤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더러 주룩주룩 내리거나 더러 뿌리다가 같은 날 진시에 이르러 이내 개었는데 저의 감영 측우기 수심이 1치 2푼이었습니다. 각 고을에 내린 양은 보고가 오는 대로 잇따라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 0313. 1855년(철종 6) 2월 29일(양력 4월 15일)

忠淸監營啓錄 4책(169b~169b) /各司臚錄 7책 忠淸道篇 2책(93b~93b)

今月二十六日丑時量始雨，至同日辰時開霽，測雨器水深爲一寸二分緣由，已爲馳啓爲白有在果，續接各邑所報，則伊日之雨，公州·禮山·定山等三邑 得一犁，稷山·新昌·靑陽·大興·洪州·恩津·懷德·沃川·燕岐等九邑 得一鋤，天安·平澤·牙山·德山·扶餘·石城·連山·鎭岑·淸州·鎭川等十邑 沍塵是如爲白有臥乎所，未報邑形止，待其報來，鱗次陳聞計料，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이번 달 26일 축시쯤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같은 날 진시에 이르러 개었는데 측우기 수심이 1치 2푼인 연유는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그날 비로 공주·예산·정산 등 3개 고을은 1려가 내렸고, 직산·신창·청양·대흥·홍주·은진·회덕·옥천·연기 등 9개 고을은 1서가 내렸고, 천안·평택·아산·덕산·부여·석성·연산·진잠·청주·진천 등 10개 고을은 먼지만 적실 정도였다고 합니다. 아직 보고하지 않은 고을의 경위는 보고가 오기를 기다려 잇따라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 합니다.

### 0314. 1855년(철종 6) 3월 2일(양력 4월 17일)

忠淸監營啓錄 4책(169b~170a) /各司臚錄 7책 忠淸道篇 2책(93b~93c)

道內農形及今月二十六日雨澤，公州等二十二邑所得分數，已爲連次馳啓爲白有在果。續接各邑所報，則伊日之雨，前啓外，海美·瑞山·藍浦等三邑得一犁，沔川·唐津·泰安·保寧·魯城·清安·陰城·槐山·延豐·平薪等十邑鎭得一鋤，全義·木川·溫陽·林川·鴻山·韓山·舒川·庇仁·結城·永同·黃澗·青山·報恩·懷仁·文義·忠州·淸風·堤川·丹陽·永春等二十邑 溫塵是如爲白乎旆。農形段，秋耨漸次敷青，春耨已盡耕播，間始立苗，糞田鋤役，連爲服勤是如爲白遣。又於去月二十九日午時量始雨，或霏或灑，間間霏微，至今月初二日巳時，臣營下測雨器水深，爲四寸五分，而見今陰雲未解，餘意尙多是白如乎。向後形止及各邑所得，待其報來，鱗次陳聞計料。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충청도 내 농사 상황 및 지난달 26일 우택으로 공주 등 22개 고을에 내린 양은 이미 연달아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그날 비로 앞서 보고한 것 외에 해미·서산·남포 등 3개 고을은 1려가 내렸고, 면천·당진·태안·보령·노성·청안·음성·괴산·연풍·평신 등 10개 고을과 군영은 1서가 내렸고, 전의·목천·온양·임천·홍산·한산·서천·비인·결성·영동·황간·청산·보은·회인·문의·충주·청풍·제천·단양·영춘 등 20개 고을은 먼지만 적실 정도였다고 합니다.

농사 상황의 경우, 가을보리는 점차 푸르르 가고 봄보리는 이미 다 갈아서 씨를 뿌려 그사이에 싹이 돋기 시작하였으며 밭에 거름을 주고 가래질하며 연이어 부지런히 일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 지난달 29일 오시쯤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주룩주룩 내리기도 하고 뿌리기도 하다가 간간이 부슬부슬 내리다가 이번 달 초2일 사시에 이르러 저의 감영 측우기 수심이 4치 5푼이었습니다. 그런데 현재도 먹구름이 흩어지지 않고 있으니 아직도 비가 더 내릴 여지가 많습니다. 이후 경위 및 각 고을에 내린 것은 보고가 오기를 기다려 잇따라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 0315. 1855년(철종 6) 3월 4일(양력 4월 19일)

忠淸監營啓錄 4책(170a~170b) /各司臚錄 7책 忠淸道篇 2책(93d~93d)

去月二十九日午時量始雨，至今月初二日巳時，測雨器水深爲四寸五分緣由，已爲馳啓爲白有在果。初二日巳時以後，載陰載陽，至初三日辰時，仍爲開霽爲白乎旆。續接各邑所報，則伊日之雨，公州·連山·燕岐等三邑 川渠漲滿，定山·靑陽·大興·洪州·扶餘·石城·林川·藍浦·恩津·鎭岑·沃川·淸州等十二邑 得二犁，全義·木川·天安·溫陽·禮山·懷德·永同等七邑 得一犁是如爲白有臥乎所。未報邑形止，待其報來，鱗次陳聞計料。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지난달 29일 오시쯤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이번 달 초2일 사시에 이르러 측우기 수심이 4치 5푼인 연유는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초2일 사시 이후 언뜻언뜻 흐렸다 별이 났다 하다가 초3일 진시에 이르러 이내 개었습니다. 계속해서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그날 비로 공주·연산·연기 등 3개 고을은 시내와 도랑이 불어나 가득 찼고, 정산·청양·대흥·홍주·부여·석성·임천·남포·은진·진잠·옥천·청주 등 12개 고을은 2려가 내렸고, 전의·목천·천안·온양·예산·회덕·영동 등 7개 고을은 1려가 내렸다고 합니다. 아직 보고하지 않은 고을의 경위는 보고가 오기를 기다려 잇따라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 0316. 1855년(철종 6) 3월 8일(양력 4월 23일)

忠淸監營啓錄 4책(170b~170b) /各司臚錄 7책 忠淸道篇 2책(93d~94a)

去月二十九日雨澤，公州等二十二邑所得分數，已爲馳啓爲白有在果。續接各邑所報，則伊日之雨，前啓外，舒川·保寧·魯城·靑山·槐山·延豐等六邑 川渠漲滿，海美·瑞山·鴻山·庇仁·結城·報恩·鎭川·陰城·堤川等九邑 得二犁，稷山·平澤·牙山·新昌·德山·泰安·韓山·黃澗·懷仁·文義·淸安·忠州·淸風·平薪等十四邑鎭 得一犁，沔川·唐津·丹陽·永春等四邑，得一鋤是如爲白有等以。緣由馳啓爲白臥乎事。

지난달 2월 29일 우택으로 공주 등 22개 고을에 내린 양은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그날 비로 앞서 보고한 것 외에 서천·보령·노성·청산·괴산·연풍 등 6개 고을은 시내와 도랑이 불어나 가득 찼고, 해미·서산·홍산·비인·결성·보은·진천·음성·제천 등 9개 고을은 2려가 내렸고, 직산·평택·아산·신창·덕산·태안·한산·황간·회인·문의·청안·충주·청풍·평신 등 14개 고을과 군영은 1려가 내렸고, 먼천·당진·단양·영춘 등 4개 고을은 1서가 내렸다고 합니다. 연유를 긴급 보고합니다.

0317. 1855년(철종 6) 3월 12일(양력 4월 27일)

忠淸監營啓錄 4책(170b~171a) /各司臚錄 7책 忠淸道篇 2책(94a~94a)

道內農形，已爲連次馳啓爲白有在果。續接各邑所報，則秋耨漸就青茂，春耨方張立苗，鍤役幾盡了畢，秧坂[板]或始翻耕是如爲白有臥乎所。向後形止，鱗次陳聞計料。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충청도 내 농사 상황은 이미 연달아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가을보리는 점차 푸르게 무성해지고 봄보리는 한창 싹이 돋고 있고, 가래질은 거의 다 끝나고 못자리는 더러 갈아엎기 시작하였다고 합니다. 이후 경위는 잇따라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0318. 1855년(철종 6) 3월 15일(양력 4월 30일)

忠淸監營啓錄 4책(171a~171b) /各司臚錄 7책 忠淸道篇 2책(94b~94b)

今月十三日丑時量始雨，間間霏灑，至翌日申時開霽。臣營下測雨器水深，爲二寸五分是白如  
乎。各邑所得多寡，待其報來，鱗次陳聞計料。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이번 달 13일 축시쯤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간간이 부슬부슬 내리거나 뿌리다가 이튿날  
신시에 이르러 개었는데 저의 감영 측우기 수심이 2치 5푼이었습니다. 각 고을에 내린  
양은 보고가 오기를 기다려 잇따라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 0319. 1855년(철종 6) 3월 18일(양력 5월 3일)

忠淸監營啓錄 4책(171b~171b) /各司臚錄 7책 忠淸道篇 2책(94b~94c)

今月十三日丑時量始雨, 至翌日酉時開霽, 測雨器水深, 爲二寸五分緣由, 已爲馳啓爲白有在果. 續接各邑所報, 則伊日之雨, 天安·稷山·平澤·牙山·溫陽·禮山·魯城·恩津·燕岐等九邑 川渠漲滿, 公州·定山·靑陽·大興·洪州·鴻山·韓山·懷德·沃川·懷仁等十邑 得二犁, 全義·木川·扶餘·連山·鎭岑·淸州·鎭川·淸安等八邑 得一犁是如爲白乎旆. 又於今月十七日巳時量始雨, 或霏或灑, 至翌日辰時, 臣營下測雨器水深, 爲二寸七分, 而連爲陰翳, 尙有餘意是白如乎. 向後形止及各邑所得分數, 鱗次陳聞計料. 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이번 달 13일 축시쯤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이튿날 유시에 이르러 개였는데 측우기 수심이 2치 5푼인 연유는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그날 비로 천안·직산·평택·아산·온양·예산·노성·은진·연기 등 9개 고을은 시내와 도랑이 불어나 가득 찼고, 공주·정산·청양·대흥·홍주·홍산·한산·회덕·옥천·회인 등 10개 고을은 2려가 내렸고, 전의·목천·부여·연산·진잠·청주·진천·청안 등 8개 고을은 1려가 내렸다고 합니다. 또 이번 달 17일 사시쯤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주룩주룩 내리기도 하고 뿌리기도 하다가 이튿날 진시에 이르러 저의 감영 측우기 수심이 2치 7푼이었습니다. 그런데 연이어 짙은 구름이 끼고 있으니 아직도 비가 더 내릴 여지가 있습니다. 이후 경위 및 각 고을에 내린 양은 잇따라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 0320. 1855년(철종 6) 3월 21일(양력 5월 6일)

忠淸監營啓錄 4책(171b~172a) /各司臚錄 7책 忠淸道篇 2책(94c~94d)

今月十三日雨澤，天安等二十七邑所得分數及十七日巳時量始雨，至翌日辰時，測雨器水深，爲二寸七分緣由，已爲馳啓爲白有在果。十八日辰時以後，載陰載陽，間或霏微，至二十日酉時，始乃開霽，臣營下測雨器水深，又爲三分，竝計前後，合爲三寸是白乎旆。續接各邑所報，則十三日之雨，前啓外，瑞山·舒川·保寧·永同·青山·陰城·槐山·延豐·淸風·永春等十邑 川渠漲滿，新昌·唐津·庇仁·藍浦·黃澗·忠州·堤川·丹陽等八邑 得二犁，德山·沔川·海美·泰安·石城·林川·結城·報恩·文義·平薪等十邑 鎮 得一犁。十七日之雨，天安·林川·藍浦等三邑 川渠漲滿，公州·牙山·溫陽·鴻山·韓山等五邑 得二犁，全義·木川·平澤·禮山·定山·青陽·洪州·德山·扶餘·石城·連山·懷德·沃川·報恩·懷仁·文義·燕岐·淸州等十八邑 得一犁是如爲白有臥乎所。未報邑形止，待其報來，鱗次陳聞計料。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이번 달 13일 우택으로 천안 등 27개 고을에 내린 양 및 17일 사시쯤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이튿날 진시에 이르러 측우기 수심이 2치 7푼인 연유는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18일 진시 이후 언뜻언뜻 흐렸다 별이 났다 하면서 간혹 부슬부슬 내리다가 20일 유시에 이르러 비로소 개었는데 저의 감영 측우기 수심이 또 3푼이었습니다. 지금까지 것을 아울러 계산하면 총 3치입니다. 계속해서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13일의 비로 앞서 보고한 것 외에 서산·서천·보령·영동·청산·음성·괴산·연풍·청풍·영춘 등 10개 고을은 시내와 도랑이 불어나 가득 찼고, 신창·당진·비인·남포·황간·충주·제천·단양 등 8개 고을은 2려가 내렸고, 덕산·면천·해미·태안·석성·임천·결성·보은·문의·평신 등 10개 고을은 1려가 내렸습니다. 그리고 17일의 비로 천안·임천·남포 등 3개 고을은 시내와 도랑이 불어나 가득 찼고, 공주·아산·온양·홍산·한산 등 5개 고을은 2려가 내렸고, 전의·목천·평택·예산·정산·청양·홍주·덕산·부여·석성·연산·회덕·옥천·보은·회인·문의·연기·청주 등 18개 고을은 1려가 내렸다고 합니다. 아직 보고하지 않은 고을의 경위는 보고가 오기를 기다려 잇따라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 0321. 1855년(철종 6) 3월 23일(양력 5월 8일)

忠淸監營啓錄 4책(172a~172b) /各司臚錄 7책 忠淸道篇 2책(94d~95a)

道內農形及今月十七日雨澤，天安等二十六邑所得分數，已爲連次馳啓爲白有在果。續接各邑所報，則伊日之雨，前啓外，恩津·庇仁·陰城等三邑 川渠漲滿，稷山·保寧·靑山·淸安等四邑 得二犁，新昌·大興·沔川·唐津·海美·瑞山·泰安·舒川·結城·魯城·鎭岑·永同·黃澗·鎭川·槐山·延豐·忠州·淸風·堤川·丹陽·永春·平薪等二十二邑鎭 得一犁是如爲白遣。農形段，秋麴間間胚胎，春麴漸向靑茂，秧坂[板]已皆了役，畓庫方始初耕，注秧付種，次第爲之。早黍粟·和種豆太及木花，間或耕播，而春雨頻仍，兩麥受損是如爲白有臥乎所。向後形止，鱗次陳聞計料。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충청도 내 농사 상황 및 이번 달 17일 우택으로 천안 등 26개 고을에 내린 양은 이미 연달아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그날 비로 앞서 보고한 것 외에 은진·비안·음성 등 3개 고을은 시내와 도랑이 불어나 가득 찼고, 직산·보령·청산·청안 등 4개 고을은 2려가 내렸고, 신창·대흥·면천·당진·해미·서산·태안·서천·결성·노성·진잠·영동·황간·진천·괴산·연풍·충주·청풍·제천·단양·영춘·평신 등 22개 고을은 1려가 내렸다고 합니다.

농사 상황의 경우, 가을보리는 간간이 알을 배고, 봄보리는 점차 푸르게 무성해지고 있으며, 못자리는 이미 아 일을 마쳤고 논은 막 초벌갈이를 시작하였으며, 못자리에 물을 대고 무논에 벼씨를 뿌리는 일을 차례로 했습니다. 올기장·올조와 섞어 짓는 콩·팥 및 목화는 간혹 갈아서 씨를 뿌렸으며, 봄비가 잦아서 가을보리와 봄보리가 손상을 입었다고 합니다. 이후 경위는 잇따라 아될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0322. 1855년(철종 6) 3월 26일(양력 5월 11일)

忠淸監營啓錄 4책(172b~172b) /各司謄錄 7책 忠淸道篇 2책(95a~95b)

今月二十三日戌時量始雨，或霏或灑，間間霏微，至二十五日酉時，始乃開霽，臣營下測雨器水深，爲三寸六分是白如乎。各邑所得多寡，待其報來，鱗次陳聞計料。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이번 달 23일 술시쯤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더러 주룩주룩 내리거나 더러 뿌리더니 간간이 부슬부슬 내리다가 25일 유시에 이르러 비로소 개었는데 저의 감영 측우기 수심이 3치 6푼이었습니다. 각 고을에 내린 양은 오기를 기다려 잇따라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 0323. 1855년(철종 6) 3월 29일(양력 5월 14일)

忠淸監營啓錄 4책(173b~174a) /各司臚錄 7책 忠淸道篇 2책(95c~95d)

今月二十三日戌時量始雨，至二十五日酉時開霽，測雨器水深，爲三寸六分緣由，已爲馳啓爲白有在果，續接各邑所報，則伊日之雨，公州·靑陽·保寧等三邑 川渠漲滿，牙山·溫陽·新昌·禮山·大興·德山·沃川·文義·燕岐·懷德等十邑 得二犁，全義·木川·天安·稷山·平澤·定山·洪州·扶餘·石城·林川·鴻山·韓山·庇仁·結城·魯城·恩津·連山·鎭岑·懷仁·淸州等二十邑 得一犁是如爲白乎旆，又於今月二十七日午時量始雨，間間霏微，至翌日未時，仍爲開霽，臣營下測雨器水深，爲四分是白如乎，各邑所得分數及二十三日雨澤未報邑形止，待其報來，鱗次陳聞計料，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이번 달 23일 술시쯤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25일 유시에 이르러 개었는데 측우기 수심이 3치 6푼인 연유는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그날 비로 공주·청양·보령 등 3개 고을은 시내와 도랑이 불어나 가득 찼고, 아산·온양·신창·예산·대흥·덕산·옥천·문의·연기·회덕 등 10개 고을은 2려가 내렸고, 전의·목천·천안·직산·평택·정산·홍주·부여·석성·임천·홍산·한산·비인·결성·노성·은진·연산·진잠·회인·청주 등 20개 고을은 1려가 내렸다고 합니다. 또 이번 달 27일 오시쯤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간간이 부슬부슬 내리다가 이튿날 미시에 이르러 이내 개었는데 저의 감영 측우기 수심이 4푼이었습니다. 각 고을에 내린 양 및 아직 보고하지 않은 고을의 경위는 보고가 오기를 기다려 잇따라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 0324. 1855년(철종 6) 4월 4일(양력 5월 19일)

忠淸監營啓錄 4책(174a~174b) /各司臚錄 7책 忠淸道篇 2책(95d~96a)

去月二十三日雨澤，公州等三十三邑所得分數，二十七日午時量始雨，至翌日未時開霽，測雨器水深爲四分緣由，已爲馳啓爲白有在果。續接各邑所報，則二十三日之雨，前啓外，沔川·瑞山·舒川·藍浦·陰城·槐山·丹陽等七邑 川渠漲滿，唐津·報恩·延豐·堤川·永春等五邑 得二犁，海美·泰安·永同·黃澗·靑山·鎭川·淸安·忠州·淸風·平薪等十邑鎭 得一犁。二十七日之雨，鴻山·德山·結城等三邑 得一犁，公州·全義·定山·大興·洪州·扶餘·石城·林川·恩津·連山·沃川等十一邑 得一鋤，靑陽·文義·魯城·燕岐等四邑 浥塵是如爲白有臥乎所。未報邑形止，待其報來，鱗次陳聞計料。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지난달 23일 우택으로 공주 등 33개 고을에 내린 양, 27일 오시쯤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이튿날 미시에 이르러 개었는데 측우기 수심이 4푼인 연유는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23일의 비로 앞서 보고한 것 외에 면천·서산·서천·남포·음성·괴산·단양 등 7개 고을은 시내와 도랑이 불어나 가득 찼고, 당진·보은·연풍·제천·영춘 등 5개 고을은 2려가 내렸고, 해미·태안·영동·황간·청산·진천·청안·충주·청풍·평신 등 10개 고을은 1려가 내렸으며, 27일의 비로 홍산·덕산·결성 등 3개 고을은 1려가 내렸고, 공주·전의·정산·대흥·홍주·부여·석성·임천·은진·연산·옥천 등 11개 고을은 1서가 내렸고, 청양·문의·노성·연기 등 4개 고을은 먼지만 적실 정도였다고 합니다. 아직 보고하지 않은 고을의 경위는 보고가 오기를 기다려 잇따라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 0325. 1855년(철종 6) 4월 4일(양력 5월 19일)

忠淸監營啓錄 4책(174b~174b) /各司臚錄 7책 忠淸道篇 2책(96a~96b)

道內農形及去月二十七日雨澤, 鴻山等十八邑所得分數, 已爲連次馳啓爲白有在果. 續接各邑所報, 則伊日之雨, 前啓外, 沔川·舒川·靑山·報恩·陰城等五邑 得一犁, 木川·唐津·海美·瑞山·韓山·藍浦·保寧·鎭岑·懷德·鎭川·淸安·淸風·堤川等十三邑 得一鋤, 庇仁·懷仁·淸州等三邑 溫塵是如爲白遣. 農形段, 秋麴方始發穗, 春麴次第胚胎, 注秧付種, 間多立苗, 早黍粟·和種豆太及木花, 幾盡耕播. 而去月二十四日之雨, 竟日霏下, 從以暴風, 兩麥之委靡摧折者, 無望成實, 見甚悶然是如爲白有臥乎所. 向後形止, 鱗次陳聞計料. 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충청도 내 농사 상황 및 지난달 27일 우택으로 홍산 등 18개 고을에 내린 양은 이미 연달아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그날 비로 앞서 보고한 것 외에 먼천·서천·청산·보은·음성 등 5개 고을은 1서가 내렸고, 목천·당진·해미·서산·한산·남포·보령·진잠, 회덕·진천·청안·청풍·제천 등 13개 고을은 1서가 내렸고, 비인·회인·청주 등 3개 고을은 먼지만 적실 정도였다고 합니다.

농사 상황의 경우, 가을보리는 비로소 이삭이 패기 시작했고 봄보리는 차례로 알을 배고, 있으며, 못자리에 물을 대고 무논에 볍씨를 뿌린 것은 그사이에 싹이 많이 돋았습니다. 올기장·올조와 섞어 짓는 콩·팥 및 묵화는 거의 다 갈아서 씨를 뿌렸습니다. 그런데 지난 달 24일에 내린 비가 온종일 주룩주룩 내리다가 뒤따라 폭풍이 불어서 가을보리와 봄보리가 시들어 쓰러지고 꺾인 것은 거의 영글 가망이 없어 보기에 매우 걱정스럽다고 합니다. 이후 경위는 잇따라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0326. 1855년(철종 6) 4월 9일(양력 5월 24일)

忠淸監營啓錄 4책(175a~175a) /各司臚錄 7책 忠淸道篇 2책(96b~96b)

今月初五日未時量始雨，或霏或灑，至初八日申時開霽，臣營下測雨器水深，爲二寸九分是白如乎。各邑所得多寡，待其報來，鱗次陳聞計料。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이번 달 초5일 미시쯤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주룩주룩 내리기도 하고 뿌리기도 하다가 초8일 신시에 이르러 개었는데 저의 감영 측우기 수심이 2치 9푼이었습니다. 각 고을에 내린 양은 보고가 오기를 기다려 잇따라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 0327. 1855년(철종 6) 4월 12일(양력 5월 27일)

忠淸監營啓錄 4책(175a~175b) /各司臚錄 7책 忠淸道篇 2책(96b~96c)

今月初五日未時量始雨，至初八日申時開霽，測雨器水深，爲二寸九分緣由，已爲馳啓爲白有在果。續接各邑所報，則伊日之雨，公州·牙山·靑陽·鴻山·韓山·舒川·恩津·沃川·報恩·燕岐·鎭川等十一邑 得二犁，全義·木川·天安·稷山·平澤·溫陽·新昌·禮山·定山·大興·洪州·海美·德山·扶餘·石城·林川·庇仁·藍浦·保寧·結城·魯城·連山·鎭岑·懷德·懷仁·文義·淸州等二十七邑 得一犁是如爲白乎旆。又於今月十一日丑時量始雨，間間霏灑，至同日亥時，仍爲開霽，臣營下測雨器水深，爲一寸六分是白如乎。各邑所得分數及初五日雨澤未報邑形止，待其報來，鱗次陳聞計料。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이번 달 초5일 미시쯤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초8일 신시에 이르러 개었는데 측우기 수심이 2치 9푼인 연유는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그날 비로 공주·아산·청양·홍산·한산·서천·은진·옥천·보은·연기·진천 등 11개 고을은 2려가 내렸고, 전의·목천·천안·직산·평택·온양·신창·예산·정산·대흥·홍주·해미·덕산·부여·석성·임천·비인·남포·보령·결성·노성·연산·진잠·회덕·회인·문의·청주 등 27개 고을은 1려가 내렸다고 합니다. 또 이번 달 11일 측시쯤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간간이 부슬부슬 내리거나 뿌리다가 같은 말 해시에 이르러 이내 개었는데 저의 감영 측우기 수심이 1치 6푼이었습니다. 각 고을에 내린 양 및 초5일의 우택으로 아직 보고하지 않은 고을의 경위는 보고가 오기를 기다려 잇따라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 0328. 1855년(철종 6) 4월 14일(양력 5월 29일)

忠淸監營啓錄 4책(175b~176a) /各司臚錄 7책 忠淸道篇 2책(96c~96d)

道內農形及今月初五日雨澤，公州等三十八邑所得分數，十一日丑時量始雨，至同日亥時開霽，測雨器水深，爲一寸六分緣由，已爲連次馳啓爲白有在果，續接各邑所報，則初五日之雨，前啓外，沔川·槐山·延豐·丹陽等四邑 川渠漲滿，瑞山·永同·陰城·堤川·永春等五邑 得二犁，唐津·泰安·黃澗·靑山·淸安·忠州·淸風·平薪等八邑鎭 得一犁，十一日之雨，牙山·鴻山·舒川·懷德·靑山等五邑 得二犁，公州·全義·木川·天安·溫陽·禮山·定山·靑陽·大興·洪州·德山·扶餘·林川·庇仁·藍浦·保寧·結城·文義·燕岐等十九邑 得一犁，新昌·石城·魯城·報恩·懷仁等五邑 得一鋤是如爲白遣，農形段，秋麴漸次入實，春麴方始發穗，注秧付種，次第向靑，早黍粟·和種豆太及木花，間間立苗，而兩麥之前所傷損者，連因霪雨，間多全棄，誠切憂悶是如爲白有臥乎所，向後形止，鱗次陳聞計料，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충청도 내 농사 상황 및 이번 달 초5일 우택으로 공주 등 38개 고을에 내린 양, 11일 축시쯤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같은 날 해시에 이르러 개였는데 측우기 수심이 1치 6푼인 연유는 이미 연달아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초5일의 비로 앞서 보고한 것 외에 면천·괴산·연풍·단양 등 4개 고을은 시내와 도랑이 불어나 가득 찼고, 서산·영동·음성·제천·영춘 등 5개 고을은 2려가 내렸고, 당진·태안·황간·청산·청안·충주·청풍·평신 등 8개 고을과 군영은 1려가 내렸으며, 11일의 비로 아산·홍산·서천·회덕·청산 등 5개 고을은 2려가 내렸고, 공주·전의·목천·천안·온양·예산·정산·청양·대흥·홍주·덕산·부여·임천·비인·남포·보령·결성·문의·연기 등 19개 고을은 1려가 내렸고, 신창·석성·노성·보은·회인 등 5개 고을은 1서가 내렸다고 합니다.

농사 상황의 경우, 가을보리는 점차 여물어 가고 봄보리는 비로소 이삭이 패고 있으며, 못자리에 물을 대고 무논에 볍씨를 뿌린 것은 차례로 푸르러지고 올기장·올조와 섞어 짓는 콩·팥 및 목화는 간간이 싹이 돋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을보리와 봄보리는 앞서 손상된 것이 연이어 장맛비로 인해 그사이에 전부 포기하게 된 것이 많아 정말로 매우 걱정스럽다고 합니다. 이후 경위는 잇따라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0329. 1855년(철종 6) 4월 18일(양력 6월 2일)

忠淸監營啓錄 4책(176a~176b) /各司臚錄 7책 忠淸道篇 2책(96d~97a)

今月十一日雨澤, 牙山等二十九邑所得分數, 已爲連次馳啓爲白有在果. 續接各邑所報, 則伊日之雨, 前啓外, 永同·黃澗·槐山·延豐等四邑 川渠漲滿, 沃川·陰城兩邑, 得二犁, 恩津·淸州·淸安·忠州·淸風·堤川·丹陽·永春等八邑 得一犁, 韓山·連山·鎭岑·鎭川等四邑 得一鋤是如爲白有等以. 緣由馳啓爲白臥乎事.

이번 달 11일 우택으로 아산 등 29개 고을에 내린 양은 이미 연달아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그날 비로 앞서 보고한 것 외에 영동·황간·괴산·연풍 등 4개 고을은 시내와 도랑이 불어나 가득 찼고, 옥천·음성 2개 고을은 2려가 내렸고, 은진·청주·청안·충주·청풍·제천·단양·영춘 등 8개 고을은 1려가 내렸고, 한산·연산·진잠·진천 등 4개 고을은 1서가 내렸다고 합니다. 연유를 긴급 보고합니다.

0330. 1855년(철종 6) 4월 20일(양력 6월 4일)

忠淸監營啓錄 4책(176b~176b) /各司謄錄 7책 忠淸道篇 2책(97a~97a)

今月十八日辰時量始雨，或霏或灑，間間霏微，至翌日亥時開霽，臣營下測雨器水深，爲三寸二分是白如乎。各邑所得多寡，待其報來，鱗次陳聞計料，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이번 달 18일 진시쯤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더러 주룩주룩 내리거나 더러 뿌리다가 간간이 부슬부슬 내리더니 이튿날 해시에 이르러 개었는데 저의 감영 측우기 수심이 3치 2푼이었습니다. 각 고을에 내린 양은 보고가 오기를 기다려 잇따라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 0331. 1855년(철종 6) 4월 24일(양력 6월 8일)

忠淸監營啓錄 4책(176b~177a) /各司臚錄 7책 忠淸道篇 2책(97a~97b)

道內農形及今月十八日辰時量始雨, 或霏或灑, 間間霏微, 至翌日亥時開霽, 測雨器水深, 爲三寸二分緣由, 已爲連次馳啓爲白有在果. 續接各邑所報, 則伊日之雨, 稷山·溫陽·定山·藍浦·保寧·燕岐·陰城·槐山等八邑 川渠漲滿, 公州·天安·平澤·牙山·新昌·青陽·扶餘·林川·庇仁·恩津·懷德等十一邑 得二犁, 全義·木川·禮山·大興·洪州·德山·沔川·唐津·海美·石城·鴻山·韓山·結城·魯城·連山·鎭岑·沃川·報恩·懷仁·文義·清州·鎭川·清安等二十三邑 得一犁是如爲白遣. 農形段, 秋甦漸次向熟, 春甦方始入實, 注秧付種, 次第青茂, 早黍粟·和種豆太及木花, 已盡立苗是如爲白有臥乎所. 向後形止及未報邑雨澤所得, 待其報來, 鱗次陳聞計料, 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충청도 내 농사 상황 및 이번 달 18일 진시쯤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더러 주룩주룩 내리거나 더러 뿌리다가 간간이 부슬부슬 내리더니 이튿날 해시에 이르러 개었는데 측우기 수심이 3치 2푼인 연유는 이미 연달아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그날 비로 직산·온양·정산·남포·보령·연기·음성·괴산 등 8개 고을은 시내와 도랑이 불어나 가득 찼고, 공주·천안·평택·아산·신창·청양·부여·임천·비인·은진·회덕 등 11개 고을은 2려가 내렸고, 전의·목천·예산·대흥·홍주·덕산·면천·당진·해미·석성·홍산·한산·결성·노성·연산·진잠·옥천·보은·회인·문의·청주·진천·청안 등 23개 고을은 1려가 내렸다고 합니다.

농사 상황의 경우, 가을보리는 점차 익어가고 봄보리는 비로소 여물고 있으며, 못자리에 물을 대고 무논에 벼씨를 뿌린 것은 차례로 푸르게 무성해지고, 올기장·올조와 섞어 짓는 콩·팥 및 목화는 이미 다 싹이 돋았다고 합니다. 이후 경위 및 아직 보고하지 않은 고을에 우택으로 내린 것은 보고가 오기를 기다려 잇따라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0332. 1855년(철종 6) 4월 27일(양력 6월 11일)

忠淸監營啓錄 4책(177a~177b) /各司臚錄 7책 忠淸道篇 2책(97b~97c)

今月十八日雨澤，稷山等四十二邑所得分數，已爲馳啓爲白有在果。續接各邑所報，則伊日之雨，前啓外，舒川·延豐·丹陽等三邑 川渠漲滿，瑞山·泰安·永春等三邑 得二犁，永同·黃澗·靑山·忠州·淸風·堤川·平薪等七邑 得一犁是如爲白有等以。緣由馳啓爲白臥乎事。

이번 달 18일 우택으로 직산 등 42개 고을에 내린 양은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그날 비로 앞서 보고한 것 외에 서천·연풍·단양 등 3개 고을은 시내와 도랑이 불어나 가득 찼고, 서산·태안·영춘 등 3개 고을은 2려가 내렸고, 영동·황간·청산·충주·청풍·제천·평신 등 7개 고을은 1려가 내렸다고 합니다. 연유를 긴급 보고합니다.

### 0333. 1855년(철종 6) 5월 5일(양력 6월 18일)

忠淸監營啓錄 4책(177b~177b) /各司臚錄 7책 忠淸道篇 2책(97c~97c)

道內農形，已爲連次馳啓爲白有在果。續接各邑所報，則秋粃方始刈穫，春粃次第黃熟，注秧付種，漸向茁茂，早黍粟·和種豆太及木花，方張初除草是如爲白乎旆。今月初四日午時量始雨，間間霏灑，至同日酉時，仍爲開霽，臣營下測雨器水深，爲三分是白如乎。向後農形及各邑雨澤所得，待其報來，鱗次陳聞計料。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충청도 내 농사 상황의 경우, 이미 연달아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가을보리는 막 베어서 수확하기 시작하고 봄보리는 차례로 누렇게 익어가고 있으며, 못자리에 물을 대고 무논에 벼씨를 뿌린 것은 점점 싹이 무성해지고, 올기장·올조와 섞어 짓는 콩·팥 및 목화는 한창 초벌 김매기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번 달 초4일 오시쯤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간간이 부슬부슬 내리거나 뿌리다가 같은 날 유시에 이르러 이내 개었는데 저의 감영 측우기 수심이 3푼이었습니다. 이후의 농사 상황 및 각 고을에 우택으로 내린 것은 보고가 오기를 기다려 잇따라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0334. 1855년(철종 6) 5월 7일(양력 6월 20일)

忠淸監營啓錄 4책(177b~178a) /各司臚錄 7책 忠淸道篇 2책(97c~97d)

今月初四日午時量始雨，間間霏灑，至同日酉時開霽，測雨器水深，爲三分緣由，已爲馳啓爲白有在果。續接各邑所報，則伊日之雨，公州·定山·扶餘·魯城·恩津·文義·燕歧等七邑，沍塵是如爲白有等以，緣由馳啓爲白臥乎事。

이번 달 초4일 오시쯤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간간이 부슬부슬 내리다가 뿌리기도 하더니 같은 날 유시에 이르러 개었는데 측우기 수심이 3푼인 연유는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그날 비로 공주·정산·부여·노성·은진·문의·연기 등 7개 고을은 먼지만 적실 정도였다고 합니다. 연유를 긴급 보고합니다.

### 0335. 1855년(철종 6) 5월 15일(양력 6월 28일)

忠淸監營啓錄 4책(178a~178b) /各司臚錄 7책 忠淸道篇 2책(97d~97d)

道內農形, 已爲連次馳啓爲白有在果. 續接各邑所報, 則秋耨次第登場, 春耨方始刈穫, 畚庫漸次移秧, 付種乾播, 方張初鋤, 早黍粟·和種豆太及木花, 間或再除草是如爲白乎旆. 今月十三日丑時量始雨, 或霏或灑, 至十五日卯時, 臣營下測雨器水深, 爲七寸九分是白如乎. 自去月二十六日以後, 二旬亢旱, 四野枯涸, 雖有數邑之沍塵, 未免一道之望霓. 秧節差晚, 邑報紛然, 際茲渴悶, 得此霈澍, 爲民事誠爲萬幸. 而以臣營下所見言之, 溝澮盈溢, 江川汎濫, 還有過中之慮, 姑無開霽之意是白乎所. 向後形止及各邑所得, 鱗次陳聞計料. 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충청도 내 농사 상황의 경우, 이미 연달아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가을보리는 차례로 타작하고 봄보리는 비로소 베어 수확하고 있으며, 논에는 점차 모내기하고 무논에 볍씨를 뿌리거나 마른 논에 씨앗을 뿌린 것은 한창 초벌매기 하며, 올기장·올조와 섞어 짓는 콩·팥 및 목화는 간혹 두벌 김매기를 하였다고 합니다. 이번 달 13일 축시쯤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더러 주룩주룩 내리거나 더러 뿌리다가 15일 묘시에 이르러 저의 감영 측우기 수심이 7치 9푼이었습니다. 지난달 26일 이후로 20일 동안이나 심하게 가물어 사방의 벌판이 바짝 말라 버렸으니 비록 몇 개 고을은 먼지만 적실 정도로 내렸지만 충청도 전부 구름이 일어 비가 내리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모내기철이 조금 늦으니 고을의 보고가 어수선해서 이 가뭄에 답답해하던 차에 이렇게 단비가 쏟아지니 농사를 위해 천만다행입니다. 그러나 저의 감영에서 본 것으로 말하자면 시내와 도랑이 차서 넘치고 강과 시내가 범람하니 도리어 걱정할 정도를 넘을 염려가 있는데 아직도 개일 조짐이 없습니다. 이후 경위 및 각 고을에 내린 것은 잇따라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 0336. 1855년(철종 6) 5월 19일(양력 7월 2일)

忠淸監營啓錄 4책(178b~179a) /各司臚錄 7책 忠淸道篇 2책(98a~98b)

今月十三日丑時量始雨，至十五日卯時，測雨器水深，爲七寸九分緣由，已爲馳啓爲白有在果。十五日卯時以後，間間霏微，自十六日午時，或霏或灑，乍歇旋下，至十九日寅時，臣營下測雨器水深，又爲七寸九分，統計前後，合爲一尺五寸八分，而陰雲不解，餘意尙多是白乎旆。續接各邑所報，則十三四日之雨，公州·全義·木川·天安·稷山·平澤·牙山·新昌·定山·洪州·沔川·扶餘·石城·林川·鴻山·韓山·保寧·魯城·連山·鎮岑·懷德·沃川·永同·靑山·報恩·懷仁·文義·燕岐·淸州·鎮川·淸安·陰城·槐山等三十四邑 川渠漲滿，唐津·海美·瑞山等三邑，得二犁，溫陽·禮山·靑陽·德山·庇仁等四[五]邑 得一犁。而其中公州·稷山·沔川·扶餘·石城·魯城·恩津·報恩·淸州·槐山等十邑，依山傍川之地，田畝或致潰決，各穀亦多沈墊是如爲白有臥乎所。向後形止及未報邑得雨多寡，鱗次陳聞計料。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이번 달 13일 축시쯤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15일 묘시에 이르러 측우기 수심이 7치 9푼인 연유는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15일 묘시 이후 간간이 부슬부슬 내리다가 16일 오시부터 더러 주룩주룩 내리거나 더러 뿌리더니 잠깐 그쳤다가 곧바로 다시 내렸는데 19일 인시에 이르러 저의 감영 측우기 수심이 또 7치 9푼이었으며, 지금까지 것을 통틀어 계산하면 총 1자 5치 8푼이 됩니다. 그러나 먹구름이 흩어지지 않아서 아직 더 내릴 조짐이 많습니다. 계속해서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13·14일의 비로 공주·전의·목천·천안·직산·평택·아산·신창·정산·홍주·면천·부여·석성·임천·홍산·한산·보령·노성·연산·진잠·회덕·옥천·영동·청산·보은·회인·문의·연기·청주·진천·청안·음성·괴산 등 34개 고을은 시내와 도랑이 불어나 가득 찼고, 당진·해미·서산 등 3개 고을은 2려가 내렸고, 온양·예산·청양·덕산·비인 등 5개 고을은 1려가 내렸으며, 그 가운데 공주·직산·면천·부여·석성·노성·은진·보은·청주·괴산 등 10개 고을은 산자락이나 냇가 지역의 논밭은 더러 독이 터져 각종 곡식 또한 많이 잠겼다고 합니다. 이후 경위 및 아직 보고하지 않은 고을에 내린 비의 양은 잇따라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 0337. 1855년(철종 6) 5월 22일(양력 7월 5일)

忠淸監營啓錄 4책(179a~179b) /各司臚錄 7책 忠淸道篇 2책(98b~98c)

今月十三日雨水, 至十五日卯時, 測雨器水深爲七寸九分, 自十六日午時, 或霏或灑, 至十九日寅時, 測雨器水深, 又爲七寸八分, 統計前後, 合爲一尺五寸, 而十三四日之雨, 公州等四十二邑所得分數, 已爲連次馳啓爲白有在果. 十九日寅時以後, 間間霏微, 載陰載陽, 至二十一日亥時, 臣營下測雨器水深, 又爲一寸五分. 而風薰雲濕, 尙無開霽之意爲白乎旆. 續接各邑所報, 則十三四日之雨, 前啓外, 泰安·舒川·黃澗·延豐·永春等五邑 川渠漲滿, 藍浦·結城·忠州·淸風·堤川·丹陽等六邑 得二犁, 大興·平薪兩邑鎭 得一犁. 而其中延豐·永春兩邑, 田畝之汰覆, 穀苗之沈墊, 在在皆然是如爲白遣. 十六七八日之雨, 公州·溫陽·新昌·禮山·定山·青陽·洪州·德山·沔川·唐津·瑞山·扶餘·石城·林川·魯城·恩津·懷德·報恩·燕歧·淸安·槐山等二十二邑 川渠漲滿, 大興·文義兩邑 得二犁, 全義·連山·淸州等三邑 得一犁. 而其中公州·定山·沔川·唐津·瑞山·扶餘·石城·林川·魯城·懷德·燕歧等十一邑, 前水未洩, 新波連添, 潰決沈沒, 愈往愈甚, 纔移之穉秧, 已多消灑, 未收之春粳, 舉皆腐傷是如爲白有臥乎所. 向後形止及未報邑雨水多寡, 鱗次陳聞計料. 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이번 달 13일에 내린 빗물로 15일 묘시에 이르러 측우기 수심이 7치 9푼이었고, 16일 오시부터 더러 주룩주룩 내리거나 더러 뿌리다가 19일 인시에 이르러 측우기 수심이 또 7치 8푼이었고, 지금까지 것을 통틀어 계산하면 총 1자 5치 8푼이었으며, 13·14일 내린 비로 공주 등 42개 고을에 내린 양은 이미 연달아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19일 인시 이후 간간이 부슬부슬 내리다가 언뜻언뜻 개었다 별이 났다 하다가 21일 해시에 이르러 저의 감영 측우기 수심이 또 1치 5푼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람이 후덥지근하고 구름이 습기가 차서 아직도 개일 조짐이 없습니다. 계속해서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13·14일의 비로 앞서 보고한 것 외에 태안·서천·황간·연풍·영춘 등 5개 고을은 시내와 도랑이 불어나 가득 찼고, 남포·결성·충주·청풍·제천·단양 등 6개 고을은 2려가 내렸고, 대흥·평신 2개 고을과 군영은 1려가 내렸으며, 그 가운데 연풍·영춘 2개 고을은 논밭이 사태로 덮여 곡식 짝이 물에 잠겼으며 곳곳이 다 그러하다고 합니다. 16·17·18일의 비로

공주·온양·신창·예산·정산·청양·홍주·덕산·면천·당진·서산·부여·석성·임천·노성·은진·회  
덕·보은·연기·청안·괴산 등 22개 고을은 시내와 도랑이 불어나 가득 찼고, 대흥·문의 2개  
고을은 2려가 내렸고, 전의·연산·청주 등 3개 고을은 1려가 내렸으며, 그 가운데 공주·정  
산·면천·당진·서산·부여·석성·임천·노성·회덕·연기 등 11개 고을은 이전의 빗물이 미처  
빠져나가지 못했는데 새로운 물결이 연이어 더하니 독이 무너지고 침몰하는 것이 갈수록  
더욱 심해져 겨우 모내기한 어린 모가 녹아버린 것이 이미 많고, 아직 거두지 못한 봄보리  
는 대부분 썩고 상했다고 합니다. 이후 경위 및 아직 보고하지 않은 고을의 빗물 양은  
잇따라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 0338. 1855년(철종 6) 5월 26일(양력 7월 9일)

忠淸監營啓錄 4책(179b~180b) /各司臚錄 7책 忠淸道篇 2책(98c~99a)

道內農形及今月十六七八日之雨, 公州等二十七邑所得分數, 十九日寅時以後, 間間霏灑, 至二十一日亥時, 測雨器水深, 爲一寸五分緣由, 已爲馳啓爲白有在果. 二十一日亥時以後, 或霏或灑, 載陰載陽, 至二十四日戌時, 臣營下測雨器水深, 又爲九分, 竝計十九日以後所得, 合爲二寸四分. 而密雲不解, 連爲陰翳, 至二十五日酉時, 仍爲快霽是白乎旆. 續接各邑所報, 則十六七八日之雨, 前啓外, 天安·平澤·韓山·庇仁·鎭岑·永同·黃澗·懷仁·鎭川·延豐·忠州·淸風·堤川等十三邑 川渠漲滿, 泰安·鴻山·舒川·保寧·平薪等五邑鎭 得二犁. 而其中天安·平澤·庇仁·鎭川·延豐等五邑, 前漲未退, 新霏更急, 田畝各種, 漬者益漬, 沈者益沈是如爲白遣. 自十九日至二十四日之雨, 牙山·定山·沔川·恩津·連山·鎭岑·黃澗·報恩·文義·淸州·淸安·槐山等十二邑 川渠漲滿, 公州·德山·鴻山等三邑 得二犁, 天安·平澤·禮山·青陽·洪州·瑞山·石城·林川·韓山·舒川·魯城·懷仁等十二邑 得一犁. 而其中牙山·連山兩邑, 又多汰覆之患是如爲白遣. 農形段, 春耨幾盡刈穫, 而積雨所浸, 多有腐傷, 洞畝已移之秧, 次第向青, 而屢經漂盪, 多致消灑, 未移處漸次移秧, 而導洩未易, 服力未齊, 付種乾播, 方始再鋤. 早黍粟·和種豆太及木花, 連爲除草, 而久因霪雨, 多停鋤役, 根耕豆太及晚黍粟, 淤泥之中, 耕播無幾, 時晚可悶是如爲白有臥乎所. 向後農形及未報邑雨水多寡, 鱗次陳聞計料. 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충청도 내 농사 상황 및 이번 달 16·17·18일에 내린 비로 공주 등 27개 고을에 내린 양, 19일 인시 이후 간간이 부슬부슬 내리거나 뿌리다가 21일 해시에 이르러 측우기 수심이 1치 5푼인 연유는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21일 해시 이후 더러 부슬부슬 내리거나 더러 뿌리다가 언뜻언뜻 흐렸다 별이 났다 하더니 24일 술시에 이르러 저의 감영 측우기 수심이 또 9푼이 되었는데, 19일 이후 내린 것을 아울러 계산하면 총 2치 4푼이 됩니다. 그런데 뻥뻥한 구름이 흩어지지 않고 연이어 짙은 구름이 끼더니 25일 유시에 이르러 이내 말끔히 개었습니다. 계속해서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16·17·18일의 비로 앞서 보고한 것 외에 천안·평택·한산·비인·진잠·영동·황간·회인·진천·연풍·충주·청풍·제천 등 13개 고을은 시내와 도랑이 불어나 가득 찼고, 태안·홍산·서천·보



령·평신 등 5개 고을과 군영은 2려가 내렸으며, 그 가운데 천안·평택·비인·진천·연풍 등 5개 고을은 이전에 불어났던 물이 미처 빠지지 못했는데 새로 주룩주룩 내리자 다시 다급해져서 논밭과 각종 곡식은 무너진 것은 더욱 무너지고 잠긴 것은 더욱 잠졌다고 합니다. 19일부터 24일까지의 비로 아산·정산·면천·은진·연산·진잠·황간·보은·문의·청주·청안·괴산 등 12개 고을은 시내와 도랑이 불어나 가득 찼고, 공주·덕산·홍산 등 3개 고을은 2려가 내렸고, 천안·평택·예산·청양·홍주·서산·석성·임천·한산·서천·노성·회인 등 12개 고을은 1려가 내렸으며, 그 가운데 아산·연산 2개 고을은 또 사태로 덮일 근심이 많다고 합니다.

농사 상황의 경우, 봄보리는 거의 다 베어서 수확하였는데 누적된 비에 침수된 것은 썩고 상한 것이 많다고 합니다. 동네 논으로 이미 모내기한 것은 차례로 푸르르 가는데 여러 번 물에 뜨고 잠기기를 겪으면서 녹아 버린 것이 많고, 아직 모내기하지 못한 곳은 점차 모내기하는데 물을 빼내기가 쉽지 않고 들이는 힘이 가지런하지 않다고 합니다. 무논에 벼씨를 뿌리거나 마른 논에 씨앗을 뿌린 것은 비로소 두벌매기하고 올기장·올조와 섞어 짓는 콩·팥 및 목화는 연이어 김매기하고 있는데 오랜 장맛비로 인해 김매기를 중지한 곳이 많습니다. 그루같이한 콩·팥 및 늦기장·늦조는 진흙 속에 갈아 씨를 뿌리는 곳이 거의 없고 때가 늦어지니 답답하다고 합니다. 이후의 농사 상황 및 아직 보고하지 않은 고을의 빗물 양은 잇따라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 0339. 1855년(철종 6) 5월 30일(양력 7월 13일)

忠淸監營啓錄 4책(180b~181a) /各司臚錄 7책 忠淸道篇 2책(99a~99b)

今月十六七八日之雨, 公州等四十五邑鎭所得分數及自十九日至二十四日之雨, 牙山等二十七邑所得分數, 已爲連次馳啓爲白有在果. 續接各邑所報, 則十六七八日之〈雨〉, 前啓外, 木川·稷山·沃川·靑山·陰城·丹陽·永春等七邑 川渠漲滿, 藍浦·結城兩邑 得二犁, 海美得一犁. 而其中木川·靑山·永春等三邑, 各穀之沈墊, 堰堤之汰覆, 愈往愈多是如爲白遣. 自十九日至二十四日之雨, 前啓中, 得二犁之德山·鴻山兩邑, 得一犁之平澤·禮山·洪州·瑞山·懷仁等五邑, 初報後更爲霏灑, 川渠漲滿. 前啓外, 全義·稷山·溫陽·新昌·大興·泰安·庇仁·懷德·沃川·永同·靑山·燕岐·鎭川·陰城·延豐·忠州·淸風等十七邑 川渠漲滿, 木川·唐津·扶餘·丹陽·永春等五邑 得二犁, 海美·藍浦·保寧·結城·堤川·平薪等六邑鎭 得一犁. 而其中全義·稷山·新昌·泰安·忠州·淸風等六邑, 溝渠連日添漲, 田畝到處潰覆是如爲白有等以, 緣由馳啓爲白臥乎事.

이번 달 16·17·18일에 내린 비로 공주 등 45개 고을과 군영에 내린 양 및 19일부터 24일까지 내린 비로 아산 등 27개 고을에 내린 양은 이미 연달아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16·17·18일의 비로 앞서 보고한 것 외에 목천·직산·옥천·청산·음성·단양·영춘 등 7개 고을은 시내와 도랑이 불어나 가득 찼고, 남포·결성 2개 고을은 2려가 내렸고, 해미는 1려가 내렸으며, 그 가운데 목천·청산·영춘 등 3개 고을은 각종 곡식이 물에 잠기고 방죽과 둑이 무너지는 곳이 갈수록 더욱 많다고 합니다. 19일부터 24일까지의 비로 앞서 보고한 것 가운데 2려가 내린 덕산·홍산 2개 고을과 1려가 내린 평택·예산·홍주·서산·회인 등 5개 고을은 처음 보고한 뒤 다시 주룩주룩 내리거나 뿌려서 시내와 도랑이 불어나 가득 찼고, 앞서 보고한 것 외에 전의·직산·온양·진천·음성·연풍·충주·청풍·신창·대흥·태안·비인·회덕·옥천·영동·청산·연기 등 17개 고을은 시내와 도랑이 불어나 가득 찼고, 목천·당진·부여·단양·영춘 등 5개 고을은 2려가 내렸고, 해미·남포·보령·결성·제천·평신 등 6개 고을과 군영은 1려가 내렸으며, 그 가운데 전의·직산·신창·태안·충주·청풍 등 6개 고을은 시내와 도랑이 연일 더 불어나 이르는 곳마다 논밭은 둑이 터져서 덮였다고 합니다. 연유를 긴급 보고합니다.

0340. 1855년(철종 6) 6월 6일(양력 7월 19일)

忠淸監營啓錄 4책(181a~181b) /各司臚錄 7책 忠淸道篇 2책(99c~99c)

道內農形, 已爲連次馳啓爲白有在果. 續接各邑所報, 則付種乾播, 已盡再鋤, 早移秧方張初鋤, 晚移秧次第着根, 早黍粟方始立苗, 而汚下畝在前被墊之地, 近因陽曝, 雖或有蘇醒之望, 高燥處則潦水纔收, 曠乾浹旬, 土壤堅硬, 鋤耘難施是如爲白有臥乎所. 向後農形, 鱗次陳聞計料. 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충청도 내 농사 상황은 이미 연달아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무논에 벼씨를 뿌리거나 마른 논에 씨앗을 뿌린 것은 이미 다 두벌매기했고 일찍 모내기한 것은 한창 초벌 김매기를 하고, 있으며, 늦게 모내기한 것은 차례로 뿌리가 내리고, 올기장·올조는 막 싹이 돋기 시작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전에 침수되었던 지역에 있는 지대가 낮은 논은 최근 햇볕을 쬐에 따라 비록 더러 되살아날 가망이 있으나 높고 메마른 곳은 장마 물기가 걷히자마자 가뭄이 열흘 가까이 되니 흙덩이가 단단히 굳어져서 김매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이후의 농사 상황은 잇따라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0341. 1855년(철종 6) 6월 11일(양력 7월 24일)

忠淸監營啓錄 4책(181b~181b) /各司臚錄 7책 忠淸道篇 2책(99c~99c)

今月初八日午時量始雨，或霏或灑，載陰載暘，至初十日未時開霽，臣營下測雨器水深，爲六分是白如乎，各邑所得分數，隨其報來，鱗次陳聞計料，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이번 달 초8일 오시쯤 시작된 비는 더러 부슬부슬 내리기도 하고 더러 뿌리기도 하더니 언뜻언뜻 흐렸다 별이 났다 하다가 초10일 미시에 이르러 개었는데 저의 감영 측우기 수심이 6푼이었습니다. 각 고을에 내린 양은 보고가 오는 대로 잇따라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 0342. 1855년(철종 6) 6월 14일(양력 7월 27일)

忠淸監營啓錄 4책(181b~182a) /各司臚錄 7책 忠淸道篇 2책(99c~99d)

今月初八日午時量始雨，至初十日未時開霽，測雨器水深，爲六分緣由，已爲馳啓爲白有在果。續接各邑所報，則伊日之雨，魯城·恩津·連山·鎭岑·懷德·永同·報恩等七邑 川渠漲滿，文義得二犁，平澤·牙山·唐津·懷仁等四邑 得一犁，公州·德山·扶餘·淸州等四邑 得一鋤，木川·新昌·禮山·定山·石城·鴻山·舒川·庇仁·藍浦·燕歧·淸安等十一邑 浥塵。而久旱之餘，雖幸得雨，列邑所得，初不均霑，過霑處則堤堰多潰，禾稼致損，未洽處則土壤旋涸，鋤耘莫施是如爲白有臥乎所。未報邑形止，待其報來，鱗次陳聞計料。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이번 달 초8일 오시쯤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초10일 미시에 이르러 개였는데 측우기 수심이 6푼인 연유는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그날 비로 노성·은진·연산·진잠·회덕·영동·보은 등 7개 고을은 시내와 도랑이 불어나 가득 찼고, 문의는 2려가 내렸으며 평택·아산·당진·회인 등 4개 고을은 1려가 내렸고, 공주·덕산·부여·청주 등 4개 고을은 1서가 내렸고, 목천·신창·예산·정산·석성·홍산·서천·비인·남포·연기·청안 등 11개 고을은 먼지만 적실 정도였습니다. 오랜 가뭄 끝에 비록 다행히 비가 내렸지만 여러 고을에 내린 것은 애초에 고르게 적시지 않아서 주룩주룩 지나치게 내린 곳은 방죽과 둑이 많이 터져 벼가 손상되었고 미흡한 곳은 토양이 곧바로 말라서 김매기를 할 수 없다고 합니다. 아직 보고하지 않은 고을의 경위는 보고가 오기를 기다려 잇따라 보고할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 0343. 1855년(철종 6) 6월 17일(양력 7월 30일)

忠淸監營啓錄 4책(186b~187a) /各司臚錄 7책 忠淸道篇 2책(102c~102d)

道內農形及今月初八日之雨, 魯城等二十七邑所得分數, 已爲連次馳啓爲白有在果. 續接各邑所報, 則伊日之雨, 前啓外, 沃川·延豐·黃澗·靑山·丹陽·永春等六邑 川渠漲滿, 瑞山·陰城·槐山·忠州·淸風·平薪等六邑鎭 得一犁, 沔川·海美·堤川等三邑 得一鋤, 保寧溫塵, 而早[旱]餘一雨, 終未周洽, 暴霖而堤堰潰決者有之, 暫霏而田疇旋涸者多焉. 又有初不下雨, 一直望霓者, 爲十餘邑, 被墊惜乾, 邑報各異, 統論全省, 得雨小而憫旱多是白遣. 農形段, 付種乾播, 漸次向茂, 早移秧方張再鋤, 晚移秧次第初鋤, 早黍粟·和種豆太及木花, 連爲除草, 根耕豆太及晚黍粟, 幾皆初除草. 而過霪處則水盪而穀苗多損, 亢旱處則土乾而鋤耘莫施. 新昌·瑞山兩邑, 沔下洞畚過苗之禾, 間多愆蠹蹲縮之患是如爲白乎旆. 今月十五日申時量始雨, 或霏或灑, 至十七日卯時, 臣營下測雨器水深, 爲二寸一分, 而陰雲四低, 尙有餘意是白如乎. 向後形止及列邑所得, 鱗次陳聞計料. 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충청도 내 농사 상황 및 이번 달 초8일 내린 비로 노성 등 27개 고을에 내린 양은 이미 연달아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그날 비로 앞서 보고한 것 외에 옥천·연풍·황간·청산·단양·영춘 등 6개 고을은 시내와 도랑이 불어나 가득 찼고, 서산·음성·괴산·충주·청풍·평신 등 6개 고을과 군영은 1려가 내렸고, 면천·해미·제천 등 3개 고을은 1서가 내렸고, 보령은 먼지만 적실 정도였으며, 가뭄 끝에 한차례 비가 내렸으나 끝내 두루 흡족하지는 못합니다. 세차게 쏟아진 비로 방죽과 둑이 무너진 곳이 있고, 잠깐 부슬부슬 내린 비로 밭이랑이 곧바로 마른 곳도 많으며 또 애초에 비가 내리지 않아 줄곧 비 내리기를 간절히 바라는 곳도 10여 고을이나 됩니다. 침수 피해와 가뭄 걱정은 고을의 보고가 각각 다르지만, 충청도 전체를 통틀어 따져보면 내린 비는 적고 가뭄 걱정은 많습니다.

농사 상황의 경우, 무논에 볍씨를 뿌리거나 마른 논에 씨앗을 뿌린 것은 점차 무성해지고 일찍 모내기한 것은 한창 두벌매기하며, 늦게 모내기한 것은 차례로 초벌 김매기를 하고 있습니다. 올기장·올조와 섞어 짓는 콩·팥 및 목화는 연이어 김매기하고 그루같이한 콩·팥

및 늦기장·늦조는 거의 다 초벌 김매기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지나치게 쏟아진 곳은 물에 잠겨 곡식의 싹이 많이 손상되었고, 심한 가뭄이 든 곳은 땅이 말라서 김매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신창·서산 2개 고을의 지대가 낮은 동네 논의 웃자란 벼는 그사이에 건잠준축의 근심이 많다고 합니다. 이번 달 15일 신시짚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더러 부슬부슬 내리기도 하고 더러 뿌리기도 하였는데 17일 묘시에 이르러 측우기 수심이 2치 1푼이었습니다. 그러나 먹구름이 사방에 낮게 깔려 아직도 더 내릴 조짐이 있습니다. 이후 경위 및 여러 고을에 내린 것은 잇따라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 0344. 1855년(철종 6) 6월 27일(양력 8월 9일)

忠淸監營啓錄 4책(195a~196a) /各司臚錄 7책 忠淸道篇 2책(106d~107b)

道內農形及今月十五日雨澤, 永同等二十一邑所得分數, 二十日戌時量始雨, 至翌日午時, 測雨器水深爲九分緣由, 已爲連次馳啓爲白有在果. 續接各邑所報, 則十五日之雨, 前啓外, 黃澗川渠漲滿, 洪州·海美·丹陽·永春等四邑 得一犁, 定山·藍浦·懷仁·延豐·淸風·堤川等六邑 得一鋤, 木川·溫陽兩邑浥塵. 二十日之雨, 牙山川渠漲滿, 瑞山·泰安兩邑 得二犁, 稷山·溫陽·禮山·唐津·平薪等五邑鎭 得一犁, 公州·天安·新昌·沔川·鴻山·庇仁·保寧·結城·懷德·黃澗·文義·淸州·陰城等十三邑 得一鋤, 青陽·大興·石城·韓山·魯城·恩津·忠州等七邑 浥塵是如爲白乎旃. 農形段, 付種乾播, 連爲苗長, 早移秧耘役已畢, 早黍粟次第胚胎, 和種豆太及木花, 方張起花, 晚移秧及晚黍粟, 根耕豆太, 幾皆再鋤, 而前啓中新昌·瑞山兩邑, 愆蠶蹲縮, 姑未寢息. 前啓外, 石城·鎭岑兩邑, 亦發愆蹲之患, 泰安段, 今十六日海堰諸處, 間多汎濫, 被災孔酷是如爲白臥乎所. 向後形止, 鱗次陳聞計料. 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충청도 내 농사 상황 및 이번 달 15일의 우택, 영동 등 21개 고을에 내린 양, 20일 술시쯤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이튿날 오시에 이르러 측우기 수심이 9푼인 연유는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15일의 비로 앞서 보고한 것 외에 황간은 시내와 도랑이 불어나 가득 찼고, 홍주·해미·단양·영춘 등 4개 고을은 1려가 내렸고, 정산·남포·회인·연풍·청풍·제천 등 6개 고을은 1서가 내렸고, 목천·온양 2개 고을은 먼지만 적실 정도였으며, 20일의 비로 아산은 시내와 도랑이 불어나 가득 찼고, 서산·태안 2개 고을은 2려가 내렸고, 직산·온양·예산·당진·평신 등 5개 고을과 군영은 1려가 내렸고, 공주·천안·신창·면천·홍산·비인·보령·결성·회덕·황간·문의·청주·음성 등 13개 고을은 1서가 내렸고, 청양·대흥·석성·한산·노성·은진·충주 등 7개 고을은 먼지만 적실 정도였다고 합니다.

농사 상황의 경우, 마른 논에 씨앗을 뿌린 것을 연이어 줄기가 자라고 있으며 일찍 모내기 한 것은 김매기가 이미 끝났고, 올기장·올조는 차례로 알을 배고, 섞어 짓는 콩·팥 및 목화는 한창 꽃이 피며, 늦게 모내기한 것 및 늦기장·늦조와 그루같이한 콩·팥은 거의



다 두벌매기하였습니다. 그러나 앞서 보고한 것 가운데 신창·서산 2개 고을은 건잠준축의 근심이 아직 그치지 않았습니다. 앞서 보고한 것 외에 석성·진잠 2개 고을도 건잠준축의 근심이 발생했고 태안은 이번 16일에 해안의 독 여러 곳이 그사이에 많이 범람하여 재해를 매우 혹독하게 입었다고 합니다. 이후 경위는 잇따라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0345. 1855년(철종 6) 7월 1일(양력 8월 13일)

忠淸監營啓錄 4책(196a~196a) /各司臚錄 7책 忠淸道篇 2책(107b~107b)

去月三十日午時量始雨，一陣驟下，間或霏灑，至同日申時開霽，臣營下測雨器水深，爲二寸四分是白如乎。各邑所得多寡，隨其報來，鱗次陳聞計料。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지난달 30일 오시쯤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한바탕 소나기가 내리다가 간혹 부슬부슬 내리거나 뿌리다가 같은 날 신시에 이르러 개었는데 저의 감영 측우기 수심이 2치 4푼이 었습니다. 각 고을에 내린 양은 보고가 오는 대로 잇따라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 0346. 1855년(철종 6) 7월 4일(양력 8월 16일)

忠淸監營啓錄 4책(197b~198a) /各司臚錄 7책 忠淸道篇 2책(108b~108b)

去月三十日午時量驟雨，至同日申時，測雨器水深爲二寸四分緣由，已爲馳啓爲白有在果。續接各邑所報，則伊日之雨，公州得二犁，新昌·定山·靑陽·藍浦·結城·魯城·懷德·燕岐等八邑，全義·扶餘·石城·林川·保寧·淸安·槐山等七邑 得一鋤是如爲白乎所。又於今月初一日亥時量始雨，或霏或灑，初二日辰時以後，連爲滂沱，至初三日酉時，臣營下測雨器水深，爲一尺一寸，而黝雲未散，薰風連吹，見今雨勢，霏灑不止是白如乎。各邑所報，雖未及到，以臣營下所見論之，江川汎濫，道路不通，濁浪橫奔，田畝沈墊，言念民事，誠極悶然。向後所得分數，列邑雨水多寡，待其報來，鱗次陳聞計料。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지난달 30일 오시쯤 내린 소나기는 같은 날 신시에 이르러 측우기 수심이 2치 4푼인 연유는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그날 비로 공주는 2려가 내렸고, 신창, 정산, 청양, 남포, 결성, 노성, 회덕, 연기 등 8개 고을은 1려가 내렸고, 전의, 부여, 석성, 임천, 보령, 청안, 괴산 등 7개 고을은 1서가 내렸다고 합니다. 또 이번 달 초1일 해시쯤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더러 주룩주룩 내리거나 더러 뿌리더니 초2일 진시 이후 연이어 착착 쏟아지다가 초3일 유시에 이르러 저의 감영 측우기 수심이 1자 1치였습니다. 그런데 검은 구름이 흩어지지 않고 후덥지근한 바람이 연이어 불고 현재 비의 형세는 부슬부슬 내리거나 뿌리며 그치지 않을 듯합니다. 각 고을의 보고는 비록 미처 이르지 않았으나 저의 감영에서 본 것으로 따지자면 강과 시내가 범람하고 도로가 통하지 않으며 혼탁한 물결이 마구 넘쳐 논밭이 잠겼으니 백성들의 사정을 생각하면 정말로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이후 내린 양의 경우, 여러 고을 빗물의 양은 보고가 오기를 기다려 잇따라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 0347. 1855년(철종 6) 7월 7일(양력 8월 19일)

忠淸監營啓錄 4책(200b~201a) /各司臚錄 7책 忠淸道篇 2책(109d~110a)

道內農形及去月三十日雨澤，公州等十六邑所得分數，今月初一日亥時量始雨，至初三日酉時，測雨器水深爲一尺一寸緣由，已爲連次馳啓爲白有在果。初三日酉時以後，或霏或灑，至初四日申時開霽，臣營下測雨器水深，又爲四寸，統計前後，合爲一尺五寸是白乎旆。續接各邑所報，則去月三十日之雨，前啓外，槐山·溫陽·德山·瑞山·報恩·文義·陰城·延豐等八邑 得一犁，天安·洪州·恩津·懷仁·清州·忠州·平薪等七邑鎮 得一鋤，木川·舒川兩邑 浥塵是如爲白遣。自今月初一日，至初四日之雨，公州·定山·扶餘·石城·燕歧等五邑 江川汎濫，全義·青陽·洪州·大興·保寧·藍浦·魯城·恩津·連山·鎮岑·報恩等十一邑 川渠漲滿，天安·鴻山·林川·結城等四邑 得二犁，牙山·禮山·瑞山·韓山·懷仁·文義·平薪等七邑鎮，先以始雨形止報來，外他各邑，姑無所報。農形段，早稻方始胚胎，晚稻連爲茁長，早黍粟方張發穗，和種豆太，次第結殼，木花間或結穎，晚黍粟根耕豆太，耘役已畢。而今番雨水，未免過霑，依山傍水之處，汚下原野之地，田畝之沈墊潰覆，各穀之被損，在在皆然，往往愁慘是如爲白乎旆。新昌等四邑，愆蠶蹲縮之患，尙無寢息之報是白如乎。向後形止及未報邑得雨多寡，待其報來，鱗次陳聞計料。緣由並以馳啓爲白臥乎事。

충청도 내 농사 상황 및 지난달 30일 우택으로 공주 등 16개 고을에 내린 양, 이번 달 초1일 해시쯤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초3일 유시에 이르러 측우기 수심이 1자 1치였다는 연유는 이미 연달아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초3일 유시 이후 부슬부슬 내리거나 뿌리다가 초4일 신시에 이르러 개었는데 저의 감영 측우기 수심이 도 4치였으며 지금까지 것을 통틀어 계산하면 총 1자 5치가 됩니다. 계속해서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지난달 30일의 비로 앞서 보고한 것 외에 괴산·온양·덕산·서산·보은·문의·음성·연풍 등 8개 고을은 1려가 내렸고, 천안·홍주·은진·회인·청주·충주·평신 등 7개 고을과 군영은 1서가 내렸고, 목천·서천 2개 고을은 먼지만 적실 정도였다고 합니다. 이번 달 초1일부터 초4일까지의 비로 공주·정산·부여·석성·연기 등 5개 고을은 강과 시내가 범람하였고, 전의·청양·홍주·대흥·보령·남포·노성·은진·연산·진잠·보은 등 11개 고을은 시내와 도랑이 불어나 가득

찾고, 천안·홍산·임천·결성 등 4개 고을은 2려가 내렸으며, 아산·서산·예산·한산·회인·문의·평신 등 7개 고을과 군영은 비가 내리기 시작한 경위를 먼저 보고해 왔으나, 이밖에 각 고을은 아직 보고가 없습니다.

농사 상황의 경우, 올벼는 비로소 알을 배고, 있으며 늦벼는 연이어 줄기가 쭉쭉 자라고 있고, 올기장·올조는 한창 이삭이 패고 섞어 짓는 콩·팥은 차례로 꼬투리를 맺고 목화는 간혹 다래를 맺으며, 늦기장·늦조와 그루같이한 콩·팥은 김매기 일이 이미 끝났습니다. 이번 빗물은 지나치게 쏟아짐을 면치 못하여 산자락이나 물가에 있는 곳과 지대가 낮은 들판 지역의 논밭은 물에 잠기거나 독이 터지고 덮여 각종 곡식이 손해를 입었는데 곳곳이 다 그러하니 종종 매우 근심스럽다고 합니다. 신창 등 4개 고을의 건잠준축의 근심은 아직 그쳤다는 보고가 없습니다. 이후 경위 및 아직 보고하지 않은 고을에 내린 비의 양은 보고가 오기를 기다려 잇따라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 0348. 1855년(철종 6) 7월 12일(양력 8월 24일)

忠淸監營啓錄 4책(203b~204a) /各司臚錄 7책 忠淸道篇 2책(111b~111c)

今月初一日之雨, 至初四日, 公州等二十邑所得分數, 牙山等七邑鎭, 先以始雨形止報來緣由, 已爲馳啓爲白有在果. 續接各邑所報, 則伊日之雨, 前啓始雨邑鎭中, 牙山·禮山·懷仁·文義等四邑 川渠漲溢, 瑞山·韓山兩邑 得二犁, 平薪 得一犁. 前啓外, 沃川·槐山·忠州·淸風·丹陽·永春等六邑 江川汎濫, 木川·稷山·溫陽·沔川·舒川·懷德·永同·黃澗·靑山·淸州·鎭川·陰城·延豐·堤川等十四邑 川渠漲溢, 平澤·新昌·海美·庇仁·淸安等五邑 得二犁, 德山·唐津·泰安等三邑 得一犁. 而今此雨水, 四日連霖, 舊水未洩, 新漲又添, 沿江諸處田畝, 舉皆沈墊, 各穀之受損甚多. 依山各邑峽流, 亦爲迅急, 家舍之漂頽不少, 言念民事, 誠切悶然是如, 邑報相續是白乎所. 被災處摘奸之節, 漂頽戶改構之方, 另飭舉行爲白乎旃. 愆蠶蹲縮段, 前啓中新昌等四邑外, 庇仁又有是患是如爲白有在乎. 向後形止, 鱗次陳聞計料. 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이번 달 초1일의 비는 초4일에 이르러 공주 등 20개 고을에 내린 양, 아산 등 7개 고을과 군영이 비가 내리기 시작한 경위를 먼저 보고해 왔다는 연유는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시다. 계속해서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그날 비로 앞서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고 보고한 고을과 군영 중 아산·예산·회인·문의 등 4개 고을은 시내와 도랑이 불어나 가득 찼고, 서산·한산 2개 고을은 2려가 내렸고, 평신은 1려가 내렸으며, 앞서 보고한 것 외에 옥천·괴산·충주·청풍·단양·영춘 등 6개 고을은 강과 시내가 범람하였고, 목천·직산·온양·면천·서천·회덕·영동·황간·청산·청주·진천·음성·연풍·제천 등 14개 고을은 시내와 도랑이 불어나 넘쳤고, 평택·신창·해미·비인·청안 등 5개 고을은 2려가 내렸고, 덕산·당진·태안 등 3개 고을은 1려가 내렸습니다. 이번 빗물은 4일 동안 연이어 주룩주룩 내려서 이전의 물이 빠지지 못했는데 새로 불어나 또 더하니 강 주변 여러 곳의 논밭이 대부분 물에 잠겨 각종 곡식이 입은 손해가 매우 많습니다. 각 고을 산자락 골짜기의 물살도 빠르고 급하여 집이 떠내려가거나 무너진 곳이 적지 않으니, 백성들의 사정을 생각하면 정말로 걱정이 절실하다는 고을의 보고가 서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재해를 입은 곳을 캐보는 절차와 떠내려갔거나 무너진 집을 고쳐 짓는 방도는 따로 지시하여 거행하겠습니

다. 건잠준축의 경우, 앞서 보고한 것 가운데 신창 등 4개 고을 외에 비인이 또 이런 걱정이 있다고 합니다. 이후 경위는 잇따라 아될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 0349. 1855년(철종 6) 7월 17일(양력 8월 29일)

忠淸監營啓錄 4책(205a~205a) /各司臚錄 7책 忠淸道篇 2책(112a~112a)

道內農形, 已爲連次馳啓爲白有在果. 續接各邑所報, 則早稻方張發穗, 中稻間或胚胎, 晚稻·晚黍粟, 連爲茁茂, 早黍粟·和種豆太, 漸次入實, 根耕豆太, 方始起花, 木花次第結顆. 而月初大水, 田畝各穀, 多被沈墊, 尙今萎黃, 無望蘇醒者, 種種有之. 新昌等五邑, 愆蠶蹲縮之患, 尙未寢息是如爲白乎旆. 今月十六日丑時量始雨, 或霏或灑, 至當日酉時開霽, 臣營下測雨器水深爲三寸是白如乎. 向後農形及各邑得雨多寡, 待其報來, 鱗次陳聞計料. 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충청도 내 농사 상황은 이미 연달아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올벼는 한창 이삭이 패고 중벼는 간혹 알을 배고, 있으며, 늦벼와 늦기장·늦조는 연이어 무성해지고 올기장·올조와 섞어 짓는 콩·팥은 점차 여물어 가며, 그루같이한 콩·팥은 막 꽃이 피기 시작하고 목화는 차례로 다래를 맺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번 달 초의 큰물로 논밭 각종 곡식이 많이 물에 잠겨서 아직도 누렇게 시들어 있는데 되살아날 가망이 없는 것이 종종 있으며, 신창 등 5개 고을은 건잠준축의 근심이 아직 그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번 달 16일 축시쯤 시작된 비는 더러 주룩주룩 내리거나 더러 뿌리다가 같은 날 유시에 이르러 개었는데 저의 감영 측우기 수심이 3치였습니다. 이후 농사 상황 및 각 고을에 내린 비의 양은 보고가 오기를 기다려 잇따라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0350. 1855년(철종 6) 7월 21일(양력 9월 2일)

忠淸監營啓錄 4책(219b~220a) /各司臚錄 7책 忠淸道篇 2책(120d~120d)

今月十六日丑時量始雨，至同日酉時開霽，測雨器水深爲三寸緣由，已爲馳啓爲白有在果。續接各邑所報，則伊日之雨，公州·保寧·魯城等三邑 得二犁，定山·藍浦·恩津·燕岐等四邑 得一犁，瑞山·石城·鴻山·韓山·舒川·連山·沃川·靑山·淸安·槐山等十邑 得一鋤是如爲白乎旆。又於今月十九日卯時量始雨，或霏或灑，至翌日午時開霽，臣營下測雨器水深，爲二寸五分是白如乎。列邑所得分數，隨其報來，鱗次陳聞計料。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이번 달 16일 축시쯤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같은 날 유시에 이르러 개었는데 측우기 수심이 3치였다는 연유는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그날 비로 공주·보령·노성 등 3개 고을은 2려가 내렸고, 정산·남포·은진·연기 등 4개 고을은 1려가 내렸고, 서산·석성·홍산·한산·서천·연산·옥천·청산·청안·괴산 등 10개 고을은 1서가 내렸다고 합니다. 또 이번 달 19일 묘시쯤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부슬부슬 내리거나 뿌리다가 이튿날 오시에 이르러 개었는데 저의 감영 측우기 수심이 2치 5푼이었습니다. 여러 고을에 내린 양은 보고가 오는 대로 잇따라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 0351. 1855년(철종 6) 7월 24일(양력 9월 5일)

忠淸監營啓錄 4책(220a~220b) /各司臚錄 7책 忠淸道篇 2책(120d~121a)

今月十六日雨澤, 公州等十七邑所得分數, 今月十九日卯時量始雨, 至翌日午時, 測雨器水深爲二寸五分緣由, 已爲馳啓爲白有在果. 續接各邑所報, 則十六日之雨, 前啓外, 忠州·陰城·永春等三邑 得一犁, 黃澗·淸風·堤川·丹陽等四邑 得一鋤, 全義·德山·延豐等三邑 沍塵是如爲白遣. 十九日之雨, 鴻山·庇仁·藍浦·保寧等四邑 川渠漲滿, 公州·扶餘·韓山·結城·懷仁·燕岐·淸州等七邑 得二犁, 牙山·禮山·淸陽·洪州·德山·海美·瑞山·石城·魯城·恩津·懷德·陰城等十二邑 得一犁, 全義·木川·天安·定山·林川·沃川·永同·淸山·淸安等九邑 得一鋤是如爲白乎旆. 平澤 今月十七日海溢, 沿海田畓各穀, 鹹水沈墊, 目下所見, 難望食實, 言念民事, 誠爲悶然是如爲白有在乎. 未報邑得雨形止, 向後農形, 待其報來, 鱗次陳聞計料. 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이번 달 16일 우택으로 공주 등 17개 고을에 내린 양과 이번 달 19일 묘시쯤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다음 날 오시에 이르러 측우기 수심이 2치 5푼인 연유는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 다. 계속해서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16일의 비로 앞서 보고한 것 외에 충주·음 성·영춘 등 3개 고을은 1려가 내렸고, 황간·청풍·제천·단양 등 4개 고을은 1서가 내렸고, 전 의·덕산·연풍 등 3개 고을은 먼지만 적실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19일의 비로 홍산·비인·남포·보령 등 4개 고을은 시내와 도랑이 불어나 가득 찼고, 공주·부여·한산·결 성·회인·연기·청주 등 7개 고을은 2려가 내렸고, 아산·예산·청양·홍주·덕산·해미·서산·석 성·노성·은진·회덕·음성 등 12개 고을은 1려가 내렸고, 전 의·목천·천안·정산·임천·옥천·영 동·청산·청안 등 9개 고을은 1서가 내렸다고 합니다. 평택은 이번 달 17일 해일이 일어나 해안 논밭의 각종 곡물이 잔물에 잠겼으니, 눈앞에 보기에 열매는 먹기를 바라기 어렵습 니다. 백성들의 사정을 생각하면 정말로 걱정스럽습니다. 아직 보고하지 않은 고을에 내린 비의 경위와 이후 농사 상황은 보고가 오기를 기다려 잇따라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 0352. 1855년(철종 6) 7월 27일(양력 9월 8일)

忠淸監營啓錄 4책(221a~221b) /各司臚錄 7책 忠淸道篇 2책(121b~121c)

道內農形及今月十九日雨澤，鴻山等三十二邑所得分數，已爲連次馳啓爲白有在果。續接各邑所報，則伊日之雨，前啓外，大興·舒川兩邑得一犁，泰安·鎭川·槐山·延豐·忠州·平薪等六邑鎭得一鋤。外他各邑，姑無所報是白遣。農形段，早稻及和種豆太，次第入實，中稻方張發穗，晚稻·晚黍粟，連爲胚胎，早黍粟漸次向黃，根耕豆太，間或結殼，木花幾皆結顆是如爲白乎旆。又於今月二十五日申時量始雨，或霏或灑，至翌日寅時開霽，臣營下測雨器水深，爲一寸一分是白如乎。向後農形及列邑得雨多寡，隨其報來，鱗次登聞計料。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충청도 내 농사 상황 및 이번 달 19일 우택으로 홍산 등 32개 고을에 내린 양은 이미 연달아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그날 비로 앞서 보고한 것 외에 대흥·서천 2개 고을은 1려가 내렸고, 태안·진천·괴산·연풍·충주·평신 등 6개 고을과 군영은 1서가 내렸으며, 그밖에 각 고을은 아직 보고한 것이 없습니다. 농사 상황의 경우, 올벼 및 섞어 짓는 콩·팥은 차례로 여물어 가고 중벼는 한창 이삭이 패고 있으며, 늦벼와 늦기장·늦조는 연이어 알을 배고, 올기장·올조는 점차 누렇게 익어가고 그루같이한 콩·팥은 간혹 꼬투리를 맺고 목화는 거의 다 다래를 맺었다고 합니다. 또 이번 달 25일 신시쯤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더러 부슬부슬 내리거나 더러 뿌리다가 이튿날 인시에 이르러 개었는데 저의 감영 측우기 수심이 1치 1푼이었습니다. 이후 농사 상황 및 여러 고을에 내린 비의 양은 보고가 오는 대로 잇따라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 0353. 1855년(철종 6) 8월 5일(양력 9월 15일)

忠淸監營啓錄 4책(221b~222a) /各司臚錄 7책 忠淸道篇 2책(121c~121d)

去月二十五日申時量始雨, 至翌日寅時<開霽>, 測雨器水深爲一寸一分緣由, 已爲馳啓爲白有在果. 續接各邑所報, 則伊日之雨, 韓山·舒川兩邑 川渠漲滿, 淸州 得二犁, 公州·木川·天安·禮山·靑陽·藍浦·懷仁·文義·鎭川等九邑 得一犁, 洪州·鴻山·庇仁·魯城·連山·燕岐·槐山·永春·平薪等九邑鎭 得一鋤, 全義·瑞山·延豐等三邑 浥塵是如爲白乎旆. 天安去月十五日沿海三面, 潮水漲溢, 田畚各穀, 舉皆沈沒, 言念民事, 誠爲悶然是如爲白有知乎. 今此海溢, 既在於去月十五日, 而不爲登時馳報, 今始報來者, 雖爲面報之遲滯, 揆以舉行, 極爲稽緩. 該郡首吏鄉, 自臣營各別嚴治. 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지난달 25일 신시쯤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이튿날 인시에 이르러 개었는데 측우기 수심이 1치 1푼인 연유는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그날 비로 한산·서천 2개 고을은 시내와 도랑이 불어나 가득 찼고, 청주는 2려가 내렸고, 공주·목천·천안·예산·청양·남포·회인·문의·진천 등 9개 고을은 1려가 내렸고, 홍주·홍산·비인·노성·연산·연기·괴산·영춘·평신 등 9개 고을과 군영은 1서가 내렸고, 전의·서산·연풍 등 3개 고을은 먼지만 적실 정도였다고 합니다. 천안은 지난달 15일에 해안의 3개 면이 바닷물이 불어나 넘쳐서 논밭의 각종 곡식이 대부분 물에 잠겼으니 백성들의 사정을 생각하면 정말로 걱정스럽다고 합니다. 이번 해일은 이미 지난달 15일에 있었는데 즉시 긴급 보고하지 않고 지금 비로소 보고해 온 것은 비록 면의 보고가 지체되었기 때문이지만 살펴보건대 거행하는 도리상 매우 늦은 것입니다. 해당 군의 우두머리 아전과 향임을 저의 감영에서 각별히 엄중하게 다스렸습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0354. 1855년(철종 6) 8월 8일(양력 9월 18일)

忠淸監營啓錄 4책(222a~222b) /各司臚錄 7책 忠淸道篇 2책(122a~122a)

道內農形, 已爲連次馳啓爲白有在果. 續接各邑所報, 則早稻·早黍粟及和種豆太, 次第向熟, 中稻方張受辛, 晚稻·晚黍粟, 幾皆發穗, 根耕豆太, 連爲結穀, 木花間或綻絮是如爲白乎於. 今月初七日申時量始雨, 或霏或灑, 至翌日午時開霽, 臣營下測雨器水深, 爲一寸六分是白如乎. 向後農形及各邑得雨多寡, 待其報來, 鱗次陳聞計料. 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충청도 내 농사 상황은 이미 연달아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올벼와 올기장·올조 및 섞어 짓는 콩·팥은 차례로 익어가고, 중벼는 한창 고통을 겪고 있으며 늦벼와 늦기장·늦조는 거의 모두 이삭이 패고 그루같이한 콩·팥은 연이어 꼬투리를 맺고 목화는 간혹 솜이 터진다고 합니다. 이번 달 초7일 신시쯤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부슬부슬 내리거나 뿌리다가 이튿날 오시에 이르러 개었는데 저의 감영 측우기 수심이 1치 6푼이었습니다. 이후 농사 상황 및 각 고을에 내린 비의 양은 보고가 오기를 기다려 잇따라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 0355. 1855년(철종 6) 8월 13일(양력 9월 23일)

忠淸監營啓錄 4책(222b~223a) /各司臚錄 7책 忠淸道篇 2책(122a~122b)

今月初七日申時量始雨，至翌日午時開霽，測雨器水深爲一寸六分緣由，已爲馳啓爲白有在果，續接各邑所報，則伊日之雨，公州·靑陽·禮山·靑山·大興·洪州·德山·瑞山·韓山·藍浦·保寧·結城·魯城·燕岐·淸州等十五邑 得一犁，全義·木川·新昌·唐津·海美·扶餘·鴻山·沃川·永同·黃澗·靑山·鎭川·淸安·陰城·槐山·平薪等十六邑 得一鋤，稷山·連山·堤川等三邑，沍塵是如爲白乎旆，外他各邑，姑無所報是白如乎，未報邑所得分數，隨其報來，鱗次陳聞計料，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이번 달 초7일 신시쯤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이튿날 오시에 이르러 개었는데 측우기 수심이 1치 6푼인 연유는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그날 비로 공주·청양·직산·청산·대흥·홍주·덕산·홍산·한산·남포·보령·결성·노성·연기·청주 등 15개 고을은 1려가 내렸고, 전의·목천·신창·당진·해미·부여·홍산·옥천·영동·황간·청산·진천·청안·음성·괴산·평신 등 16개 고을은 1서가 내렸고, 직산·연산·제천 등 3개 고을은 먼지만 적실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 밖의 각 고을은 아직 보고한 것이 없습니다. 아직 보고하지 않은 고을에 내린 양은 보고가 오는 대로 잇따라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 0356. 1855년(철종 6) 8월 21일(양력 10월 1일)

忠淸監營啓錄 4책(228b~229a) /各司臚錄 7책 忠淸道篇 2책(125d~125d)

道內農形及今月十三日午時量始雨，至十五日酉時，測雨器水深爲一寸五分緣由，已爲連次馳啓爲白有在果。十五日酉時以後，間或霏微，載陰載暘，至十六日午時，仍爲開霽，更無所得分數是白遣。續接各邑所報，則伊日之雨，公州·天安·牙山·庇仁·保寧·燕岐·淸州等七邑 得一犁，新昌·禮山·扶餘·魯城·淸安·忠州等六邑 得一鋤，石城·鴻山·恩津·連山等四邑 浥塵是如爲白乎旆。農形段，早稻·早黍粟及和種豆太，漸次黃熟，中稻幾盡垂穎，晚稻·晚黍粟，方張受辛，根耕豆太次第入實，木花間間摘取是如爲白如乎。向後農形及未報邑得雨多寡，隨其報來，鱗次陳聞計料 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충청도 내 농사 상황 및 이번 달 13일 오시쯤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15일 유시에 이르러 측우기 수심이 1치 5푼인 연유는 이미 연달아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15일 유시 이후 간혹 부슬부슬 내리다가 언뜻언뜻 흐렸다 별이 났다 하더니 16일 오시에 이르러 이내 개었는데 다시 내린 양은 없습니다. 계속해서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그날 비로 공주·천안·아산·비인·보령·연기·청주 등 7개 고을은 1려가 내렸고, 신창·예산·부여·노성·청안·충주 등 6개 고을은 1서가 내렸고, 석성·홍산·은진·연산 등 4개 고을은 먼지만 적실 정도였다고 합니다.

농사 상황의 경우, 올벼와 올기장·올조 및 섞어 짓는 콩·팥은 점차 누렇게 익어가고 중벼는 거의 다 이삭이 고개를 숙였고, 늦벼와 늦기장·늦조는 한창 고통을 겪고 있으며 그루갈이한 콩과 팥은 차례로 여물어 가고 목화는 간간이 솜을 따서 거두고 있다고 합니다. 이후 농사 상황 및 아직 보고하지 않은 고을에 내린 비의 양은 보고가 오는 대로 잇따라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 0357. 1855년(철종 6) 8월 24일(양력 10월 4일)

忠淸監營啓錄 4책(229a~229b) /各司臚錄 7책 忠淸道篇 2책(126a~126a)

今月十三日之雨, 至十五日, 公州等十七邑所得分數, 已爲馳啓爲白有在果. 續接各邑所報, 則伊日之雨, 前啓外, 丹陽·永春兩邑 江川汎濫, 平澤·陰城·槐山·堤川等四邑 川渠漲滿, 瑞山·文義·鎭川·淸風等四邑 得二犁, 木川·靑陽·洪州·德山·靑山·報恩·延豐·平薪等八邑鎭 得一犁, 全義·韓山·結城·沃川·黃澗等五邑 得一鋤, 稷山·舒川·永同等三邑沍塵. 外他各邑, 俱無所報是白乎所. 此時風雨, 農家所忌, 而連日霏灑, 穽風兼作, 向黃之禾, 入實之穀, 多致摧敗. 而涼意頗促, 無望蘇醒. 言念民事, 誠切悶然是如爲白乎旆. 前啓新昌等五邑, 愆蹲之患, 尙未寢息是如爲白有等以. 緣由馳啓爲白臥乎事.

이번 달 13일부터 15일까지 공주 등 17개 고을에 내린 비의 양은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그날 비로 앞서 보고한 것 외에 단양·영춘 2개 고을은 강과 시내가 범람하였고, 평택·음성·괴산·제천 등 4개 고을은 시내와 도랑이 불어나 가득 찼고, 서산·문의·진천·청풍 등 4개 고을은 2려가 내렸고, 목천·청양·홍주·덕산·청산·보은·연풍·평신 등 8개 고을과 군영은 1려가 내렸고, 전의·한산·결성·옥천·황간 등 5개 고을은 1서가 내렸고, 직산·서천·영동 등 3개 고을은 먼지만 적실 정도였으며, 그밖에 각 고을은 모두 보고한 것이 없습니다. 이 시기의 바람과 비는 농가에서 꺼리는데 연일 부슬부슬 내리기고 뿌리며 사나운 바람까지 겹치니 누렇게 익어가던 벼와 여물어 가던 곡식들이 꺾이고 망가진 것이 많습니다. 그런데 서늘해지려는 조짐이 자못 급해지니 되살아날 가망이 없습니다. 백성들의 사정을 생각하면 정말로 매우 걱정스럽다고 합니다. 앞서 보고한 신창 등 5개 고을의 건잠준축 근심은 아직 그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연유를 긴급 보고합니다.



0358. 1855년(철종 6) 8월 28일(양력 10월 8일)

忠淸監營啓錄 4책(229b~229b) /各司臚錄 7책 忠淸道篇 2책(126a~126b)

今月二十七日寅時量始雨，或霏或灑，至同日亥時開霽，臣營下測雨器水深爲八寸是白如乎。  
列邑得雨多寡，待其報來，鱗次陳聞計料。緣由馳啓爲白臥乎事。

이번 달 27일 인시쯤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더러 부슬부슬 내리거나 더러 뿌리다가 같은  
날 해시에 이르러 개었는데 저의 감영 측우기 수심이 8치였습니다. 여러 고을에 내린  
비의 양은 보고가 오기를 기다려 잇따라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긴급 보고합니다.

### 0359. 1855년(철종 6) 8월 30일(양력 10월 10일)

忠淸監營啓錄 4책(229b~230a) /各司臚錄 7책 忠淸道篇 2책(126b~126c)

道內農形及今月二十七日寅時量始雨，至同日亥時開霽，臣營下測雨器水深爲八分[寸]緣由，已爲連次馳啓爲白有在果。續接各邑所報，則伊日之雨，禮山·燕歧兩邑 得一犁，公州·報恩·鎭川等三邑 得一鋤，扶餘·鴻山·韓山·魯城等四邑 浥塵是如爲白乎旆。農形段，早稻·早黍粟及和種豆太，次第刈穫，中稻方張向熟，晚稻及晚黍粟，根耕豆太，幾皆成實，木花連爲摘取。而冷雨頻仍，節序早涼，晚就各穀，未熟徑枯。平澤又發蟲蝕之患，早晚禾穀，多致痒損是如爲白有如乎。向後形止，未報邑得雨分數，待其報來，鱗次陳聞計料。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충청도 내 농사 상황 및 이번 달 27일 인시쯤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같은 날 해시에 이르러 개었는데 측우기 수심이 8치인 연유는 이미 연달아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그날 비로 예산·연기 2개 고을은 1려가 내렸고, 공주·보은·진천 등 3개 고을은 1서가 내렸고, 부여·홍산·한산·노성 등 4개 고을은 먼지만 적실 정도였다고 합니다.

농사 상황의 경우, 올벼와 올기장·올조 및 섞어 짓는 콩·팥은 차례로 베어 수확하고 중벼는 한창 익어가고 있으며, 늦벼 및 늦기장·늦조와 그루같이한 콩과 팥은 거의 다 여물었고 목화는 연이어 숨을 따서 거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찬비가 빈번하고 절기가 일찍 서늘해져서 미처 익지 못하고 지레 말라 버립니다. 평택은 또 벌레 먹는 재해가 발생하여 올되는 것이든 늦되는 것이든 벼와 곡식이 손상되는 것이 많다고 합니다. 이후 경위는 아직 보고하지 않은 고을에 내린 비의 양은 보고가 오기를 기다려 잇따라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 0360. 1855년(철종 6) 9월 3일(양력 10월 13일)

忠淸監營啓錄 4책(230a~230b) /各司臚錄 7책 忠淸道篇 2책(126c~126d)

去月二十七日之雨, 禮山等九邑所得分數, 已爲馳啓爲白有在果. 續接各邑所報, 則伊日之雨, 前啓外, 新昌·大興·瑞山·保寧·淸州等五邑 得一犁, 木川·淸安·忠州·平薪等四邑鎭 得一鋤是如爲白遣. 公州·全義·木川·溫陽·禮山·定山·瑞山·鴻山·保寧·懷德·懷仁·淸州·陰城·槐山等十四邑, 去月二十八日夜霜降是如爲白乎旂. 又於今月初二日卯時量始雨, 或霏或灑, 至翌日辰時開霽, 臣營下測雨器水深爲三寸是白如乎. 霜信旣早, 冷雨兼霏, 將穫之禾, 在在摧敗, 晚就之穀, 亦多枯萎. 而唐津近有愆蠶蹲縮之患, 早晚各穀, 多致腐消是如爲白有臥乎所. 向後形止, 鱗次陳聞計料. 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지난달 27일의 비로 예산 등 9개 고을에 내린 양은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그날 비로 앞서 보고한 것 외에 신창·대흥·서산·보령·청주 등 5개 고을은 1려가 내렸고, 목천·청안·충주·평신 등 4개 고을과 군영은 1서가 내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공주·전의·목천·온양·예산·정산·서산·홍산·보령·회덕·회인·청주·음성·괴산 등 14개 고을은 지난달 28일 밤에 서리가 내렸다고 합니다. 또 이번 달 초2일 묘시쯤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더러 주룩주룩 내리거나 더러 뿌리다가 이튿날 진시에 이르러 개었는데, 저의 감영 측우기 수심이 3치였습니다. 서리 소식은 이미 이른데다가 찬비가 함께 주룩주룩 내리니 앞으로 수확할 벼는 곳곳에서 꺾이고 쓰러지며 늦게 여우는 곡식도 마르고 시드는 것이 많습니다. 그리고 당진은 근래 건잠준축의 근심이 있으며 올되거나 늦되는 각종 곡식이 썩어 문드러지는 것이 많다고 합니다. 이후 경위는 잇따라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 0361. 1855년(철종 6) 9월 8일(양력 10월 18일)

忠淸監營啓錄 4책(231a~231b) /各司臚錄 7책 忠淸道篇 2책(126d~127a)

道內農形及去月二十八日夜，公州等十四邑霜降，今月初二日卯時量始雨，至翌日辰時開霽，測雨器水深爲三寸緣由，已爲連次馳啓爲白有在果。續接各邑所報，則前啓外，稷山·牙山·沔川·舒川·藍浦·沃川·靑山·延豐·堤川等九邑 亦於去月二十八日夜霜降，平澤·德山·唐津·扶餘·韓山·永春等六邑 二十九日夜霜降，林川·恩津兩邑 今月初四日夜霜降是如爲白遣。初二日之雨，靑陽 得二犁，大興·石城·報恩·黃澗·忠州等五邑 得一犁，鎭川 得一鋤，外他各邑〈鎭〉，俱無所報是白乎旆。農形段，早稻·早黍粟及和種豆太，幾盡收穫，中稻次第刈取，晚稻·晚黍粟及根耕豆太，俱已黃熟，木花幾皆摘取。而汚下畚則愆·蹲比甚，沿海處則潮溢偏酷，霜信遽促，晚種未得善就，冷雨頻仍，早稻亦多摧損是如爲白有臥乎所。大抵今年穡事，統以論之，可謂沿峽俱登，分而言之，未免災實互錯是白如乎。列邑分等酌量磨鍊，迫于登聞計料。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충청도 내 농사 상황 및 지난달 28일 밤에 공주 등 14개 고을은 서리가 내리고, 이번 달 초2일 묘시쯤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이튿날 진시에 이르러 개었는데 측우기 수심이 3치인 연유는 이미 연달아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앞서 보고한 것 외에 직산·아산·면천·서천·남포·옥천·청산·연풍·제천 등 9개 고을도 지난달 28일 밤에 서리가 내렸고, 평택·덕산·당진·부여·한산·영춘 등 6개 고을은 29일 밤에 서리가 내렸고, 임천·은진 2개 고을은 이번 달 초4일 밤에 서리가 내렸다고 합니다. 초2일의 비로 청양은 2려가 내렸고, 대흥·석성·보은·황간·충주 등 5개 고을은 1려가 내렸고, 진천은 1서가 내렸으며, 그밖에 각 고을과 군영은 모두 보고한 것이 없습니다. 농사 상황의 경우, 올벼와 올기장·올조 및 섞어 짓는 콩·팥은 거의 다 수확했고, 중벼는 차례로 베어서 거두며 늦벼와 늦기장·늦조 및 그루같이한 콩·팥은 이미 모두 누렇게 익었고 목화는 거의 다 솜을 따서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낮은 지대의 논은 건잠준축의 근심이 비교적 심하고 해안 지역은 바닷물이 넘쳐 피해가 매우 큼을 걱정합니다. 서리 소식이 급박하니 늦게 심은 것은 미처 제대로 여물지 못하고 찬비가 빈번하여 올벼도 꺾여서 손상된

것이 많다고 합니다. 대체로 올해 농사는 통틀어 말하자면 해안과 골짜기 모두 잘됐다 할만하고, 구분하여 말하자면 재해와 결실이 서로 쉬였음을 면하지 못하겠습니다. 여러 고을의 풍흉 등급은 참작해서 마련하여 나중에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 0362. 1861년(철종 12) 3월 1일(양력 4월 10일)

忠淸監營啓錄 5책(1b~1b) /各司臚錄 7책 忠淸道篇 2책(135b~135b)

去月二十六日午時量始雨，至二十七日辰時，臣營下水深爲四分緣由，已爲馳啓爲白有在果。二十七日辰時以後，連爲陰翳，間間霏灑，至三十日申時開霽，臣營下測雨器水深，又爲七分是白乎旆。續接各邑所報，則公州·全義·木川·禮山·靑陽·藍浦等六邑 得一犁，定山·大興·德山·沔川·魯城·恩津·燕岐·陰城等八邑 得一鋤，天安·牙山·溫陽·洪州·瑞山·扶餘·石城·林川·鴻山·韓山·連山·懷德·靑山·報恩·文義·淸安等十六邑 浥塵是如爲白有臥乎所。未報邑形止，待其報來，鱗次陳聞計料。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지난달 26일 오시쯤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27일 진시에 이르러 저의 감영 측우기 수심이 4푼인 연유는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27일 진시 이후 연이어 짙은 구름이 끼고 간간이 부슬부슬 내리거나 뿌리다가 30일 신시에 이르러 개었는데 저의 감영 측우기 수심이 또 7푼이었습니다. 계속해서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공주·전의·목천·예산·청양·남포 등 6개 고을은 1려가 내렸고, 정산·대흥·덕산·면천·노성·은진·연기·음성 등 8개 고을은 1서가 내렸고, 천안·아산·온양·홍주·서산·부여·석성·임천·홍산·한산·연산·회덕·청산·보은·문의·청안 등 16개 고을은 먼지만 적실 정도였다고 합니다. 아직 보고하지 않은 고을의 경위는 보고가 오기를 기다려 잇따라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 0363. 1861년(철종 12) 4월 7일(양력 5월 16일)

忠淸監營啓錄 5책(1b~2a) /各司臚錄 7책 忠淸道篇 2책(135b~135c)

道內農形及今月初二日之雨, 公州等二十二邑所得分數, 已爲連次馳啓爲白有在果. 續接各邑所報, 則伊日之雨, 前啓外, 沔川·藍浦·保寧·永同·黃澗·靑山·報恩·淸風·槐山等九邑 得二犁, 平澤·牙山·唐津·海美·瑞山·泰安·鴻山·韓山·舒川·庇仁·結城·連山·鎭岑·懷仁·鎭川·淸安·延豐·陰城·忠州·淸風·堤川·丹陽·永春·平薪等二十四邑鎭 得一犁是如爲白乎旆. 農形段, 秋麴方張胚胎, 間或發穗, 春麴漸次向茂, 注秧付種, 幾至了畢, 早黍粟·和種豆太及木花, 次第耕播是如爲白有臥乎所. 向後形止, 鱗次陳聞計料. 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충청도 내 농사 상황 및 이번 달 초2일의 비로 공주 등 22개 고을에 내린 양은 이미 연달아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그날 비로 앞서 보고한 것 외에 면천·남포·보령·영동·황간·청산·보은·청풍·괴산 등 9개 고을은 2려가 내렸고, 평택·아산·당진·해미·서산·태안·홍산·한산·서천·비인·결성·연산·진잠·회인·진천·청안·연풍·음성·충주·청풍·제천·단양·영춘·평신 등 24개 고을과 군영은 1려가 내렸다고 합니다.

농사 상황의 경우, 가을보리는 한창 알을 배고, 있는데 간혹 이삭이 패고 봄보리는 점차 무성해지며, 못자리에 물을 대고 무논에 볍씨를 뿌리는 일은 거의 끝나기에 이르렀고, 올기장·올조와 섞어 짓는 콩·팥 및 목화는 차례로 갈아서 씨앗을 뿌린다고 합니다. 이후 경위는 잇따라 아뿔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0364. 1861년(철종 12) 4월 10일(양력 5월 19일)

忠淸監營啓錄 5책(2a~2b) /各司謄錄 7책 忠淸道篇 2책(135c~135d)

今月初九日申時量始雨，或霏或灑，至初十日辰時開霽，臣營下測雨器，水深爲八分是白如乎。  
各邑所得分數，待其報來，鱗次陳聞計料。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이번 달 초9일 신시쯤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더러 부슬부슬 내리거나 더러 뿌리다가  
초10일 진시에 이르러 개었는데 저의 감영 측우기 수심이 8푼이었습니다. 각 고을에  
내린 양은 보고가 오기를 기다려 잇따라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  
다.



0365. 1861년(철종 12) 4월 27일(양력 6월 5일)

忠淸監營啓錄 5책(12a~12a) /各司臚錄 7책 忠淸道篇 2책(140c~140d)

道內農形, 已爲連次馳啓爲白有在果. 續接各邑所報, 則秋麴次第入實, 春麴方張胚胎, 注秧付種, 漸次茁長, 早黍粟·和種豆太及木花, 已皆立苗是如爲白有臥乎所. 向後形止, 鱗次陳聞計料. 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충청도 내 농사 상황은 이미 연달아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가을보리는 차례로 알이 들고 봄보리는 한창 알을 배고, 있으며, 못자리에 물을 대고 무논에 벼씨를 뿌린 것은 점차 싹이 자라고, 올기장·올조와 섞어 짓는 콩·팥 및 목화는 이미 다 싹이 돋았다고 합니다. 이후 경위는 잇따라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 0366. 1861년(철종 12) 5월 28일(양력 7월 5일)

忠淸監營啓錄 5책(26a~26b) /各司臚錄 7책 忠淸道篇 2책(147c~147d)

道內農形及今月二十二日之雨, 公州等二十六邑所得分數, 已爲連次馳啓爲白有在果. 續接各邑所報, 則伊日之雨, 前啓外, 稷山·黃澗·靑山等三邑 得二犁, 洪州·沔川·唐津·瑞山·藍浦·保寧·結城·忠州·淸風·堤川·丹陽·永春·平薪等十三邑鎮 得一犁, 平澤·牙山·新昌·海美·泰安·瑞山·舒川·庇仁·沃川·永同·陰城·槐山·延豐等十三邑 得一鋤是如爲白遣. 農形段, 秋粃已盡登場, 春粃次第刈穫, 畚庫幾皆移秧, 而早移者, 間間初鋤, 付種乾播, 幾盡初除草, 早黍粟·和種豆太及木花, 方始再除草, 根耕豆太及晚黍粟, 間或耕播是如爲白有臥乎所. 向後農形, 鱗次陳聞計料. 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충청도 내 농사 상황 및 이번 달 22일의 비로 공주 등 26개 고을에 내린 양은 이미 연달아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그날 비로 앞서 보고한 것 외에 직산·황간·청산 등 3개 고을은 2려가 내렸고, 홍주·면천·당진·서산·남포·보령·결성·충주·청풍·제천·단양·영춘·평신 13개 고을과 군영은 1려가 내렸고, 평택·아산·신창·해미·태안·서산·서천·비인·옥천·영동·음성·괴산·연풍 등 13개 고을은 1서가 내렸다고 합니다.

농사 상황의 경우, 가을보리는 이미 다 타작했고 봄보리는 차례로 베어 수확하고 있으며 논에는 거의 다 모내기하였습니다. 그리고 일찍 모내기한 것은 간간이 초벌 김매기를 하고 무논에 볍씨를 뿌리거나 마른 논에 씨앗을 뿌린 것은 거의 다 초벌 김매기를 하였습니다. 올기장·올조와 섞어 짓는 콩·팥 및 목화는 비로소 재벌 김매기를 하고 그루갈이하는 콩·팥 및 늦기장·늦조는 간혹 갈아서 씨앗을 뿌린다고 합니다. 이후의 농사 상황은 잇따라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 0367. 1861년(철종 12) 6월 18일(양력 7월 25일)

忠淸監營啓錄 5책(31a~31b) /各司謄錄 7책 忠淸道篇 2책(150a~150b)

道內農形, 已爲連次馳啓爲白有在果. 續接各邑所報, 則五月念晦, 數次雨澤, 非不優洽, 一自其後二旬亢旱, 川洑舉皆斷流, 汚濕亦就乾涸, 高燥晚移之秧, 未及着根, 貼地徑枯, 雖其洞畓早移者, 膏澤未霑, 茁長未望. 而公州·恩津·靑陽·扶餘·新昌·溫陽·沃川·連山·全義等九邑, 且有愆蠶蹲縮之患, 痒損不少, 早黍粟·和種豆太及晚黍粟, 弱苗纔萌, 旋即枯損, 遑急之報, 一辭同然. 而其中公州·鴻山兩邑, 請行祈雨祭是白如乎. 鋤後之旱, 卽農家之所最忌, 而移秧之後, 跨朔嘆乾, 田畓各穀, 日就萎枯. 目下民情, 萬萬渴悶乙仍于, 公州·鴻山兩邑, 祈雨祭, 使之不卜日虔誠設行, 期得冥應之地. 而外此各邑, 隨其請報, 亦令次第設行計料. 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충청도 내 농사 상황은 이미 연달아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5월 20일부터 그믐 사이에 몇 차례 우택은 흠족하지 못하였고, 그 후 20일 동안 줄곧 가물어서 시내나 보는 대부분 흐르던 물줄기가 끊어지고 웅덩이와 축축하던 땅도 메말랐으며 높고 메마른 지대에 늦게 모내기한 벼는 미처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땅에 달라붙은 채 지레 말랐습니다. 비록 동네 논에 일찍 모내기한 것이라도 단비가 적시지 못해 쭉쭉 자랄 가마가 없습니다. 공주·은진·청양·부여·신창·온양·옥천·연산·전의 등 9개 고을은 또 건잠준축의 근심이 발생하여 손상이 적지 않습니다. 올기장·올조와 섞어 짓는 콩·팥 및 늦기장·늦조는 연약한 싹이 나오자마자 곧바로 말라 버립니다. 황급한 보고가 한결같이 같은 내용입니다. 그 가운데 공주와 홍산 2개 고을은 기우제 지내기를 요청했습니다. 김매기한 뒤의 가뭄은 바로 농가에서 가장 꺼리는데, 모내기한 뒤 한 달에 걸쳐 심한 가뭄이 들어 논밭의 각종 곡식이 날마다 시들어갑니다. 눈앞의 백성들 사정은 매우 절실하게 걱정하고 있으므로 공주와 홍산 2개 고을의 기우제는 날을 가리지 말고 경건하고 정성스럽게 시행하여 기어코 신령의 감응을 얻게 하였습니다. 그 밖의 각 고을은 요청하는 보고에 따라 또한 차례로 시행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 0368. 1861년(철종 12) 6월 22일(양력 7월 29일)

忠淸監營啓錄 5책(31b~32a) /各司臚錄 7책 忠淸道篇 2책(150b~150c)

道內公州等三邑, 祈雨祭請行之由, 及今月十九日午時量始雨, 至二十日辰時, 臣營下水深爲一寸二分緣由, 已爲連次馳啓爲白有在果. 二十日辰時以後, 載陰載陽, 或霏或灑, 至二十一日午時, 仍爲暴霽, 至二十二日辰時, 測雨器水深, 又爲一尺二寸四分, 而尙此霏灑不止是白如乎. 各邑雨澤之如何, 雖姑未知, 而以臣營下所見言之, 則不啻過中是白乎旃. 續接各邑所報, 則公州 江川汎濫, 魯城 川渠漲溢, 全義·木川·天安·稷山·牙山·溫陽·禮山·定山·靑陽·洪州·德山·扶餘·石城·林川·鴻山·韓山·恩津·連山·鎭岑等二十一邑 先以始雨形止報來是白乎旃. 祈雨祭段, 前啓請行邑中, 公州得雨之後, 不爲設行, 恩津今月二十日爲始設行, 前啓外, 魯城·禮山兩邑, 以其民事之切急, 纔有請行之報, 繼有設行之報, 二十日爲始設行, 而魯城則雨澤優洽, 仍卽停止是如爲白有臥乎所. 向後形止及各邑所得多寡, 鱗次陳聞計料. 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충청도 내 공주 등 3개 고을이 기우제 시행을 요청한 사유 및 이번 달 19일 오시쯤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20일 진시에 이르러 저의 감영 측우기 수심이 1치 2푼인 연유는 이미 연달아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20일 진시 이후 언뜻언뜻 흐렸다 별이 났다 하더니 더러 부슬부슬 내리거나 더러 뿌리다가 21일 오시에 이르러 이내 세차게 쏟아지더니 22일 진시에 이르러 측우기 수심이 또 1자 2치 4푼이었는데, 아직도 이렇게 부슬부슬 내리거나 뿌리면서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각 고을의 우택이 어떠한지는 비록 아직 알지 못하지만 저의 감영에서 본 것으로 말하자면 걱정한 정도를 지나쳤을 뿐만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공주는 강과 시내가 범람하였고, 노성은 시내와 도랑이 불어나 넘쳤고, 전의·목천·천안·직산·아산·온양·예산·정산·청양·홍주·덕산·부여·석성·임천·홍산·한산·은진·연산·진잠 등 21개 고을은 비가 내리기 시작한 경위를 먼저 보고해 왔습니다. 기우제의 경우 앞서 보고에서 기우제 시행을 요청한 고을 가운데 공주는 비가 내린 뒤 시행하지 않았고 은진은 이번 달 20일부터 시행했습니다. 앞서 보고한 것 외에 노성과 예산 2개 고을은 농사가 아주 다급해 기우제 시행을 요청하는 보고를

하자마자 이어서 시행했다고 보고하였는데 20일부터 시행했습니다. 노성은 우택이 흡족하여 곧바로 중지했다고 합니다. 이후 경위 및 각 고을에 내린 양은 잇따라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 0369. 1861년(철종 12) 6월 28일(양력 8월 4일)

忠淸監營啓錄 5책(32a~32b) /各司臚錄 7책 忠淸道篇 2책(150c~151a)

道內農形, 自今月十九日, 至二十三日之雨, 公州等三十邑, 被災形止, 已爲連次馳啓爲白有在果. 續接各邑所報, 則前啓外, 槐山·忠州·淸風等三邑 江川汎濫, 平澤·沔川·唐津·海美·瑞山·平薪等六邑鎮 川渠漲滿, 而依山近水之地, 田畝之汰覆, 穀苗之沈沒, 在在皆然, 民家漂頽, 人命滄壓, 亦多有之是白遣. 農形段, 田畝之偏被水患, 潰決沈墊, 屢日渟滯處, 蘇醒無期, 多屬全棄, 外此付種乾播及早移秧, 再鋤垂畢, 黍粟豆太, 無論早晚, 纔經巨浸, 耘役姑停, 木花是最惡濕之種, 而莖葉受病, 無望善就, 前啓中, 公州等九邑, 愆蠶蹲縮, 尙未寢息, 前啓外, 燕岐·稷山·德山·石城·牙山等五邑 又有此災, 瘁損甚多是如爲白有臥乎所. 潰決堤墜, 董飭修築, 漂頽家舍, 摘奸結構, 滄壓死人等, 助需掩埋之意, 發關申飭爲白乎旆. 又於今月二十七日丑時量始雨, 或霏或灑, 至同日午時開霽, 臣營下測雨器水深爲二寸五分是白如乎. 向後農形, 各邑所得及漂頽戶滄壓死人等, 待其報來, 鱗次陳聞計料. 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충청도 내 농사 상황으로 이번 달 19일부터 23일까지의 비로 공주 등 30개 고을의 재해 상황은 이미 연달아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앞서 보고한 것 외에 괴산·충주·청풍 등 3개 고을은 강과 시내가 범람하였고, 평택·면천·당진·해미·서산·평신 등 6개 고을과 군영은 시내와 도랑이 불어나 가득 찼다고 합니다. 산자락이나 물에 가까운 지역은 논밭이 사태로 덮이고 곡식 싹이 잠겼는데 곳곳이 다 그렇습니다. 백성 집이 떠내려갔거나 무너지고 사람이 물에 빠져 죽거나 깔려 죽은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농사 상황의 경우, 논밭이 수해를 심하게 입었는데 독이 터져 물에 잠기고 여러 날 물이 고인 곳은 되살아날 기약이 없으니 전부 포기하게 되는 것이 많을 듯합니다. 이밖에 무논에 벼씨를 뿌리거나 마른 논에 씨앗을 뿌린 것 및 일찍 모내기한 것은 두벌 김매기를 거의 마쳤고, 기장·조와 콩·팥은 올되든 늦되든 따질 것 없이 큰 침수를 겪자마자 김매는 일을 일단 중지했으며, 목화는 습지를 가장 싫어하는 종류이니 줄기와 잎이 병들어 잘 자랄 가망이 없습니다. 앞서 보고한 것 가운데 공주 등 9개 고을은 건잠준축의 근심이

아직 그치지 않고, 앞서 보고한 것 외에 연기·직산·덕산·석성·아산 등 5개 고을도 이런 재해가 발생하여 손상이 매우 많다고 합니다. 방죽과 두둑이 터진 곳은 단단히 지시하여 고쳐 쌓고 떠내려갔거나 무너진 백성 집은 캐보고 집을 지어주며 물에 빠져 죽었거나 깔려 죽은 사람들은 준비물을 도와주어 묻도록 하라는 뜻으로 공문을 보내 단단히 지시하였습니다. 또 이번 달 27일 축시쯤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더러 주룩주룩 내리거나 뿌리다가 같은 날 오시에 이르러 개었는데 저의 감영 측우기 수심이 2치 5푼이었습니다. 이후 농사 상황과 각 고을에 내린 것 및 떠내려가거나 무너진 가구·물에 빠져 죽거나 깔려 죽은 사람 등은 보고가 오기를 기다려 잇따라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 0370. 1861년(철종 12) 7월 19일(양력 8월 24일)

忠淸監營啓錄 5책(37b~38b) /各司臚錄 7책 忠淸道篇 2책(153c~153d)

道內農形及今月十四日卯時始雨, 至同日申時, 臣營下測雨器水深爲一寸三分緣由, 已爲連次馳啓爲白有在果, 續接各邑所報, 則伊日之雨, 公州·木川·定山·大興·德山·沔川·林川·藍浦·燕岐等九邑得一犁, 全義·天安·稷山·平澤·溫陽·青陽·洪州·海美·瑞山·扶餘·石城·鴻山·結城·鎭川·淸安·槐山·陰城·忠州等十八邑得一鋤, 牙山·禮山·魯城·恩津等四邑 沍塵是如爲白遣. 農形段, 早稻間或胚胎, 早黍粟方始發穗, 中稻漸次向茂, 晚移秧幾皆再鋤, 和種豆太及木花, 次第起花, 根耕豆太及晚黍粟, 連爲再除草. 前啓中, 恩津等十六邑, 愆蠶蹲縮, 尙未寢息, 舒川蟹損, 愈往愈熾. 前啓外, 林川亦有愆蠶蹲縮, 牙山又有蟲災痒損, 平澤今月十六日, 海潮汎溢, 沿浦之坪, 堰堤潰決, 禾稼沈損是如爲白有臥乎所. 向後農形及各邑得雨多寡, 隨其報來, 鱗次陳聞計料. 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충청도 내 농사 상황 및 이번 달 14일 묘시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같은 날 신시에 이르러 저의 감영 측우기 수심이 1치 3푼인 연유는 이미 연달아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그날 비로 공주·목천·정산·대항·덕산·면천·임천·남포·연기 등 9개 고을은 1려가 내렸고, 전의·천안·직산·평택·온양·청양·홍주·해미·서산·부여·석성·홍산·결성·진천·청안·괴산·음성·충주 등 18개 고을은 1서가 내렸고, 아산·예산·노성·은진 등 4개 고을은 먼지만 적실 정도였다고 합니다.

농사 상황의 경우, 올벼는 간혹 알을 배고, 올기장·올조는 비로소 이삭이 패고 있으며 중벼는 점차 무성해지고 늦게 모내기한 것은 거의 다 두벌매기하였으며, 섞어 짓는 콩·팥 및 목화는 차례로 꽃이 피고 그루같이한 콩·팥 및 늦기장·늦조는 연이어 두벌 김매기를 하였습니다. 앞서 보고한 것 가운데 은진 등 16개 고을은 건잠준축의 근심이 아직 그치지 않고 있으며 서천은 게로 인한 손해가 갈수록 더 퍼지고 있습니다. 앞서 보고한 것 외에 임천도 건잠준축의 근심이 발생하고 아산도 벌레 재해의 손상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리고 평택은 이번 달 16일 바닷물이 범람하여 연안과 포구의 들판 방죽과 독이 터져 벼가 잠겨 손상됐다고 합니다. 이후 농사 상황 및 각 고을에 내린 비의 양은 보고가 오는 대로 잇따라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 0371. 1861년(철종 12) 7월 29일(양력 9월 3일)

忠淸監營啓錄 5책(38b~39a) /各司臚錄 7책 忠淸道篇 2책(153d~154a)

道內農形, 及今月二十一日酉時, 始雨, 至同日戌時, 臣營下水深爲一寸五分緣由, 已爲連次馳啓爲白有在果. 續接各邑所報, 則伊日之雨, 公州 得一犁, 全義·石城兩邑 得一鋤, 魯城·恩津兩邑 浥塵是如爲白遣. 農形段, 早稻間或發穗, 早黍粟方始入實, 中稻漸次胚胎, 晚稻再鋤垂畢, 和種豆太, 漸看結穀, 木花間間結穎, 根耕豆太及晚黍粟, 次第起花. 前啓中, 恩津等十一邑 愆蠶蹲縮, 尙未寢息, 溫陽·連山·燕歧·德山·石城·林川等六邑 愆蹲愈往愈甚, 牙山蟲食, 舒川蟹損, 愈熾未息, 石城·新昌兩邑 兼發蟲災, 受損非輕. 前啓外, 懷德·藍浦·禮山等三邑, 又發蟲災, 痒稼不少是白遣. 今月三次之雨, 未免數時驟過, 而所下既非優洽, 派及又未周遍, 從又彌月蒸鬱, 田畝各穀, 無不受病. 而木花之凋落穎房, 豆太之蟲剝稗穀, 在在皆然, 禾穀之方胎者未發, 已穗者未垂, 無論早晚禾稼, 難期善成是如爲白有臥乎所. 纔經沈墊, 旋被亢旱, 凡係病農害穀之災, 又是滋蔓, 言念民事, 誠爲悶然, 向後形止, 鱗次陳聞計料. 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충청도 내 농사 상황 및 이번 달 21일 유시에 시작된 비가 같은 날 술시에 이르러 저의 감영 측우기 수심이 1치 5푼인 연유는 이미 연달아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그날 비로 공주는 1려가 내렸고, 전의·석성 2개 고을은 1서가 내렸고, 노성·은진 2개 고을은 먼지만 적실 정도였다고 합니다.

농사 상황의 경우, 올벼는 간혹 이삭이 패고 올기장·올조는 막 알이 들기 시작했으며 중벼는 점차 알을 배고, 늦벼는 두벌 김매기를 거의 마쳤으며, 섞어 짓는 콩·팥은 점차 꼬투리를 맺는 것이 보이고 목화는 간간이 다래를 맺으며, 그루같이한 콩·팥 및 늦기장·늦조는 차례로 꽃이 피고 있습니다. 앞서 보고한 것 가운데 은진 등 11개 고을은 건잠준축의 근심이 아직 그치지 않았고, 온양·연산·연기·덕산·석성·임천 등 6개 고을은 건잠준축의 근심이 갈수록 더욱 심하며, 아산은 벌레가 먹고 서천은 게로 인한 손상이 더욱 번지고 그치지 않으며, 석성과 신창 2개 고을은 벌레 재해가 함께 발생하여 받은 손상이 가볍지 않습니다. 앞서 보고한 것 외에 회덕·남포·예산 3개 고을은 또 벌레 재해가 발생하여

손상된 벼가 적지 않습니다. 이번 달의 세 차례 비는 몇 시간 소나기가 지나간 것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내린 비가 이미 흡족하지 못하고 또 두루 파급되지도 않았으며 나중  
에 또 한 달이나 폭폭 쪼서 논밭의 각종 곡식이 병들지 않은 것이 없는데, 목화는 다래가  
시들어 떨어지고 콩과 팥은 어린 껍질이 벌레를 먹어 떨어지니 곳곳이 모두 같습니다.  
이삭이 막 생긴 벼는 패지 못하고 이미 이삭이 팬 것은 고개를 숙이지 않으니 올벼와  
늦벼를 따질 것 없이 잘 여물기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하였습니다. 잠기고 나자마자 바로  
심한 가뭄이 드는 것은 무릇 농사를 병들게 하고 곡식을 해치는 재해와 관계되는데 또  
이렇게 점점 불어나니 백성들의 사정을 생각하면 정말로 걱정스럽습니다. 이후 경위는  
잇따라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 0372. 1861년(철종 12) 9월 3일(양력 10월 6일)

忠淸監營啓錄 5책(39b~40b) /各司謄錄 7책 忠淸道篇 2책(154b~154d)

道內農形, 及去月二十一日夜, 公州等十四邑霜降, 同月二十四日午時量, 始雨, 至二十五日申時開霽, 臣營下水深爲一寸二分緣由, 已爲連次馳啓爲白有在果. 續接各邑所報, 則伊日之雨, 公州·天安·大興·德山·瑞山·庇仁·藍浦等七邑 得一犁, 全義·木川·稷山·平澤·牙山·定山·青陽·洪州·海美·泰安·扶餘·石城·林川·鴻山·韓山·舒川·保寧·結城·魯城·恩津·連山·鎭岑·沃川·懷仁·燕歧·鎭川·忠州等二十七邑 得一鋤. 定山·青陽·大興·洪州·德山·藍浦·保寧·結城·扶餘·石城·鴻山·忠州等十二邑, 去月二十一日夜霜降, 稷山·平澤·永同·黃澗·槐山·延豐·堤川等七邑, 二十二日夜霜降, 天安·牙山兩邑, 二十五日雨雹, 挾風暴下, 田畝各種, 受傷甚多是如爲白遣. 農形段, 早稻·早黍粟及和種豆太, 已皆成熟, 間或刈穫, 中晚稻次第向熟, 根耕豆太及晚黍粟, 幾皆入實, 而晚就各穀, 早被肅霜, 或含縮未發, 或直立徑枯, 無望食實, 在在皆然. 木花連爲摘取, 而結穀零星, 綻絮鮮少, 甫田所收, 不盈傾筐是如爲白臥乎所. 大抵通論全省, 未免失稔, 而區而別之, 畚勝於田, 左遜於右是白如乎. 列邑分等, 酌量磨鍊, 迫于登聞計料. 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충청도 내 농사 상황 및 지난달 21일 밤에 공주 등 14개 고을은 서리가 내렸고, 같은 달 24일 오시쯤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25일 신시에 이르러 개었는데 저의 감영 측우기 수심이 1치 2푼인 연유는 이미 연달아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그날 비로 공주·천안·대흥·덕산·서산·비인·남포 등 7개 고을은 1려가 내렸고, 전의·목천·직산·평택·아산·정산·청양·홍주·해미·태안·부여·석성·임천·홍산·한산·서천·보령·결성·노성·은진·연산·진잠·옥천·회인·연기·진천·충주 등 27개 고을은 1서가 내렸으며, 정산·청양·대흥·옥천·덕산·남포·보령·결성·부여·석성·홍산·충주 등 12개 고을은 지난 달 21일 밤에 서리가 내렸고, 직산·평택·영동·황간·괴산·연풍·제천 등 7개 고을은 22일 밤에 서리가 내렸고, 천안·아산 2개 고을은 25일에 비와 우박이 바람과 더불어 쏟아져 내려 논밭의 각종 곡식이 손상을 입은 것이 매우 많다고 합니다.

농사 상황의 경우, 올벼와 올기장·올조 및 섞어 짓는 콩·팥은 이미 다 익어서 간혹 베어

수확하고, 중벼와 늦벼는 차례로 익어가고 있으며, 그루같이한 콩·팥 및 늦기장·늦조는 거의 다 알이 찼습니다. 그러나 늦게 되는 각종 곡식은 일찍 서리로 손해를 입어 더러 오므라들어 패지를 못하고 더러 쪼뼛하게 선 채로 지레 말라서 열매를 먹을 가망이 없는 데 곳곳에서 그렇습니다. 목화는 연이어 따서 거두는데 꼬투리를 맺은 것이 드문드문해서 솜이 터지는 것은 거의 없으니 큰 밭에서 거둔 것이 기울인 광주리에도 차지 않는다고 합니다. 대체로 충청도 전체를 통틀어 따지자면 흉년을 면하지 못하지만 구분하자면 논이 밭보다는 낫고 좌도가 우도보다는 못합니다. 여러 고을의 풍흉 등급은 참작해서 마련하며 나중에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 0373. 1861년(철종 12) 10월 7일(양력 11월 9일)

忠淸監營啓錄 5책(41b~45b) /各司謄錄 7책 忠淸道篇 2책(155b~157b)

道內農形, 已爲概陳於前後狀本中是白在果. 巡部既停, 一路災實, 雖未得躬審, 邑報自在, 三農得失, 亦可以領略是白如乎, 蓋自倣載之初, 已多頻仍之雨, 不失地利於注秧之節, 頗得人功於移插之時, 早登占豐之聲, 庶幾有秋之望是白加尼. 五月念後, 跨朔早乾, 川洑舉皆斷流, 汚濕亦就乾涸, 早移者膏澤未霑, 無望茁長, 晚移者着根不固, 貼地萎枯, 群情焚悴. 圭璧始舉, 六月念間之雨, 一連三日, 幾近二尺, 依峽之地, 急流衝激, 濱江之處, 濁浪汎溢, 非但潰決汰覆之隨處相續, 往往有永失溝洫, 不辨田形者, 此所謂早澇相乘, 極成備無也. 及其雨收水退之後, 猶幸日候調適, 則如病得蘇, 可期收榆. 乃於七八之交, 雖有數次之雨, 只是霎時之驟過, 未爲目前之解渴. 而烈陽亢曝, 晚炎蒸鬱, 無穀不病, 無病不深, 愆蠶蹲縮, 彌月滋蔓, 蟲食蟹損, 連疇熾盛, 到處災傷, 滿目愁慘. 逮至發穗入實之際, 淒風連吹, 霜信太促, 或含縮未發, 或直立徑枯, 刈打之場, 收租過縮, 春杵之下, 出米半減. 畢竟穡事之至於如此, 果非始料, 還甚驚怪. 至若田穀, 被沈而蕪穢不治, 惱旱鋤耘而愆時, 無論黍粟豆太, 弱莖未抽, 殘穀甚疎, 種稅難索, 助食何論, 木花告歉之狀, 已悉軍布代錢請啓中, 無容更陳, 而此是田畝農之大概也. 統論全省, 則雖無沿峽之懸殊, 分言列邑, 則自有淺深之差異, 故較絮彼此, 截補長短, 以公州等十七邑, 置之尤甚, 忠州等二十八邑鎮, 置之之次, 沃川等十邑, 置之稍實, 開錄于後爲白在果.

충청도 내 농사 상황은 이미 지금까지 보고문 중에 대강 아뢰었습니다만, 순부가 이미 중지되어 도내 전체의 재해와 결실을 비록 직접 살필 수는 없으나, 고을의 보고가 있어 3차례 농사일의 득실을 또한 대략이나마 알 수 있었습니다. 대개 봄에 농사를 지을 초기에 이미 빈번하게 비가 내리는 경우가 많아서 못자리에 물을 대는 철에 땅의 이로움을 놓치지 않았고 옮겨 심을 때에 자못 사람의 힘을 얻어 일찍 풍년을 점치는 소리가 올라와 가을 수확을 거의 기대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5월 20일 이후에 한 달에 걸쳐 매우 가물어 시내나 보는 대부분 물줄기가 끊어지고 웅덩이와 습지도 바짝 말랐습니다. 일찍 모내기한 것은 단비가 적셔주지 않아 싹이 자랄 가망이 없고, 늦게 모내기한 것은 단단하

게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땅에 붙은 채로 시들어 말라 버리니 사람들의 마음이 타들어 갔습니다. 그래서 기우제를 거행하기 시작했더니 6월 20일쯤 비가 내리면서 3일 동안 연이어서 거의 3자에 가까워 골짜기를 의지하고 있는 곳은 급류가 부딪히고 바닷가나 강이 있는 곳은 혼탁한 물결이 범람하여 곳곳의 독이 터지고 사태로 뒤덮인 곳이 서로 이어졌을 뿐만 아니라, 이따금 영원히 없어지고 도랑이 생겨 밭의 형태를 분별하지 못하는 곳도 있었으니, 이는 이른바 이른 장마가 상승한 것이며 전혀 대책을 세울 수 없었습니다. 비가 그치고 물이 빠지게 된 뒤에 오히려 다행스럽게도 날씨가 고르고 적합했으니 병든 것은 되살아나 늦게나마 적은 수확을 기대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내 7·8월 사이에 비록 몇 차례 비가 내렸고, 이는 단지 삼시간에 갑자기 지나가서 눈앞에 해갈이 되지 못하고 맹렬한 햇볕이 뜨겁게 내리쬘고 늦더위가 폭폭 썰서 병들지 않은 곡식이 없었고, 병이 없거나 깊지 않으면 건잠준축의 근심이 한 달 넘게 차차 퍼지고 별레가 먹고 게가 손상하며 두둑을 이어 세차게 번지면서 이르는 곳마다 재해를 입었으니 눈에 근심과 참혹함이 가득하였습니다. 이삭이 패고 알이 찰 무렵에 이르러 차가운 바람이 연이어 불고 서리가 너무 재촉하여 더러 패지도 못한 채 오그라들고 더러 쪼뼉이 서서 지레 말라 버리니, 베어 타작하는 마당에 거둔 벼가 지나치게 줄었고 방아를 찧는 마당에 나오는 쌀이 반으로 줄었습니다. 끝내 농사가 여기에 이르렀으니 정말로 처음에 생각한 것이 아니니 도로 매우 놀랐습니다. 밭곡식의 경우 물에 잠기고 황무지가 되어도 다스리지 못하고 심한 가뭄으로 김매는 때를 놓치고 기장·조와 콩·팥을 따질 것 없이 약한 줄기가 뻗어 오르지 못해 쇠약하고 꼬투리가 매우 드물어 종자와 세금을 찾기도 어려운데 식량에 보태기를 어찌 따지겠습니까? 목화가 흉년이라는 상황은 이미 군포를 대전으로 요청하는 중에 다 했으니 다시 아뢴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이것이 논밭 농사의 대강이며, 충청도 전체를 통틀어 따지자면 비록 바닷가나 골짜기에 뚜렷한 차이는 없지만 여러 고을을 구분해 말하자면 자연히 심하나 덜하나 하는 차이는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쪽저쪽을 비교해서 조정하여 공주 등 17개 고을은 매우 심한 등급에 두고, 충주 등 28개 고을과 군영은 다음으로 심한 등급에 두었으며 옥천 등 10개 고을은 조금 잘된 등급에 두어 뒤에 죽 기록하였습니다. (이하 생략)

0374. 1871년(고종 8) 2월 30일(양력 4월 19일)

忠淸監營啓錄 6책(9a~9a) /各司臚錄 7책 忠淸道篇 2책(169b~169c)

道內農形, 已爲連次馳啓爲白有在果. 續接各邑所報, 則秋甞漸次向長, 春甞次第立苗, 鍾役方始爲之, 秧坂間或翻耕是如爲白乎旆. 今二十八日寅時量始雨, 或霏或灑, 載陰載陽, 至二十九日申時開霽, 臣營下測雨器水深爲一寸九分是白如乎. 各邑雨澤多寡, 待其報來, 鱗次陳聞計料. 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충청도 내 농사 상황은 이미 연달아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가을보리는 점차 자라고 있으며 봄보리는 차례로 싹이 돋고, 가래질은 막 시작하였으며 못자리는 간혹 갈아엎는다고 합니다. 이번 달 28일 인시쯤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더러 주룩주룩 내리거나 더러 뿌리다가 언뜻언뜻 흐렸다 별이 났다 하면서 29일 신시에 이르러 개었는데 저의 감영 측우기 수심이 1치 9푼이었습니다. 각 고을 우택의 양은 보고가 오기를 기다려 잇따라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 0375. 1871년(고종 8) 3월 5일(양력 4월 24일)

忠淸監營啓錄 6책(9a~9b) /各司臚錄 7책 忠淸道篇 2책(169c~169c)

去月二十八日寅時量始雨，或霏或灑，至二十九日申時開霽，臣營下〈測雨器〉水深爲一寸九分緣由，已爲馳啓爲白有在〈果〉。續接各邑所報，則伊日之雨，公州·木川·溫陽·靑陽·結城·懷仁·燕岐等七邑 得一犁，全義·稷山·平澤·牙山·新昌·定山·大興·洪州·德山·海美·鴻山·藍浦·魯城·恩津·報恩·文義·淸州·淸安等十八邑 得一鋤，天安·禮山·石城·舒川·保寧·懷德等六邑 沍塵是如爲白有臥乎所。未報邑形止，待其報來，鱗次陳聞計料。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지난달 28일 인시쯤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더러 주룩주룩 내리거나 더러 뿌리다가 29일 신시에 이르러 개었는데 저의 감영 측우기 수심이 1치 9푼인 연유는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그날 비로 공주·목천·온양·청양·결성·회인·연기 등 7개 고을은 1려가 내렸고, 전의·직산·평택·아산·신창·정산·대흥·홍주·덕산·해미·홍산·남포·노성·은진·보은·문의·청주·청안 등 18개 고을은 1서가 내렸고, 천안·예산·석성·서천·보령·회덕 등 6개 고을은 먼지만 적실 정도였다고 합니다. 아직 보고하지 않은 고을의 경위는 보고가 오기를 기다려 잇따라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0376. 1871년(고종 8) 3월 10일(양력 4월 29일)

忠淸監營啓錄 6책(9b~10a) /各司臚錄 7책 忠淸道篇 2책(169d~169d)

道內農形及去月二十八日之雨，公州等三十一邑所得分數，已爲連次馳啓爲白有在果。續接各邑所報，則伊日之雨，前啓外，沃川·永同·靑山·鎭川·槐山·延豐·丹陽·永春·平薪等九邑鎭 得一犁，沔川·唐津·瑞山·泰安·扶餘·韓山·庇仁·連山·黃澗·陰城·忠州·淸風·堤川等十三邑 得一鋤，林川·鎭岑兩邑，沍塵是如爲白遣。農形段，秋耨漸次向茂，春耨方始敷青，鍤役幾至了畢，秧坂間或始役是如爲白有臥乎所。向後農形，鱗次陳聞計料。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충청도 내 농사 상황 및 지난달 28일의 비로 공주 등 31개 고을에 내린 양은 이미 연달아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그날 비로 앞서 보고한 것 외에 옥천·영동·청산·진천·괴산·연풍·단양·영춘·평신 등 9개 고을은 1려가 내렸고, 면천·당진·서산·태안·부여·한산·비인·연산·황간·음성·충주·청안·제천 등 13개 고을은 1서가 내렸고, 임천·진잠 2개 고을은 먼지만 적실 정도였다고 합니다.

농사 상황의 경우, 가을보리는 점차 무성해지고 봄보리는 막 푸르름을 더하기 시작했고 가래질은 거의 마치고에 이르렀는데 못자리는 간혹 일을 시작하였다고 합니다. 이후 농사 상황은 잇따라 아될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0377. 1871년(고종 8) 3월 13일(양력 5월 2일)

忠淸監營啓錄 6책(10a~10a) /各司臚錄 7책 忠淸道篇 2책(169d~170a)

今月十二日辰時量始雨，或霏或灑，至十三日卯時開霽，臣營下測雨器水深，爲一寸四分是白如乎，各邑雨澤多寡，待其報來，鱗次陳聞計料，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이번 달 12일 진시쯤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더러 주룩주룩 내리거나 더러 뿌리다가 13일 묘시에 이르러 개었는데 저의 감영 측우기 수심이 1치 4푼이었습니다. 각 고을 우택의 양은 보고가 오기를 기다려 잇따라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0378. 1871년(고종 8) 3월 18일(양력 5월 7일)

忠淸監營啓錄 6책(10a~10b) /各司臚錄 7책 忠淸道篇 2책(170a~170a)

今月十二日辰時量始雨，或霏或灑，至十三日卯時開霽，臣營下〈測雨器〉水深爲一寸四分緣由，已爲馳啓爲白有在果。續接各邑所報，則伊日之雨，公州·新昌·靑陽·洪州·德山·海美·鴻山·藍浦·鎭川等九邑 得一犁，全義·木川·天安·稷山·牙山·溫陽·定山·大興·林川·庇仁·保寧·結城·魯城·報恩·懷仁·文義·燕岐等十七邑 得一鋤，禮山·扶餘·石城·韓山·恩津·懷德·淸州等七邑 浥塵是如爲白有臥乎所。未報邑形止，待其報來，鱗次陳聞計料。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이번 달 12일 진시쯤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더러 주룩주룩 내리거나 더러 뿌리다가 13일 묘시에 이르러 개었는데 저의 감영 측우기 수심이 1치 4푼인 연유는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그날 비로 공주·신창·청양·홍주·덕산·해미·홍산·남포·진천 등 9개 고을은 1려가 내렸고, 전의·목천·천안·직산·아산·온양·정산·대흥·임천·비인·보령·결성·노성·보은·회인·문의·연기 등 17개 고을은 1서가 내렸고, 예산·부여·석성·한산·은진·회덕·청주 등 7개 고을은 먼지만 적실 정도였다고 합니다. 아직 보고하지 않은 고을의 경위는 보고가 오기를 기다려 잇따라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 0379. 1871년(고종 8) 3월 20일(양력 5월 9일)

忠淸監營啓錄 6책(10b~10b) /各司臚錄 7책 忠淸道篇 2책(170a~170b)

道內農形及今月十二日之雨, 公州等三十三邑所得分數, 已爲連次馳啓爲白有在果. 續接各邑所報, 則伊日之雨, 前啓外, 瑞山·泰安·平薪等三邑鎮 得一犁, 沔川·唐津·永同·黃澗·靑山·淸安·陰城·槐山·延豐等九邑 得一鋤, 平澤·舒川·連山·鎭岑·沃川·忠州·淸風·堤川·丹陽·永春等十邑 浥塵是如爲白遣. 農形段, 秋麴幾皆茁茂, 春麴漸次向長, 畚庫間或翻耕, 注秧付種, 方始爲之是如爲白乎旆. 又於今月十九日戌時量始雨, 或霏或灑, 至二十日寅時乃止, 臣營下測雨器水深爲四分是白如乎. 向後農形及各邑雨澤, 待其報來, 鱗次陳聞計料. 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충청도 내 농사 상황 및 이번 달 12일의 비로 공주 등 33개 고을에 내린 양은 이미 연달아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그날 비로 앞서 보고한 것 외에 서산·태안·평신 등 3개 고을과 군영은 1려가 내렸고, 먼천·당진·영동·황간·청산·청안·음성·괴산·연풍 등 9개 고을은 1서가 내렸고, 평택·서천·연산·진잠·옥천·충주·청풍·제천·단양·영춘 등 10개 고을은 먼지만 적실 정도였다고 합니다.

농사 상황의 경우, 가을보리는 거의 다 무성하고 봄보리는 점차 자라고 있으며, 논은 간혹 갈아엎고 못자리에 물을 대고 무논에 볍씨를 뿌리는 일을 막 시작하였다고 합니다. 또 이번 달 19일 술시쯤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더러 부슬부슬 내리거나 더러 뿌리다가 20일 인시에 이르러 그쳤는데 저의 감영 측우기 수심이 4푼이었습니다. 이후의 농사 상황 및 각 고을의 우택은 보고가 오기를 기다려 잇따라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0380. 1871년(고종 8) 4월 1일(양력 5월 19일)

忠淸監營啓錄 6책(11a~11a) /各司臚錄 7책 忠淸道篇 2책(170c~170c)

道內農形, 已爲連次馳啓爲白有在果. 續接各邑所報, 則秋麴已皆胚胎, 間或發穗, 春麴漸次向長, 畓庫次第翻耕, 注秧付種, 方張爲之. 早黍粟·和種豆太間或耕播是如爲白有臥乎所. 向後農形, 鱗次陳聞計料. 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충청도 내 농사 상황은 이미 연달아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가을보리는 이미 다 이삭을 맺고 간혹 이삭이 뻗으며, 봄보리는 점차 자라고 있으며, 못자리에 물을 대고 무논에 볍씨를 뿌리는 일이 한창이고, 올기장·올조와 섞어 짓는 콩·팥은 간혹 갈아서 씨앗을 뿌린다고 합니다. 이후 농사 상황은 잇따라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0381. 1871년(고종 8) 4월 11일(양력 5월 29일)

忠淸監營啓錄 6책(13a~13a) /各司臚錄 7책 忠淸道篇 2책(171c~171d)

道內農形，已爲連次馳啓爲白有在果。續接各邑所報，則秋粃已盡發穗，春粃間或胚胎，畚庫幾盡翻耕，注秧付種，已皆了畢，早黍粟·和種豆太次第耕播。而去月十二日以後，雨澤慳悶，粃麥多有枯損，秧板或至乾涸是如爲白有臥乎所。向後形止，鱗次陳聞計料。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충청도 내 농사 상황은 이미 연달아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가을보리는 이미 다 이삭이 맺고 봄보리는 간혹 이삭을 맺으며 논은 거의 다 갈아엎고 못자리에 물을 대고 무논에 벼씨를 뿌리는 일은 이미 다 마쳤으며, 올기장·올조와 섞어 짓는 콩·팥은 차례로 갈아서 씨앗을 뿌린다고 합니다. 그러나 지난달 12일 이후 우택은 내리지 않아 걱정인데 보리는 말라서 손상된 것이 많고 못자리는 더러 메마르기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이후 경위는 잇따라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0382. 1871년(고종 8) 4월 14일(양력 6월 1일)

忠淸監營啓錄 6책(14b~14b) /各司臚錄 7책 忠淸道篇 2책(172c~172c)

今月十四日辰時量，驟雨霏灑，仍卽開霽，臣營下測雨器水深爲五分是白如乎。久旱之餘，終  
漸快霽，爲穡事誠甚悶然。各邑所得多寡，待其報來，鱗次陳聞計料。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  
事。

이번 달 14일 진시쯤 소나기가 주룩주룩 내리기도 하고 뿌리기도 하다가 이내 개었는데  
저의 감영 측우기 수심이 5푼이었습니다. 오랫동안 가문 끝에 끝내 비가 시원스럽게  
주룩주룩 내리지 않아 농사가 정말로 매우 걱정스럽습니다. 각 고을에 내린 양은 보고가  
오기를 기다려 잇따라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0383. 1871년(고종 8) 4월 18일(양력 6월 5일)

忠淸監營啓錄 6책(14b~15a) /各司臚錄 7책 忠淸道篇 2책(172c~172c)

今月十七日戌時量始雨，或霏或灑，至十八日辰時乃止，臣營下測雨器水深爲二寸八分，而陰雲布合，餘意尙多是白如乎。旱餘甘澍，爲穡事誠甚萬幸。向後形止，列邑所得分數，待其報來，鱗次陳聞計料。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이번 달 17일 술시쯤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더러 주룩주룩 내리거나 더러 뿌리더니 18일 진시에 이르러 이내 그쳤는데 저의 감영 측우기 수심이 2치 8푼이었고, 먹구름이 퍼졌다 합쳤다 하여 비가 올 조짐이 아직 많습니다. 가뭄 끝에 내린 단비라 농사에 정말로 매우 다행입니다. 이후 경위와 여러 고을에 내린 양은 보고가 오기를 기다려 잇따라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 0384. 1871년(고종 8) 4월 21일(양력 6월 8일)

忠淸監營啓錄 6책(18a~18a) /各司臚錄 7책 忠淸道篇 2책(174b~174c)

道內農形及今月十七日之雨, 公山等十三邑所得分數, 已爲連次馳啓爲白有在果. 續接各邑所報, 則伊日之雨, 前啓外, 天安·溫陽·新昌·禮山·懷仁·永同等六邑 得一犁, 全義·稷山·平澤·牙山·洪州·德山等六邑 得一鋤, 沔川·唐津·扶餘·林川·鴻山·韓山·舒川等七邑 沍塵是如爲白遣. 農形段, 秋甞幾皆向熟, 春甞已盡發穗, 注秧付種漸次苗長, 早黍粟·和種豆太及木花, 次第立苗是如爲白有臥乎所. 向後形止, 鱗次陳聞計料. 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충청도 내 농사 상황 및 이번 달 17일에 내린 비로 공산 등 13개 고을에 내린 양은 이미 연달아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그날 비로 앞서 보고한 것 외에 천안·온양·신창·예산·회인·영동 등 6개 고을은 1려가 내렸고, 전의·직산·평택·아산·홍주·덕산 등 6개 고을은 1서가 내렸고, 면천·당진·부여·임천·홍산·한산·서천 등 7개 고을은 먼지만 적실 정도였다고 합니다.

농사 상황의 경우, 가을보리는 거의 다 익어가고 봄보리는 이미 다 이삭이 났으며, 못자리 에 물을 대고 무논에 볍씨를 뿌린 것은 점차 싹이 자라고 올기장·올조와 섞어 짓는 콩·팥 및 목화는 차례로 싹이 돋는다고 합니다. 이후 경위는 잇따라 아뿔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 0385. 1871년(고종 8) 4월 26일(양력 6월 13일)

忠淸監營啓錄 6책(18b~18b) /各司臚錄 7책 忠淸道篇 2책(174d~174d)

今月十七日之雨, 公山等三十二邑所得分數, 已爲連次馳啓爲白有在果. 續接各邑所報, 則伊日之雨, 前啓外, 庇仁·藍浦·保寧·黃澗·靑山·報恩·淸州·鎭川·槐山·延豐·忠州·堤川等十二邑得一犁, 石城·結城·淸安·陰城等四邑得一鋤, 海美·瑞山·泰安·淸風·丹陽·永春·平薪等七邑鎭涸塵是如爲白有等以, 緣由馳啓爲白臥乎事.

이번 달 17일에 내린 비로 공산 등 32개 고을에 내린 양은 이미 연달아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그날 비로 앞서 보고한 것 외에 비인·남포·보령·황간·청산·보은·청주·진천·괴산·연풍·충주·제천 등 12개 고을은 1려가 내렸고, 석성·결성·청안·음성 등 4개 고을은 1서가 내렸고, 해미·서산·태안·청풍·단양·영춘·평신 등 7개 고을과 군영은 먼지만 적실 정도였다고 합니다. 연유를 긴급 보고합니다.

0386. 1871년(고종 8) 4월 29일(양력 7월 30일)

忠淸監營啓錄 6책(18b~19a) /各司臚錄 7책 忠淸道篇 2책(174d~174d)

今月二十九日丑時量始雨，或霏或灑，至同日辰時〈乃止〉，臣營下測雨器水深爲一寸三分，而陰雲散合，餘意尙多，繼此霈然，方切顚望爲白乎旃。向後形止，鱗次陳聞計料。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이번 달 29일 축시쯤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더러 주룩주룩 내리거나 더러 뿌리더니 같은 날 진시에 이르러 이내 그쳤는데 저의 감영 측우기 수심이 1치 3푼이었고, 먹구름이 퍼졌다 합쳤다 하여 비가 올 조짐이 아직 많습니다. 계속 이렇게 세차게 내리기를 바야흐로 간절히 바랍니다. 이후 경위는 잇따라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 0387. 1871년(고종 8) 5월 1일(양력 6월 18일)

忠淸監營啓錄 6책(20b~21a) /各司臚錄 7책 忠淸道篇 2책(175d~176a)

道內農形及去月二十九日丑時量始雨，或霏或灑，至同日辰時〈量乃止〉，臣營下水深爲一寸三分緣由，已爲連次馳啓爲白有在果。自二十九日辰時以後，間間霏微，載陰載陽，至三十日申時開霽是白乎旃。續接各邑所報，則伊日之雨，公山·溫陽兩邑 得一犁，木川·新昌·靑陽·鴻山·舒川·藍浦·魯城·文義等八邑 得一鋤，禮山·扶餘·石城·燕岐等四邑 溫塵。農形段，秋麴漸次刈穫，春麴幾盡向黃，洞畝裕水處，間或移秧，付種乾播，方始初鋤，早黍粟·和種豆太及木花次第初除草。而三四兩朔之間，或雖有鋤犁之雨，終未免焦釜之沃，秧板日就乾涸，田種亦致枯損是如爲白乎旃。淸安·靑山·黃澗等三邑，去月二十三日，雨雹挾風驟下，移時乃止，大者如棗栗，小者如豆太，所過處向熟之兩牟，太半剝落，秧苗無不摧靡，木花和種等屬，受損甚多是如爲白有臥乎所。見今夏至只隔，秧節向闌，而一霽尙靳，雹損此多，言念民情，萬萬悶然。向後形止，鱗次陳聞計料。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충청도 내 농사 상황 및 지난달 29일 축시쯤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더러 주룩주룩 내리거나 더러 뿌리더니 같은 날 진시쯤에 이르러 이내 그쳤는데 저의 감영 측우기 수심이 1치 3푼인 연유는 이미 연달아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29일 진시 이후 간간이 부슬부슬 내리고 언뜻언뜻 흐렸다 별이 났다 하더니 30일 신시에 이르러 개었습니다. 계속해서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그날 비로 공산·온양 2개 고을은 1려가 내렸고, 목천·신창·청양·홍산·서천·남포·노성·문의 등 8개 고을은 1서가 내렸고, 예산·부여·석성·연기 등 4개 고을은 먼지만 적실 정도였습니다.

농사 상황의 경우, 가을보리는 점차 베어서 수확하고 봄보리는 거의 다 누렇게 되어가고, 동네 논으로 물이 여유 있는 곳은 간혹 모내기하였으며 무논에 벼씨를 뿌리거나 마른 논에 씨앗을 뿌린 것은 비로소 초벌 김매기를 하고, 올기장·올조와 섞어 짓는 콩·팥 및 목화는 차례로 초벌 김매기를 합니다. 3·4월 두 달 동안에 더러 1려·1서 정도의 비가 내렸지만 끝내 뜨거운 가마솥에 물방울을 뿌리는 것을 면하지 못해 못자리는 날로 메말라가고 밭곡식도 말라서 손상을 입는다고 합니다. 청안·청산·황간 등 3개 고을은 지난달

23일에 바람과 함께 우박이 쏟아지다가 얼마 뒤에 이내 그쳤는데 큰 것은 대추나 밤만 하고 작은 것은 콩·팥 만했으며, 익어가던 가을보리와 봄보리는 태반이나 떨어지고 모내기한 모는 꺾이거나 쓰러지지 않은 것이 없으며 목화과 섞어 짓는 곡식 등은 입은 손해가 매우 많다고 합니다. 현재 하지가 한 달밖에 남지 않았고 모내기철이 끝나 가는데 아직도 한바탕 주룩주룩 쏟아지지 않고 우박 피해가 이처럼 많으니 백성들의 사정을 생각하면 매우 걱정스럽습니다. 이후 경위는 잇따라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 0388. 1871년(고종 8) 5월 3일(양력 6월 20일)

忠淸監營啓錄 6책(21a~21a) /各司謄錄 7책 忠淸道篇 2책(176a~176b)

道內農形憫旱之狀及去月二十九日之雨，公州等十四邑所得分數，已爲馳啓爲白有在果。續接各邑所報，則伊日之雨，前啓外，全義·定山·大興·洪州·德山·沔川·結城·懷德·青山·懷仁·淸州·鎭川·槐山·忠州等十四邑 得一鋤，天安·稷山·平澤·牙山·唐津·韓山·連山·報恩等八邑 浥塵。而旱餘之雨，乍爲旋止，不足霑潤，川洑斷流，無望移插，民事去益荒[遑]急是如。各邑所報，一辭同然，而其中德山，今月初二日爲始，設行祈雨祭，韓山初三日爲始設行，木川亦爲請行祈雨祭，故使之虔誠設行爲白乎旅。向後形止，鱗次陳聞計料。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충청도 내 농사 상황과 안타까운 가뭄 상황 및 지난달 29일의 비로 공주 등 14개 고을에 내린 양은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그날 비로 앞서 보고한 것 외에 전의·정산·대흥·홍주·덕산·면천·결성·회덕·청산·회인·청주·진천·괴산·충주 등 14개 고을은 1서가 내렸고, 천안·직산·평택·아산·당진·한산·연산·보은 등 8개 고을은 먼지만 적실 정도였습니다. 가뭄 끝에 내린 비도 잠시 내리다가 곧바로 그쳐 축축히 적시기에 부족했고 시내 보의 물줄기도 끊어져 옮겨 심을 가뭇이 없어 농사가 갈수록 황급하다고 합니다. 각 고을에서 보고한 것은 한결같이 똑같은 내용인데, 그 가운데 덕산은 이번 달 초2일부터 기우제를 시행했으며 한산은 5월 3일부터 시행하며 목천도 기우제 시행을 요청했으므로 경건하고 정성스럽게 시행하도록 했습니다. 이후 경위는 잇따라 아될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0389. 1871년(고종 8) 5월 4일(양력 6월 21일)

忠淸監營啓錄 6책(21b~21b) /各司謄錄 7책 忠淸道篇 2책(176b~176b)

今月初三日酉時量始雨，或霏或灑，間間霏之，至初四日申時〈乃止〉，臣營下〈測雨器〉水深爲三寸五分，而尙此霏微不止是白乎旆。各邑所得之如何，雖姑未知，以臣營下近郊觀之，引洑灌溉之畝，足可移秧，高燥原野之地，未及生水，繼此沛然，方切顒視[望]爲白乎旆。向後形止，鱗次陳聞計料。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이번 달 초3일 유시쯤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더러 부슬부슬 내리거나 더러 뿌리다가 간간이 주룩주룩 내리더니 초4일 신시에 이르러 이내 그쳤는데 저의 감영 측우기 수심이 3치 5푼이었으며, 아직 이렇게 부슬부슬 내리며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각 고을에 내린 것은 얼마인지 비록 아직 알 수 없지만 저의 감영 근교로 보자면 보의 물을 끌어서 논에 대면 모내기하기에 충분하고 높고 메마르거나 벌판의 땅은 미처 물이 생기지 않으니, 계속 이처럼 세차게 내려주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후 경위는 잇따라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 0390. 1871년(고종 8) 5월 6일(양력 6월 23일)

忠淸監營啓錄 6책(21b~22a) /各司臚錄 7책 忠淸道篇 2책(176b~176c)

道內德山·韓山兩邑祈雨祭設行形止及今月初三日酉時量始雨，至初四日申時〈乃止〉，臣營下水深爲三寸五分緣由，已爲連次馳啓爲白有在果。自初四日申時以後，連爲陰翳，間間霏灑，至初五日戌時，仍爲開霽，測雨器水深，又爲三寸，而旱餘之雨，猶未優洽是白乎旃。續接近邑所報，則伊日之雨，公山·定山·石城·文義等四邑 得二犁，木川·天安·扶餘·林川·韓山·燕岐·清州等七邑，先以始雨形止報來是白遣。祈雨祭段，前啓請行木川，今月初四日爲始設行，前啓外洪州，初二日爲始設行，林川初四日爲始設行，青陽·扶餘·庇仁·保寧·清州等五邑，亦爲請行，故使之觀勢虔禱爲白乎旃。向後形止及未報邑雨澤，隨其報來，鱗次陳聞計料。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충청도 내 덕산·한산 2개 고을이 기우제를 시행한 경위 및 이번 달 초3일 유시쯤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초4일 신시에 이르러 이내 그쳤는데 저의 감영 측우기 수심이 3치 5푼인 연유는 이미 연달아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초4일 신시 이후 연이어 짙은 구름이 끼고 간간이 부슬부슬 내리거나 뿌리다가 초5일 술시에 이르러 이내 개었는데 저의 감영 측우기 수심이 또 3치이였지만, 가뭄 끝에 내린 비가 여전히 흡족하지 못합니다. 계속해서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그날 비로 공산·정산·석성·문의 등 4개 고을은 2려가 내렸고, 목천·천안·부여·임천·한산·연기·청주 등 7개 고을은 비가 내리기 시작한 경위를 먼저 보고해왔습니다. 기우제의 경우, 앞서 보고에서 시행을 요청한 목천은 이번 달 초4일부터 시행하였고, 앞서 보고한 것 외에 홍주는 초2일부터 시행하였으며 임천은 초4일부터 시행하고, 청양·부여·비인·보령·청주 등 5개 고을도 시행을 요청하였으므로 형세를 보아 경건하게 빌도록 하였습니다. 이후 경위 및 아직 보고하지 않은 고을의 우택은 보고가 오는 대로 잇따라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 0391. 1871년(고종 8) 5월 9일(양력 6월 26일)

忠淸監營啓錄 6책(22a~22b) /各司臚錄 7책 忠淸道篇 2책(176c~176d)

道內德山等五邑祈雨祭設行, 今月初三日之雨, 公山等四邑所得分數及木川等七邑始雨形止, 已爲馳啓爲白有在果. 續接各邑所報, 則伊日之雨, 前啓始雨邑中林川·韓山·燕岐等三邑 川渠漲滿, 前啓外魯城兩邑 川渠漲滿, 恩津·藍浦·報恩·靑陽等四邑 得二犁, 全義·牙山·溫陽·新昌·洪州·保寧·結城·懷德·懷仁等九邑 得一犁, 德山·庇仁·靑安等三邑 得二鋤, 稷山·沔川·禮山等三邑 得一鋤, 平澤·唐津兩邑 浥塵是如爲白乎旆. 祈雨祭段, 前啓請行之靑陽, 今月初四日爲始設行, 扶餘初六日爲始設行, 前啓外禮山, 初六日爲始設行. 而前狀設行邑中林川·韓山·靑陽, 間雨優洽, 仍爲停止是如爲白有臥乎所. 向後形止, 鱗次陳聞計料. 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충청도 내 덕산 등 5개 고을의 기우제 시행과 이번 달 초3일의 비, 공산 등 4개 고을에 내린 양 및 목천 등 7개 고을에 비가 내리기 시작한 경위는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그날 비로 앞서 보고에서 비가 내리기 시작한 고을 가운데 임천·한산·연기 등 3개 고을은 시내와 도랑이 불어나 가득 찼으며, 앞서 보고한 것 외에 노성 2개 고을은 시내와 도랑이 불어나 가득 찼고, 은진·남포·보은·청양 등 4개 고을은 2려가 내렸고, 전의·아산·온양·신창·홍주·보령·결성·회덕·회인 등 9개 고을은 1려가 내렸고, 덕산·비인·청안 등 3개 고을은 2서가 내렸고, 직산·면천·예산 등 3개 고을은 1서가 내렸고, 평택·당진 2개 고을은 먼지만 적실 정도였다고 합니다. 기우제의 경우, 앞서 보고에서 시행을 요청한 청양은 이번 달 초4일부터 시행하였고, 부여는 초6일부터 시행하였으며, 앞서 보고한 것 외에 예산은 초6일부터 시행하였습니다. 그러나 앞서 보고에서 시행한 고을 가운데 임천·한산·청양은 그사이에 비가 흠족히 내려 이내 중지하였다고 합니다. 이후 경위는 잇따라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 0392. 1871년(고종 8) 5월 11일(양력 6월 28일)

忠淸監營啓錄 6책(23a~24a) /各司謄錄 7책 忠淸道篇 2책(177a~177b)

道內農形及今月初三日之雨, 公山等三十邑所得分數, 德山等五月祈雨祭停止緣由, 已爲連次馳啓爲白有在果. 續接各邑所報, 則伊日之雨, 前啓始雨邑中木川·天安兩邑 得一犁, 淸州·扶餘兩邑 得二鋤, 前啓外, 沃川·永同·黃澗·靑山等四邑 川渠漲滿, 大興·連山·槐山等三邑 得二犁, 鴻山·鎭川·淸風等三邑 得一犁, 海美·忠州兩邑 得二鋤, 舒川·陰城·延豐·堤川·丹陽·永春等六邑 得一鋤, 瑞山·泰安·平薪等三邑鎭涸塵是如爲白遣. 祈雨祭段, 前啓請行之淸州, 今月初八日爲〈始〉設行, 前啓外瑞山, 初四日爲始設行, 稷山·平澤兩〈邑〉, 初九日爲始設行, 天安亦爲請行祈雨祭, 故使之虔誠設行爲白乎旆. 農形段, 秋耨已盡風傷, 春耨刈穫垂畢, 付種乾播, 間或再鋤, 早黍粟方始耕播. 而今番雨澤, 終未周洽, 故裕水洞畓, 雖或移插, 高燥原野, 莫可擬議是如爲白有臥乎所. 向後形止, 鱗次陳聞計料. 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충청도 내 농사 상황 및 이번 달 초3일의 비로 공산 등 30개 고을에 내린 양과 덕산 등이 5월 기우제를 중지한 연유는 이미 연달아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그날 비로 앞서 보고에서 비가 내리기 시작한 고을 가운데 목천·천안 2개 고을은 1려가 내렸고, 청주·부여 2개 고을은 2서가 내렸으며, 앞서 보고한 것 외에 옥천·영동·황간·청산 등 4개 고을은 시내와 도랑이 불어나 가득 찼고, 대흥·연산·괴산 등 3개 고을은 2려가 내렸고, 홍산·진천·청풍 등 3개 고을은 1려가 내렸고, 해미·충주 2개 고을은 2서가 내렸고, 서천·음성·연풍·제천·단양·영춘 등 6개 고을은 1서가 내렸고, 서산·태안·평신 등 3개 고을과 군영은 먼지만 적실 정도였다고 합니다. 기우제의 경우, 앞서 보고에서 시행을 요청한 청주는 이번 달 초8일부터 시행하였고, 앞서 보고한 것 외에 서산은 초4일부터 시행하였고, 직산·평택 2개 고을은 초9일부터 시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천안도 기우제 시행을 요청하였으므로 경건하고 정성스럽게 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농사 상황의 경우, 가을보리는 이미 다 바람에 손상됐고 봄보리는 베어 수확을 마쳤습니다. 무논에 벼씨를 뿌리거나 마른 논에 씨앗을 뿌린 것은 간혹 두벌매기하고 올기장·올조

는 막 갈아서 씨를 뿌리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번 우택은 끝내 두루 흡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물이 여유 있는 동네 논은 비록 더러 옮겨 심었더라도 높고 메마르거나 별관은 따져볼 만한 것이 못 된다고 합니다. 이후 경위는 잇따라 아될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0393. 1871년(고종 8) 5월 16일(양력 7월 3일)

忠淸監營啓錄 6책(24a~24a) /各司臚錄 7책 忠淸道篇 2책(177b~177c)

今月十四日亥時量始雨，或霏或灑，至十五日酉時乃止，臣營下測雨器水深爲五寸八分是白如平。各邑所得，待其報來，鱗次陳聞計料。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이번 달 14일 해시쯤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더러 주룩주룩 내리거나 더러 뿌리더니 15일 유시에 이르러 이내 그쳤는데 저의 감영 측우기 수심이 5치 8푼이었습니다. 각 고을에 내린 것은 보고가 오기를 기다려 잇따라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 0394. 1871년(고종 8) 5월 18일(양력 7월 5일)

忠淸監營啓錄 6책(25a~25b) /各司臚錄 7책 忠淸道篇 2책(178a~178b)

道內德山等九邑祈雨祭設行形止及今月十四日亥時量始雨，至十五日酉時乃止，臣營下〈測雨器〉水深爲五寸八分緣由，已爲連次馳啓爲白有在果。續接各邑所報，則伊日之雨，公山·全義·木川·扶餘·石城·林川·魯城·恩津·鎭岑·沃川·懷仁·文義·燕岐·鎭川·淸州等十五邑 川渠漲滿，牙山·溫陽·新昌·定山·靑陽·洪州·德山·結城等八邑 得二犁是如爲白遣。祈雨祭段，前啓請行邑中木川·洪州·德山·扶餘·淸州等五邑，次第停止，前啓外全義·鎭川兩邑，一次設行後，仍爲停止。天安今月十一日爲始設行，陰城十二日爲始設行是如爲白有臥乎所。未報邑雨澤，隨其報來，鱗次陳聞計料。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충청도 내 덕산 등 9개 고을이 기우제를 시행한 경위 및 이번 달 14일 해시쯤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15일 유시에 이르러 이내 그쳤는데 저의 감영 측우기 수심이 5치 8푼인 연유는 이미 연달아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그날 비로 공산·전의·목천·부여·석성·임천·노성·진잠·옥천·회인·문의·연기·진천·청주 등 15개 고을은 시내와 도랑이 불어나 가득 찼고, 아산·온양·신창·정산·청양·홍주·덕산·결성 등 8개 고을은 2려가 내렸다고 합니다. 기우제의 경우, 앞서 보고에서 요청한 고을 가운데 목천·홍주·덕산·부여·청주 등 5개 고을은 차례로 중지하였고, 앞서 보고한 것 외에 전의·진천 2개 고을은 한 차례 시행한 후 이내 중지하였으며, 천안은 이번 달 11일부터 시행하였고 음성은 12일부터 시행했다고 합니다. 아직 보고하지 않은 고을의 우택은 보고가 오는 대로 잇따라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 0395. 1871년(고종 8) 5월 21일(양력 7월 8일)

忠淸監營啓錄 6책(26b~27a) /各司臚錄 7책 忠淸道篇 2책(178c~178d)

道內農形及瑞山等六邑祈雨祭設行形止, 今月十四五兩日之雨, 公州等二十三邑所得分數, 已爲連次馳啓爲白有在果. 續接各邑所報, 則伊日之雨, 前啓外, 鴻山·韓山·舒川·連山·懷德·永同·黃澗·靑山·報恩·淸安·陰城·槐山·延豐·忠州·淸風·堤川·永春等十八邑 川渠漲滿, 天安·大興·沔川等三邑 得二犁, 稷山·平澤·禮山·瑞山等四邑 得一犁. 農形段, 付種乾播幾盡再鋤, 洞畝之早移者, 漸次着根, 高燥之未移處, 逐水移插, 早黍粟·和種豆太及木花, 已爲再除草, 根耕豆太及晚黍粟, 連爲耕播是如爲白遣. 祈雨<祭>段, 前啓設行邑中, 陰城停止, 瑞山·禮山·平澤·稷山·天安等五邑, 所得之雨, 終未優洽, 連爲設行, 溫陽·新昌兩邑, 亦爲請行, 故使之虔誠祈禱爲白在果. 雨澤之多寡不同, 雩祭之停設各異, 以未洽處言之, 小暑已屆, 秧節漸晚, 際此一霽, 益切顯祝. 向後農形, 鱗次陳聞計料. 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충청도 내 농사 상황 및 서산 등 6개 고을의 기우제 시행 경위와 이번 달 14·15일 이틀간 내린 비로 공주 등 23개 고을에 내린 양은 이미 연달아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그날 비로 앞서 보고한 것 외에 홍산·한산·서천·연산·회덕·영동·황간·청산·보은·청안·음성·괴산·연풍·충주·청풍·제천·영춘 등 18개 고을은 시내와 도랑이 불어나 가득 찼고, 천안·대흥·면천 등 3개 고을은 2려가 내렸고, 직산·평택·예산·서산 등 4개 고을은 1려가 내렸습니다.

농사 상황의 경우, 무논에 볍씨를 뿌리거나 마른 논에 씨앗을 뿌린 것은 거의 다 두벌매기 하고 동네 논에 일찍 모내기한 것은 점차 뿌리를 내리며 높고 메말라 아직 모내기 못한 곳은 물에 따라 옮겨 심고 올기장·올조와 섞어 짓는 콩·팥 및 목화는 이미 두벌 김매기하였으며, 그루같이하는 콩·팥 및 늦기장·늦조는 연이어 갈아서 씨앗을 뿌린다고 합니다. 기우제의 경우, 앞서 시행한다고 보고한 고을 가운데 음성은 중지하였고, 서산·예산·평택·직산·천안 등 5개 고을은 내린 비가 끝내 흡족하지 못하여 연이어 시행하며, 온양·신창 2개 고을도 시행을 요청하였으므로 경건하고 정성스럽게 빌도록 하였습니다. 우택의 양이 같지 않아 기우제 중지와 시행이 각각 다릅니다. 미흡한 곳으로 말하자면 소서가

이미 다가와 모내기철이 점점 늦어지니 이즈음에 한줄기 쏟아지기를 더욱 간절히 빕니다.  
이후 농사 상황은 잇따라 아뿔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0396. 1871년(고종 8) 5월 28일(양력 7월 15일)

忠淸監營啓錄 6책(27a~27a) /各司謄錄 7책 忠淸道篇 2책(179a~179a)

道內瑞山等五邑祈雨祭設行緣由，已爲馳啓爲白有在果，續接各邑所報，則前啓請行邑中溫陽·新昌兩邑，今月二十日爲始設行，前啓外沔川，二十六日爲始設行是如爲白有臥乎所，向後形止，鱗次陳聞計料，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충청도 내 서산 등 5개 고을이 가우제를 시행한 연유는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앞서 보고에서 시행을 요청한 고을 가운데 온양·신창 2개 고을은 이번 달 20일부터 시행하였고, 앞서 보고한 것 외에 면천은 26일부터 시행했다고 합니다. 이후 경위는 잇따라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 0397. 1871년(고종 8) 6월 1일(양력 7월 18일)

忠淸監營啓錄 6책(31a~31a) /各司臚錄 7책 忠淸道篇 2책(180d~181a)

道內農形及瑞山等八邑祈雨祭設行緣由，已爲連次馳啓爲白有在果。續接各邑所報，則農形段，付種乾播，已皆再鋤，洞畝之早移者，方張初鋤，而間被嘆乾，不得茁長，原野之晚移者，旋致乾涸，尙帶秋色，高燥之地，未移居多，早黍粟和種，豆太及木花，連爲除草，根耕豆太及晚黍粟，方始立苗是如爲白遣。祈雨祭段，前啓外牙山，去月二十八日爲始設行，唐津二十九日爲始設行是如爲白有臥乎所。去月十四日之雨，旣未均洽，伊後兩旬，一直亢旱，渴悶之報，逐邑同然，而見今初庚已迫，雨意邈然，而言念民事，誠甚悶然，向後形止，鱗次陳聞計料。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충청도 내 농사 상황 및 서산 등 8개 고을이 기우제를 시행한 연유는 이미 연달아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농사 상황의 경우, 무논에 법씨를 뿌리거나 마른 논에 씨앗을 뿌린 것은 이미 다 두벌매기하였고 동네 논에 일찍 모내기한 것은 한창 초벌 김매기를 하며, 그사이 매우 더워서 싹이 자라지 못하거나 벌판에 늦게 모내기한 것은 곧바로 메말라 아직 모의 모습을 띠고 있으며, 높고 메마른 지역은 아직 모내기 못한 곳이 많습니다. 올기장·올조와 섞어 짓는 콩·팥 및 목화는 연이어 김매기하고 그루같이한 콩·팥 및 늦기장·늦조는 막 싹이 돋기 시작하였다고 합니다. 기우제의 경우, 앞서 보고한 것 외에 아산은 지난달 28일부터 시행했으며, 당진은 29일부터 시행했다고 합니다. 지난달 14일에 내린 비는 이미 흡족하게 고루 적시지 못한데다 이후 20일 동안 줄곧 심하게 가물어 비를 갈망하고 걱정하는 보고가 고을마다 똑같습니다. 현재 초복이 이미 닳쳤는데도 비가 올 조짐이 아득하니, 백성들의 사정을 생각하면 정말로 매우 걱정스럽습니다. 이후 경위는 잇따라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0398. 1871년(고종 8) 6월 6일(양력 7월 23일)

忠淸監營啓錄 6책(31a~31b) /各司臚錄 7책 忠淸道篇 2책(181a~181b)

今月初五日申時量始雨，或霏或灑，間間暴霏，至初六日卯時乃止，臣營下測雨器水深爲三寸八分是白如乎。久旱渴望之餘，得此甘澍，爲民事誠萬幸。遠邇均霑，方切顙望，各邑所得，待其報來，鱗次陳聞計料。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이번 달 초5일 신시쯤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더러 주룩주룩 내리거나 더러 뿌리더니  
간간이 세차게 쏟아지기도 하다가 초6일 묘시에 이르러 이내 그쳤는데 저의 감영 측우기  
수심이 3치 8푼이었습니다. 오랫동안 가물어 비를 갈망하던 끝에 이런 단비를 맞으니  
백성들의 사정을 위해 정말로 매우 다행입니다. 멀고 가까운 곳을 고루 적셔주기를 간절  
히 바랍니다. 각 고을에 내린 것은 보고가 오기를 기다려 잇따라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0399. 1871년(고종 8) 6월 8일(양력 7월 25일)

忠淸監營啓錄 6책(31b~31b) /各司臚錄 7책 忠淸道篇 2책(181b~181c)

今月初五日酉時量始雨，至初六日卯時乃止，臣營下〈測雨器〉水深爲三寸八分緣由，已爲馳啓爲白有在果。自初六日卯時以後，連爲陰翳，間間霏微，初七日酉時量，更爲暴霖，至初八日辰時開霽，臣營下測雨器水深爲一尺一寸八分，統計前後，合爲一尺五寸六分。各邑所得，雖姑未知，以臣營近郊言之，不啻優洽，還涉過中，田畝之潰決，各穀之沈墊，種種有之是白如乎。各邑形止，待其報來，鱗次陳聞計料。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이번 달 초5일 유시쯤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초6일 묘시에 이르러 이내 그쳤는데 저의 감영 측우기 수심이 3치 8푼인 연유는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초6일 묘시 이후 연이어 짙은 구름이 끼고 간간이 부슬부슬 내리더니 초7일 유시쯤 다시 쏟아져 내리다가 초8일 진시에 이르러 개었는데 저의 감영 측우기 수심이 1자 5치 6푼이었으며, 지금까지 것을 통틀어 계산하면 총 1자 5치 6푼입니다. 각 고을에 내린 것은 비록 아직 알지 못하지만 저의 감영 근교로 말하자면 흡족하게 내렸을 뿐만 아니라 도리어 적당한 정도를 넘게 내려 논밭의 독이 터져 각종 곡식이 잠긴 곳이 종종 있습니다. 각 고을의 경위는 보고가 오기를 기다려 잇따라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 0400. 1871년(고종 8) 6월 11일(양력 7월 28일)

忠淸監營啓錄 6책(32a~32b) /各司臚錄 7책 忠淸道篇 2책(181c~181d)

道內農形及瑞山等十邑祈雨祭設行形止, 今月初五日申時量始雨, 至初八日辰時開霽, 臣營下〈測雨器〉水深合爲一尺五寸六分緣由, 連次馳啓爲白有在果. 續接各邑所報, 則伊日之雨, 公州·定山·扶餘·石城·林川·鴻山·懷德·燕岐·文義等九邑 江川汎濫, 全義·木川·天安·平澤·牙山·溫陽·新昌·靑陽·大興·洪州·沔川·韓山·魯城·恩津·報恩·懷仁·淸州·鎭川等十八邑 川渠漲滿, 禮山·海美·瑞山等三邑 得二犁. 農形段, 付種乾播, 方張茁長, 洞畚之早移, 間或再耘, 原野之晚移, 次第初鋤, 最高燥未移處, 今方逐水爭插, 而秧老晚節[節晚], 恐難成就. 早黍粟和種, 豆太及木花, 連爲除草, 根耕豆太及晚黍粟, 方始初除草. 而旱餘之雨, 過霽暴漲, 沿江傍川之地, 潰覆沈墊之患, 比比有之. 田種各穀, 鉏役恐[愆]期是如爲白遣. 祈雨祭段, 前啓設行邑中瑞山·禮山·天安·平澤·溫陽·新昌·沔川·牙山等八邑 仍爲停止, 前啓外泰安, 今月初二日爲始設行是如爲白有臥乎所. 向後農形及未報邑雨澤, 鱗次陳聞計料. 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충청도 내 농사 상황 및 서산 등 10개 고을의 기우제 시행 경위, 이번 달 초5일 신시쯤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초8일 진시에 이르러 개었는데 저의 감영 측우기 수심이 총 1자 5치 6푼인 연유는 연달아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그날 비로 공주·정산·부여·석성·임천·홍산·회덕·연기·문의 등 9개 고을은 강과 시내가 범람하였고, 전의·목천·천안·평택·아산·온양·신창·청양·대흥·홍주·면천·한산·노성·은진·보은·회인·청주·진천 등 18개 고을은 시내와 도랑이 불어나 가득 찼고, 예산·해미·서산 등 3개 고을은 2려가 내렸습니다.

농사 상황의 경우, 무논에 벼씨를 뿌리거나 마른 논에 씨앗을 뿌린 것은 한창 싹이 자라고 동네 논에 일찍 모내기한 것은 간혹 두벌 김매기하며 들판에 늦게 모내기한 것은 차례로 초벌 김매기를 하고, 가장 높고 메말라 아직 모내기 못한 곳은 지금 막 물을 따라 다투어 심고 있는데 모가 늙고 철이 늦어 아마도 여물기 어려울 듯합니다. 올기장·올조와 섞어 짓는 콩·팥 및 묵화는 연이어 김매기하며 그루같이한 콩·팥 및 늦기장·늦조는 막 초벌 김매기를 시작했습니다. 기름 끝에 내린 비가 지나치게 주룩주룩 쏟아지며 갑자기 불어나

강 주변과 시냇가 지역은 독이 터져 뒤덮고 잠길 걱정이 곳곳에 있습니다. 밭에 심은 각종 곡식은 김매기 시기를 놓쳤다고 합니다. 기우제의 경우, 앞서 시행을 보고한 고을 가운데 서산·예산·천안·평택·온양·신창·면천·아산 등 8개 고을은 중지하였고, 앞서 보고한 것 외에 태안은 이번 달 초2일부터 시행했다고 합니다. 이후의 농사 상황 및 아직 보고하지 않은 고을의 우택은 잇따라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 0401. 1871년(고종 8) 6월 21일(양력 8월 7일)

忠淸監營啓錄 6책(32b~33a) /各司臚錄 7책 忠淸道篇 2책(181d~182a)

道內農形，已爲連次馳啓爲白有在果。續接各邑所報，則付種乾播，連爲茁長，早移已皆再耘，晚移幾盡初耘，高燥處最晚移，漸次着根，而始既積惱於嘆乾，終爲激盪於暴漲，無望成就者，種種有之。早黍粟和種，豆太及木花，鉏役垂畢，根耕豆太及晚黍粟，間或再除草是如爲白乎。今月十九日午時量始雨，或霏或灑，間間霏下，至二十日申時開霽，臣營下測雨器水深爲一寸七分是白如乎。向後形止及各邑雨澤，待其報來，鱗次陳聞計料。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충청도 내 농사 상황은 이미 연달아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무논에 볍씨를 뿌리거나 마른 논에 씨앗을 뿌린 것은 연이어 싹이 자라고 일찍 모내기한 것은 이미 다 두벌 김매기를 하였으며 늦게 모내기한 것은 거의 다 초벌 김매기를 마쳤고, 높고 메마른 곳에 가장 늦게 모내기한 것은 점차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가뭄으로 이미 골치가 아팠는데 끝내는 갑자기 불어난 물에 심하게 부딪혀 제대로 여물 가망이 없는 것이 종종 있습니다. 올기장·올조와 섞어 짓는 콩·팥 및 목화는 김매기가 거의 끝났고 그루같이한 콩·팥 및 늦기장·늦조는 간혹 두벌 김매기를 한다고 합니다. 이번 달 19일 오시쯤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더러 주룩주룩 내리거나 더러 뿌리더니 간간이 세차게 내리다가 20일 신시에 이르러 개었는데 저의 감영 측우기 수심이 1치 7푼이었습니다. 이후 경위 및 각 고을의 우택은 보고가 오기를 기다려 잇따라 아될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 0402. 1871년(고종 8) 6월 26일(양력 8월 12일)

忠淸監營啓錄 6책(33a~33a) /各司臚錄 7책 忠淸道篇 2책(182a~182b)

今月十九日午時量始雨,至二十日申時開霽,臣營下測雨器水深爲一寸七分緣由,已爲馳啓爲白有在果.續接各邑所報,則伊日之雨,全義·連山·鎭岑等三邑 得二犁,公州·木川·新昌·溫陽·定山·洪州·沔川·石城·藍浦·懷德·沃川·懷仁·燕岐等十三邑 得二犁,天安·稷山·平澤·牙山·禮山·靑陽·大興·德山·扶餘·林川·鴻山·韓山·舒川·魯城·恩津·報恩·文義·淸州·鎭川·淸安等二十邑 得一鉏是如爲白乎旆.又於今月二十五日辰時量始雨,一直霑下,至二十六日卯時乃止,臣營下測雨器水深爲九寸二分是白如乎.各邑所得,待其報來,鱗次陳聞計料.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이번 달 19일 오시쯤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20일 신시에 이르러 개었는데 저의 감영 측우기 수심이 1치 7푼인 연유는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그날 비로 전의·연산·진잠 등 3개 고을은 2려가 내렸고, 공주·목천·신창·온양·정산·홍주·면천·석성·남포·회덕·옥천·회인·연기 등 13개 고을은 2려가 내렸고, 천안·직산·평택·아산·예산·청양·대흥·덕산·부여·임천·홍산·한산·서천·노성·은진·보은·문의·청주·진천·청안 등 20개 고을은 1서가 내렸다고 합니다. 또 이번 달 25일 진시쯤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줄곧 세차게 내리다가 26일 묘시에 이르러 이내 그쳤는데 저의 감영 측우기 수심이 9치 2푼이었습니다. 각 고을에 내린 것은 보고가 오기를 기다려 잇따라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 0403. 1871년(고종 8) 7월 2일(양력 8월 17일)

忠淸監營啓錄 6책(33b~34a) /各司臚錄 7책 忠淸道篇 2책(182b~182c)

道內農形及去月二十五日辰時量始雨，至二十六日卯時乃止，臣營下〈測雨器〉水深爲九寸二分緣由，已爲連加馳啓爲白有在果。續接各邑所報，則伊日之雨，公州·全義·木川·天安·定山·青陽·石城·林川·舒川·魯城·連山·鎭岑·懷德·報恩·懷仁·文義·燕岐·淸州·鎭川·淸安·陰城等二十一邑 川渠漲滿，稷山·平澤·牙山·溫陽·新昌·禮山·洪州·鴻山八邑 得二犁，而纔經巨浸，又添新漲，沈者愈沈，潰者益潰，人家頽壓，種種有之是如爲白遣。農形段，田畚各種之酷被汰覆，全無穀形者外，付種乾播及早移，連爲茁茂，晚移已皆再耘，最晚移方張初鉏，早黍粟漸次胚胎，和種豆太及木花，間或起花，根耕豆太及晚黍粟，幾盡除草，而其中木花，最忌潦濕，無望善就是如爲白有臥乎所。潰決之堤塍，董督修治，頽壓之家舍，顧助結構之意，申飭題送爲白乎旆。又於今月初一日卯時量始雨，或霏或灑，間間霏下，至初二日辰時乃止，臣營下測雨器水深爲二寸八分是白如乎。向後農形及未報邑雨澤，鱗次陳聞計料。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충청도 내 농사 상황 및 지난달 25일 진시쯤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26일 묘시에 이르러 이내 그쳤는데 저의 감영 측우기 수심이 9치 2푼인 연유는 이미 잇따라 긴급 보고하였습니니다. 계속해서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그날 비로 공주·전의·목천·천안·정산·청양·석성·임천·서천·노성·연산·진잠·회덕·보은·회인·문의·연기·청주·진천·청안·음성 등 21개 고을은 시내와 도랑이 불어나 가득 찼고, 직산·평택·아산·온양·신창·예산·홍주·홍산 등 8개 고을은 2려가 내렸으며, 침수를 크게 겪자마자 또 새로 더 불어나 잠긴 곳은 더욱 잠기고 터진 곳은 더욱 터져 인가가 무너지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합니다.

농사 상황의 경우, 논밭의 각종 곡식이 사태로 흑심하게 뒤덮여 곡식의 모습이 전혀 없는 것을 제외하고, 무논에 벼씨를 뿌리거나 마른 논에 씨앗을 뿌린 것 및 일찍 모내기한 것은 연이어 무성해지고 늦게 모내기한 것은 이미 다 두벌매기하였으며 가장 늦게 모내기한 것은 한창 초벌 김매기를 하고 있습니다. 올기장·올조는 점차 알을 배고, 섞어 짓는 콩·팥 및 목화는 그사이에 더러 꽃이 피고, 그루같이한 콩·팥 및 늦기장·늦조는 거의



다 김매기를 했습니다. 그 가운데 목화는 가장 습기를 꺼리니 잘 성숙할 가망이 없다고 합니다. 터진 방죽과 두둑은 감독하여 수리하고 무너진 집은 집짓기를 돌보고 도와주라는 뜻으로 단단히 지시하는 결정문을 보냈습니다. 또 이번 달 초1일 묘시쯤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더러 주룩주룩 내리거나 더러 뿌리더니 간간이 세차게 내리다가 초2일 진시에 이르러 이내 그쳤는데 저의 감영 측우기 수심이 2치 8푼이었습니다. 이후의 농사 상황 및 아직 보고하지 않은 고을의 우택은 잇따라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 0404. 1871년(고종 8) 7월 6일(양력 8월 21일)

忠淸監營啓錄 6책(34a~34b) /各司臚錄 7책 忠淸道篇 2책(182c~182d)

去月二十五六兩日之雨，公州等二十九邑被沈形止及今月初一日卯時量始雨，至初二日辰時乃止，臣營下〈測雨器〉水深爲二寸八分緣由，已爲馳啓爲白有在果。續接各邑所報，則去月二十五六日之雨，前啓外大興·沔川·扶餘·恩津·沃川·永同·黃澗·靑山·槐山·延豐·忠州·淸風·堤川·丹陽·永春等十五邑 川渠漲滿，德山·唐津·海美·瑞山·泰安·韓山·庇仁·藍浦·保寧·結城·平薪等十一邑鎮 得二犁，今月初一二日之雨，木川·天安·稷山·溫陽·禮山·魯城·鎮岑等七邑 川渠漲滿，公山·新昌·定山·石城·恩津·連山等六邑 得二犁，靑陽·林川·庇仁·懷德·沃川·報恩·淸州·淸州[淸風]等八邑 得一犁，而添霑於既漲之餘，衝激於已沈之後，田畝全庫汰覆，永失區域者，各穀之漂蕩消灑，已判全棄者，比比有之是如爲白有臥乎(乎)所。未報邑形止，鱗次陳聞計料。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지난달 25·26일 이틀 동안의 비로 공주 등 29개 고을이 입은 침수 경위 및 이번 달 초1일 묘시쯤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초2일 진시에 이르러 이내 그쳤는데 저의 감영 측우기 수심이 2치 8푼인 연유는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지난달 25·26일에 내린 비로 앞서 보고한 것 외에 대흥·면천·부여·은진·옥천·영동·황간·청산·괴산·연풍·충주·청풍·제천·단양·영춘 등 15개 고을은 시내와 도랑이 불어나 가득 찼고, 덕산·당진·해미·서산·태안·한산·비인·남포·보령·결성·평신 등 11개 고을과 군영은 2려가 내렸으며, 이번 달 초1·2일의 비로 목천·천안·직산·온양·예산·노성·진잠 등 7개 고을은 시내와 도랑이 불어나 가득 찼고, 공산·신창·정산·석성·은진·연산 등 6개 고을은 2려가 내렸고, 청양·임천·비인·회덕·옥천·보은·청주·청풍 등 8개 고을은 1려가 내렸습니다. 이미 불어난 끝에 비가 더 쏟아지고 이미 잠긴 뒤에 세차게 부딪혀 논밭의 모든 곳이 사태로 뒤덮여 영원히 구역을 잃게 되고, 각종 곡식이 떠내려가거나 녹아 없어져 이미 전부 포기하는 것으로 판가름 난 것이 곳곳에 있다고 합니다. 아직 보고하지 않은 고을의 경위는 잇따라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 0405. 1871년(고종 8) 7월 12일(양력 8월 27일)

忠淸監營啓錄 6책(34b~35a) /各司臚錄 7책 忠淸道篇 2책(182d~183b)

道內農形及今月初一二兩<日>之雨, 木川等二十一邑所用[得]分數, 已爲馳啓爲白有在果. 續接各邑所報, 則伊日之雨, 前啓外, 牙山·大興·洪州·德山·沔川·唐津·海美·瑞山·泰安·結城·平薪等十一邑 川渠漲滿, 全義·平澤·保寧·鎭川·忠州等五邑 得二犁, 扶餘·鴻山·韓山·舒川·藍浦·永同·黃澗·靑山·懷仁·文義·燕岐·陰城·槐山·延豐·淸風·堤川·丹陽·永春等十八邑 得一犁是如爲白遣. 農形段田畝各穀之酷被汰覆全無穀形者外, 早稻方張胚胎, 中稻漸次茁長, 晚移者再鋤垂畢, 而着根未固, 弱莖無力, (有)有含縮未茁之患, 早黍粟次第發穗, 和種豆太連爲起花, 間或結穎, 而潦雨所沈, 花房腐落, 根耕豆太晚黍粟已除草, 而石城·泰安·保寧等三邑, 有乾蠶蹲縮之患, 痒稼非細是如爲白乎旆. 又於今月初九日午時量始雨, 或霍或灑, 載陰載陽, 至十二日申時乃止, 臣營下<測雨器>水深爲二寸四分是白如乎. 向後農形及各邑<雨>澤, 待其報來, 鱗次陳聞計料. 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충청도 내 농사 상황 및 이번 달 초1·2일 이틀 동안의 비로 목천 등 22개 고을에 내린 양은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그날 비로 앞서 보고한 것 외에 아산·대흥·홍주·덕산·면천·당진·해미·서산·태안·결성·평신 등 11개 고을은 시내와 도랑이 불어나 가득 찼고, 전의·평택·보령·진천·충주 등 5개 고을은 2려가 내렸고, 부여·홍산·한산·서천·남포·영동·황산·청산·회인·문의·연기·음성·괴산·연풍·청풍·제천·단양·영춘 등 18개 고을은 1려가 내렸다고 합니다.

농사 상황의 경우, 논밭의 각종 곡식이 흑심하게 사태로 뒤덮여 전혀 곡식의 모양이 없습니다. 그밖에 올벼는 한창 알을 배고, 중벼는 점차 싹이 자라고 있습니다. 늦게 모내기한 것은 두벌 김매기를 거의 마쳤는데 아직 뿌리를 단단하게 내리지 못해 약한 줄기는 힘이 없어 오그라들고 싹이 자라지 못할 염려가 있습니다. 올기장과 올조는 차례로 이삭이 패고 섞어 짓는 콩·팥은 연이어 꽃이 피며 간혹 다래를 맺는 것도 있는데 장맛비에 잠겨 꽃봉우리가 썩어 떨어집니다. 그루같이한 콩·팥 및 늦기장·늦조는 이미 김매기를 하였습니다. 석성·태안·보령 등 3개 고을은 건잠준축의 근심이 있고 병든 벼가 적지 않다

고 합니다. 또 이번 달 초9일 오시쯤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더러 주룩주룩 내리거나 더러 뿌리다가 언뜻언뜻 흐렸다 별이 났다 하더니 12일 신시에 이르러 이내 그쳤는데 측우기 수심이 2치 4푼이었습니다. 이후의 농사 상황 및 각 고을의 우택은 보고가 오기를 기다려 잇따라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 0406. 1871년(고종 8) 7월 17일(양력 9월 1일)

忠淸監營啓錄 6책(35a~35b) /各司臚錄 7책 忠淸道篇 2책(183b~183b)

今月初九日午時量始雨，至十一日申時開霽，臣營下〈測雨器〉水深爲二寸四分緣由，已爲馳啓爲白有在果，續接各邑所報，則伊日之雨，木川·溫陽·泰安·石城·魯城等五邑 川渠漲滿，公山·瑞山·保寧等三邑 得二犁，全義·天安·稷山·牙山·禮山·大興·洪州·扶餘·鴻山·韓山·庇仁·藍浦·結城·懷德·連山·永同·黃澗·燕岐·鎭川·忠州等二十邑 得一犁是如爲白乎旆，又於今月十六日寅時量始雨，或霏或灑，間間霏下，至同日酉時開霽，臣營下測雨器水深爲一寸五分是白乎旆，各邑所得分數，待其報來，鱗次陳聞計料，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이번 달 초9일 오시쯤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11일 신시에 이르러 개었는데 저의 감영 측우기 수심이 2치 4푼인 연유는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그날 비로 목천·온양·태안·석성·노성 등 5개 고을은 시내와 도랑이 불어나 가득 찼고, 공산·서산·보령 등 3개 고을은 2려가 내렸고, 전의·천안·직산·아산·예산·대흥·홍주·부여·홍산·한산·비인·남포·결성·회덕·연산·영동·황간·연기·진천·충주 등 20개 고을은 1려가 내렸다고 합니다. 또 이번 달 16일 인시쯤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더러 주룩주룩 내리거나 더러 뿌리다가 간간이 세차게 내리더니 같은 날 유시에 이르러 개었는데 저의 감영 측우기 수심이 1치 5푼이었습니다. 각 고을에 내린 양은 보고가 오기를 기다려 잇따라 아될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 0407. 1871년(고종 8) 7월 22일(양력 9월 6일)

忠淸監營啓錄 6책(35b~36a) /各司臚錄 7책 忠淸道篇 2책(183c~183d)

道內農形及今月十六日寅時量始雨，至同日酉時開霽，臣營下〈測雨器〉水深爲一寸四分緣由，連次馳啓爲白有在果。續接各邑所報，則伊日之雨，稷山·泰安兩邑 得二犁，公山·天安·平澤·海美·瑞山·魯城·黃澗等七邑 得一犁，木川·牙山·洪州·扶餘·鴻山·庇仁·保寧·永同·青山·報恩·清州·延豐等十三邑 得一鋤，新昌·禮山·連山·懷仁·沃川等五邑 浥塵是如爲白遣。農形段，早稻·早黍粟次第入實，中稻幾盡發穗，晚稻方張胚胎，和種豆太已爲結穀，木花連爲結穎，間或綻絮，根耕豆太晚黍粟方張起花。前啓中石城等三邑，恐[愆]蠶蹲縮，尙不寢息，前啓外庇仁·結城兩邑，又有恐[愆]蠶蹲縮之災，稷山·泰安兩邑，今月十六日海潮汎濫，堤堰潰決，濱海諸處，禾稼沈損是如爲白有臥乎所。向後形止，鱗次陳聞計料。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충청도 내 농사 상황 및 이번 달 16일 인시쯤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같은 날 유시에 이르러 개었는데 저의 감영 측우기 수심이 1치 4푼인 연유는 연달아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그날 비로 직산·태안 2개 고을은 2려가 내렸고, 공산·천안·평택·해미·서산·노성·황간 등 7개 고을은 1려가 내렸고, 목천·아산·홍주·부여·홍산·비인·보령·영동·청산·보은·청주·연풍 등 13개 고을은 1서가 내렸고, 신창·예산·연산·회인·옥천 등 5개 고을은 먼지만 적실 정도였다고 합니다.

농사 상황의 경우, 올벼와 올기장·올조는 차례로 알이 들고 중벼는 거의 다 이삭이 났으며 늦벼는 한창 이삭이 패고 있으며, 섞어 짓는 콩·팥은 이미 꼬투리를 맺었고 목화는 연이어 다래가 맺히고 간혹 솜이 터지며, 그루같이한 콩·팥 및 늦기장·늦조는 한창 꽃이 피고 있습니다. 앞서 보고한 것 가운데 석성 등 3개 고을은 건잠준축 근심이 아직 그치지 않았으며, 앞서 보고한 것 외에 비인과 결성 2개 고을도 건잠준축의 근심이 있고, 직산·태안 2개 고을은 이번 달 16일에 바닷물이 범람하여 방죽과 둑이 터져 바닷가 여러 곳의 벼가 잠겨서 손상됐다고 합니다. 이후 경위는 잇따라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 0408. 1871년(고종 8) 8월 2일(양력 9월 16일)

忠淸監營啓錄 6책(40b~41a) /各司臚錄 7책 忠淸道篇 2책(186a~186b)

道內農形, 已爲連次馳啓爲白有在果. 續接各邑所報, 則早稻·早黍粟次第向黃, 中稻方張受辛, 晚稻·晚黍粟已有發穗, 和種豆太漸次成實, 木花間摘取, 根耕豆太幾盡結殼, 前啓中石城等五邑, 愆蠶蹲縮, 幸得寢息, 平澤·新昌·德山等三邑, 亦於去月十六日, 海潮汎濫, 海濱諸處田畝各穀, 潰缺沈墊, 鹹氣所透, 蘇醒無望, 目下民情, 極爲愁慘是多[如]爲白乎旃. 今月十二日酉時量始雨, 或霏或灑, 至同月[日]午時<乃止>, 臣營下測雨器水深爲三寸四分, 而尙此霏微不止是如乎. 向後形止, 海溢諸處被災淺深, 待其摘奸報來, 鱗次陳聞計料. 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충청도 내 농사 상황은 이미 연달아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올벼와 올기장·올조는 차례로 누렇게 익어가고 중벼는 한창 고통을 겪고 있으며 늦벼와 늦기장·늦조는 이미 이삭이 났고 섞어 짓는 콩·팥은 점차 알이 영글고 묵화는 간간이 솜을 따서 거두며 그루같이한 콩과 팥은 거의 다 꼬투리를 맺었습니다. 앞서 보고한 것 가운데 석성 등 5개 고을은 건잠준축의 근심이 다행히 그쳤는데, 평택·신창·덕산 등 3개 고을도 지난달 16일 해일 바닷물이 범람하여 바닷가 여러 곳 논밭의 각종 곡식은 독이 터져 잠기고 소금기가 침투하여 되살아날 가망이 없으니, 눈앞의 백성들 심정은 슬프고 참혹하기 그지없다고 합니다. 이번 달 초2일 유시쯤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더러 주룩주룩 내리거나 더러 뿌리더니 같은 날 오시에 이르러 이내 그쳤는데 저의 감영 측우기 수심이 3치 4푼이며, 아직도 이렇게 부슬부슬 내리며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이후 경위와 바닷물이 넘쳐 여러 곳에서 입은 재해의 정도는 캐본 보고가 오기를 기다려 잇따라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 0409. 1871년(고종 8) 8월 5일(양력 9월 19일)

忠淸監營啓錄 6책(41a~41a) /各司謄錄 7책 忠淸道篇 2책(186b~186b)

今月初二日寅時量始雨，至同日午時〔乃止〕，臣營下〔測雨器〕水深爲三寸四分緣由，已爲馳啓爲白有在果。自初二日午時以後，挾風霍灑，間間暴下，至初四日申時及〔乃〕止，臣營下〔測雨器〕水深，又爲五寸九分，統計前後，合爲九寸三分是白如乎。晚節冷雨，過霍暴漲，田畝之潰覆，各穀之沈損，難保必無，誠甚悶然。各邑形止，待其報來，鱗次陳聞計料。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이번 달 초2일 인시쯤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같은 날 오시에 이르러 이내 그쳤는데 저의 감영 측우기 수심이 3치 4푼인 연유는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초2일 오시 이후 바람과 함께 비가 주룩주룩 내리기도 하고 뿌리기도 하다가 간간이 퍼붓더니 초4일 신시에 이르러 이내 그쳤는데 저의 감영 측우기 수심이 5치 9푼이었으며, 지금까지 것을 통틀어 계산하니 총 9치 3푼이었습니다. 늦은 절기에 찬비까지 지나치게 주룩주룩 내려서 갑자기 물이 불어나 논밭은 독이 터지고 흙이 뒤덮여 각종 곡식이 잠겨 손상되는 것이 반드시 없으리라 보장하기 어려우니 정말로 매우 걱정스럽습니다. 각 고을의 경위는 보고가 오기를 기다려 잇따라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 0410. 1871년(고종 8) 8월 12일(양력 9월 26일)

忠淸監營啓錄 6책(41b~42a) /各司臚錄 7책 忠淸道篇 2책(186b~186c)

道內農形及今月十二日以後連日之雨, 公州等十四邑被浸緣由, 已爲連次馳啓爲白有在果. 續接各邑所報, 則伊日之雨, 前啓〈外〉, 全義·木川·天安·稷山·平澤·牙山·溫陽·沔川·德山·鴻山·韓山·舒川·庇仁·藍浦·保〈寧〉·結城·鎭岑·懷德·沃川·永同·黃澗·青山·報恩·懷仁·文義·鎭川·清安·槐山·延豐·陰城·淸風·忠州·堤川·丹陽·永春等三十五邑 川渠漲滿, 新昌·唐津·海美·瑞山·泰安·平薪等六邑鎭 得二犁是如爲白遣. 農形段, 早稻·早黍粟及和種豆太, 次第向熟, 中稻漸次垂穎, 晚稻·晚黍粟及根耕豆太, 方張入實, 而冷雨過霖, 淒風連吹, 早晚各穀, 多致沈損, 其中木花最忌風雨, 莖葉摧敗, 穎房腐落, 綻絮絕罕, 摘取無幾是如爲白有臥乎所. 向後農形, 待其報來, 鱗次陳聞計料. 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충청도 내 농사 상황 및 이번 달 초2일 이후로 공주 등 14개 고을이 침수된 연유는 이미 연달아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그날 비로 앞서 보고한 것 외에 전의·목천·천안·직산·평택·아산·온양·면천·덕산·홍산·한산·서천·비인·남포·보령·결성·진잠·회덕·옥천·영동·황간·청산·보은·회인·문의·진천·청안·괴산·연풍·음성·청풍·충주·제천·단양·영춘 등 35개 고을은 시내와 도랑이 불어나 가득 찼고, 신창·당진·해미·서산·태안·평신 등 6개 고을과 군영은 2려가 내렸다고 합니다.

농사 상황의 경우, 올벼와 올기장·올조 및 섞어 짓는 콩·팥은 차례로 익어가고 중벼는 점차 이삭이 고개를 숙이고 있으며, 늦벼와 늦기장·늦조 및 그루같이한 콩·팥은 한창 알이 들고 있는데, 찬비가 지나치게 주룩주룩 내리고 서늘한 바람이 연이어 불어와 각종 올곡·늦곡이 많은 손상을 입었습니다. 그 가운데 목화가 가장 비바람을 꺼리는데 줄기와 잎이 꺾여 쓰러지고 다래가 썩어 떨어지며 터진 솜이 매우 드물어 딸 것이 거의 없다고 합니다. 이후 농사 상황은 보고가 오기를 기다려 잇따라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 0411. 1871년(고종 8) 8월 22일(양력 10월 6일)

忠淸監營啓錄 6책(77a~77b) /各司臚錄 7책 忠淸道篇 2책(203b~203b)

道內農形，已爲連次馳啓爲白有在果。續接各邑所報，則早稻·早黍粟及和種豆太，幾皆成熟，中稻方雖向熟，晚稻·晚黍粟及根耕豆太，已盡入實，而晚節風雨，長時陰噎，禾穀則未熟而直立徑枯，豆太則不實而空殼孰[就]貼，難期食實者，在在皆然。木花雨以腐傷，風以摧殘，莖鮮結穎，絮不盈掬，則[到]處所見，無復餘望是如爲白有臥乎所。向後農形，鱗次陳聞計料。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충청도 내 농사 상황은 이미 연달아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올벼와 올기장·올조 및 섞어 짓는 콩·팥은 거의 다 익었고, 중벼는 막 익어가 고 있지만 늦벼와 늦기장·늦조 및 그루같이한 콩·팥은 이미 다 알이 찼습니다. 절기가 늦은 데다 비바람이 불고 오랫동안 짙은 구름이 끼어 벼는 미처 익지 못하고 곳곳하게 선 채로 지레 말랐으며, 팥·콩은 알이 들이지 않고 빈 꼬투리만 달려있어 열매를 먹을 기약이 없는데 곳곳이 다 그렇습니다. 목화는 비 때문에 썩어서 상하고 바람 때문에 꺾여 줄기에 맺은 다래가 드물어 숨이 한 움큼도 되지 않으니, 이르는 곳마다 본 것으로는 남은 가망이 다시는 없다고 합니다. 이후 농사 상황은 잇따라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0412. 1871년(고종 8) 9월 3일(양력 10월 16일)

忠淸監營啓錄 6책(78b~78b) /各司臚錄 7책 忠淸道篇 2책(203d~204a)

道內農形, 已爲連次馳啓爲白有在果. 續接各邑所報, 則早稻·早黍粟及和種豆太, 舉皆收穫, 中稻間或刈取, 晚稻·晚黍粟及根耕豆太, 次第成熟, 木花殘莖已敗, 餘絮無幾是如爲白遣. 燕岐·稷山·懷德·淸安·永同等五邑, 二十七日夜霜降, 公州·魯城·槐山·靑陽·鎭岑·延豐·全義·忠州·鎭川·木川等十邑, 二十八日夜霜降是如爲白有臥乎所. 向後形止, 鱗次陳聞計料. 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충청도 내 농사 상황은 이미 연달아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올벼와 올기장·올조 및 섞어 짓는 콩·팥은 대부분 수확하였으며, 중벼는 간혹 베어 거두고 늦벼와 늦기장·늦조 및 그루같이한 콩·팥은 차례로 익고 목화는 허약한 줄기가 이미 쓰러져 남은 솜이 거의 없다고 합니다. 연기·직산·회덕·청안·영동 등 5개 고을은 27일 밤에 서리가 내렸고, 공주·노성·괴산·청양·진잠·연풍·전의·충주·진천·목천 등 10개 고을은 28일 밤에 서리가 내렸다고 합니다. 이후 경위는 잇따라 아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 0413. 1871년(고종 8) 9월 12일(양력 10월 25일)

忠淸監營啓錄 6책(79b~80a) /各司臚錄 7책 忠淸道篇 2책(205d~206a)

道內農形及燕岐<等>五邑, 去月二十七日夜霜降, 公州等十邑, 二十八日夜霜降緣由, 已爲連次馳啓爲白有在果. 續接各邑所報, 則前啓外洪州·結城·文義·韓山·新昌·林川·扶餘·石城·牙山·報恩·陰城·懷仁·舒川·淸風·堤川等十五邑, 去月二十八日夜霜降, 溫陽·淸州·連山·定山·禮山·恩津·沃川·大興·德山·保寧·丹陽等十一邑, 今月初三日夜霜降. 農形段, 無論田畝各穀, 隨其成熟, 次第收穫, 而晚節風雨, 暴吹過霍, 或直立不垂, 或徑枯全棄者, 以沿以峽, 在在皆然. 木花殘艱幾盡枯落, 敗絮無可摘取是如爲白有臥乎所. 大抵今年穡事, 分而言之, 雖有優劣之差殊, 統而論之, 未免災實之互錯是白如乎. 列邑分等配量磨鍊, 迫于登聞計料. 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충청도 내 농사 상황 및 연기 등 5개 고을은 지난달 27일 밤에 서리가 내렸고 공주 등 10개 고을은 28일 밤에 서리가 내렸다는 연유는 이미 연달아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앞서 보고한 것 외에 홍주·결성·문의·한산·신창·임천·부여·석성·아산·보은·음성·회인·서천·청풍·제천 등 15개 고을은 지난달 28일 밤에 서리가 내렸고, 온양·청주·연산·정산·예산·은진·옥천·대흥·덕산·보령·단양 등 11개 고을은 이번 달 초3일 밤에 서리가 내렸습니다.

농사 상황의 경우, 논밭 따질 것 없이 각종 곡식은 익은 대로 차례로 수확하는데 절기가 늦은데다 비바람이 사납게 불고 비가 지나치게 주룩주룩 내려 더러 곳곳이 선 채로 고개를 숙이지 못하고 더러 지레 말라 전부 포기하게 된 것은 바닷가나 산골짜기나 곳곳이다 그렇고, 목화는 부실한 다래가 거의 다 말라 떨어져서 망가진 솜을 따서 거둘 수는 없다고 합니다. 대체로 올해 농사는 구분해서 말하자면 비록 잘되고 못된 차이가 있지만 통틀어 따지자면 재해와 결실이 서로 섞였음을 면할 수 없습니다. 여러 고을의 풍흉 등급은 참작하여 마련해서 나중에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0414. 1872년(고종 9) 3월 1일(양력 4월 8일)

忠淸監營啓錄 6책(134a~134a) /各司臚錄 7책 忠淸道篇 2책(233d~233d)

道內農形, 已爲馳啓爲白有在果. 續接各邑所報, 則秋耨漸益敷青, 春耨幾皆耕播, 糞田鑿畝, 間或始役是如爲白遣. 去月二十九日申時量始雨, 或霏或灑, 至三十日酉時乃止, 臣營下測雨器水深, 爲一寸四分是白如乎. 各邑所得多夥, 待其報來, 鱗次陳聞計料. 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충청도 내 농사 상황은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가을보리는 푸른빛이 점점 짙어지고 봄보리는 거의 다 갈아 씨를 뿌렸으며, 밭에 거름을 내고 논에 가래질하며 간혹 일을 시작하였다고 합니다. 지난달 29일 신시쯤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더러 주룩주룩 내리거나 더러 뿌리더니 30일 유시에 이르러 이내 그쳤는데 저의 감영 측우기 수심이 1치 4푼이었습니다. 각 고을에 내린 양은 보고가 오기를 기다려 잇따라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 0415. 1872년(고종 9) 3월 5일(양력 4월 12일)

忠淸監營啓錄 6책(134a~134b) /各司臚錄 7책 忠淸道篇 2책(233d~234a)

去月二十九日申時量始雨，至三十日酉時乃止，臣營下〈測雨器〉水深爲一寸四分緣由，已爲馳啓爲白有在果，續接各邑所報，則伊日之雨，定山·洪州·魯城·燕岐·鎭川等五邑 得一犁，公州·大興·德山·鴻山等四邑 得一鋤，木川·天安·石城·韓山·恩津·淸州·淸安等七邑 泥塵是如爲白乎旃，又於今月初二日卯時量始雨，或霏或灑，間間霑下，至初四〈日〉申時開霽，臣營下測雨器水深，爲三寸二分是白如乎，各邑所得多寡，待其報來，鱗次陳聞計料，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지난달 29일 신시쯤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30일 유시에 이르러 이내 그쳤는데 저의 감영 측우기 수심이 1치 4푼인 연유는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그날 비로 정산·홍주·노성·연기·진천 등 5개 고을은 1려가 내렸고, 공주·대흥·덕산·홍산 등 4개 고을은 1서가 내렸고, 목천·천안·석성·한산·은진·청주·청안 등 7개 고을은 먼지만 적실 정도였다고 합니다. 또 이번 달 초2일 묘시쯤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더러 부슬부슬 내리기도 하고 더러 뿌리기도 하더니 간혹 세차게 내리다가 초4일 신시에 이르러 개었는데 저의 감영 측우기 수심이 3치 2푼이었습니다. 각 고을에 내린 양은 보고가 오기를 기다려 잇따라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 0416. 1872년(고종 9) 3월 8일(양력 4월 15일)

忠淸監營啓錄 6책(134b~135a) /各司臚錄 7책 忠淸道篇 2책(234a~234b)

去月二十九日之雨, 定山等十六邑所得分數及今月初二日卯時量始雨, 至初四日申時開霽, 臣營下〈測雨器〉水深爲三寸二分緣由, 已爲馳啓爲白有在果. 續接各邑所報, 則二十九日之雨, 前啓外, 扶餘·禮山·泰安·藍浦·結城等五邑 得一犁, 懷德·報恩·懷仁·舒川·淸風·丹陽等六邑 得一鋤, 平澤·新昌·林川·陰城等四邑 浥塵是如爲白遣. 初二日之雨, 公州·平澤·禮山·靑陽·大興·洪州·石城·鴻山·舒川·連山·鎭岑·沃川·永同·靑山等十四邑 川渠漲滿, 溫陽·藍浦·恩津·燕岐·槐山等五邑 得二犁, 木川·天安·林川·庇仁·懷仁·淸州等六邑 得一犁是如爲白乎旆. 又於今月初六日寅時量始雨, 或霏或灑, 間間霑下, 至初七日申時開霽, 臣營下測雨器水深, 爲一寸五分是白如乎. 各邑所得多寡, 待其報來, 鱗次陳聞計料. 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지난달 29일의 비로 정산 등 16개 고을에 내린 양 및 이번 달 초2일 묘시쯤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초4일 신시에 이르러 개었는데 저의 감영 측우기 수심이 3치 2푼인 연유는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29일의 비로 앞서 보고한 것 외에 부여·예산·태안·남포·결성 등 5개 고을은 1려가 내렸고, 회덕·보은·회인·서천·청풍·단양 등 6개 고을은 1서가 내렸고, 평택·신창·임천·음성 등 4개 고을은 먼지만 적실 정도였다고 합니다. 초2일의 비로 공주·평택·예산·청양·대흥·홍주·석성·홍산·서천·연산·진잠·옥천·영동·청산 등 14개 고을은 시내와 도랑이 불어나 가득 찼고, 온양·남포·은진·연기·덕산 등 5개 고을은 2려가 내렸고, 목천·천안·임천·비인·회인·청주 등 6개 고을은 1려가 내렸다고 합니다. 또 이번 달 초6일 인시쯤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더러 부슬부슬 내리거나 더러 뿌리다가 간간이 세차게 내리더니 초7일 신시에 이르러 개었는데 저의 감영 측우기 수심이 1치 5푼이었습니다. 각 고을에 내린 양은 보고가 오기를 기다려 잇따라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 0417. 1872년(고종 9) 3월 11일(양력 4월 18일)

忠淸監營啓錄 6책(135a~136a) /各司臚錄 7책 忠淸道篇 2책(234b~234d)

道內農形及去月二十九日之雨, 定山等三十一邑, 今月初二日之雨, 公州等二十五邑所得分數, 初六日寅時量始雨, 至初七日申時開霽, 臣營下〈測雨器〉水深爲一寸五分緣由, 已爲連次馳啓爲白有在果. 續接各邑所報, 則二十九日之雨, 前啓外, 青陽·沔川兩邑 得一犁, 牙山·唐津·瑞山·海美·庇仁·保寧·永同·沃川·黃澗·青山·文義·堤川·永春·平薪等十四邑鎮 得一鋤, 全義·稷山·溫陽·連山·鎭岑·槐山·延豐·忠州邑八邑, 浥塵是如爲白遣. 初二日之雨, 前啓外, 扶餘·保寧·德山·懷德·黃澗·延豐等六邑 川渠漲滿, 牙山·沔川·定山·魯城·陰城·堤川等六邑 得二犁, 全義·稷山·新昌·唐津·海美·瑞山·泰安·韓山·文義·鎭川·忠州·淸風·丹陽·永春·平薪等十五邑鎮 得一犁, 結城·報恩·淸安等三邑得一犁是如爲白遣. 初六日之雨, 定山·魯城·鎭川等三邑 川渠漲滿, 公州·全義·木川·天安·稷山·溫陽·禮山·青陽·洪州·扶餘·鴻山·庇仁·保寧·結城·燕岐·淸州·忠州等十七邑 得一犁, 新昌·報恩·淸安·懷仁等四邑 得一鋤是如爲白乎旆. 農形段, 秋耔漸次向長, 春耔次第立苗, 鋤役方始爲之, 秧板間或翻耕是如爲白有臥乎所. 向後農形, 鱗次陳聞計料. 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事.

충청도 내 농사 상황 및 지난달 29일의 비로 정산 등 31개 고을과 이번 달 초2일에 내린 비로 공주 등 25개 고을에 내린 양, 초6일 인시쯤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초7일 신시에 이르러 개었는데 저의 감영 측우기 수심이 1치 5푼인 연유는 이미 연달아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29일의 비로 앞서 보고한 것 외에 청양·면천 2개 고을은 1려가 내렸고, 아산·당진·서산·해미·비인·보령·영동·옥천·황간·청산·문의·제천·영춘·평신 등 14개 고을과 군영은 1서가 내렸고, 전의·직산·온양·연산·진잠·괴산·연풍·충주 등 8개 고을은 먼지만 적실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초2일의 비로 앞서 보고한 것 외에 부여·보령·덕산·회덕·황간·연풍 등 6개 고을은 시내와 도랑이 불어나 가득 찼고, 아산·면천·정산·노성·음성·제천 등 6개 고을은 2려가 내렸고, 전의·직산·신창·당진·해미·서산·태안·한산·문의·진천·충주·청풍·단양·영춘·평신 등 15개 고을과 군영은 1려가 내렸고, 결성·보은·청안 등 3개 고을은 1려가 내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초6일의 비로 정산·노성·진천 등 3개 고을이 시내와 도랑이 불어나 가득 찼고, 공주·전의·목천·천안·직산·온양·예산·청양·홍주·부여·홍산·비인·보령·결성·연기·청주·충주 등 17개 고을은 1려가 내렸고, 신창·보은·청안·회인 등 4개 고을은 1서가 내렸다고 합니다. 농사 상황의 경우, 가을보리는 점차 자라고 있으며 봄보리는 차례로 싹이 돋고, 가래질을 막 시작했고, 못자리는 간혹 갈아엮고 있다고 합니다. 이후 농사 상황은 잇따라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 0418. 1872년(고종 9) 3월 21일(양력 4월 28일)

忠淸監營啓錄 6책(136b~137a) /各司臚錄 7책 忠淸道篇 2책(235a~235b)

道內農形及今月十三日戌時量始雨，至十六日午時乃止，臣營下〈測雨器〉水深爲七寸四分緣由，已爲連次馳啓爲白有在在[果]，十六日午時以後，連爲陰翳，間間霏灑，至二十一日午時，臣營下〈測雨器〉水深，又爲一寸九分，而尙此霏微不止是白如乎。續接各邑所報，則伊日之雨，公州·全義·木川·天安·平溫[平澤]·溫陽·新昌·禮山·定山·靑山·大興·德山·石城·扶餘·林川·鴻山·舒川·魯城·恩津·連山·鎭岑·懷德·沃川·永同·文義等二十五邑 川渠漲滿，農形段，秋粳漸次向茂，春粳方始敷青，鋤役幾盡了畢，秧坂間或始役是如爲白有臥乎所。向後形止，鱗次陳聞計料。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충청도 내 농사 상황 및 이번 달 13일 술시쯤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16일 오시에 이르러 이내 그쳤는데 저의 감영 측우기 수심이 7치 4푼인 연유는 이미 연달아 긴급 보고하였습니니다. 16일 오시 이후 연이어 짙은 구름이 끼고 간간이 주룩주룩 내리기도 하고 뿌리기도 하더니 21일 오시에 이르러 저의 감영 측우기 수심이 또 1치 9푼이었는데, 아직도 이렇게 부슬부슬 내리며 그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그날 비로 공주·전의·목천·천안·평택·온양·신창·예산·정산·청산·대흥·덕산·석성·부여·임천·홍산·서천·노성·은진·연산·진잠·회덕·옥천·영동·문의 25개 고을은 시내와 도랑이 불어나 가득 찼습니다.

농사 상황의 경우, 가을보리는 점차 무성해지고 봄보리는 막 푸르름을 더하기 시작했으며 가래질은 거의 다 마쳤고 못자리는 간혹 일을 시작하였다고 합니다. 이후 경위는 잇따라 아될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0419. 1872년(고종 9) 3월 25일(양력 5월 2일)

忠淸監營啓錄 6책(137a~137b) /各司臚錄 7책 忠淸道篇 2책(235b~235c)

今月十三日戌時量始雨，至二十一日午時，臣營下測雨器水深合爲九寸三分緣由及公州等二十五邑雨水形止，已爲連次馳啓爲白有在果。自二十一日午時以後，間間霏微，載陰載陽，至二十四日申時開霽，而別無所得分數之可論是白乎跡。續接各邑所報，則伊日之雨，前啓外，稷山·牙山·洪州·沔川·唐津·海美·瑞山·泰安·韓山·庇仁·藍浦·保寧·結城·黃澗·靑山·報恩·懷仁·燕岐·淸州·鎭川·淸安·陰城·槐山·延豐·忠州·淸風·堤川·丹陽·永春·平薪等三十邑鎭，川渠漲滿是如〈爲〉白有等以，緣由馳啓爲白臥乎事。

이번 달 13일 술시쯤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21일 오시에 이르러 저의 감영 측우기 수심이 총 9치 3푼인 연유 및 공주 등 25개 고을 빗물의 경위는 이미 연달아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21일 오시 이후로 간간이 부슬부슬 내리고 언뜻언뜻 흐렸다 별이 났다 하더니 24일 신시에 이르러 개었는데, 내린 양은 별로 없어 따질만한 것이 없습니다. 계속해서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그날 비로 앞서 보고한 것 외에 직산·아산·홍주·면천·당진·해미·서산·태안·한산·비인·남포·보령·결성·황간·청산·보은·회인·연기·청주·진천·청안·음성·괴산·연풍·충주·청풍·제천·단양·영춘·평신 등 30개 고을과 군영은 시내와 도랑이 불어나 가득 찼다고 합니다. 연유를 긴급 보고합니다.

## 0420. 1872년(고종 9) 4월 2일(양력 5월 8일)

忠淸監營啓錄 6책(138a~138b) /各司臚錄 7책 忠淸道篇 2책(236a~236a)

道內農形，已爲連次馳啓爲白有在果。續接各邑所報，則秋粃幾皆茁茂，春粃漸次向長，畚庫間或翻耕，注秧付種，方始爲之是如爲白有臥乎所。向後農形，鱗次陳聞計料。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충청도 내 농사 상황은 이미 연달아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가을보리는 거의 다 무성하고 봄보리는 점차 자라고 있으며, 논은 간혹 갈아엎고 못자리에 물을 대고 무논에 벼씨를 뿌리는 일을 막 시작하였다고 합니다. 이후 농사 상황은 잇따라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0421. 1872년(고종 9) 4월 12일(양력 5월 18일)

忠淸監營啓錄 6책(138b~138b) /各司臚錄 7책 忠淸道篇 2책(236a~236b)

道內農形, 已爲連次馳啓爲白有在果. 續接各邑所報, 則秋麴已皆胚胎, 間或發穗, 春麴間或  
茁長畚庫次第翻耕, 注秧付種, 方張爲之, 早黍粟和種, 豆太間或耕播是如爲白有臥乎所. 向  
後農形, 鱗次陳聞計料. 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충청도 내 농사 상황은 이미 연달아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가을보리는 이미 다 이삭을 맺고 간혹 이삭이 패며 봄보리는 간혹 싹이  
자라고, 논은 차례로 갈아엎고 못자리에 물을 대고 무논에 벼씨를 뿌리는 일을 한창  
하고 있으며, 올기장·올조와 섞어 짓는 콩·팥은 간혹 갈아서 씨앗을 뿌린다고 합니다.  
이후 농사 상황은 잇따라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0422. 1872년(고종 9) 4월 22일(양력 5월 28일)

忠淸監營啓錄 6책(138b~139a) /各司臚錄 7책 忠淸道篇 2책(236b~236b)

道內農形，已爲連次馳啓爲白有在果。續接各邑所報，則秋耨方張發穗，春耨間或胚胎，畚庫幾盡翻耕，注秧付種，方始立苗，早黍粟和種，豆太及木花，已皆耕播是如爲白有臥乎所。向後農形，鱗次陳聞計料。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충청도 내 농사 상황은 이미 연달아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가을보리는 한창 이삭이 패고 봄보리는 간혹 알을 배고, 논은 거의 다 갈아엎었고, 못자리에 물을 대고 무논에 볍씨를 뿌린 것은 막 싹이 돋기 시작하였고, 올기장·올조와 섞어 짓는 콩·팥 및 목화는 이미 다 갈아서 씨를 뿌렸다고 합니다. 이후 농사 상황은 잇따라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0423. 1872년(고종 9) 4월 23일(양력 5월 29일)

忠淸監營啓錄 6책(139a~139a) /各司臚錄 7책 忠淸道篇 2책(236b~236b)

今月二十二日午時量始雨，或霏或灑，間間霏下，至二十三日午時，臣營下測雨器水深，爲五寸五分，而陰雲密合，尙此霏微是白如乎。向後形止，各邑所得，待其報來，鱗次陳聞計料。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이번 달 22일 오시쯤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더러 부슬부슬 내리거나 더러 뿌리다가 간간이 세차게 내리기도 하더니 23일 오시에 이르러 저의 감영 측우기 수심이 5치 5푼이었습니다. 그런데 먹구름이 뽁뽁이 모이고 아직도 이렇게 부슬부슬 내립니다. 이후 경위와 각 고을에 내린 양은 보고가 오기를 기다려 잇따라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 0424. 1872년(고종 9) 5월 2일(양력 6월 7일)

忠淸監營啓錄 6책(139a~139b) /各司臚錄 7책 忠淸道篇 2책(236c~236d)

道內農形及去月二十二日午時始雨，至二十三日午時，臣營下〈測雨器〉水深爲五寸五分緣由，已爲連次馳啓爲白有在果。續接各邑所報，則伊日之雨，公州·沃川·永同·黃澗·靑山·槐山·延豐·丹陽等八邑 川渠漲滿，全義·木川·稷山·新昌·洪州·德山·沔川·泰安·結城·鎭岑·淸州·鎭川等十二邑 得二犁，天安·平澤·牙山·溫陽·禮山·定山·靑陽·大興·唐津·海美·瑞山·扶餘·石城·林川·鴻山·韓山·舒川·庇仁·藍浦·保寧·魯城·恩津·連山·懷德·報恩·懷仁·文義·燕岐·淸安·陰城·忠州·淸風·堤川·永春·平薪等三十五邑鎭 得一犁是如爲白遣。農形段，秋麴次第向黃，春麴間〈或〉發穗，注秧付種，漸次茁長，早黍粟和種，豆太及木花，舉皆立苗是如爲白有臥乎所。向後農形，鱗次陳聞計料。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충청도 내 농사 상황 및 지난달 22일 오시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23일 오시에 이르러 저의 감영 측우기 수심이 5치 5푼인 연유는 이미 연달아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그날 비로 공주·옥천·영동·황간·청산·괴산·연풍·단양 등 8개 고을은 시내와 도랑이 불어나 가득 찼고, 전의·목천·직산·신창·홍주·덕산·면천·태안·결성·진잠·청주·진천 등 12개 고을은 2려가 내렸고, 천안·평택·아산·온양·예산·정산·청양·대흥·당진·해미·서산·부여·석성·임천·홍산·한산·서천·비인·남포·보령·노성·은진·연산·회덕·문의·연기·청안·음성·충주·청풍·제천·영춘·평신 등 35개 고을과 군영은 1려가 내렸다고 합니다.

농사 상황의 경우, 가을보리는 차례로 누렇게 익어가고 봄보리는 간혹 이삭이 패며, 못자리에 물을 대고 무논에 벼씨를 뿌린 것은 점차 싹이 자라고 올기장·올조와 섞어 짓는 콩·팥 및 목화는 대부분 싹이 돋았다고 합니다. 이후 농사 상황은 잇따라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0425. 1872년(고종 9) 5월 9일(양력 6월 14일)

忠淸監營啓錄 6책(139b~140a) /各司臚錄 7책 忠淸道篇 2책(236d~236d)

今月十三日申時量始雨，至初四日卯時開霽，臣營下〈測雨器〉水深爲一寸三分緣由，已爲馳啓爲白有在果，續接各邑所報，則伊日之〈雨〉，公州·禮山·定山·靑陽·大興·洪州·扶餘·鴻山·庇仁·結城等十邑，得一犁，全義·木川·天安·稷山·平澤·牙山·溫陽·新昌·德山·石城·林川·藍浦·保寧·魯城·恩津·鎭岑·報恩·懷仁·文義·燕岐·淸州·淸安·陰城等三十三邑，得一鋤是如爲白有臥乎所，未報邑形止，待其報來，鱗次陳聞計料，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이번 달 초3일 신시쯤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초4일 묘시에 이르러 개었는데 저의 감영 측우기 수심이 1치 3푼인 연유는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그날 비로 공주·예산·정산·청양·대흥·홍주·부여·홍산·비인·결성 등 10개 고을은 1려가 내렸고, 전의·목천·천안·직산·평택·아산·온양·신창·덕산·석성·임천·남포·보령·노성·은진·진잠·보은·회인·문의·연기·청주·청안·음성 등 33개 고을은 1서가 내렸다고 합니다. 아직 보고하지 않은 고을의 경위는 보고가 오기를 기다려 잇따라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 0426. 1872년(고종 9) 5월 12일(양력 6월 17일)

忠淸監營啓錄 6책(140a~140b) /各司臚錄 7책 忠淸道篇 2책(236d~237a)

道內農形及今月初三日之雨, 公州等三十三邑所得分數, 已爲連次馳啓爲白有在果. 續接各邑所報, 則伊日之雨, 前啓外, 海美·泰安·鎭川·槐山·平薪等五邑鎭 得一犁, 沔川·唐津·瑞山·韓山·舒川·連山·懷德·沃川·永同·黃澗·靑山·延豐·忠州·淸風·堤川·丹陽·永春等十七邑 得一鋤是如爲白遣. 農形段, 秋麴間或刈取, 春麴幾盡向黃, 畚庫漸次移秧, 付種乾播, 方始初鋤, 早黍粟和種, 豆太及木草[花], 次第初除草是如爲白乎旃, 又於今月初十日辰時量始雨, 或霏或灑, 間間霏微, 至十一日申時開霽, 臣營下測雨器水深, 爲一寸七分是白如乎. 向後農形及各邑雨澤, 鱗次陳聞計料. 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충청도 내 농사 상황 및 이번 달 초3일의 비로 공주 등 33개 고을에 내린 양은 이미 연달아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그날 비로 앞서 보고한 것 외에 해미·태안·진천·괴산·평신 등 5개 고을과 군영은 1려가 내렸고, 면천·당진·서산·한산·서천·연산·회덕·옥천·영동·황간·청산·연풍·충주·청풍·제천·단양·영동 등 17개 고을은 1서가 내렸다고 합니다.

농사 상황의 경우, 가을보리는 간혹 베어 거두고 봄보리는 거의 다 누렇게 익어가고 있으며, 논에는 점차 모내기하고 무논에 볍씨를 뿌리거나 마른 논에 씨앗을 뿌린 것은 비로소 초벌 김매기를 시작했으며, 올기장·올조와 섞어 짓는 콩·팥 및 목화는 차례로 초벌 김매기를 한다고 합니다. 또 이번 달 초10일 진시쯤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더러 주룩주룩 내리거나 더러 뿌리더니 간간이 부슬부슬 내리다가 11일 신시에 이르러 개였는데 저의 감영 측우기 수심이 1치 7푼이었습니다. 이후의 농사 상황 및 각 고을의 우택은 잇따라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0427. 1872년(고종 9) 5월 11일(양력 6월 16일)

忠淸監營啓錄 6책(142b~143a) /各司臚錄 7책 忠淸道篇 2책(238a~238b)

今月初十日辰時量始雨，至十一日申時開霽，臣營下〈測雨器〉水深爲一寸七分緣由，已爲馳啓爲白有在果，續接各邑所報，則伊日之雨，淸州·鎭川·槐山·延豐等四邑 得二犁，公州·木川·定山·靑陽·鴻山·庇仁·藍浦·結城·連山·沃川·報恩·懷仁·淸安·陰城等十四邑 得一犁，全義·天安·稷山·牙山·溫陽·新昌·禮山·大興·洪州·海美·石城·扶餘·林川·韓山·舒川·魯城·恩津·鎭岑·懷德·燕岐等二十邑 得一鋤是如爲白有臥乎所，未報邑形止，待其報來，鱗次陳聞計料，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이번 달 초10일 진시쯤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11일 신시에 이르러 개었는데 저의 감영 측우기 수심이 1치 7푼인 연유는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그날 비로 청주·진천·괴산·연풍 등 4개 고을은 2려가 내렸고, 공주·목천·정산·청양·홍산·비인·남포·결성·연산·옥천·보은·회인·청안·음성 등 14개 고을은 1려가 내렸고, 전의·천안·직산·아산·온양·신창·예산·대흥·홍주·해미·석성·부여·임천·한산·서천·노성·은진·진잠·회덕·연기 등 20개 고을은 1서가 내렸다고 합니다. 아직 보고하지 않은 고을의 경위는 보고가 오기를 기다려 잇따라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 0428. 1872년(고종 9) 5월 22일(양력 6월 27일)

忠淸監營啓錄 6책(143a~143b) /各司臚錄 7책 忠淸道篇 2책(238b~238c)

道內農形及今月初十日之雨, 淸州等三十八邑所得分數, 已爲連次馳啓爲白有在果. 續接各邑所報, 則伊日之雨, 前啓外, 德山·永同·黃澗·靑山·文義·忠州·淸風·堤川·丹陽·永春等十邑得一犁, 平澤·沔川·唐津·瑞山·泰安·保寧·平薪等十邑鎭得一鋤是如爲白遣. 農形段, 秋麴已盡登場, 春麴刈穫垂畢, 畚庫方張移秧, 付種乾播, 間或再鋤, 早黍粟和種, 豆太及木花, 次第再除草, 根耕豆太及晚黍粟, 方張耕播是如爲白有臥乎所. 向後農形, 鱗次陳聞計料. 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충청도 내 농사 상황 및 이번 달 초10일의 비로 청주 등 38개 고을에 내린 양은 이미 연달아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그날 비로 앞서 보고한 것 외에 덕산·영동·황간·청산·문의·충주·청풍·제천·단양·영춘 등 10개 고을은 1려가 내렸고, 평택·면천·당진·서산·태안·보령·평신 등 10개 고을과 군영은 1서가 내렸다고 합니다.

농사 상황의 경우, 가을보리는 이미 다 타작했고 봄보리는 베어 수확을 마쳤으며, 논은 한창 모내기하고 무논에 볍씨를 뿌리거나 마른 논에 씨앗을 뿌린 것은 간혹 두벌매기하며, 올기장·올조와 섞어 짓는 콩·팥 및 목화는 차례로 두벌 김매기를 하고 그루같이한 콩·팥 및 늦기장·늦조는 한창 갈아 씨앗을 뿌린다고 합니다. 이후 농사 상황은 잇따라 아될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0429. 1872년(고종 9) 5월 26일(양력 7월 1일)

忠淸監營啓錄 6책(143b~143b) /各司謄錄 7책 忠淸道篇 2책(238c~238c)

今月二十三日酉時量始雨，或霏或灑，至二十五日申時開霽，臣營下測雨器水深，爲一寸是白如乎。各邑所得，待其報來，鱗次陳聞計料。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이번 달 23일 유시쯤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더러 부슬부슬 내리거나 더러 뿌리다가 25일 신시에 이르러 개었는데 저의 감영 측우기 수심이 1치였습니다. 각 고을에 내린 것은 보고가 오기를 기다려 잇따라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 0430. 1872년(고종 9) 5월 30일(양력 7월 5일)

忠淸監營啓錄 6책(143b~144a) /各司臚錄 7책 忠淸道篇 2책(238c~238d)

今月二十三日酉時量始雨, 至二十五日申時開霽, 臣營下〈測雨器〉水深爲一寸緣由, 已爲馳啓爲白有在果. 續接各邑所報, 則伊日之雨, 公州·定山·鎭岑·沃川·懷仁·報恩·燕岐·淸州等九邑得一犁, 全義·木川·溫陽·新昌·靑陽·德山·扶餘·魯城·文義·淸安等十一邑得一鋤, 天安·稷山·牙山·石城·林川·韓山·恩津等七邑 沍塵是如爲白乎旃. 又於今月二十八日辰時量始雨, 或霏或灑, 間間霏下, 至二十九日申時乃止, 臣營下測雨器水深, 爲三寸九分是白如乎. 各邑所得, 待其報來, 鱗次陳聞計料. 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이번 달 23일 유시쯤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25일 신시에 이르러 개였는데 저의 감영 측우기 수심이 1치였다는 연유는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그날 비로 공주·정산·진잠·옥천·회인·보은·연기·청주 등 9개 고을은 1려가 내렸고, 전의·목천·온양·신창·청양·덕산·부여·노성·문의·청안 등 11개 고을은 1서가 내렸고, 천안·직산·아산·석성·임천·한산·은진 등 7개 고을은 먼지만 적실 정도였다고 합니다. 또 이번 달 28일 진시쯤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더러 부슬부슬 내리거나 더러 뿌리다가 간간이 세차게 내리더니 29일 신시에 이르러 이내 그쳤는데 저의 감영 측우기 수심이 3치 9푼이었습니다. 각 고을에 내린 것은 보고가 오기를 기다려 잇따라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 0431. 1872년(고종 9) 6월 2일(양력 7월 7일)

忠淸監營啓錄 6책(144a~144b) /各司臚錄 7책 忠淸道篇 2책(238d~239a)

道內農形及去月二十三日之雨, 公州等二十七邑所得分數, 二十八日辰時量始雨, 至二十九日申時, 臣營下〈測雨器〉水深爲三寸九分緣由, 已爲馳啓爲白有在果. 自二十九日申時以後, 連爲陰翳, 間間霏灑, 至今月初二日卯時, 臣營下測雨器水深, 又爲二分, 而尙未快霽是白乎旆. 續接各邑所報, 則二十三日之雨, 前啓外, 鎭川·陰城·槐山·延豐等四邑, 得一犁, 沔川·泰安·庇仁·舒川·藍浦·保寧·結城·懷德·永同·黃澗·靑山·忠州·淸風·堤川·丹陽·永春·平薪等十七邑鎭得一鋤, 平澤·禮山·大興·洪州·唐津·海美·瑞山等七邑 浥塵是如爲白遣. 農形段, 畚庫幾盡移秧, 而早移者, 間間初鋤, 付種乾播, 方張再鋤, 早黍粟和種, 豆太及木花, 已皆再除草, 根耕豆太及晚黍粟, 連爲耕播是如爲白有臥乎所. 向後農形及各邑雨澤, 鱗次陳聞計料. 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충청도 내 농사 상황 및 지난달 23일의 비로 공주 등 27개 고을에 내린 양과 28일 진시쯤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29일 신시에 이르러 저의 감영 측우기 수심이 3치 9푼인 연유는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29일 신시 이후 연이어 짙은 구름이 끼고 간간이 부슬부슬 내리거나 뿌리다가 이번 달 초2일 묘시에 이르러 저의 감영 측우기 수심이 또 2푼이었는데, 아직도 산뜻하게 개지 않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23일의 비로 앞서 보고한 것 외에 진천·음성·괴산·연풍 등 4개 고을은 1려가 내렸고, 먼천·태안·비인·서천·남포·보령·결성·회덕·영동·황간·청산·충주·청풍·제천·단양·영춘·평신 등 17개 고을과 군영은 1서가 내렸고, 평택·예산·대흥·홍주·당진·해미·서산 등 7개 고을은 먼지만 적실 정도였다고 합니다.

농사 상황의 경우, 논은 거의 다 모내기하였고 일찍 모내기한 것은 간간이 초벌 김매기를 하며, 무논에 법씨를 뿌리거나 마른 논에 씨앗을 뿌린 것은 한창 두벌매기하고, 올기장·올조와 섞어 짓는 콩·팥 및 목화는 이미 다 두벌 김매기를 하였으며 그루갈이하는 콩·팥 및 늦기장·늦조는 연이어 갈아 씨앗을 뿌린다고 합니다. 이후의 농사 상황 및 각 고을의 우택은 잇따라 아될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 0432. 1872년(고종 9) 6월 5일(양력 7월 10일)

忠淸監營啓錄 6책(144b~145a) /各司臚錄 7책 忠淸道篇 2책(239a~239b)

去月二十八日辰時量始雨, 至今月初二日卯時, 臣營下〈測雨器〉水深合爲四寸一分緣由, 已爲馳啓爲白有在果. 續接各邑所報, 則伊日之雨, 公州·全義·定山·魯城·鎭岑·懷德等六邑 川渠漲滿, 木川·天安·平澤·溫陽·禮山·青陽·大興·洪州·藍浦·燕岐·清州·鎭川等十二邑 得二犁, 稷山·牙山·新昌·德山·扶餘·林川·結城·恩津·連山等九邑 得一犁是如爲白乎旆. 又於今月初四日卯時量始雨, 或霏或灑, 至同日酉時開霽, 臣營下測雨器水深, 爲一寸四分是白如乎. 各邑所得, 待其報來, 鱗次陳聞計料. 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지난달 28일 진시쯤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이번 달 초2일 묘시에 이르러 저의 감영 측우기 수심이 총 4치 1푼인 연유는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그날 비로 공주·전의·정산·노성·진잠·회덕 등 6개 고을은 시내와 도랑이 불어나 가득 찼고, 목천·천안·평택·온양·예산·청양·대흥·홍주·남포·연기·청주·진천 등 12개 고을은 2려가 내렸고, 직산·아산·신창·덕산·부여·임천·결성·은진·연산 등 9개 고을은 1려가 내렸다고 합니다. 또 이번 달 초4일 묘시쯤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더러 주룩주룩 내리거나 더러 뿌리더니 같은 날 유시에 이르러 개었는데 저의 감영 측우기 수심이 1치 4푼이었습니다. 각 고을에 내린 것은 보고가 오기를 기다려 잇따라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 0433. 1872년(고종 9) 6월 12일(양력 7월 17일)

忠淸監營啓錄 6책(145a~145b) /各司臚錄 7책 忠淸道篇 2책(239b~239d)

道內農形及去月二十八日之雨, 公州等二十七邑所得分數, 今月初四日卯時量始雨, 至同日酉時, 臣營下〈測雨器〉水深爲一寸四分〈緣由〉, 已爲連次馳啓爲白有在果. 續接各〈邑〉所報, 則二十八日之雨, 前啓外, 保寧·沃川·黃澗·靑山·報恩·懷仁·文義·延豐等八邑 川渠漲滿, 鴻山·槐山·忠州等三邑 得二犁, 沔川·唐津·瑞山·泰安·海美·石城·韓山·舒川·庇仁·永同·淸安·陰城·淸風·堤川·丹陽·永春·平薪等十七邑鎭 得一犁, 初四日之雨, 洪州·大興·淸州等三邑 得二犁, 公州·全義·木川·平澤·牙山·溫陽·新昌·禮山·定山·靑陽·德山·海美·扶餘·石城·鴻山·魯城·恩津·連山·鎭岑·燕岐等二十邑 得一犁, 天安·稷山·韓山·舒川·鎭川·淸安等六邑 得一鋤是如爲白遣. 農形段, 付種乾播, 已盡再鋤, 早移秧方張初鋤, 晚移秧次第着根, 早黍粟和種, 豆太及木花, 連爲除草, 根耕豆太及晚黍粟, 幾盡耕播是如爲白有臥乎所. 向後農形及未報邑雨澤, 鱗次陳聞計料. 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충청도 내 농사 상황 및 지난달 28일의 비로 공주 등 27개 고을에 내린 양과 이번 달 초4일 묘시쯤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같은 날 유시에 이르러 저의 감영 측우기 수심이 1치 4푼인 연유는 이미 연달아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28일의 비로 앞서 보고한 것 외에 보령·옥천·황간·청산·보은·회인·문의·연풍 등 8개 고을은 시내와 도랑이 불어나 가득 찼고, 홍산·괴산·충주 등 3개 고을은 2려가 내렸고, 면천·당진·서산·태안·해미·석성·한산·서천·비인·영동·청안·음성·청풍·제천·단양·영춘·평신 등 17개 고을과 군영은 1려가 내렸으며, 초4일의 비로 홍주·대흥·청주 등 3개 고을은 2려가 내렸고, 공주·전의·목천·평택·아산·온양·신창·예산·정산·청양·덕산·해미·부여·석성·홍산·노성·은진·연산·진잠·연기 등 20개 고을은 1려가 내렸고, 천안·직산·한산·서천·진천·청안 등 6개 고을은 1서가 내렸다고 합니다.

농사 상황의 경우, 무논에 볍씨를 뿌리거나 마른 논에 씨앗을 뿌린 것은 이미 다 두벌매 기하였고 일찍 모내기한 것은 한창 초벌 김매기를 하며 늦게 모내기한 것은 차례로 뿌리를 내리고, 올기장·올조와 섞여 짓는 콩·팥 및 목화는 연이어 김매기하며, 그루같이

하는 콩·팥 및 늦기장·늦조는 거의 다 갈아 씨를 뿌렸다고 합니다. 이후의 농사 상황 및 아직 보고하지 않은 고을의 우택은 잇따라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 0434. 1872년(고종 9) 6월 14일(양력 7월 19일)

忠淸監營啓錄 6책(145b~146a) /各司臚錄 7책 忠淸道篇 2책(239d~239d)

今月初四日, 洪州等二十九邑所得分數, 已爲馳啓爲白有在果. 續接各邑所報, 則伊日之雨, 前啓外, 結城·靑山·黃澗等三邑 得二犁, 沔川·唐津·瑞山·泰安·懷德·沃川·永同·報恩·懷仁·文義·槐山·忠州·淸風·堤川·丹陽·永春·平薪等十七邑鎭 得一犁, 林川·庇仁·藍浦·保寧·陰城·延豐等六邑 得一鋤是如爲白乎旆. 又於今月十三日寅時量始雨, 連爲霏灑, 至同日酉時乃止, 臣營下測雨器水深, 爲三寸三分是白如乎. 各邑所得, 待其報來, 鱗次陳聞計料. 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이번 달 초4일에 홍주 등 29개 고을에 내린 양은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그날 비로 앞서 보고한 것 외 결성·청산·황간 등 3개 고을은 2려가 내렸고, 면천·당진·서산·태안·회덕·옥천·영동·보은·회인·문의·괴산·충주·청풍·제천·단양·영춘·평신 등 17개 고을과 군영은 1려가 내렸고, 임천·비인·남포·보령·음성·연풍 등 6개 고을은 1서가 내렸다고 합니다. 또 이번 달 13일 인시쯤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연이어 주룩주룩 내리기도 하고 뿌리기도 하더니 같은 날 유시에 이르러 이내 그쳤는데 저의 감영 측우기 수심이 3치 3푼이었습니다. 각 고을에 내린 것은 보고가 오기를 기다려 잇따라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 0435. 1872년(고종 9) 6월 22일(양력 7월 27일)

忠淸監營啓錄 6책(146a~146b) /各司臚錄 7책 忠淸道篇 2책(240a~240b)

道內農形及今月十三日寅時量始雨，至同日酉時，臣營下〈測雨器〉水深爲三寸三分緣由，已爲連次馳啓爲白有在果。續接各邑所報，則伊日之雨，全義·溫陽·靑陽·洪州·魯城·連山等六邑 川渠漲滿，公州·木川·稷山·牙山·新昌等五邑 得二犁，天安·禮山·庇仁·燕岐·淸州等五邑 得一犁是如爲白遣。農形段，付種乾播，方張茁長，早移秧間或再耘，晚移秧次第初鋤，早黍粟·和種豆太及木花，連爲除草是如爲白有臥乎所。向後農形，鱗次陳聞計料。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충청도 내 농사 상황 및 이번 달 13일 인시쯤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같은 날 유시에 이르러 저의 감영 측우기 수심이 3치 3푼인 연유는 이미 연달아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그날 비로 전의·온양·청양·홍주·노성·연산 등 6개 고을은 시내와 도랑이 불어나 가득 찼고, 공주·목천·직산·아산·신창 등 5개 고을은 2려가 내렸고, 천안·예산·비인·연기·청주 등 5개 고을은 1려가 내렸다고 합니다. 농사 상황의 경우, 무논에 볍씨를 뿌리거나 마른 논에 씨앗을 뿌린 것은 한창 싹이 자라고 일찍 모내기한 것은 간혹 두벌 김매기를 하며 늦게 모내기한 것은 차례로 초벌 김매기를 하고, 올기장·올조와 섞어 짓는 콩·팥 및 목화는 연이어 김매기를 한다고 합니다. 이후 농사 상황은 잇따라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0436. 1872년(고종 9) 6월 26일(양력 7월 31일)

忠淸監營啓錄 6책(147a~147a) /各司臚錄 7책 忠淸道篇 2책(240b~240c)

今月十三日之雨, 全義等三十邑所得分數, 已爲馳啓爲白有在果. 續接各邑所報, 則伊日之雨, 前啓外, 大興·保寧·永同·黃澗等四邑 川渠漲滿, 平澤·唐津·海美·結城等四邑 得二犁, 扶餘·石城·林川·鴻山·韓山等五邑 得一犁, 瑞山·泰安·平薪等三邑鎭 得一鋤是如爲白有等以. 緣由馳啓爲白臥乎事.

이번 달 13일의 비로 전의 등 30개 고을에 내린 양은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그날 비로 앞서 보고한 것 외에 대흥·보령·영동·황간 등 4개 고을은 시내와 도랑이 불어나 가득 찼고, 평택·당진·해미·결성 등 4개 고을은 2려가 내렸고, 부여·석성·임천·홍산·한산 등 5개 고을은 1려가 내렸고, 서산·태안·평신 등 3개 고을과 군영은 1서가 내렸다고 합니다. 연유를 긴급 보고합니다.

0437. 1872년(고종 9) 7월 3일(양력 8월 6일)

忠淸監營啓錄 6책(147a~147b) /各司臚錄 7책 忠淸道篇 2책(240c~240c)

道內農形，已爲連次馳啓爲白有在果。續接各邑所報，則付種乾播，連爲茁長，早移〈秧〉已皆再耘，晚移〈秧〉幾盡初耘，早黍粟·和種豆太及木花，鋤役垂畢，根耕豆太及晚黍粟，間或再除草，而早至念〈間〉，東風連吹，各穀多損，民事悶然是如爲白有臥乎所。向後農形，鱗次陳聞計料。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충청도 내 농사 상황은 이미 연달아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무논에 볍씨를 뿌리거나 마른 논에 씨앗을 뿌린 것은 연이어 싹이 자라고 일찍 모내기한 것은 이미 다 두벌매기하고 늦게 모내기한 것은 거의 다 초벌 김매기를 하였으며, 올기장·올조와 섞어 짓는 콩·팥 및 목화는 김매기가 거의 끝났고 그루같이한 콩·팥 및 늦기장·늦조는 간혹 두벌 김매기를 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가뭄이 20일쯤에 이르고 동풍이 연이어 불어 각종 곡식이 많이 손상되니 백성들이 사정이 걱정된다고 합니다. 이후 농사 상황은 잇따라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0438. 1872년(고종 9) 7월 12일(양력 8월 15일)

忠淸監營啓錄 6책(147b~147b) /各司臚錄 7책 忠淸道篇 2책(240c~240d)

今月十一日辰時量始雨，連爲霖灑，至同日亥時乃止，臣營下測雨器水深，爲四寸七分是白如  
乎。久旱渴望之餘，得此甘澍，爲民事誠甚萬幸，遠邇均洽，方切顒望。向後形止及各邑所得，  
鱗次陳聞計料。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이번 달 11일 진시쯤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연이어 주룩주룩 내리기도 하고 뿌리기도  
하더니 같은 날 해시에 이르러 이내 그쳤는데 저의 감영 측우기 수심이 4치 7푼이었습니  
다. 오랜 가뭄에 비를 갈망하던 끝에 이런 단비를 만났으니 백성들의 사정을 위해 정말로  
매우 다행스럽습니다. 멀고 가까운 곳이 고루 흡족하게 내리기를 바야흐로 간절히 바랍니  
다. 이후 경위 및 각 고을에 내린 것은 잇따라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 0439. 1872년(고종 9) 7월 13일(양력 8월 16일)

忠淸監營啓錄 6책(147b~148a) /各司臚錄 7책 忠淸道篇 2책(240d~241a)

道內農形及今月十一日辰時量始雨，至同日亥時乃止，臣營下〈測雨器〉水深爲四寸七分緣由，已爲馳啓爲白有在果。自十一日以後，間間霏微，載陰載陽，至十二日申時，仍爲開霽，別無所得分數之可論是白乎旃。續接各邑所報，則農形段，付種乾播及早移〈秧〉，連爲苗茂，晚移〈秧〉已皆再耘，最晚移〈秧〉，方始再鋤，早黍粟漸次胚胎，和種豆太及木花，間或起花，根耕豆太及晚黍粟幾盡除草，而間因旱乾之太甚，田畝各種，多致萎枯，無不受病。其中公州·石城·恩津·燕岐·連山·藍浦·青陽·沃川·永同等九邑，有愆蠶蹲縮之患，瘠稼非細是如爲白有臥乎所。今番雨澤之均霑與否，雖姑未知，而以臣營近郊言之，前所萎枯者，稍有蘇星[蘇醒]之望是白如乎。向後形止，鱗次陳聞計料。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충청도 내 농사 상황 및 이번 달 11일 진시쯤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같은 날 해시에 이르러 이내 그쳤는데 저의 감영 측우기 수심이 4치 7푼인 연유는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니다. 11일 이후 간간이 부슬부슬 내리다가 언뜻언뜻 흐렸다 별이 났다 하더니 12일 신시에 이르러 이내 개었는데 내린 양은 따질 만한 것이 별로 없습니다. 계속해서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농사 상황의 경우, 무논에 벼씨를 뿌리거나 마른 논에 씨앗을 뿌린 것 및 일찍 모내기한 것은 연이어 무성해지고 늦게 모내기한 것은 이미 다 두벌매기 하였으며 가장 늦게 모내기한 것은 막 두벌 김매기를 시작하고, 올기장·올조는 점차 알을 배고, 섞어 짓는 콩·팥 및 목화는 간혹 꽃이 피며 그루같이한 콩·팥 및 늦기장·늦조는 거의 다 김매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사이에 너무 심한 가뭄으로 인해 논밭의 각종 곡식은 많이 시들고 말라서 병들지 않은 것이 없는데, 그 가운데 공주·석성·은진·연기·연산·남포·청양·옥천·영동 등 9개 고을은 건잠준축의 근심이 있고 병든 벼가 적지 않다고 합니다. 이번 우택이 골고루 적셨는지 여부는 비록 아직 모르지만, 저의 감영 근교로 말하자면 이전에 시들어 말랐던 것이 조금 되살아날 가망이 있습니다. 이후 경위는 잇따라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0440. 1872년(고종 9) 7월 17일(양력 8월 20일)

忠淸監營啓錄 6책(148a~148b) /各司臚錄 7책 忠淸道篇 2책(241a~241b)

今月十一日辰時量始雨，至同日亥時，臣營下〈測雨器〉水深爲四寸七分緣由，已爲馳啓爲白有在果。續接各邑所報，則伊日之雨，魯城·連山·洪州等四〔三〕邑 川渠漲滿，定山·鴻山·鎭岑·沃川等四邑 得二犁，全義·木川·天安·牙山·禮山·靑陽等六邑 得一犁，稷山·溫陽·恩津等三邑 得一鋤是如爲白遣。又於今月十四日辰時量始雨，或霏或灑，間間霍下，至十六日申時乃止，臣營下測雨器水深，爲三寸八分是白如乎。各邑所得，待其報來，鱗次陳聞計料。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이번 달 11일 진시쯤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같은 날 해시에 이르러 저의 감영 측우기 수심이 4치 7푼인 연유는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그날 비로 노성·연산·홍주 등 3개 고을은 시내와 도랑이 불어나 가득 찼고, 정산·홍산·진잠·옥천 등 4개 고을은 2려가 내렸고, 전의·목천·천안·아산·예산·청양 등 6개 고을은 1려가 내렸고, 직산·온양·은진 등 3개 고을은 1서가 내렸다고 합니다. 또 이번 달 14일 진시쯤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더러 부슬부슬 내리거나 더러 뿌리다가 간간이 세차게 내리더니 16일 신시에 이르러 이내 그쳤는데 저의 감영 측우기 수심이 3치 8푼이었습니다. 각 고을에 내린 것은 보고가 오기를 기다려 잇따라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 0441. 1872년(고종 9) 7월 23일(양력 8월 26일)

忠淸監營啓錄 6책(148b~149a) /各司臚錄 7책 忠淸道篇 2책(241b~241c)

道內農形及今月十一日之雨, 公州等三十一邑所得分數, 十四日辰時始雨, 至十六日乃止, 臣營下〈測雨器〉水深爲三寸八分緣由, 已爲馳啓爲白有在果. 續接各邑所報, 則十一日之雨, 前啓外, 結城·槐山兩邑 得二犁, 平澤·新昌·海美·瑞山·泰安·扶餘·庇仁·藍浦·保寧·懷仁·靑山·鎭川·延豐·忠州·淸風·堤川·平薪等十八邑鎭 得一犁, 舒川·黃澗·永春等三邑 得一鋤, 十四日之雨, 公州·稷山·溫陽·新昌·洪州·德山等六邑 川渠漲滿, 全義·木川·天安·平澤·牙山等五邑 得二犁, 靑陽·大興·扶餘·石城·林川·韓山等五邑 得一犁是如爲白遣. 農形段, 早稻方張胚胎, 間或發穗, 中晚稻漸次茁長, 早黍粟幾皆發穗, 和種豆太及晚黍粟, 已盡除草. 前啓中公州等九邑, 愆蠶蹲縮, 次第寢息是如爲白有臥乎所. 向後形止, 鱗次陳聞計料. 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충청도 내 농사 상황 및 이번 달 11일의 비로 공주 등 31개 고을에 내린 양, 14일 진시쯤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16일에 이르러 이내 그쳤는데 저의 감영 측우기 수심이 3치 8푼인 연유는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11일의 비로 앞서 보고한 것 외에 결성·괴산 2개 고을은 2려가 내렸고, 평택·신창·해미·서산·태안·부여·비인·남포·보령·회인·청산·진천·연풍·충주·청풍·제천·평신 등 18개 고을과 군영은 1려가 내렸고, 서천·황간·영춘 등 3개 고을은 1서가 내렸으며, 14일의 비로 공주·직산·온양·신창·홍주·덕산 등 6개 고을은 시내와 도랑이 불어나 가득 찼고, 전의·목천·천안·평택·아산 등 5개 고을은 2려가 내렸고, 청양·대흥·부여·석성·임천·한산 등 5개 고을은 1려가 내렸다고 합니다.

농사 상황의 경우, 올벼는 한창 알을 배고, 있으며 간혹 이삭이 났고, 중벼와 늦벼는 점차 싹이 자라고 올기장·올조는 거의 다 이삭이 났으며, 쉬어 짓는 콩·팥 및 늦기장·늦조는 이미 다 김매기를 마쳤다고 합니다. 앞서 보고한 것 가운데 공주 등 9개 고을은 건잠준축의 근심이 차례로 그친다고 합니다. 이후 경위는 잇따라 아쁠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0442. 1872년(고종 9) 8월 3일(양력 9월 5일)

忠淸監營啓錄 6책(149a~149b) /各司臚錄 7책 忠淸道篇 2책(241c~241c)

道內農形及去月十四日之雨，公州等三十七邑所得分數，已爲連次馳啓爲白有在果。續接各邑所報，則伊日之雨，前啓外永同·黃澗·靑山·陰城·槐山·延豐等六邑 川渠漲滿，沔川·唐津·海美·瑞山·泰安·淸安·堤川·平薪等八邑鎭 得二犁是如爲白遣。農形段，早稻·早黍粟，方張入實，中晚稻次第發穗，和種豆太已皆結穀，木花間或綻絮，根耕豆太及晚黍粟，方始起花是如爲白有臥乎所。向後農形，鱗次陳聞計料。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충청도 내 농사 상황 및 지난달 14일의 비로 공주 등 37개 고을에 내린 양은 이미 연달아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그날 비로 앞서 보고한 것 외에 영동·황간·청산·음성·괴산·연풍 등 6개 고을은 시내와 도랑이 불어나 가득 찼고, 면천·당진·해미·서산·태안·청안·제천·평신 등 8개 고을과 군영은 2려가 내렸다고 합니다. 농사 상황의 경우, 올벼와 올기장·올조는 한창 알이 들고 중벼와 늦벼는 차례로 이삭이 패며, 섞어 짓는 콩·팥은 이미 다 꼬투리를 맺었고 목화는 간혹 솜이 터지며, 그루같이한 콩·팥 및 늦기장·늦조는 막 꽃이 피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후 농사 상황은 잇따라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0443. 1872년(고종 9) 8월 8일(양력 9월 10일)

忠淸監營啓錄 6책(149b~149b) /各司臚錄 7책 忠淸道篇 2책(241c~241d)

今月初七日寅時量始雨，或霏或灑，間間霏下，至同日申時開霽，臣營下測雨器水深，爲二寸五分是白如乎。各邑所得，待其報來，鱗次陳聞計料，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이번 달 초7일 인시쯤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더러 부슬부슬 내리거나 더러 뿌리다가 간간이 세차게 내리더니 같은 날 신시에 이르러 개었는데 저의 감영 측우기 수심이 2치 5푼이었습니다. 각 고을에 내린 것은 보고가 오기를 기다려 잇따라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0444. 1872년(고종 9) 8월 13일(양력 9월 15일)

忠淸監營啓錄 6책(149b~150a) /各司臚錄 7책 忠淸道篇 2책(241d~242a)

道內農形及今月初七日寅時量始雨，至同日申時開霽，臣營下〈測雨器〉水深爲二寸五分緣由，已爲馳啓爲白有在果，續接各邑所報，則伊日之雨，公州·洪州·石城·藍浦等四邑，得二犁，木川·天安·稷山·牙山·新昌·定山·扶餘·鴻山·魯城·燕岐等十邑，得一犁，全義·溫陽·大興·林川·韓山·懷德·沃川等七邑，得一鋤是如爲白遣，農形段，早稻·早黍粟，方張向黃，中稻晚移及黍粟，次第入實，和種豆太，次第成實，木花間間摘取，根耕豆太，幾盡結殼是如爲白有臥乎所，向後形止，鱗次陳聞計料，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충청도 내 농사 상황 및 이번 달 초7일 인시쯤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같은 날 신시에 이르러 개었는데 저의 감영 측우기 수심이 2치 5푼인 연유는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그날 비로 공주·홍주·석성·남포 등 4개 고을은 2려가 내렸고, 목천·천안·직산·아산·신창·정산·부여·홍산·노성·연기 등 10개 고을은 1려가 내렸고, 전의·온양·대흥·임천·한산·회덕·옥천 등 7개 고을은 1서가 내렸다고 합니다. 농사 상황의 경우, 올벼와 올기장·올조는 한창 누렇게 익어가고 중벼와 늦게 모내기한 것 및 기장·조는 차례로 알이 들고 섞어 짓는 콩·팥은 차례로 알이 영글며 목화는 간간이 솜을 따서 거두고 그루같이한 콩·팥은 거의 다 꼬투리를 맺었다고 합니다. 이후 경위는 잇따라 아될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 0445. 1872년(고종 9) 8월 14일(양력 9월 16일)

忠淸監營啓錄 6책(150a~150a) /各司臚錄 7책 忠淸道篇 2책(242a~242a)

今月初七日之雨, 公州等二十一邑所得分數, 已爲馳啓爲白有在果. 續接各邑所報, 則伊日之雨, 前啓外, 平澤·禮山·靑陽·海美·德山·沔川·唐津·瑞山·泰安·庇仁·保寧·恩津·平薪等十三邑 鎭 得一犁, 舒川·結城·永同·黃澗·靑山·淸州等六邑 得一鋤是如爲白有等以. 緣由馳啓爲白臥乎事.

이번 달 초7일의 비로 공주 등 21개 고을에 내린 양은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그날 비로 앞서 보고한 것 외에 평택, 예산, 청양, 해미, 덕산, 면천, 당진, 서산, 태안, 비인, 보령, 은진, 평신 등 13개 고을과 군영은 1려가 내렸고, 서천, 결성, 영동, 황간, 청산, 청주 등 6개 고을은 1서가 내렸다고 합니다. 연유를 긴급 보고합니다.

0446. 1872년(고종 9) 9월 4일(양력 10월 5일)

忠淸監營啓錄 6책(176a~176b) /各司臚錄 7책 忠淸道篇 2책(255a~255b)

道內農形, 已爲連次馳啓爲白有在果. 續接各邑所報, 則早稻·早黍粟及和種豆太, 幾皆成熟, 中稻方張向熟, 晚黍粟及根耕豆太, 已盡入實, 而早乾比甚, 東風連吹, 禾穀則未熟而直立徑枯, 豆太則不實而空殼乾貼, 難期食實者, 種種有之, 木花連爲摘取是如爲白有臥乎所. 向後農形, 鱗次陳聞計料. 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충청도 내 농사 상황은 이미 연달아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올벼와 올기장·올조 및 섞어 짓는 콩·팥은 거의 다 익었고 중벼는 한창 익어가며, 늦기장·늦조 및 그루같이한 콩·팥은 이미 다 알이 찼습니다. 그런데 일찍이 가뭄이 비교적 심했고 동풍이 연이어 불어서 벼는 미처 익지 못한 채 곳곳이 서서 지레 마르고 콩과 팥은 알이 들이지 않은 채 빈 꼬투리로 말라붙었으니 열매를 먹기는 기대하기 어려운 것이 종종 있으나, 목화는 연이어 숨을 따서 거둔다고 합니다. 이후 농사 상황은 잇따라 아될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0447. 1872년(고종 9) 9월 14일(양력 10월 15일)

忠淸監營啓錄 6책(176b~176b) /各司臚錄 7책 忠淸道篇 2책(255b~255b)

道內農形，已爲連次馳啓爲白有在果。續接各邑所報，則早稻·早黍粟及和種豆太，方張收穫，中稻幾皆成熟，晚稻·晚黍粟及根耕豆太，次第向熟，木花連爲摘取是如爲白遣。洪州·天安·鴻山·懷德·報恩·陰城·稷山·淸安·鎭川·新昌·平澤·永同等十二邑，今月十[初]六日夜霜降，公州·忠州·槐山·延豐·燕岐·扶餘等六邑，初九日夜霜降是如爲白有臥乎所。向後形止，鱗次陳聞計料。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충청도 내 농사 상황은 이미 연달아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올벼와 올기장·올조 및 섞어 짓는 콩·팥은 한창 수확하고 있으며, 중벼는 거의 다 익었고 늦벼와 늦기장·늦조 및 그루같이한 콩·팥은 차례로 익어가며 목화는 연이어 솜을 따서 거둔다고 합니다. 홍주·천안·홍산·회덕·보은·음성·직산·청안·진천·신창·평택·영동 등 12개 고을은 이번 달 초6일 밤에 서리가 내렸고, 공주·충주·괴산·연풍·연기·부여 등 6개 고을은 초9일 밤에 서리가 내렸다고 합니다. 이후 경위는 잇따라 아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0448. 1872년(고종 9) 9월 17일(양력 10월 18일)

忠淸監營啓錄 6책(177a~177a) /各司臚錄 7책 忠淸道篇 2책(255b~255c)

今月十五日寅時量始雨，或霏或灑，間間霑下，至十七日辰時，臣營下測雨器水深，爲三寸四分是白如乎。各邑所得，待其報來，鱗次陳聞計料。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이번 달 15일 인시쯤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더러 부슬부슬 내리거나 더러 뿌리다가 간간이 세차게 내리더니 17일 진시에 이르러 저의 감영 측우기 수심이 3치 4푼이었습니다. 각 고을에 내린 것은 보고가 오기를 기다려 잇따라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 0449. 1872년(고종 9) 9월 22일(양력 10월 23일)

忠淸監營啓錄 6책(177a~177b) /各司臚錄 7책 忠淸道篇 2책(255c~255d)

道內農形及洪州等十二邑, 今月初六日夜霜降, 公州等六邑, 初九日夜霜降緣由, 已爲連次馳啓爲白有在果. 續接各邑所報, 則沔川·唐津·海美·瑞山·泰安·舒川·庇仁·藍浦·保寧·結城·黃澗·靑山·懷仁等十三邑, 今月二十日夜霜降, 全義·木川·溫陽·禮山·定山·靑陽·大興·德山·石城·林川·韓山·魯城·恩津·連山·鎭岑·沃川等十六邑, 二十一日夜霜降是如爲白遣. 農形段, 無論田畝各穀, 隨其成熟, 次第收穫, 木花幸因日候之均適, 得免綻絮之失節, 而結顆甚陳, 摘花無多是如爲白有臥乎所. 今年穡事, 統而論之, 奄有銍艾之觀, 分而言之, 不無優劣之別, 列邑分等酌量磨鍊, 迫于登聞計料. 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충청도 내 농사 상황 및 홍주 등 12개 고을은 이번 달 초6일 밤에 서리가 내리고, 공주 등 6개 고을은 초9일 밤에 서리가 내린 연유는 이미 연달아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면천·당진·해미·서산·태안·서천·비인·남포·보령·결성·황간·청산·회인 등 13개 고을은 이번 달 20일 밤에 서리가 내렸고, 전의·목천·온양·예산·청산·청양·대흥·덕산·석성·임천·한산·노성·은진·연산·진잠·옥천 등 16개 고을은 21일 밤에 서리가 내렸다고 합니다.

농사 상황의 경우, 논밭 따질 것 없이 각종 곡식은 익는 대로 차례로 수확하고, 목화는 다행히 기후가 고르고 적당함에 따라 솜이 터지는 시기를 놓치는 것은 면했으나 다래를 맺은 것이 매우 드물어 솜을 따는 것이 많지 않다고 합니다. 올해 농사를 통틀어 따지자면 문득 낮으로 수확할 관망이 있지만 구분해 말하자면 우열의 구별이 없지 않으니, 여러 고을의 풍흉 등급은 참작해서 마련하여 나중에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0450. 1873년(고종 10) □월 □일)

錦營啓錄 7책(1a~1a) /各司臚錄 7책 忠淸道篇 2책(259c~259c)

(以上缺)邑溫塵是如爲白遣，又於今月十二日丑時量始雨，或霏或灑，至十三日辰時乃止，臣營下測雨器水深，爲二寸二分是白如乎。各邑所得，待其報來，鱗次陳聞計料。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이상 결) 고을은 먼지만 적실 정도였다고 합니다. 또 이번 달 12일 축시쯤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더러 주룩주룩 내리거나 더러 뿌리더니 13일 진시에 이르러 이내 그쳤는데 측우기 수심이 2치 2푼이었습니다. 각 고을에 내린 것은 보고가 오기를 기다려 잇따라 아될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 0451. 1873년(고종 10) 3월 15일(양력 4월 11일)

錦營啓錄 7책(1a~1b) /各司臚錄 7책 忠淸道篇 2책(259c~259d)

道內農形及今月初八日之雨, 公州等三十一邑所得分數, 十二日丑時量始雨, 或霏或灑, 至十三日辰時乃止, 臣營下水深爲二寸二分緣由, 已爲連次馳啓爲白有在果. 續接各邑所報, 則初八日之雨, 前啓外, 丹陽 得一犁, 鎭川·永春兩邑 得一鋤, 平澤·林川·保寧等三邑 沍塵是如爲白遣. 十二三日之雨, 公州 得二犁, 天安·新昌·藍浦·結城·文義等五邑 得一犁, 木川·平澤·牙山·定山·林川·鴻山·魯城·恩津·沃川·懷仁·燕岐·淸安·淸州等十三邑 得一鋤, 扶餘·石城·連山等三邑 沍塵是如爲白乎旅. 農形段, 秋耨漸次向長, 春耨次第立苗, 鍤役方始爲之, 秧坂間或翻耕是如爲白有臥乎所. 向後農<形>及未報邑雨澤, 鱗次陳聞計料. 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충청도 내 농사 상황 및 이번 달 초8일 내린 비로 공주 등 31개 고을에 내린 양, 12일 축시쯤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더러 주룩주룩 내리거나 더러 뿌리더니 13일 진시에 이르러 이내 그쳤는데 저의 감영 측우기 수심이 2치 2푼인 연유는 이미 연달아 긴급 보고하였습니니다. 계속해서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초8일의 비로 앞서 보고한 것 외에 단양은 1려가 내렸고, 진천·영춘 2개 고을은 1서가 내렸고, 평택·임천·보령 등 3개 고을은 먼지만 적실 정도였다고 합니다. 12·13일의 비로 공주는 2려가 내렸고 천안·신창·남포·결성·문의 등 5개 고을은 1려가 내렸고, 목천·평택·아산·정산·임천·홍산·노성·은진·옥천·회인·연기·청안·청주 등 13개 고을은 1서가 내렸고, 부여·석성·연산 등 3개 고을은 먼지만 적실 정도였다고 합니다.

농사 상황의 경우, 가을보리는 점차 자라가고, 봄보리는 차례로 싹이 돋고, 가래질은 막 시작하였고, 못자리는 간혹 갈아엎는다고 합니다. 이후 농사 상황 및 아직 보고하지 않은 고을의 우택은 잇따라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 0452. 1873년(고종 10) 3월 18일(양력 4월 14일)

錦營啓錄 7책(1b~2a) /各司臚錄 7책 忠淸道篇 2책(259d~260a)

今月初八日之雨, 公州等三十七邑, 十二三日之雨, 公州等二十二邑所得分數, 已爲連次馳啓爲白有在果. 續接各邑所報, 則初八日之雨, 前啓外, 淸風得一鋤, 堤川泥塵是如爲白遣. 十二三日之雨, 前啓外, 洪州·海美·鎭川·槐山·忠州·延豐·平薪等七邑鎭 得一犁, 溫陽·禮山·靑陽·大興·德山·沔川·瑞山·泰安·舒川·保寧·永同·黃澗·靑山·報恩·陰城·稷山等十六邑 得一鋤是如爲白乎旆. 又於今月十七日寅時量始雨, 或霏或灑, 至十八日午時, 臣營下測雨器水深爲八分, 而陰雲未解, 尙此霏微是白如乎. 向後形止, 各邑雨澤, 待其報來, 鱗次陳聞計料. 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이번 달 초8일에 내린 비로 공주 등 37개 고을과 12·13일에 내린 비로 공주 등 22개 고을에 내린 양은 이미 연달아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초8일의 비로 앞서 보고한 것 외에 청풍은 1서가 내렸고, 제천은 먼지만 적실 정도였다고 합니다. 12·13일의 비로 앞서 보고한 것 외에 홍주·해미·진천·괴산·충주·연풍·평신 등 7개 고을과 군영은 1려가 내렸고, 온양·예산·청양·대흥·덕산·면천·서산·태안·서천·보령·영동·황간·청산·보은·음성·직산 등 16개 고을은 1서가 내렸다고 합니다. 또 이번 달 17일 인시쯤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더러 부슬부슬 내리거나 더러 뿌리다가 18일 오시에 이르러 저의 감영 측우기 수심이 8푼이었는데, 먹구름이 아직 흩어지지 않아 아직도 이렇게 부슬부슬 내리고 있습니다. 이후 경위와 각 고을에 내린 우택은 보고가 오기를 기다려 잇따라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 0453. 1873년(고종 10) 3월 25일(양력 4월 21일)

錦營啓錄 7책(2a~2b) /各司臚錄 7책 忠淸道篇 2책(260a~260b)

道內農形及今月十二三日之雨，公州等四十五邑鎮所得分數，十七日寅時量始雨，或霏或灑，至十八日午時，臣營下水深爲八分緣由，已爲連次馳啓爲白有在果。續接各邑所報，則十二三日之雨，前啓外，堤川 得一犁，庇仁 得一鋤，十七八日之雨，木川·平澤·牙山·新昌·青陽·沔川·永同·文義·淸安·槐山·忠州·陰城·泰安·黃澗等十四邑 得一犁，公州·全義·天安·稷山·溫陽·禮山·定山·洪州·唐津·瑞山·結城·恩津·連山·沃川·報恩·燕岐·淸州·鎭川·青山等十九邑 得一鋤，扶餘·石城·藍浦·舒川·鎭岑·懷德等六邑 沍塵是如爲白乎旆。農形段，秋麴漸次向茂，春麴方始敷青，鋪役幾至了畢，秧坂間或始役是如爲白有臥乎所。向後農形，鱗次陳聞計料。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충청도 내 농사 상황 및 이번 달 12·13일에 내린 비로 공주 등 45개 고을과 군영에 내린 양과 17일 인시쯤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더러 부슬부슬 내리거나 더러 뿌리다가 18일 오시에 이르러 저의 감영 측우기 수심이 8푼인 연유는 이미 연달아 긴급 보고하였습니니다. 계속해서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12·13일의 비로 앞에서 보고한 것 외에 제천은 1려가 내렸고, 비인은 1서가 내렸으며, 17·18일의 비로 목천·평택·아산·신창·청양·면천·영동·문의·청안·괴산·충주·음성·태안·황간 등 14개 고을은 1려가 내렸고, 공주·전의·천안·직산·온양·예산·정산·홍주·당진·서산·결성·은진·연산·옥천·보은·연기·청주·진천·청산 등 19개 고을은 1서가 내렸고, 부여·석성·남포·서천·진잠·회덕 등 6개 고을은 먼지만 적실 정도였다고 합니다.

농사 상황의 경우, 가을보리는 점차 무성해지고 봄보리는 막 푸르름을 더하기 시작했으며 가래질은 거의 마쳤고 못자리는 간혹 일을 시작하였다고 합니다. 이후 농사 상황은 잇따라 아될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0454. 1873년(고종 10) 4월 4일(양력 4월 30일)

錦營啓錄 7책(2b~2b) /各司謄錄 7책 忠淸道篇 2책(260b~260b)

今月初三日辰時量始雨，或霏或灑，至初四日午時開霽，臣營下測雨器水深，爲八分是白如乎。  
各邑所得，待其報來，鱗次陳聞計料。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이번 달 초3일 진시쯤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더러 부슬부슬 내리거나 더러 뿌리다가  
초4일 오시에 이르러 개었는데 저의 감영 측우기 수심이 8푼이었습니다. 각 고을에 내린  
것은 보고가 오기를 기다려 잇따라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 0455. 1873년(고종 10) 4월 5일(양력 5월 1일)

錦營啓錄 7책(3a~3a) /各司謄錄 7책 忠淸道篇 2책(260b~260c)

道內農形及今月初三日辰時量始雨，至初四日午時開霽，臣營下水深爲八分緣由，已爲馳啓爲白有在果，續接各邑所報，則伊日之雨，公州·全義·鎭岑等三邑 得一鋤，木川·魯城兩邑 浥塵是如爲白乎旆，農形段，秋耨幾皆茁茂，春耨漸次向長，畚庫間或纈耕，注秧付種，方始爲之是如爲白有臥乎所，向後農形及未報邑雨澤，鱗次陳聞計料，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충청도 내 농사 상황 및 이번 달 초3일 진시쯤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초4일 오시에 이르러 개었는데 저의 감영 측우기 수심이 8푼인 연유는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그날 비로 공주·전의·진잠 등 3개 고을은 1서가 내렸고, 목천·노성 2개 고을은 먼지만 적실 정도였다고 합니다.

농사 상황의 경우, 가을보리는 거의 다 무성하고 봄보리는 점차 자라고 있으며 논은 간혹 갈아엎고 못자리에 물을 대고 무논에 벼씨를 뿌리는 일은 막 시작하였다고 합니다. 이후의 농사 상황 및 아직 보고하지 않은 고을의 우택은 잇따라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0456. 1873년(고종 10) 4월 14일(양력 5월 10일)

錦營啓錄 7책(3a~3b) /各司臚錄 7책 忠淸道篇 2책(260c~260d)

今月初三日之雨，公州等五邑所得分數，已爲馳啓爲白有在果。續接各邑所報，則伊日之雨，庇仁·文義兩邑得一犁，青陽·鴻山·藍浦·懷德·沃川·永同·黃澗·青山·懷仁·燕岐·鎭川·淸安·槐山·延豐·陰城·忠州·淸風·堤川·丹陽·永春等二十邑得一鋤，天安·平澤·稷山·牙山·溫陽·新昌·禮山·定山·大興·洪州·德山·沔川·唐津·海美·瑞山·石城·泰安·扶餘·林川·韓山·舒川·保寧·結城·恩津·連山·報恩·淸州·平薪等二十八邑鎭 溫塵是如爲白遣。又於今月十二日巳時量始雨，或霏或灑，間間霑下，至十三日申時乃止，臣營下測雨器水深，爲一寸三分是白如乎。各邑所得，待其報來，鱗次陳聞計料。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이번 달 초3일의 비로 공주 등 5개 고을에 내린 양은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그날 비로 비인·문의 2개 고을은 1려가 내렸고, 청양·홍산·남포·회덕·옥천·영동·황간·청산·회인·연기·진천·청안·괴산·연풍·음성·충주·청풍·제천·단양·연춘 등 20개 고을은 1서가 내렸고, 천안·평택·직산·아산·온양·신창·예산·정산·대흥·홍주·덕산·면천·당진·해미·서산·석성·태안·부여·임천·한산·서천·보령·결성·은진·연산·보은·청주·평신 등 28개 고을과 군영은 먼지만 적실 정도였다고 합니다. 또 이번 달 12일 사시쯤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더러 부슬부슬 내리거나 더러 뿌리다가 간간이 세차게 내리더니 13일 신시에 이르러 이내 그쳤는데 저의 감영 측우기 수심이 1치 3푼이었습니다. 각 고을에 내린 것은 보고가 오기를 기다려 잇따라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0457. 1873년(고종 10) 4월 15일(양력 5월 11일)

錦營啓錄 7책(3b~4a) /各司臚錄 7책 忠淸道篇 2책(260d~261a)

道內農形及今月十二日巳時量始雨，至十三日申時乃止，臣營下水深爲一寸三分緣由，已爲馳啓爲白有在果。續接各邑所報，則伊日之雨，公州·全義·天安·靑陽·德山·鎭岑·文義等七邑得一犁，鴻山·魯城·連山等三邑得一鋤是如爲白遣。農形段，秋粳方張胚胎，間或發穗，春粳漸次茁長，畝庫次第翻耕，注秧付種，幾皆爲之，早黍粟和種，豆太方始耕播是如爲白有臥乎所。向後農形及各邑得雨多寡，鱗次陳聞計料。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충청도 내 농사 상황 및 이번 달 12일 사시쯤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13일 신시에 이르러 이내 그쳤는데 저의 감영 측우기 수심이 1치 3푼인 연유는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그날 비로 공주·전의·천안·청양·덕산·진잠·문의 등 7개 고을은 1려가 내렸고, 홍산·노성·연산 등 3개 고을은 1서가 내렸다고 합니다. 농사 상황의 경우, 가을보리는 한창 알을 배고 있는데 간혹 이삭이 패고, 봄보리는 점차 싹이 자라고 있으며, 논은 차례로 갈아엎고 못자리에 물을 대고 무논에 벼씨를 뿌리는 일은 거의 다 했으며, 올기장·올조와 섞어 짓는 콩·팥은 비로소 갈아 씨앗을 뿌린다고 합니다. 이후의 농사 상황 및 각 고을에 내린 비의 양은 잇따라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0458. 1873년(고종 10) 4월 15일(양력 5월 21일)

錦營啓錄 7책(4a~4b) /各司臚錄 7책 忠淸道篇 2책(261a~261b)

道內農形及今月十二日之雨, 公州等十邑所得分數, 已爲馳啓爲白有在果, 續接各邑所報, 則伊日之雨, 前啓外, 木川·稷山·平澤·溫陽·新昌·禮山·大興·洪州·沔川·唐津·海美·瑞山·泰安·舒川·庇仁·藍浦·保寧·結城·永同·靑山·鎭川·靑安·槐山·延豐·忠州·靑風·堤川·丹陽·永春·平薪等三十邑鎭, 得一鋤, 牙山·定山·扶餘·石城·林川·韓山·恩津·懷德·沃川·黃澗·報恩·懷仁·燕岐·靑州·陰城等十五邑, 得一鋤是如爲白遣, 農形段, 秋耨方張發穗, 春耨間或胚胎, 畚庫幾盡翻耕, 注秧付種方始立苗, 早黍粟和種, 豆太及木花, 幾皆耕播是如爲白有臥乎所, 向後農形, 鱗次陳聞計料, 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충청도 내 농사 상황 및 이번 달 12일의 비로 공주 등 10개 고을에 내린 양은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그날의 비로 앞서 보고한 것 이외에 목천·직산·평택·온양·신창·예산·대흥·홍주·면천·당진·해미·서산·태안·서천·비인·남포·보령·결성·영동·청산·진천·청안·괴산·연풍·충주·청풍·제천·단양·영춘·평신 등 30개 고을과 군영은 1서가 내렸고, 아산·정산·부여·석성·임천·한산·은진·회덕·옥천·황간·보은·회인·연기·청주·음성 등 15개 고을은 1서가 내렸다고 합니다.

농사 상황의 경우, 가을보리는 한창 이삭이 패고 있고, 봄보리는 간혹 알을 배고 논은 거의 다 갈아엎었고, 못자리에 물을 대고 무논에 벼씨를 뿌린 것은 막 싹이 돋기 시작하였고, 올기장·올조와 섞어짓는 콩·팥 및 목화는 거의 다 땅을 갈고 씨앗을 뿌렸다고 합니다. 이후 농사 상황은 잇따라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0459. 1873년(고종 10) 4월 27일(양력 5월 23일)

錦營啓錄 7책(4b~4b) /各司臚錄 7책 忠淸道篇 2책(261b~261b)

今月二十七日丑時量始雨，或霏或灑，至同日巳時開霽，臣營下測雨器水深，爲五分是白如乎，各邑所得，待其報來，鱗次陳聞計料，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이번 달 27일 축시쯤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더러 부슬부슬 내리거나 더러 뿌리다가 같은 날 사시에 이르러 개었는데, 저의 감영 측우기 수심은 5푼이었습니다. 각 고을에 내린 것은 보고가 오기를 기다려 잇따라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0460. 1873년(고종 10) 5월 5일(양력 5월 30일)

錦營啓錄 7책(5a~5b) /各司臚錄 7책 忠淸道篇 2책(261b~261b)

去月二十七日丑時量始雨，至同日巳時開霽，臣營下水深爲五分緣由，已爲馳啓爲白有在果，續接各邑所報，則公州·大興·洪州·藍浦·結城等五邑，得一鋤，全義·天安·稷山·定山·靑陽·德山·瑞山·扶餘·鴻山·庇仁·魯城·恩津·鎭岑·沃川·報恩·懷仁·文義·燕岐·淸州等十九邑，浥塵是如爲白有臥乎所，未報邑雨澤，隨其報來，鱗次陳聞計料，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지난달 27일 축시쯤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같은 날 사시에 이르러 개였는데, 저의 감영의 수심이 5푼인 연유는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공주·대흥·홍주·남포·결성 등 5개 고을은 1서가 내렸고, 전의·천안·직산·정산·청양·덕산·서산·부여·홍산·비인·노성·은진·진잠·옥천·보은·회인·문의·연기·청주 등 19개 고을은 먼지만 적실 정도였다고 합니다. 보고하지 않은 고을의 우택은 보고가 오는 대로 잇따라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0461. 1873년(고종 10) 5월 6일(양력 5월 31일)

錦營啓錄 7책(5a~5b) /各司臚錄 7책 忠淸道篇 2책(261c~261c)

道內農形, 已爲連次馳啓爲白有在果, 續接各邑所報, 則秋耨次第向黃, 春耨間或發穗, 注秧付種, 漸次茁長, 早黍粟和種, 豆太及木花, 已皆立苗是如爲白有臥乎所, 向後農形, 漸次陳聞計料, 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충청도 내 농사 상황은 이미 연달아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가을보리는 차례로 누렇게 되었고 봄보리는 간혹 이삭이 났고, 못자리에 물을 대고 무논에 벼씨를 뿌린 것은 점차 싹이 자라고, 올기장·올조와 섞여짓는 콩·팥 및 목화는 이미 다 싹이 돋았다고 합니다. 이후 농사 상황은 점차 아를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0462. 1873년(고종 10) 5월 7일(양력 6월 1일)

錦營啓錄 7책(5b~5b) /各司謄錄 7책 忠淸道篇 2책(261c~261c)

今月初六日辰時量始雨，或霏或灑，至初七日卯時乃止，臣營下測雨器水深，爲二寸五分是白如乎，各邑所得多寡，待其報來，鱗次陳聞計料，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이번 달 초6일 진시쯤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더러 부슬부슬 내리거나 더러 뿌리다가 초7일 묘시에 이르러 이내 그쳤는데, 저의 감영 측우기 수심은 2치 5푼이었습니다. 각 고을에 내린 양은 보고가 오기를 기다려 잇따라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0463. 1873년(고종 10) 5월 9일(양력 6월 3일)

錦營啓錄 7책(5b~6a) /各司謄錄 7책 忠淸道篇 2책(261c~261d)

今月初六日辰時量始雨，至初七日卯時，臣營下水深爲二寸五分緣由，已爲馳啓爲白有在果，初七日卯時以後，載陰載暘，間間霏灑，至初八日酉時，仍爲開霽，臣營下測雨器水深，又爲四分是白如乎，各邑所得，隨其報來，鱗次陳聞計料，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이번 달 초6일 진시쯤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초7일 묘시에 이르렀는데, 저의 감영 측우기 수심이 2치 5푼인 연유는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초7일 묘시 이후 언뜻언뜻 흐리거나 별이 나다가 간간이 주룩주룩 내리거나 뿌리더니 초8일 유시에 이르러 이내 개었습니다. 저의 감영 측우기 수심은 또 4푼이었습니다. 각 고을에 내린 것은 보고가 오는 대로 잇따라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 0464. 1873년(고종 10) 5월 11일(양력 6월 5일)

錦營啓錄 7책(6a~6a) /各司臚錄 7책 忠淸道篇 2책(261d~261d)

今月初六日辰時量始雨，至初八日酉時開霽，臣營下水深爲二寸九分緣由，已爲馳啓爲白有在果，續接各邑所報，則伊日之雨，公州·定山·大興等三邑，得二犁，全義·木川·天安·稷山·平澤·溫陽·新昌·禮山·青陽·洪州·德山·扶餘·林川·鴻山·庇仁·藍浦·結城·魯城·恩津·懷德·文義·燕岐·淸州·鎭川等二十四邑，得一犁，韓山·舒川·連山·鎭岑·懷仁等五邑，得一鋤是如爲白有臥乎所，未報邑所得，待其報來，鱗次陳聞計料，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이번 달 초6일 진시쯤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초8일 유시에 이르러 개었는데, 저의 감영의 수심이 2치 9푼인 연유는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그날의 비로 공주·정산·대흥 등 3개 고을은 2려가 내렸고, 전의·목천·천안·직산·평택·온양·신창·예산·청양·홍주·덕산·부여·임천·홍산·비인·남포·결성·노성·은진·회덕·문의·연기·청주·진천 등 24개 고을은 1려가 내렸고, 한산·서천·연산·진잠·회인 등 5개 고을은 1서가 내렸다고 합니다. 보고하지 않은 고을에 내린 것은 보고가 오기를 기다려 잇따라 보고할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 0465. 1873년(고종 10) 5월 16일(양력 6월 10일)

錦營啓錄 7책(6a~6b) /各司臚錄 7책 忠淸道篇 2책(261d~262a)

道內農形及今月初六七八日之雨, 公州等三十三邑所得分數, 已爲馳啓爲白有在果, 續接各邑所報, 則伊日之雨, 前啓外, 沔川·瑞山·泰安·黃澗·靑山·槐山·延豐·忠州·平薪等九邑鎭, 得一犁, 牙山·唐津·海美·石城·保寧·沃川·永同·報恩·靑安·陰城·靑風·堤川·丹陽·永春十四邑, 得一鋤是如爲白遣, 農形段, 秋麴方張刈取, 春麴幾盡向黃, 畚庫間或移秧, 付種乾播方始初鋤, 早黍粟和種, 豆太及木花, 次第初除草是如爲白有臥乎所, 向後農形, 鱗次陳聞計料, 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충청도 내 농사 상황 및 이번 달 초6·7·8일의 비로 공주 등 33개 고을에 내린 양은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그날의 비로 앞서 보고한 것 이외에 면천·서산·태안·황간·청산·괴산·연풍·충주·평신 등 9개 고을과 군영은 1려가 내렸고, 아산·당진·해미·석성·보령·옥천·영동·보은·청안·음성·청풍·제천·단양·영춘 등 14개 고을은 1서가 내렸다고 합니다.

농사 상황의 경우, 가을보리는 한창 베어 거두고 있고, 봄보리는 거의 다 누렇게 되었고 논은 간혹 모내기를 하였고, 무논에 볍씨를 뿌리고 마른논에 씨앗을 뿌린 것은 막 초벌 김매기를 시작하였고, 올기장·올조와 섞어짓는 콩·팥 및 목화는 차례로 초벌 김매기를 하였다고 합니다. 이후 농사 상황은 잇따라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0466. 1873년(고종 10) 5월 24일(양력 6월 18일)

錦營啓錄 7책(6b~7a) /各司臚錄 7책 忠淸道篇 2책(262a~262b)

今月二十三日寅時量始雨，或霏或灑，至二十四日辰時，臣營下測雨器水深，爲三寸二分，而尙此霏灑不止是白如乎，久旱之餘，得此甘霖，爲民事誠萬幸，繼此沛然，方切顙祝爲白乎旆，向後形止，鱗次陳聞計料，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이번 달 23일 인시쯤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더러 부슬부슬 내리거나 더러 뿌리다가 24일 진시에 이르렀는데, 저의 감영 측우기 수심은 3치 2푼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이렇게 부슬부슬 내리거나 뿌리면서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오랜 가뭄 끝에 이렇게 단비가 주룩주룩 내렸으니 백성들의 사정상 정말로 매우 다행입니다. 이후로도 세차게 내리기를 막 간절히 빕니다. 이후 농사 경위는 잇따라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 0467. 1873년(고종 10) 5월 26일(양력 6월 20일)

錦營啓錄 7책(7a~7b) /各司臚錄 7책 忠淸道篇 2책(262b~262c)

道內農形及今月二十三日寅時量始雨，至二十四日辰時，臣營下水深爲三寸三分緣由，已爲連次馳啓爲白有在果，自二十四日辰時以後，或霏或灑，載陰載陽，至二十六日卯時，臣營下測雨器水深，又爲三分，密雲散合，頗有餘意是白乎旆，續接各邑所報，則農形，秋麴幾盡登場，春麴次第刈獲汚下洞沓，方張移秧，付種乾播，初鋤垂畢，早黍粟和種，豆太及木花，方始再除草，而門[間]因日旱之太甚，秧坂自致乾涸，田種未免枯扶[損]是如爲白臥乎所，今番之雨，各邑所得，雖姑未知，以臣營近郊觀之，傍川引溉之沓，僅得移插，奉天高燥之地，無望生水是白如乎，見今夏至隔日，秧節差晚，殆此甘露，方切顙祝，向後農形及各邑雨澤，鱗次陳聞計料，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충청도 내 농사 상황 및 이번 달 23일 인시쯤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24일 진시에 이르렀는데, 저의 감영 측우기 수심이 3치 2푼인 연유는 이미 연달아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24일 진시 이후로 더러 부슬부슬 내리거나 더러 뿌리다가 언뜻언뜻 흐리거나 별이나다가 26일 묘시에 이르렀는데, 저의 감영 측우기 수심은 또 3푼이었습니다. 뽕뽕한 구름이 흩어졌다 모여졌다 하니 자못 더 내릴 조짐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농사 상황의 경우, 가을보리는 거의 다 타작하였으며 봄보리는 차례로 베어 거두었고 지대가 낮은 동네논은 한창 모내기를 하였고, 무논에 벼씨를 뿌리고 마른논에 씨앗을 뿌린 것은 초벌 김매기를 다 끝냈고, 올기장·올조와 섞어 짓는 팔·콩 및 목화는 막 두벌 김매기를 시작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사이 가뭄이 너무 심했기 때문에 못자리가 자연 메마르게 되었고 밭에 뿌린 씨앗은 말라죽은 손해를 면치 못했다고 합니다. 이번 비로 각 고을에 내린 것은 비록 아직 모르지만, 저의 감영 근교로 보자면, 시냇가 물을 끌어다 댈 수 있는 논은 겨우 옮겨 심을 수 있지만 빗물만 바라는 높고 메마른 지대는 물이 생길 가망이 없습니다. 지금 하지가 하루 건너인데 모내기철이 다소 늦어졌으니 거의 이렇게 단비가 세차게 내리기를 막 간절히 바랍니다. 이후 농사 상황 및 각 고을의 우택은 잇따라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0468. 1873년(고종 10) 5월 28일(양력 6월 22일)

錦營啓錄 7책(7b~8a) /各司臚錄 7책 忠淸道篇 2책(262c~262d)

今月二十三日寅時量始雨,至二十六日卯時,臣營下水深合爲三寸五分緣由,已爲馳啓爲白有在果,續接各邑所報,則伊日之雨,公州·海美·鴻山·泰安等四邑,得二犁,木川·天安·平澤·新昌·禮山·定山·洪州·沔川·唐津·舒川·庇仁·藍浦等十二邑,得一犁,全義·稷山·牙山·溫陽·青陽·大興·扶餘·石城·林川·韓山·保寧·魯城·恩津·連山·鎭岑·懷德·沃川·報恩·懷仁·文義·燕岐·清州等二十二邑,得一鋤是如爲白乎旆,又於今月二十六日申時量始雨,或霏或灑,間間驟霏,至二十八日辰時,臣營下測雨器水深,爲二寸二分,而陰雨未解,尙有餘意是白如乎,向後形止,各邑所得,鱗次陳聞計料,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이번 달 23일 인시쯤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26일 묘시에 이르렀는데, 저의 감영 측우기 수심이 총3치 5푼인 연유는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그날의 비로 공주·해미·홍산·태안 등 4개 고을은 2려가 내렸고, 목천·천안·평택·신창·예산·정산·홍주·면천·당진·서천·비인·남포 등 12개 고을은 1려가 내렸고, 전의·직산·아산·온양·청양·대흥·부여·석성·임천·한산·보령·노성·은진·연산·진잠·회덕·옥천·보은·회인·문의·연기·청주 등 22개 고을은 1서가 내렸다고 합니다. 또 이번 달 26일 신시쯤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더러 부슬부슬 내리거나 더러 뿌리다가 간간이 소나기가 주룩주룩 내리다가 28일 진시에 이르렀는데, 저의 감영 측우기 수심은 2치 2푼이었습니다. 먹구름이 풀어지지 않으니 아직 더 내릴 조짐이 있습니다. 이후 경위와 각 고을에 내린 것은 잇따라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 0469. 1873년(고종 10) 6월 2일(양력 6월 26일)

錦營啓錄 7책(8a~9a) /各司謄錄 7책 忠淸道篇 2책(262d~263a)

去月二十四日之雨, 公州等三十八邑所得分數及二十六日申時量始雨, 至二十八日辰時, 臣營下水深爲二寸六分緣由, 已爲馳啓爲白有在果, 自二十八日辰時以後, 載陰載陽, 間間霏灑, 至初一日申時, 仍爲開霽, 別無所得分數之可論是白乎旆, 續接各邑所報, 則二十三、四日之雨, 前啓外, 德山·瑞山·結城·靑山·鎭川·淸風·丹陽·永春·平薪等九邑鎭, 得一犁, 永同·黃澗·淸安·陰城·槐山·延豐·忠州·堤川等八邑, 得一鋤, 二十六、七日之雨, 公州·扶餘·懷德·黃澗·靑山等五邑, 得二犁, 全義·溫陽·新昌·大興·沔川·鴻山·藍浦·連山·沃川·文義·燕岐·陰城等十二邑, 得一犁, 牙<山>·禮山·德山·石城·林川·舒川·結成·魯城·鎭岑·報恩·淸州等十一邑, 得一鋤, 木川·天安·稷山·平澤·韓山·恩津等六邑涸塵, 而向日所得, 旣未周洽, 今番之雨, 又止驟過, 優洽處僅得移秧而旋致乾涸, 暫霽處殆同沃焦而無望生水, 悶旱之報, 一辭同然, 而其中平澤, 以其民事之切急, 去月二十八日爲始, 設行祈雨祭, 韓山·沃川·報恩·淸州·淸安等五邑, 亦爲請行祈雨祭, 故使之虔誠設行爲白乎旆, 向後形止, 鱗次陳聞計料, 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지난 24일의 비로 공주 등 38개 고을에 내린 양과 26일 신시쯤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28일 진시에 이르렀는데, 저의 감영 측우기 수심이 2치 6푼인 연유는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28일 진시 이후로 언뜻언뜻 흐리거나 별이 나다가 간간이 부슬부슬 내리거나 뿌리기도 하다가 이번 달 초1일 신시에 이르러 이내 개었는데, 내린 양은 별달리 따질만한 것이 없다고 합니다.

계속해서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23, 24일에 내린 비의 경우, 앞서 보고한 것 이외에 덕산·서산·결성·청산·진천·청풍·단양·영춘·평신 등 9개 고을과 군영은 1려가 내렸고, 영동·황간·청안·음성·괴산·연풍·충주·제천 등 8개 고을은 1서가 내렸다고 합니다. 지난날 26, 27일의 비로 공주·부여·회덕·황간·청산 등 5개 고을은 2려가 내렸고, 전의·온양·신창·대흥·면천·홍산·남포·연산·옥천·문의·연기·음성 등 12개 고을은 1려가 내렸고, 아산·예산·덕산·석성·임천·서천·결성·노성·진잠·보은·청주 등 11개 고을은 1서가 내렸고, 목천·천안·직산·평택·한산·은진 등 6개 고을은 먼지만 적실 정도였다고 합니다. 지난날 내린

비는 이미 흡족하지 못했고 이번 비는 또 소나기에 불과했습니다. 흡족하게 내린 곳은 겨우 모내기를 할 수 있었지만 곧바로 메말랐고 잠깐 주룩주룩 내린 곳도 거의 뜨거운 솔에 물 뿌리는 것과 같아서 물이 생길 가망이 없었습니다.

가뭄을 근심하는 보고가 한결같이 같았습니다. 그중 평택은 백성들의 사정이 매우 다급하여 지난달 28일부터 기우제를 시행하였고, 한산·옥천·보은·청주·청안 등 5개 고을도 또한 기우제 시행을 요청하였으므로 정성을 다해 시행하도록 했습니다. 이후 경위는 잇따라 아될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 0470. 1873년(고종 10) 6월 6일(5일)(양력 6월 29일)

錦營啓錄 7책(9a~9b) /各司臚錄 7책 忠淸道篇 2책(263a~263b)

道內農形及去月二十六七日之雨，公州等三十四邑所得分數，平澤祈雨祭緣由，已爲連次馳啓爲白有在果，續接各邑所報，則伊日之雨，前啓外，定山·靑陽·忠州等三邑，得一犁，瑞山·懷仁·鎭川·槐山·淸風·堤川·丹陽等七邑，得一鋤，農形段，秋麴已盡登場，春麴刈穫垂畢，洞畝裕水處，幾皆移秧，付種乾播，間或再鋤，早黍粟和種，豆太及木花，次第再除草，根耕豆太及晚黍粟，方始耕播是如爲白遣，祈雨祭段，前啓請行邑中，韓山去月三十日爲始設行，報恩·淸州兩邑，今月初二日爲始設行，前啓外，林川初二日爲始設行，文義初四日爲始設行，稷山·魯城·懷德等三邑，亦爲請行，故使之虔誠設行爲白乎旆，又於今月初五日午時量始雨，間間驟霏，乍陰乍陽，至初五日申時，仍爲開霽，臣營下測雨器水深，爲一寸五分是白如乎，雨澤終漸均洽，秧節漸致差晚，爲民事誠甚悶然，向後形止，鱗次陳聞計料，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충청도 내 농사 상황 및 지난달 26·27일의 비로 공주 등 34개 고을에 내린 양과 평택에서 기우제를 지낸 연유는 이미 연달아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보니, 그날의 비로 앞서 보고한 것 이외에 정산·청양·충주 등 3개 고을은 1려가 내렸고, 서산·회인·진천·괴산·청풍·제천·단양 등 7개 고을은 1서가 내렸다고 합니다. 농사 상황의 경우, 가을보리는 이미 다 타작하였으며 봄보리는 베어 거두기를 다 끝냈고 동네논 중 물이 넉넉한 곳은 거의 다 모내기를 하였고 무논에 벼씨를 뿌리고 마른논에 씨앗을 뿌린 것은 간혹 두벌매기를 하였고 올기장·올조와 섞어짓는 콩·팥 및 목화는 차례로 두벌 김매기를 하였고 그루같이한 콩·팥 및 늦기장·늦조는 막 땅을 갈고 씨앗을 뿌리기 시작하였다고 합니다.

기우제의 경우, 앞서 보고에서 시행하기를 요청했던 고을 중 한산은 지난달 30일부터 시행하였고 보은·청주 2개 고을은 이번 달 초2일부터 시행했습니다. 앞서 보고한 것 이외에 임천은 이번 달 초2일부터 시행하였고, 문의는 초4일부터 시행하였고, 직산·노성·회덕 등 3개 고을도 또한 시행하기를 요청하였으므로 정성을 다해 시행하도록 했습니다. 또 이번 달 초5일 오시쯤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간간이 소나기가 주룩주룩 내리기도



하다가 언뜻언뜻 흐리거나 별이 나다가 초5일 신시에 이르러 이내 개었는데, 저의 감영 측우기 수심은 1치 5푼이었습니다. 우택은 끝내 골고루 적셔주는 데 부족하여 모내기철이 점점 다소 늦어져 백성들의 사정이 정말로 매우 걱정입니다. 이후 경위는 잇따라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 0471. 1873년(고종 10) 6월 12일(양력 7월 6일)

錦營啓錄 7책(9b~10a) /各司臚錄 7책 忠淸道篇 2책(263c~263d)

道內平澤等六邑祈雨祭設行形止及今月初二日午時量始雨·至初五日申時開霽，臣營下水深爲一寸一分緣由，已爲馳啓爲白有在果，續接各邑所報，則伊日之雨，連山·懷德·沃川·黃澗·青山·延豐·堤川·丹陽等八邑，得二犁，公州·禮山·定山·靑陽·大興·洪州·德山·沔川·唐津·海美·瑞山·陰城·槐山·忠州·淸風·永春等十六邑，得一犁，溫陽·新昌·石城·恩津·永同·懷仁·文義·淸安等八邑，得一鋤是如爲白遣，祈雨祭段，前啓請行邑中，稷山今月初五日爲始設行，懷仁初七日爲始設行，魯城初九日爲始設行，前啓外，木川亦爲請行，故使之虔誠祈禱爲白乎旅，又於今月初九日酉時量始雨，或霏或灑，間間霑下，至初十日午時乃止，臣營下測雨器水深，爲一寸四分是白如乎，各邑所得，待其報來，鱗次陳聞計料，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충청도 내 평택 등 6개 고을의 기우제를 시행한 경위 및 이번 달 초2일 오시쯤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초5일 신시에 이르러 개었는데, 저의 감영 측우기 수심이 1치 5푼인 연유는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연산·회덕·옥천·황간·청산·연풍·제천·단양 등 8개 고을은 2려가 내렸고, 공주·예산·정산·청양·대흥·홍주·덕산·면천·당진·해미·서산·음성·괴산·충주·청풍·영춘 등 16개 고을은 1려가 내렸고, 온양·신창·석성·은진·영동·회인·문의·청안 등 8개 고을은 1서가 내렸다고 합니다.

기우제의 경우, 앞서 보고하여 시행하기를 요청한 고을 가운데 직산은 이번 달 초5일부터 시행하였고, 회인은 초7일부터 시행하였고, 노성은 초9일부터 시행하였습니다. 앞서 보고한 것 이외에 목천도 또한 시행하기를 요청하였으므로 정성을 다해 기도하도록 하였습니다.

또 이번 달 초9일 유시쯤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더러 부슬부슬 내리거나 더러 뿌리다가 간간이 주룩주룩 내리다가 초10일 오시에 이르러 이내 그쳤는데, 저의 감영 측우기 수심은 1촌 4푼이었습니다. 각 고을에 내린 것은 보고가 오기를 기다려 잇따라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0472. 1873년(고종 10) 6월 13일(양력 7월 7일)

錦營啓錄 7책(10b~10b) /各司臚錄 7책 忠淸道篇 2책(263d~263d)

今月初九日酉時量始雨，至初十日午時，臣營下水深爲一寸四分緣由，已爲馳啓爲白有在果，自初十日午時以後，連爲陰翳，間間霏微，十一日午時量，更爲始雨，一直霑下，至十三日寅時開霽，臣營下測雨器水深，又爲九寸一分，竝計前後，合爲一尺五寸，而各邑形止，雖姑未知，以臣營近郊言之，不啻優洽，還涉過霑，田畝之潰決，各穀之沈墊，種種有之是白如乎，各邑所得，待其報來，鱗次陳聞計料，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이번 달 초9일 유시쯤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초10일 오시에 이르렀는데, 저의 감영 측우기 수심이 1치 4푼인 연유는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이번 달 초10일 오시 이후로 연이어 먹구름이 끼고 간간이 부슬부슬 내리다가 11일 오시쯤 다시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줄곧 주룩주룩 내리다가 13일 인시에 이르러 개었는데, 저의 감영 측우기 수심은 또 9치 1푼으로 지금까지 것을 아울러 계산하면 총 1자 5치였습니다.

각 고을의 경위는 비록 아직 모르겠으나 저의 감영 근교로 말하자면 흡족하게 내렸을 뿐만 아니라 도리어 지나치게 주룩주룩 내려서 논밭의 두둑이 터져 각종 곡식은 물에 잠기는 일이 종종 있었습니다. 각 고을에 내린 것은 보고가 오기를 기다려 잇따라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 0473. 1873년(고종 10) 6월 16일(양력 7월 10일)

錦營啓錄 7책(10b~11b) /各司臚錄 7책 忠淸道篇 2책(263d~264b)

道內農形及平澤等九邑, 祈雨祭設行形止, 今月初九日酉時量始雨, 至十三日寅時開霽, 臣營下水深合爲一尺五分緣由, 已爲連次馳啓爲白有在果, 續接各邑所報, 則伊日之雨, 公州·定山·石城·林川·鴻山·懷德·文義·燕岐等八邑, 江川汎濫, 全義·木川·天安·稷山·溫陽·新昌·禮山·大興·德山·舒川·魯城·恩津·連山·鎭岑·沃川·報恩·懷仁·淸州·鎭川等十九邑, 川渠漲溢, 農形段, 付種乾播, 幾盡再鋤, 洞畚早移者, 方張初鋤, 高燥未移處, 逐水爭插, 早黍粟和種, 豆太及木花, 已皆再除草, 根耕豆太及晚黍粟, 連爲耕播是如爲白遣, 祈雨祭段, 前啓設行邑中, 稷山·林川·魯城·報恩·懷仁·文義·淸州等七邑, 次第停止, 前啓外天安·稷山·懷德等三邑, 一次設行後, 得雨仍停是如爲白乎旆, 又於今月十四日丑時量始雨, 連爲霑灑, 至十五日午時開霽, 臣營下水深, 爲三寸九分是白如乎, 向後農形及未報邑雨澤, 鱗次陳聞計料, 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충청도 내 농사 상황 및 평택 등 9개 고을의 기우제를 시행한 경위와 이번 달 초9일 유시쯤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13일 인시에 이르러 개었는데, 저의 감영 측우기 수심은 총 1치 5푼인 연유는 이미 연달아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그날의 비로 공주·정산·석성·임천·홍산·회덕·문의·연기 등 8개 고을은 강과 시내가 범람하였고, 전의·목천·천안·직산·온양·신창·예산·대흥·덕산·서천·노성·은진·연산·진잠·옥천·보은·회인·청주·진천 등 19개 고을은 시내와 도랑이 불어 넘쳤습니다. 농사 상황의 경우, 무논에 벼씨를 뿌리고 마른논에 씨앗을 뿌린 것은 거의 다 두벌매기를 하였고, 동네논에 일찍 모내기를 한 것은 한창 초벌 김매기를 하였고, 높고 메말라 아직 모내기를 하지 못한 곳은 물이 생기는 대로 다투어 심었습니다. 올기장·올조와 섞어짓는 콩·팥 및 묵화는 이미 다 두벌매기를 하였고, 그루같이한 콩·팥 및 늦기장·늦조는 연이어 땅을 갈고 씨앗을 뿌렸다고 합니다.

기우제의 경우, 앞선 보고에서 시행했던 고을 중 직산·임 천·노성·보은·회인·문의·청주 등 7개 고을은 차례로 기우제를 중지하였고, 앞서 보고한 것 이외에 천안·직산·회덕 등

3개 고을은 1차 시행한 후 비가 내려서 이내 중지하였다고 합니다. 또 이번 달 14일  
축시쯤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연이어 주룩주룩 내리거나 뿌리다가 15일 오시에 이르러  
개었는데, 저의 감영 측우기 수심은 3치 9푼이었습니다. 이후 농사 상황 및 보고하지  
않은 고을의 우택은 잇따라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 0474. 1873년(고종 10) 6월 19일(양력 7월 13일)

錦營啓錄 7책(11b~12a) /各司臚錄 7책 忠淸道篇 2책(264b~264c)

今月初九日以後連日之雨·公州等二十七邑所得分數,十三日丑時量始雨,至十五日午時開霽,臣營下水深爲三寸九分形止及稷山等七邑祈雨祭停止緣由,已爲馳啓爲白有在果,續接各邑所報,則初九日以後,連日之雨,前啓外,青陽·洪州·扶餘·藍浦·保寧·結城·永同·陰城·忠州等九邑,川渠漲滿,平澤·沔川·唐津·海美·瑞山·泰安·韓山·庇仁·淸安·槐山·延豐·丹陽·永春·平薪等十九邑鎮,得二犁,牙山·黃澗·青山·淸風·堤川等五邑,得一犁,十四五兩日之雨,林川·韓山·連山·懷德·報恩·文義·淸安等十邑,川渠漲滿,公州·稷山·扶餘·恩津·燕岐等五邑,得二犁,木川·天安·青陽·大興·洪州·保寧·魯城·懷仁·淸州等九邑,得一犁是如爲白遣,祈雨祭段,前啓設行邑中,韓山停止,平澤所得之雨,終未優洽,連爲設行是如爲白乎旆,又於今月十八日寅時量始雨,或霏或灑,至十九日卯時開霽,臣營下測雨器水深,爲三寸三分是白如乎,各邑所得,待其報來,鱗次陳聞計料,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이번 달 초9일 이후로 연일의 비로 공주 등 27개 고을에 내린 양과 13일 축시쯤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15일 오시에 이르러 개었는데, 저의 감영 측우기 수심은 3치 9푼인 경위 및 직산 등 7개 고을은 기우제를 중지한 연유는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초9일 이후 연일의 비로 앞서 보고한 것 이외에 청양·홍주·부여·남포·보령·결성·영동·음성·충주 등 9개 고을은 시내와 도랑에 물이 가득 불어났고, 평택·면천·당진·해미·서산·태안·한산·비인·청안·괴산·연풍·단양·영춘·평신 등 19개 고을과 군영은 2려가 내렸고, 아산·황간·청산·청풍·제천 등 5개 고을은 1려가 내렸다고 합니다. 이번 달 14일과 15일 이틀 내린 비로 임천·한산·연산·회덕·보은·문의·청안 등 10개 고을은 시내와 도랑이 불어나 가득 찼고, 공주·직산·부여·은진·연기 등 5개 고을은 2려가 내렸고, 목천·천안·청양·대흥·홍주·보령·노성·회인·청주 등 9개 고을은 1려가 내렸다고 합니다.

기우제의 경우, 앞선 보고에서 시행했던 고을 중 한산은 중지하였고, 평택은 내린 비가 끝내 흡족하게 적서주지 못하여 연이어 시행했다고 합니다. 또 이번 달 18일 인시쯤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더러 주룩주룩 내리기도 하고 더러 뿌리다가 19일 묘시에 이르러  
개었는데, 저의 감영 측우기 수심은 3치 3푼이었습니다. 각 고을에 내린 것은 보고가  
오기를 기다려 잇따라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 0475. 1873년(고종 10) 6월 23일(양력 7월 17일)

錦營啓錄 7책(12a~13a) /各司臚錄 7책 忠淸道篇 2책(264c~264d)

今月十四五兩日之雨, 林川等二十一邑所得分數, 十八日寅時量始雨, 至十九日卯時開霽, 臣營下水深爲三寸三分緣由, 已爲馳啓爲白有在果, 續接各邑所報, 則十四五兩日之雨, 前啓外, 定山·鴻山·舒川·永同·黃澗·靑山·槐山·延豐·忠州·淸風·堤川·丹陽·永春等十三邑, 川渠漲滿, 洙川·泰安·庇仁·鎭岑·沃川等五邑, 得二犁, 新昌·石城·結城等三邑, 得一犁, 十八九兩日之雨, 公州·鴻山·文義等三邑, 得二犁, 木川·天安·平澤·牙山·溫陽·新昌·禮山·靑陽·大興·洪州·德山·扶餘·石城·林川·韓山·懷仁·燕岐等十七邑, 得一犁, 全義·稷山·魯城·恩津·連山·報恩·淸州等七邑, 得一鋤是如爲白乎旃, 又於今月二十一日丑時量始雨, 或霏或灑, 載陰載陽, 至二十三日辰時, 臣營下測雨器水深爲八分, 而陰雲散合, 尙有餘意是白如乎, 向後形止, 各邑所得, 鱗次陳聞計料, 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이번 달 14, 15일 이틀 내린 비로 임천 등 21개 고을에 내린 양과 18일 인시쯤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19일 묘시에 이르러 개었는데, 저의 감영 측우기 수심이 3치 3푼인 연유는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이번 달 14, 15일 이틀 내린 비는 앞서 보고한 것 이외에 정산·홍산·서천·영동·황간·청산·괴산·연풍·충주·청풍·제천·단양·영춘 등 13개 고을은 시내와 도랑이 불어나 가득 찼고, 면천·태안·비인·진잠·옥천 등 5개 고을은 2려가 내렸고, 신창·석성·결성 등 3개 고을은 1려가 내렸다고 합니다. 이번 달 18, 19일 이틀 내린 비로 공주·홍산·문의 등 3개 고을은 2려가 내렸고, 목천·천안·평택·아산·온양·신창·예산·청양·대흥·홍주·덕산·부여·석성·임천·한산·회인·연기 등 17개 고을은 1려가 내렸고, 전의·직산·노성·은진·연산·보은·청주 등 7개 고을은 1서가 내렸다고 합니다. 또 이번 달 21일 축시쯤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더러 부슬부슬 내리거나 더러 뿌리다가 언뜻언뜻 흐리거나 별이 나다가 23일 진시에 이르렀는데, 저의 감영 측우기 수심은 8푼이었습니다. 먹구름이 흩어졌다 모여졌다 하니 아직 더 내릴 조짐이 있습니다. 이후 경위와 각 고을에 내린 것은 잇따라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 0476. 1873년(고종 10) 6월 26일(양력 7월 20일)

錦營啓錄 7책(13a~13b) /各司謄錄 7책 忠淸道篇 2책(264d~265a)

道內農形及今月十八九兩日之雨, 公州等二十七邑所得分數, 二十一日丑時量始雨, 至二十三日辰時, 臣營下水深爲八分緣由, 已爲馳啓爲白有在果, 自二十三日辰時以後, 連爲陰翳, 間間霏灑, 至二十五日開霽, 臣營下測雨器水深, 又爲七分是白乎旆, 續接各邑所報, 則十八九兩日之雨, 前啓外, 永同·黃澗·靑山·忠州等四邑, 得一犁, 海美·庇仁·藍浦·鎭川·陰城等五邑, 得一犁, 瑞山·槐山兩邑, 得一鋤是如爲白遣, 農形段, 付種乾播方張茁長, 早移秧間或再鋤, 晚移漸次着根, 早黍粟和種, 豆太及木花連爲除草, 根耕(根)豆太及晚黍, 方始初除草是如爲白有臥乎所, 向後農形及未報雨澤, 鱗次陳聞計料, 竝以馳啓爲白臥乎事.

충청도 내 농사 상황 및 이번 달 18, 19일 이틀 내린 비로 공주 등 27개 고을에 내린 양과 21일 축시쯤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23일 진시에 이르러 저의 감영 수심이 8푼인 연유는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이번 달 23일 진시 이후로 연이어 먹구름이 끼고 간간이 부슬부슬 내리거나 뿌리기도 하다가 25일에 이르러 개었는데, 저의 감영 측우기 수심이 또 7푼이었습니다. 계속해서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이번 달 18, 19일 이틀 내린 비로 앞서 보고한 것 이외에 영동·황간·청산·충주 등 4개 고을은 2려가 내렸고, 해미·비인·남포·진천·음성 등 5개 고을은 1려가 내렸고, 서산·괴산 등 2개 고을은 1서가 내렸다고 합니다.

농사 상황의 경우, 무논에 볍씨를 뿌린 것이나 마른 논에 씨앗을 뿌린 것은 한창 싹이 자라고, 일찍 모내기를 한 것은 간혹 두벌매기를 하였고 늦게 모내기를 한 것은 점차 뿌리를 내리고 올기장·올조와 섞어짓는 콩·팥 및 목화는 연이어 김매기를 하였고 그루갈이한 콩·팥 및 늦기장은 막 초벌 김매기를 시작하였다고 합니다. 이후 농사 상황 및 보고하지 않은 우택은 잇따라 아될 계획입니다.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 0477. 1873년(고종 10) 윤6월 7일(양력 7월 30일)

錦營啓錄 7책(14a~14b) /各司臚錄 7책 忠淸道篇 2책(265b~265c)

道內農形及平澤縣祈雨祭設行緣由, 已爲連次馳啓爲白有在果, 續接各邑所報, 則農形段, 付種乾播連爲苗長, 早移幾盡再耘, 晚移方張初耘, 早黍粟和種, 豆太及木花鋤役垂畢, 根耕豆太及晚黍粟, 已皆初除草, 而念後之雨, 旣不優洽, 又未均霑, 一自其後, 旱乾太甚, 東風連吹, 田畝各種, 多致受損. 其中平澤·沔川·禮山·沃川·新昌·天安·恩津·鴻山·瑞山等九邑, 有愆蠶躡縮之患, 痒損非細是如爲白遣, 平澤祈雨祭, 已準二十次之限, 仍爲停撤, 而今雖得雨移插, 節已晚矣, 無望食實是如爲白乎旆. 今月初六日辰時量始雨, 或霏或灑, 至同日申時開霽, 臣營下測雨器水深, 爲五分是白如乎, 向後農形, 各邑得雨, 鱗次陳聞計料, 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충청도 내 농사 상황 및 평택현의 기우제 시행 연유는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농사 상황의 경우, 무논에 범씨를 뿌린 것이나 마른 논에 씨앗을 뿌린 것은 연이어 싹이 자라고, 일찍 모내기를 한 것은 이미 다 두벌매기를 하였고, 늦게 모내기를 한 것은 한창 초벌 김매기를 하였고 올기장·올조와 섞어짓는 콩·팥 및 목화는 김매기 일을 다 끝냈고 그루같이한 콩·팥 및 늦기장·늦조는 이미 다 초벌 김매기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20일 이후 내린 비는 이미 흡족하게 내리지 않았고 또 골고루 적셔주지 못하였으며 그 후로 줄곧 가뭄이 매우 심하고 동풍이 연이어 불어 논밭의 각 곡물이 손상을 많이 입었는데, 그중 평택·면천·예산·옥천·신창·천안·은진·홍산·서산 등 9개 고을은 벼멸구와 쪽정이에 대한 근심을 입어 피해가 적지 않다고 합니다. 평택의 기우제는 이미 20차례를 끝으로 이내 중지하였고, 지금 비록 비가 내려 옮겨심더라도 이미 계절이 늦어져 쌀을 먹을 가망이 없다고 합니다.

이번 달 초6일 진시쯤 더러 부슬부슬 내리거나 더러 뿌리다가 같은 날 신시에 이르러 개었는데, 저의 감영 측우기 수심은 5푼이었습니다. 이후 농사 상황 및 각 고을에 내린 비는 잇따라 아뿔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 0478. 1873년(고종 10) 윤6월 17일(양력 8월 9일)

錦營啓錄 7책(18b~19a) /各司臚錄 7책 忠淸道篇 2책(267c~267d)

道內農形憫旱之狀及今月初六日辰時量始雨, 至同日申時開霽, 臣營下水深爲五分緣由, 已爲連次馳啓爲白有在果, 續接各邑所報, 則伊日之雨, 庇仁·忠州兩邑, 得一犁, 木川·定山·靑陽·大興·海美·藍浦·結城·靑風等八邑, 得一鋤, 公州·天安·稷山·新昌·扶餘·石城·鴻山·懷德·沃川·靑安·陰城·槐山等十二邑, 沕塵是如爲白遣, 農形, 其間亢旱, 已近一朔, 今番驟灑, 又未均霑, 付種就播[乾播]及早移秧, 不得茁茂, 晚移秧已皆初耘, 而酷被就[乾]曝, 多致萎枯, 最晚移根未及着, 尙帶秧色, 早黍粟漸次胚胎和種, 豆太及木花間或起花, 根耕豆太及晚黍粟, 土壤堅頓[頓], 鋤耘莫施, 前啓平澤等九邑愆蠶蹲縮, 尙未寢息, 前啓外石城·公州·魯城·牙山·定山·德山·連山·天安·燕岐·泰安等十邑, 又有此患, 痒損甚多是如爲白有臥乎所, 向後農形, 鱗次陳聞計料, 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충청도 내 농사 상황에 대한 가뭄 걱정 상태 및 이번 달 초6일 진시쯤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같은 날 신시에 이르러 개었는데, 저의 감영 수심이 5푼인 연유는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그날의 비로 비인·충주 등 2개 고을은 1려가 내렸고, 목천·정산·청양·대흥·해미·남포·결성·청풍 등 8개 고을은 1서가 내렸고, 공주·천안·직산·신창·부여·석성·홍산·회덕·옥천·청안·음성·괴산 등 12개 고을은 먼지만 적실 정도였다고 합니다.

농사 상황의 경우, 그간 심한 가뭄이 이미 1달 가까이 되었고 이번에 소나기가 뿌렸지만 또 고루 적시지 않아서 무논에 볍씨를 뿌린 것이나 마른 논에 씨앗을 뿌린 것 및 일찍 모내기를 한 곳은 싹이 자라지 못하였고 늦게 모내기를 한 것은 이미 다 초벌 김매기를 하였지만 혹독하게 햇빛이 내려쬘어 많이 시들고 말랐으며, 가장 늦게 모내기를 한 곳은 아직도 뿌리를 내리지 않아 아직 벼모의 색깔을 띠고 있으며, 올기장·올조는 점차 알을 배고, 섞어짓는 콩·팥 및 목화는 간혹 꽃이 피고, 그루같이한 콩·팥 및 늦기장·늦조는 토양이 딱딱하게 굳어서 김매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앞서 보고한 평택 등 9개 고을은 벼멸구와 족정이가 아직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앞서 보고한 것 이외에 석성·공주·노성·

아산·정산·덕산·연산·천안·연기·태안 등 10개 고을은 또한 이 재해를 입어 손상이 매우 많다고 합니다. 이후 농사 상황은 잇따라 아될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0479. 1873년(고종 10) 윤6월 18일(양력 8월 10일)

錦營啓錄 7책(19a) /各司臚錄 7책 忠淸道篇 2책(267d)

今月十七日申時量始雨，一直霪下，至同日亥時乃止，臣營下測雨器水深，爲六寸是白如乎，久旱渴望之餘，得此甘澍，爲民事誠萬幸，各邑所得，隨其報來，鱗次陳聞計料，〈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이번 달 17일 신시쯤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줄곧 주룩주룩 내리다가 같은 날 해시에 이르러 이내 그쳤는데, 저의 감영 측우기 수심은 6치이었습니다. 오랜 가뭄으로 비를 갈망하던 끝에 이런 단비를 얻었으니 백성들의 사정을 위해 정말로 천만다행입니다. 각 고을에 내린 것은 보고가 오는 대로 잇따라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 0480. 1873년(고종 10) 윤6월 27일(양력 8월 19일)

錦營啓錄 7책(20a~20b) /各司臚錄 7책 忠淸道篇 2책(268b~268c)

道內農形及今月十七日以後連日之雨，公州等三十九邑所得分數，已爲連次馳啓爲白有在果，續接各邑所報，則伊日之雨，前啓外，永同·忠州·淸風·平薪等四邑，得二犁，青陽·德山·瑞山·鎭川·丹陽·永春等六邑，得一犁，沔川·海美·泰安·韓山·保寧等六邑，得一鋤是如爲白遣，農形段，付種乾播及早移，漸次茁茂，晚移已皆再耘，早黍粟次第發穗，和種豆太連爲起花，木花方始結穎，根耕豆太及晚黍粟，幾盡除草，前啓中平澤等十九邑愆蠶蹲縮，稍有寢息之望是如爲白乎旆，又於今月二十六日申時量始雨，或霏或灑，間間霑下，至二十七日辰時乃止，臣營下測雨器水深，爲三寸八分是白如乎，向後形止，鱗次陳聞計料，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충청도 내 농사 상황 및 이번 달 17일 이후 연일의 비로 공주 등 39개 고을에 내린 양은 이미 연달아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그날의 비로 앞서 보고한 것 이외에 영동·충주·청풍·평신 등 4개 고을은 2려가 내렸고, 청양·덕산·서산·진천·단양·영춘 등 6개 고을은 1려가 내렸고, 면천·해미·태안·한산·보령 등 6개 고을은 1서가 내렸다고 합니다.

농사 상황의 경우, 무논에 벼씨를 뿌린 것이나 마른 논에 씨앗을 뿌린 것 및 일찍 모내기를 한 것은 점차 싹이 자라고, 늦게 모내기를 한 것은 이미 다 두벌매기를 하였습니다. 올기장·올조는 차례로 이삭이 패고, 섞어짓는 콩·팥은 연이어 꽃이 피고 목화는 막 다래를 맺기 시작하였고, 그루같이한 콩·팥 및 늦기장·늦조는 거의 다 김매기를 하였습니다. 앞서 보고한 것 가운데 평택 등 19개 고을의 벼멸구와 쪽정이에 대한 근심이 조금 그칠 가망이 있다고 합니다. 또 이번 달 26일 신시쯤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더러 부슬부슬 내리거나 더러 뿌리다가 27일 진시에 이르러 이내 그쳤는데, 저의 감영 측우기 수심은 3치 8푼이었습니다. 이후 경위는 잇따라 아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0481. 1873년(고종 10) 7월 3일(양력 8월 25일)

錦營啓錄 7책(21a~21a) /各司臚錄 7책 忠淸道篇 2책(268c~268d)

今月初一日午時量始雨，連爲霪灑，至初三日辰時，臣營下測雨器水深，爲一寸三分，而尙此霏灑不止是白如乎，晚節冷雨，如是過霪，田畝各穀，必多受損，言念民事，誠甚悶然。向後形止，各邑所得，鱗次陳聞計料，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이번 달 초1일 오시쯤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연이어 주룩주룩 내리거나 뿌리기도 하다가 초3일 진시에 이르러 그쳤는데, 저의 감영 측우기 수심은 1치 3푼이었습니다. 아직 이렇게 부슬부슬 내리거나 뿌리며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절기가 늦어진 데다 찬비가 이처럼 지나치게 주룩주룩 내리면 논밭의 각종 곡식이 분명 피해를 입는 것이 많을 것이니 백성들의 사정을 생각하면 정말로 매우 걱정입니다. 이후 경위와 각 고을에 내린 것은 잇따라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 0482. 1873년(고종 10) 7월 7일(양력 8월 29일)

錦營啓錄 7책(21b~22b) /各司臚錄 7책 忠淸道篇 2책(269a~269b)

道內形止及今月初一日午時量始雨，至初四日申時開霽，臣營下水深合爲一尺四寸九分緣由，已爲連次馳啓爲白有在果，續接各邑所報，則伊日之雨，公州·定山·扶餘·石城·林川·懷德·文義·燕岐等八邑，江川汎濫，全義·天安·稷山·牙山·溫陽·大興·洪州·舒川·庇仁·結城·魯城·恩津·連山·鎭岑·報恩·淸州·淸安·陰城等十八邑，川渠漲溢，而宿水未退，新漲更添沈者愈沈，潰者益潰，人家漂頽，間間有之爲白遣，農形段，田畝各種之酷被汰覆全無穀形者外，付種乾播及早稻方張胚胎，中晚稻漸次茁長，早黍粟已皆發穗，和種豆太方始結殼，木花連爲結顆，根耕豆太及晚黍粟，間或起花，而其中木花最忌澇濕，莖葉推殘，花房腐落，來頭善就，已無其望是如爲白有臥乎所，潰決之堤塍，董督修治，漂頽之家舍，項[顧]助結構之意，申飭題送，向後形止，鱗次陳聞計料，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충청도 내 경위 및 이번 달 초1일 오시쯤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초4일 신시에 이르러 개었는데, 저의 감영 측우기 수심이 1자 4치 9푼인 연유는 이미 연달아 긴급 보고하였습니 다. 계속해서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그날의 비로 공주·정산·부여·석성·임천·회덕·문의·연기 등 8개 고을은 강과 시내가 범람하였고, 전의·천안·직산·아산·온양·대흥·홍주·서천·비인·결성·노성·은진·연산·진잠·보은·청주·청안·음성 등 18개 고을은 시내와 도랑이 불어나 넘쳤는데, 고인 물이 채 빠지지도 않았는데 새로 불어나 점점 더해져서 잠긴 것은 더욱 잠기고 무너진 것은 더 무너지고 떠내려가거나 무너진 인가가 간간이 있다고 합니다.

농사 상황의 경우, 논밭의 각종 곡식이 산사태로 덮이고 곡식 형태가 전혀 없는 것 이외에 무논에 범씨를 뿌린 것이나 마른 논에 씨앗을 뿌린 것 및 올벼는 한창 알을 배고 있고 중벼와 늦벼는 점차 싹이 자라고, 올기장·올조는 이미 다 이삭이 났고, 섞어짓는 콩·팥은 막 꼬투리를 맺기 시작하였고, 목화는 연이어 다래를 맺고 그루같이한 콩·팥 및 늦기장·늦조는 간혹 꽃이 피었습니다. 그 가운데 가장 습기를 꺼리는 목화는 줄기와 잎이 꺾인 꽃봉우리는 썩어 떨어져서 앞으로 잘 여물 가망이 이미 없다고 합니다. 터진



제방과 두둑은 단단히 지시하여 수리하고 떠내려갔거나 무너진 집은 보조하여 지으라는 뜻으로 단단히 지시하여 결정문을 보냈습니다. 이후 경위는 잇따라 아될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 0483. 1873년(고종 10) 7월 11일(17일)

錦營啓錄 7책(26a~26b) /各司臚錄 7책 忠淸道篇 2책(271a~271b)

今月初一日以連日之雨，公州二十六邑被沈形止，已爲馳啓爲白有在果，續接各邑所報，則伊日之雨，前啓外，木川·平澤·新昌·禮山·靑陽·德山·沔川·唐津·海美·瑞山·泰安·鴻山·韓山·藍浦·保寧·靑山·懷仁·鎭川·槐山·延豐·忠州·靑風·堤川·丹陽·永春·平薪等二十六邑鎭，川渠漲滿，沃川·永同·黃澗等〈邑〉，得二犁，而堤塍之潰決，各穀之沈墊，在在皆然是如爲白有臥乎所，向後農形，鱗次陳聞計料，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이번 달 초1일 연일의 비로 공주 등 26개 고을이 잠긴 경위는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그날의 비로 앞서 보고한 것 이외에 목천·평택·신창·예산·청양·덕산·면천·당진·해미·서산·태안·홍산·한산·남포·보령·청산·회인·진천·괴산·연풍·충주·청풍·제천·단양·영춘·평신 등 26개 고을과 군영은 시내와 도랑이 불어나 가득 찼고, 영동·옥천·황간 등은 2려가 내렸고, 제방과 두둑이 무너지고 터져서 각종 곡식이 잠겼는데 곳곳이 모두 그렇다고 합니다. 이후 농사 상황은 잇따라 아될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 0484. 1873년(고종 10) 7월 17일(양력 9월 8일)

錦營啓錄 7책(28a~28b) /各司謄錄 7책 忠淸道篇 2책(272a~272b)

道內農形, 已爲連次馳啓爲白有在果, 續接各邑所報, 則早稻·早黍粟已皆發穗, 方始入實, 中晚稻及晚黍粟次第胚胎, 間或發穗, 和種豆太漸次入實, 木花方張綻絮, 間間摘取, 根耕豆太幾盡結殼, 而巨浸纔退, 東風連吹, 田畝各穀, 爲害不少是如爲白乎旆. 今月十五日午時量始雨, 或霏或灑, 至十七日辰時, 臣營下測雨器水深, 爲六寸二分, 而尙此霏灑不止是白如乎, 間日大霏, 近年罕有, 而久不停瀋, 庶冀蘇腥, 今番之雨, 又出非時, 爲民事誠悶然, 向後形止, 鱗次陳聞計料, 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충청도 내 농사 상황은 이미 연달아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올벼와 올기장·올조는 이미 다 이삭이 패어 막 알이 차기 시작하였고, 중벼·늦벼와 늦기장·늦조는 차례로 알을 배고, 간혹 이삭이 패고, 섞여지은 콩·팥은 점차 알이 차고, 목화는 한창 벌어지고 있어 간간이 따서 거두었고, 그루같이한 콩·팥은 거의 다 꼬투리를 맺었다고 합니다. 큰물이 겨우 물러가자 동풍이 연이어 불어서 논밭의 각종 곡식이 적지않이 피해를 입었다고 합니다.

이번 달 15일 오시쯤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더러 주룩주룩 내리거나 더러 뿌리다가 17일 진시에 이르렀는데, 저의 감영 측우기 수심은 6치 2푼이었으며 아직 이렇게 부슬부슬 내리거나 뿌리며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연일 크게 주룩주룩 내린 것은 요 몇 해 사이 드물며 오래 맺어 고이지 않고 소생되기를 바라지만 이번 비는 또 때맞지 않게 내려 백성들의 사정을 위해 정말로 걱정입니다. 이후 경위는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 0485. 1873년(고종 10) 7월 27일(양력 9월 18일)

錦營啓錄 7책(30a~30b) /各司臚錄 7책 忠淸道篇 2책(273a~273b)

道內農形及今月十五日以後連日之雨，公州等二十五邑被沈形止，已爲連〈次〉馳啓爲白有在果，續接各邑所報，則稷山·靑陽·沔川·唐津·海美·瑞山·扶餘·石城·鴻山·韓山·庇仁·藍浦·保寧·結城·永同·報恩·懷仁·文義·天安·陰城·延豐·忠州·淸風·堤川·丹陽·永春等二十六邑，川渠漲滿，木川·泰安·恩津·平薪·等四邑鎮，得二犁是如爲白遣，農形段，汰覆沈墊已判全棄者外，早稻·早黍粟次第成實，中晚稻及晚黍粟已皆發穗，和種豆太漸次向熟，木花顆房腐落，綻絮絕罕，根耕豆太方張入實是如爲白乎旆，又於今月二十五日辰時量，或霏或灑，間間霑下，至二十七日卯時，臣營下測雨器水深，爲一寸六分，而尙此霏微不止是白如乎，當此各穀入實之時，冷雨頻仍，東風連吹，受損不少，誠甚悶然，向後形止，鱗次陳聞計料，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충청도 내 농사 상황 및 이번 달 15일 이후 연일의 비로 공주 등 25개 고을의 물에 감긴 경위는 이미 연달아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직산·청양·면천·당진·해미·서산·부여·석성·홍산·한산·비인·남포·보령·결성·영동·보은·회인·문의·천안·음성·연풍·충주·청풍·제천·단양·영춘 등 26개 고을은 시내와 도랑이 불어나 가득 찼고, 목천·태안·은진·평신 등 4개 고을과 군영은 2려가 내렸다고 합니다.

농사 상황의 경우, 물에 씻겨나거나 잠겨서 이미 전부 포기한 것으로 판가름이 난 것 이외에 올벼와 올기장·올조는 차례로 여물고 중벼·늦벼 및 늦기장·늦조는 이미 다 이삭이 났고, 섞여지은 콩·팥은 점차 익어가고 목화는 다래가 썩어 떨어져서 벌어진 것은 매우 드물고, 그루같이한 콩·팥은 한창 알이 차고 있다고 합니다.

또 이번 달 25일 진시쯤 더러 부슬부슬 내리거나 더러 뿌리다가 간간이 주룩주룩 내리다가 27일 묘시에 이르렀는데, 저의 감영 측우기 수심은 1치 6푼이었으며 아직 이후로도 부슬부슬 내리며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각종 곡식이 알이 차는 이때에 찬비가 빈번하게 내리고 동풍이 연이어 불어 입은 손실이 적지 않으니 정말로 매우 걱정입니다. 이후 경위는 잇따라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0486. 1873년(고종 10) 7월 30일(양력 9월 21일)

錦營啓錄 7책(30b~31a) /各司謄錄 7책 忠淸道篇 2책(273b~273b)

今月二十五日辰時量始雨，至二十七日卯時，臣營下水深爲一寸六分緣由，已爲馳啓爲白有在果，自二十七日卯時以後，間間霏微，連爲陰翳，至二十九日午時開霽，別無所得分數之可論是白乎旅，先接近邑所報，則伊日之雨，天安·淸州兩邑，得二犁，公州·全義·定山等三邑，得一犁，溫陽·扶餘·石城·魯城·連山·懷仁·文義·燕岐等八邑，得一鋤是如爲白有臥乎所，未報邑所得，鱗次陳聞計料，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이번 달 25일 진시쯤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27일 묘시에 이르렀는데, 저의 감영 측우기 수심이 1치 6푼인 연유는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27일 묘시 이후로 간간이 부슬부슬 내리다가 연이어 먹구름이 끼기도 하다가 29일 오시에 이르러 개었는데, 내린 양은 별달리 따질만한 것이 없다고 합니다. 앞서 가까운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그날의 비로 천안·청주 등 2개 고을은 2려가 내렸고, 공주·전의·정산 등 3개 고을은 1려가 내렸고, 온양·부여·석성·노성·연산·회인·문의·연기 등 8개 고을은 1서가 내렸다고 합니다. 보고하지 않은 고을에 내린 것은 잇따라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0487. 1873년(고종 10) 8월 4일(양력 9월 25일)

錦營啓錄 7책(31a~31a) /各司謄錄 7책 忠淸道篇 2책(273c~273c)

去月二十五日以後連日之雨，天安等十三邑所得分數，已爲馳啓爲白有在果，續接各邑所報，則伊日之雨，前啓外，舒川·沃川·槐山·忠州等四邑，得二犁，稷山·禮山·大興·海美·鴻山·藍浦·永同·黃澗·靑山·鎭川·淸安等十一邑，得一犁，瑞山·韓山·恩津·懷德·報恩等五邑，得一鋤是如爲白有臥乎所，未報邑所得，待其報來，鱗次陳聞計料，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지난달 25일 이후 연일 내린 비로 천안 등 13개 고을에 내린 양은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그날의 비로 앞서 보고한 것 이외에 서천·옥천·괴산·충주 등 4개 고을은 2려가 내렸고, 직산·예산·대흥·해미·홍산·남포·영동·황간·청산·진천·청안 등 11개 고을은 1려가 내렸고, 서산·한산·은진·회덕·보은 등 5개 고을은 1서가 내렸다고 합니다. 보고하지 않은 고을에 내린 것은 보고가 오기를 기다려 잇따라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0488. 1873년(고종 10) 8월 7일(양력 9월 28일)

錦營啓錄 7책(31a~31b) /各司謄錄 7책 忠淸道篇 2책(273c~273d)

道內農形, 已爲連次馳啓爲白有在果, 續接各邑所報, 則早稻·早黍粟及和種豆太, 次第向熟, 中稻·晚稻·晚黍粟及根耕豆太, 漸次入實, 木花莖鮮結穎, 絮不盈筐, 到處所見, 無復餘望是如爲白有臥乎所, 向後農形, 鱗次陳聞計料, 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충청도 내 농사 상황은 이미 연달아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올벼와 올기장·올조 및 섞여지은 콩·팥은 차례로 익어가고 중벼·늦벼와 늦기장·늦조 및 그루같이한 콩·팥은 점차 알이 차고 목화는 줄기에 다래를 맺은 것이 드물어 따낸 솜이 광주리를 채우지 못하며, 이르는 곳마다 보자면 더 이상 아무런 가망이 없다고 합니다. 이후 농사 상황은 잇따라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0489. 1873년(고종 10) 8월 17일(양력 10월 8일)

錦營啓錄 7책(37b~38a) /各司臚錄 7책 忠淸道篇 2책(276b~276c)

道內農形，已爲連次馳啓爲白有在果，續接各邑〈所報〉，則早稻·早黍粟及和種豆太，幾皆成熟，中稻方張向熟，晚稻·晚黍粟及根耕豆太，已盡入實，而晚節風雨，長時陰暄，禾穀則未熟而直立徑枯，豆太則不實而空殼乾貼，難期食實者，種種有之。未[木]花雨以腐傷，風以摧殘，摘取無幾，已爲判歎是如爲白有臥乎所，向後農形，鱗次陳聞計料，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충청도 내 농사 상황은 이미 연달아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올벼와 올기장·올조 및 섞여지은 콩·팥은 거의 다 익어가고 중벼는 한창 익어가고 늦벼와 늦기장·늦조 및 그루같이 콩·팥은 이미 다 알이 찼습니다. 그런데 늦가을에 바람이 불고 비가 내리며 오랜 시간 먹구름이 끼어서 벼와 곡식은 미처 익지 못한 채로 곧게 서서 지레 마르고 콩·팥은 알맹이가 영글지 못하고 빈 꼬투리가 말라붙어 열매 먹기를 기대하기 어려운 것이 종종 있으며, 목화는 비를 맞아 썩고 상해 바람에 꺾여 따서 거둘 것이 거의 없어 이미 흉년들 것으로 판가름 났다고 합니다. 이후 농사 상황은 잇따라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0490. 1873년(고종 10) 8월 27일(양력 10월 18일)

錦營啓錄 7책(38a~38b) /各司謄錄 7책 忠淸道篇 2책(276c~276c)

道內農形, 已爲連次馳啓爲白有在果, 續接各邑所報, 則早稻·早黍粟及和種豆太, 方張收穫, 中稻幾皆成熟, 晚稻·晚黍粟及根耕豆太, 次第向熟, 木花殘莖已罷, 餘絮無幾是如爲白遣, 洪州·結城·靑山·新昌·陰城·堤川等六邑, 今月二十日霜降, 忠州·鴻山·沃川·靑陽·石城·魯城·德山·文義等八邑, 二十一日夜霜降是如爲白乎旃, 今月二十六日辰時量始雨, 或霏或灑, 至二十七日卯時開霽, 臣營下測雨器水深, 爲六分是白如乎, 各邑所得, 向後農形, 鱗次陳聞計料, 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충청도 내 농사 상황은 이미 연달아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올벼와 올기장·올조와 섞여지은 콩·팥은 한창 수확을 하고 있고, 중벼는 거의 다 익었고, 늦벼와 늦기장·늦조 및 그루같이 콩·팥은 차례로 익어가고, 목화는 시든 줄기가 이미 흩어져 남은 숨이 거의 없다고 합니다.

홍주·결성·청산·신창·음성·제천 등 6개 고을은 이번 달 20일에 서리가 내렸고, 충주·홍산·옥천·청양·석성·노성·덕산·문의 등 8개 고을은 21일 밤에 서리가 내렸다고 합니다. 이번 달 26일 진시쯤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더러 부슬부슬 내리거나 더러 뿌리다가 27일 묘시에 이르러 개었는데, 저의 감영 측우기 수심은 6푼이었습니다. 각 고을에 내린 것과 이후 농사 상황은 잇따라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 0491. 1873년(고종 10) 9월 8일(양력 10월 28일)

錦營啓錄 7책(38b~39a) /各司臚錄 7책 忠淸道篇 2책(276d~276d)

道內農形及洪州等六邑去月二十日夜霜降，忠州等八邑二十一夜霜降緣由，已爲馳啓爲白有在果，續接各邑所報，則前啓外，木川·淸安·鎭川·扶餘·藍浦·保寧·懷仁·槐山·延豐·丹陽等十邑，去月二十五日夜霜降，公州·淸安·定山·大興·沔川·溫陽·舒川·禮山·全義等九邑，今月初二日夜霜降，農形段，無論田畝各穀，隨其成熟，次第收穫，而晚節之雨，非時之風，過霖連吹，或含而未發，或穗而未垂，直立徑枯，無望食實者，以沿以峽，種種有之。木花殘顆幾盡枯落，敗絮無可摘取是如爲白有臥乎所，大抵今年穡事，分而言之，雖有優劣之差殊，統而論之，未〈免〉災實之互錯是白如乎，分等酌量磨鍊，迫于登聞計料，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충청도 내 농사 상황 및 홍주 등 6개 고을은 지난달 20일 밤에 서리가 내리고 충주 등 8개 고을은 21일 밤에 서리가 내린 연유는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앞서 보고한 것 이외에 목천·청안·진천·부여·남포·보령·회인·괴산·연풍·단양 등 10개 고을은 지난달 25일 밤에 서리가 내렸고, 공주·청안·정산·대흥·면천·온양·서천·예산·전의 등 9개 고을은 이번 달 초2일 밤에 서리가 내렸다고 합니다. 농사 상황의 경우, 논밭을 따질 것 없이 각종 곡식은 익는 대로 차례로 수확을 하였으나 늦어진 절기에 비가 지나치게 주룩주룩 내리고 때맞지 않은 바람이 연이어 불어서 오그라 들고 피어나지 않은 것도 있고 이삭은 패었으나 숙이지 못하고 곳곳이 선 채 지레 말라 열매를 먹을 가망이 없는 것이 바닷가와 골짜기에 종종 있으며 목화는 시든 다래가 거의 다 말라 떨어지고 못 쓰게 된 솜은 따서 거들만한 것이 없다고 합니다.

대체로 올해 농사는 구분해서 말하자면 비록 잘되고 못된 차이가 있지만 통틀어 따지자면 재해와 알찬 결실이 서로 섞였음을 면하지 못합니다. 풍흉 등급을 참작하고 마련하여 뒤이어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 0492. 1874년(고종 11) 2월 17일(양력 4월 3일)

錦營啓錄 7책(77b~78a) /各司謄錄 7책 忠淸道篇 2책(294b~294b)

今月初九日卯時量始雨，至初十日辰時開霽，臣營下水深爲四分緣由，已爲馳啓爲白有在果，續接各邑所報，則伊日之雨，懷德·沃川·永同·黃澗·槐山·延豐·陰城·忠州等八邑，得一犁，公州·全義·木川·天安·稷山·禮山·新昌·定山·燕岐·清州·鎭川·淸安·文義等十三邑，得一鋤，靑陽·大興·洪州·平澤·牙山·溫陽·扶餘·石城·林川·鴻山·藍浦·魯城·恩津·連山·鎭岑等十五邑，沍塵是如爲白乎跡。農形段，秋麴漸益敷靑，春麴方張耕播，糞田鑿畚，間或始役是如爲白有臥乎所，向後農形及未報邑雨澤，鱗次陳聞計料，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이번 달 초9일 묘시쯤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초10일 진시에 이르러 개었는데, 저의 감영 측우기 수심이 4푼인 연유는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그날의 비로 회덕·옥천·영동·황간·괴산·연풍·음성·충주 등 8개 고을은 1려가 내렸고, 공주·전의·목천·천안·직산·예산·신창·정산·연기·청주·진천·청안·문의 등 13개 고을은 1서가 내렸고, 청양·대흥·홍주·평택·아산·온양·부여·석성·임천·홍산·남포·노성·은진·연산·진잠 등 15개 고을은 먼지만 적실 정도였다고 합니다.

농사 상황의 경우, 가을보리는 점점 더욱 푸른빛을 띠었고 봄보리는 한창 땅을 갈고 씨앗을 뿌리고 있고 밭에는 거름을 뿌리고 논에는 가래질을 하며 간혹 일을 시작하는 곳도 있다고 합니다. 이후 농사 상황 및 보고하지 않은 고을의 우택은 잇따라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0493. 1874년(고종 11) 2월 26일(양력 4월 12일)

錦營啓錄 7책(79a~79a) /各司謄錄 7책 忠淸道篇 2책(294c~294d)

道內農形, 已爲連次馳啓爲白有在果, 續接各邑所報, 則秋耨漸次向長, 春耨次第立苗, 鍾役方始爲之是如爲白乎旆. 今月二十四日辰時量始雨, 或霏或灑, 間間霑下, 至二十五日午時開霽, 臣營下測雨器水深, 爲一寸四分是白如乎, 各邑雨澤多寡, 待其報來, 鱗次陳聞計料, 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충청도 내 농사 상황은 이미 연달아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가을보리는 점차 싹이 자라고 봄보리는 차례로 싹이 텃으며 가래질은 막 시작하였다고 합니다. 이번 달 24일 진시쯤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더러 부슬부슬 내리거나 더러 뿌리다가 간간이 주룩주룩 내리다가 25일 오시에 이르러 개었는데, 저의 감영 측우기 수심은 1치 4푼이었습니다. 각 고을의 우택 양은 보고가 오기를 기다려 잇따라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0494. 1874년(고종 11) 3월 7일(양력 4월 22일)

錦營啓錄 7책(79b~79b) /各司臚錄 7책 忠淸道篇 2책(295a~295a)

道內農形, 已爲連次馳啓爲白有在果, 續接各邑所報, 則秋粃漸益向長, 春粃幾皆立苗, 鋤役方張爲之, 秧坂間或翻耕是如爲白有臥乎所, 向後農形, 鱗次陳聞計料, 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충청도 내 농사 상황은 이미 연달아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가을보리는 점차 더욱 자라고 봄보리는 거의 다 싹이 텄고 가래질은 한창 하고 있으며 못자리는 간혹 갈아엎었다고 합니다. 이후 농사 상황은 잇따라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0495. 1874년(고종 11) 3월 17일(양력 5월 2일)

錦營啓錄 7책(80a~80b) /各司臚錄 7책 忠淸道篇 2책(295b~295b)

道內農形, 已爲連次馳啓爲白有在果, 續接各邑所報, 則秋麴漸次向茂, 春麴方始敷青, 鍾役幾至了畢, 秧坂間或始役是如爲白有臥乎所, 向後農形, 鱗次陳聞計料, 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충청도 내 농사 상황은 이미 연달아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가을보리는 점차 무성해가고 봄보리는 막 푸른빛을 띠기 시작하고 가래질은 거의 다 끝나고 못자리는 간혹 일을 시작하였다고 합니다. 이후 농사 상황은 잇따라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0496. 1874년(고종 11) 3월 23일(양력 5월 8일)

錦營啓錄 7책(80b~80b) /各司謄錄 7책 忠淸道篇 2책(295b~295b)

今月二十一日申時量始雨，或霏或灑，至二十二日申時乃止，臣營下測雨器水深，爲八分是白如乎，各邑得雨多寡，待其報來，鱗次陳聞計料，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이번 달 21일 신시쯤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더러 부슬부슬 내리거나 더러 뿌리다가 22일 신시에 이르러 이내 그쳤는데, 저의 감영 측우기 수심은 8푼이었습니다. 각 고을에 내린 양은 보고가 오기를 기다려 잇따라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 0497. 1874년(고종 11) 3월 28일(양력 5월 13일)

錦營啓錄 7책(80b~81a) /各司臚錄 7책 忠淸道篇 2책(295c~295d)

道內農形及今月二十一日申時始雨,至二十二日申時乃止,臣營下水深爲八分緣由,已爲馳啓爲白有在果,續接各邑所報,則伊日之雨,公州·全義·木川·天安·稷山·新昌·禮山·青陽·大興·洪州·德山·瑞山·泰安·庇仁·藍浦·連山·鎭岑·懷德·沃川·永同·黃澗·燕岐·清安·忠州·淸風·平薪等二十六邑鎭,得一鋤,平澤·牙山·溫陽·定山·石城·扶餘·鴻山·舒川·結城·恩津·報恩·淸州·陰城等十四邑,浥塵是如爲白乎旆,又於今月二十五日戌時量始雨,或霏或灑載陰載陽,至二十七日申時,仍爲開霽,臣營下測雨器水深,爲九分是白乎旆.農形段,秋甦幾皆茁長,間或胚胎,春甦漸次向茂,畚庫次第鰾耕,注秧付種方始爲之是如爲白有臥乎所,向後農形及各邑雨澤,鱗次陳聞計料,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충청도 내 농사 상황 및 이번 달 21일 신시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22일 신시에 이르러 이내 그쳤는데, 저의 감영 측우기 수심은 8푼인 연유는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그날의 비로 공주·전의·목천·천안·직산·신창·예산·청양·대흥·홍주·덕산·서산·태안·비인·남포·연산·진잠·회덕·옥천·영동·황간·연기·청안·충주·청풍·평신 등 26개 고을과 군영은 1서가 내렸고, 평택·아산·온양·정산·석성·부여·홍산·서천·결성·은진·보은·청주·음성 등 14개 고을은 먼지만 적실 정도였다고 합니다. 이번 달 25일 술시쯤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더러 부슬부슬 내리거나 더러 뿌리다가 언뜻언뜻 흐리거나 별이 나다가 27일 신시에 이르러 개었는데, 저의 감영 측우기 수심은 9푼이었습니다.

농사 상황의 경우, 가을보리는 거의 다 싹이 자라고 간혹 알을 배고, 봄보리는 점차 무성해가고, 논은 차례로 갈아엎고 못자리에 물을 대고 벼씨 뿌리기를 막 시작하였다고 합니다. 이후 농사 상황 및 각 고을의 우택은 잇따라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 0498. 1874년(고종 11) 4월 6일(양력 5월 21일)

錦營啓錄 7책(81a~82a) /各司臚錄 7책 忠淸道篇 2책(295d~295d)

道內農形及去月二十五日之雨, 藍浦等三十二邑所得分數, 已爲馳啓爲白有在果, 續接各邑所報, 則伊日之雨, 前啓外, 天安·平澤·德山·沔川·唐津·韓山·庇仁·保寧·永同·黃澗·陰城·延豐·忠州·淸風·堤川·丹陽·永春·平薪等十八邑鎮, 得一鋤, 牙山·林川·文義·淸安·槐山等五邑, 浥塵, 又於今月初五日申時量始雨, 或霏或灑載陰載陽, 間間霑下, 至初六日申時開霽, 臣營下測雨器水深, 爲一寸五分是白乎旆. 農形段, 秋粳方張發穗, 春粳間或胚胎, 畚庫幾盡翻耕, 注秧付種次第立苗, 早黍粟和種, 豆太及木花, 方始耕播是如爲白有臥乎所, 向後農形及各邑雨澤, 鱗次陳聞計料, 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충청도 내 농사 상황 및 지난달 25일의 비로 남포 등 32개 고을에 내린 양은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그날의 비로 앞서 보고한 것 이외에 천안·평택·덕산·면천·당진·한산·비인·보령·영동·황간·음성·연풍·충주·청풍·제천·단양·영춘·평신 등 18개 고을과 군영은 1서가 내렸고, 아산·임천·문의·청안·괴산 등 5개 고을은 먼지만 적실 정도였다고 합니다. 이번 달 초5일 신시쯤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더러 부슬부슬 내리거나 더러 뿌리다가 언뜻언뜻 흐리거나 별이 나다가 간간이 주룩주룩 내리다가 초6일 신시에 이르러 개었는데, 저의 감영 측우기 수심은 1치 5푼이었습니다. 농사 상황의 경우, 가을보리는 한창 이삭이 패고 있고 봄보리는 간혹 알을 배고, 논은 거의 다 갈아엎고 못자리에 물을 대고 벼씨를 뿌린 것은 차례로 싹이 트고, 올기장·올조와 섞어짓는 콩·팥 및 목화는 막 땅을 갈고 씨앗을 뿌리기 시작하였다고 합니다. 이후 농사 상황 및 각 고을의 우택은 잇따라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0499. 1874년(고종 11) 4월 26일(양력 6월 10일)

錦營啓錄 7책(82a~82a) /各司臚錄 7책 忠淸道篇 2책(296a~296a)

道內農形, 已爲連次馳啓爲白有在果, 續接各各邑所報, 則秋麴幾皆向黃, 春麴次第入實, 注秧付種漸次茁長, 早黍粟和種, 豆太及木花, 間或初除草是如爲白乎旆. 今月二十四日申時量始雨, 或霏或灑, 至二十五日午時開霽, 臣營下測雨器水深, 爲七分是白如乎, 向後農形及各邑雨澤, 待其報來, 鱗次陳聞計料, 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충청도 내 농사 상황을 이미 연달아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가을보리는 거의 다 누렇게 되었고 봄보리는 차례로 알이 차고, 못자리에 물을 대고 벼씨를 뿌린 것은 점차 싹이 자라고, 올기장·올조와 섞어짓는 콩·팥 및 목화는 간혹 초벌 김매기를 하였다고 합니다. 이번 달 24일 신시쯤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더러 부슬부슬 내리거나 더러 뿌리다가 25일 오시에 이르러 개었는데, 저의 감영 측우기 수심은 7푼이었습니다. 이후 농사 상황 및 각 고을의 우택은 보고가 오기를 기다려 잇따라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 0500. 1874년(고종 11) 5월 1일(양력 6월 14일)

錦營啓錄 7책(83b~84a) /各司謄錄 7책 忠淸道篇 2책(296c~296d)

去月二十四日申時始雨, 至二十五日午時開霽臣營下水深爲七分緣由, 已爲馳啓爲白有在果, 續接各邑所報, 則伊日之雨, 沃川·永同·黃澗·懷仁·文義·槐山等六邑, 川渠漲滿, 全義·木川·鎭川·淸安·陰城·忠州等六邑, 得二犁, 新昌·石城·魯城·鎭岑·報恩·淸州·淸風等七邑, 得一犁, 公州·天安·牙山·溫陽·定山·青陽·大興·洪州·德山·海美·扶餘·林川·鴻山·舒川·庇仁·恩津·懷德·青山·燕岐·平薪等二十邑鎭, 得一鋤是如爲白乎旃, 又於今月二十九日午時量始雨, 或霏或灑, 間間霑下, 至今月初一日, 臣營下測雨器水深, 爲四寸七分, 而尙此霏灑不止是白如乎, 向後形止及各邑雨澤, 隨其報來, 鱗次陳聞計料, 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지난달 24일 신시쯤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25일 오시에 이르러 개었는데, 저의 감영 측우기 수심이 7푼인 연유는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그날의 비로 옥천·영동·황간·회인·문의·괴산 등 6개 고을은 시내와 도랑이 불어나 가득 찼고, 전의·목천·진천·청안·음성·충주 등 6개 고을은 2려가 내렸고, 신창·석성·노성·진잠·보은·청주·청풍 등 7개 고을은 1려가 내렸고, 공주·천안·아산·온양·정산·청양·대흥·홍주·덕산·해미·부여·임천·홍 산·서천·비인·은진·회덕·청산·연기·평신 등 20개 고을과 군영은 1서가 내렸다고 합니다. 지난달 29일 오시쯤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더러 부슬부슬 내리거나 더러 뿌리다가 간간이 주룩주룩 내리다가 이번 달 초1일에 그쳤는데, 저의 감영 측우기 수심은 4치 7푼이었습니다. 아직 이렇게 부슬부슬 내리거나 뿌리며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이후 경위 및 각 고을의 우택은 보고가 오기를 기다려 잇따라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 0501. 1874년(고종 11) 5월 7일(양력 6월 20일)

錦營啓錄 7책(84a~85a) /各司臚錄 7책 忠淸道篇 2책(296d~297a)

道內農形及去月二十九日以後連日之雨，公州等二十三邑所得分數，已爲連次馳啓爲白有在果，續接各邑所報，則伊日之雨，前啓外，舒川·藍浦·沃川·報恩·懷仁等五邑，川渠漲滿，庇仁·保寧·黃澗·靑山·靑安·槐山等六邑，得二犁，牙山·海美·瑞山·泰安·鴻山·韓山·永同·文義·靑風·堤川·丹陽·永春·平薪等十三邑鎮，得一犁，天安·稷山·平澤·沔川·唐津·延豐·陰城·忠州等八邑，得一鋤是如爲白遣，農形段，秋耨漸次刈取，春耨幾皆向黃，畚庫間或移秧，付種乾播方始初鋤，早黍粟和種，豆太及木花，漸次初除草是如爲白乎旆，又於今月初四日午時量始雨，或霏或灑，間間驟霍，乍陰乍陽，至初六日申時乃止，臣營下測雨器水深，爲五寸三分是白如乎，向後農形及各邑雨澤，待其報來，鱗次陳聞計料，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충청도 내 농사 상황 및 지난달 29일 이후 연일의 비로 공주 등 23개 고을에 내린 양은 이미 연달아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그날의 비로 앞서 보고한 것 이외에 서천·남포·옥천·보은·회인 등 5개 고을은 시내와 도랑이 불어나 가득 찼고, 비인·보령·황간·청산·청안·괴산 등 6개 고을은 2려가 내렸고, 아산·해미·서산·태안·홍산·한산·영동·문의·청풍·제천·단양·영춘·평신 등 13개 고을과 군영에 1려가 내렸고, 천안·직산·평택·면천·당진·연풍·음성·충주 등 8개 고을은 1서가 내렸다고 합니다. 농사 상황의 경우, 가을보리는 점차 베어 거두고 봄보리는 거의 다 누렇게 되었고, 논은 간혹 모내기를 하였고 무논에 볍씨를 뿌린 것이나 마른 논에 씨앗을 뿌린 것은 막 초벌 김매기를 시작하였고, 올기장·올조와 섞어짓는 콩·팥 및 목화는 점차 초벌 김매기를 하였다고 합니다.

이번 달 초4일 오시쯤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더러 부슬부슬 내리거나 더러 뿌리다가 간간이 소나기가 주룩주룩 내리다가 언뜻언뜻 흐리거나 별이 나다가 초6일 신시에 이르러 이내 그쳤는데, 저의 감영 측우기 수심은 5치 3푼이었습니다. 이후 농사 상황 및 각 고을의 우택은 보고가 오기를 기다려 잇따라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0502. 1874년(고종 11) 5월 11일(양력 6월 24일)

錦營啓錄 7책(85a~85a) /各司臚錄 7책 忠淸道篇 2책(297b~297b)

今月初四日午時量始雨，至初六日申時乃止，臣營下水深爲五寸三分緣由，已爲馳啓爲白有在果，續接各邑所報，則伊日之雨，公州定山靑陽文義懷仁報恩等六邑，川渠漲滿，全義木川溫陽大興洪州德山沃川燕岐等八邑得二犁，天安稷山牙山新昌禮山瑞山海美石城扶餘魯城鎮岑淸州等十二邑得一犁，唐津林川鴻山韓山恩津連山等六邑，得一鋤是如爲白有臥乎所，未報邑雨澤，隨其報來，鱗次陳聞計料，緣由并以馳啓爲白臥乎事，

이번 달 초4일 오시쯤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초6일 신시에 이르러 이내 그쳤는데, 저의 감영 측우기 수심이 5치 3푼인 연유는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그날의 비로 공주·정산·청양·문의·회인·보은 등 6개 고을은 시내와 도랑이 불어나 가득 찼고, 전의·목천·온양·대흥·홍주·덕산·옥천·연기 등 8개 고을은 2려가 내렸고, 천안·직산·아산·신창·예산·서산·해미·석성·부여·노성·진잠·청주 등 12개 고을은 1려가 내렸고, 당진·임천·홍산·한산·은진·연산 등 6개 고을은 1서가 내렸다고 합니다. 보고하지 않은 고을의 우택은 보고가 오는 대로 잇따라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 0503. 1874년(고종 11) 5월 17일(양력 6월 30일)

錦營啓錄 7책(85a~86a) /各司臚錄 7책 忠淸道篇 2책(297b~297c)

道內農形及今月十一日亥時始雨, 至十三日申時乃止, 臣營下水深爲八寸三分緣由, 已爲連次馳啓爲白有在果, 續接各邑所報, 則伊日之雨, 公州·全義·木川·天安·稷山·平澤·溫陽·禮山·定山·靑陽·大興·德山·沔川·石城·舒川·庇仁·藍浦·結城·魯城·鎭岑·懷德·沃川·燕岐·淸州等二十四邑, 川渠漲滿, 牙山·海美·扶餘·連山·平薪等五邑鎭得二犁, 農形段, 秋麴幾皆登場, 春麴方張刈穫, 畚庫次第移<秧>, 付種乾播初鋤垂畢, 早黍粟和種, 豆太及木花方始再除草是如爲白遣, 自十三日申時以後, 連爲陰翳十五日午時量, 更爲始雨, 或霏或灑, 間間霑下, 至十七日辰時乃止, 臣營下測雨<器>水深, 爲四寸二分, 竝計前後, 合爲一尺一寸五分, 而各邑形止, 雖姑未知, 以臣營近郊觀之, 不啻優洽, 還涉過霑, 田畚之潰缺, 各穀之沈墊, 種種有之是白如乎, 向後農形及各邑所得, 待其報來, 鱗次陳聞計料, 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충청도 내 농사 상황 및 이번 달 11일 해시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13일 신시에 이르러 이내 그쳤는데, 저의 감영 수심이 8치 3푼인 연유는 이미 연달아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그날의 비로 공주·전의·목천·천안·직산·평택·온양·예산·정산·청양·대흥·덕산·면천·석성·서천·비인·남포·결성·노성·진잠·회덕·옥천·연기·청주 등 24개 고을은 시내와 도랑이 불어나 넘쳤고, 아산·해미·부여·연산·평신 등 5개 고을은 2려가 내렸다고 합니다.

농사 상황의 경우, 가을보리는 거의 다 타작을 하였고 봄보리는 한창 베어 거두고 있고 논은 차례로 모내기를 하였고, 무논에 벼씨를 뿌린 것이나 마른 논에 씨앗을 뿌린 것은 초벌 김매기를 끝냈고, 올기장·올조와 섞어짓는 콩·팥 및 목화는 막 두벌매기를 시작하였다고 합니다.

13일 신시 이후 연이어 먹구름이 끼었다가 15일 오시쯤 다시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더러 부슬부슬 내리거나 더러 뿌리기도 하기도 하다가 간간이 주룩주룩 내리다가 17일 진시에 이르러 이내 그쳤는데 저의 감영 측우기 수심은 4치 2푼이었고, 지금까지 것을 아울러 계산하면 총 1자 1치 5푼이었습니다.

각 고을의 경위는 아직 모르지만 저의 감영 근교로 보자면 흠족하게 내렸을 뿐아니라 도리어 지나치게 주룩주룩 내려서 논밭이 무너지고 터져 각종 곡식이 잠기는 일이 종종 있었습니다. 이후 농사 상황 및 각 고을에 내린 양은 보고가 오기를 기다려 잇따라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 0504. 1874년(고종 11) 5월 27일(양력 7월 10일)

錦營啓錄 7책(86a~87a) /各司臚錄 7책 忠淸道篇 2책(297d~298a)

道內農形及今月十五日之雨，公州等二十九邑所得分數，二十二日申時始雨，至二十四日午時，臣營下水深爲一尺一寸五分緣由，已爲連次馳啓爲白有在果，自二十四日午時以後連爲暴霖，間或霏灑，至二十六日申時乃止，臣營下測雨器水深，又爲一尺二寸，通計前後，合爲二尺三寸五分，而尙此陰翳，猶有餘意是白乎旆，續接各邑所報，則十五日之雨，前啓外，溫陽·新昌·禮山·唐津·瑞山·海美·藍浦·保寧·結城·永同·黃澗·青山·報恩·懷仁·文義·鎭川·淸安·槐山·延豐·陰城等二十邑，川渠漲滿，泰安·淸風·堤川·丹陽·永春·平薪等六邑鎭，得二犁，二十二日以後連日之雨，公州·定山·石城·扶餘·林川·鴻山·魯城·恩津·連山·鎭岑·懷德·文義·燕岐·淸州等十四邑，江川汎濫，全義·木川·天安·稷山·平澤·牙山·溫陽·新昌·禮山·青陽·大興等十一邑，川渠漲溢，而家舍之漂頽，人命之滄死，待水退摘奸更報計料。農形段，秋粳幾盡登場，春粳刈穫垂畢，畚庫高低畢移，而依山奉畚則秧苗方茂，汰覆偏甚，沿江污下則宿水未退，新漲更添，沈者尤沈，潰者益潰，已判全棄，早黍粟和種，豆太着在淤泥，耘役全廢，根耕豆太及晚黍粟，次第立苗，燕沒草萊，鋤耘愆時，其中木花，最是惡濕之種，積雨所沈，根莖腐消，蘇醒無期是如爲白有臥乎所，一雨極備，跨朔連霖，瘠稼甚大，農功莫施，言念民情，萬萬憂悶，向後形止及未報邑雨水多寡，家舍漂頽滄死人等役姓名，待其報來，鱗次陳聞計料，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충청도 내 농사 상황 및 이번 달 15일의 비로 공주 등 29개 고을에 내린 양과 22일 신시쯤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24일 오시에 이르렀는데, 저의 감영 수심이 1자 1치 5푼인 연유는 연달아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24일 오시 이후로 연이어 세차게 주룩주룩 내리기도 하다가 간혹 부슬부슬 내리거나 뿌리기도 하다가 26일 신시에 이르러 이내 그쳤는데 저의 감영 측우기 수심은 또 1자 2치였습니다. 지금까지 것을 통틀어 계산하면 총 2자 3치 5푼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이렇게 먹구름이 끼어있으니 오히려 더 내릴 조짐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15일의 비로 앞서 보고한 것 이외에 온양·신창·



예산·당진·서산·해미·남포·보령·결성·영동·황간·청산·보은·회인·문의·진천·청안·괴산·연풍·음성 등 20개 고을은 시내와 도랑이 불어나 가득 찼고, 태안·청풍·제천·단양·영춘·평신 등 6개 고을과 군영은 2려가 내렸습니다. 22일 이후 연일 내린 비로 공주·정산·석성·부여·임천·홍산·노성·은진·연산·진잠·회덕·문의·연기·청주 등 14개 고을은 강과 시내가 범람하였고, 전의·목천·천안·직산·평택·아산·온양·신창·예산·청양·대흥 등 11개 고을은 시내와 도랑이 불어나 넘쳤습니다. 집이 떠내려가거나 무너지고 사람이 빠져 죽은 것은 물이 빠지기를 기다려 적간하여 다시 보고할 계획입니다.

농사 상황의 경우, 가을보리는 거의 다 타작을 하였고, 봄보리는 베어서 수확이 끝났고 높은 지역이나 낮은 지역 논은 모내기를 끝냈고 산을 의지해 빗물만 바라는 논은 모씨가 막 무성해졌는데 산사태로 덮인 것이 매우 심합니다. 강 주변이나 낮은 곳은 묵은 물이 빠지지 않은데다가 새로 불어나 다시 더해져 잠긴 곳은 더욱 더 잠기고 터진 곳은 더욱더 터져서 이미 전부 포기한 것으로 판가를 낮습니다. 올기장·올조와 섞여지은 콩은 진흙에 불어 있어 김매는 일은 완전히 그만두었습니다. 그루같이한 콩과 늦기장·늦조는 차례로 싹이 텃는데 완전히 잡초로 우거졌고 김매는 시기를 놓쳤습니다. 그 가운데 목화는 가장 습기를 꺼리는 종류인데 빗물이 쌓여 잠겨서 뿌리와 줄기가 썩어 없어져 살아나기를 기대할 수 없다고 합니다. 한번 비가 내리면 그지없이 내리고 한 달 이상이나 연이어 주룩주룩 내려 곡물 피해가 매우 커서 농사에 대한 이득이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백성들의 심정을 생각하면 매우 근심이고 걱정입니다. 이후 경위 및 보고하지 않은 고을의 빗물 양과 떠내려가거나 무너진 백성 집과 빠져 죽은 사람들의 직역과 성명은 보고가 오기를 기다려 잇따라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 0505. 1874년(고종 11) 5월 30일(양력 7월 13일)

錦營啓錄 7책(87a~87b) /各司臚錄 7책 忠淸道篇 2책(298a~298c)

今月二十二日以後連日之雨, 至二十六日申時, 臣營下水深合爲二尺三寸五分緣由及公州等二十五邑被沈形止, 已爲馳啓爲白有在果, 續接各邑所報, 則伊日之雨, 前啓外, 洪州·德山·沔川·唐津·海美·瑞山·泰安·韓山·舒川·庇仁·藍浦·保寧·結城·鎭川·淸安·槐山·延豐·陰城·淸州·忠州·淸風·堤川·丹陽·永春·平薪等二十四邑鎭, 江川汎濫, 沃川·永同·黃澗·報恩·靑山·懷仁等六邑, 川渠漲溢, 而人家之漂頽, 田畝之汰覆, 在在皆是如乙仍于, 待水退這這摘奸, 仍卽別加檢之意, 申飭題送爲白乎旅, 自今月二十六日申時以後, 陰雲散合, 熏風連吹, 又於二十八日酉時量, 更爲始雨, 或淫或灑, 至三十日午時, 臣營下水深, 爲五寸六分是白如乎, 跨朔長霖, 災傷備至, 一直霏灑, 迄未開霽, 言念民情, 誠極悶然, 向後形止及各邑雨水多寡, 待其報來, 鱗次陳聞計料, 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이번 달 22일 이후 연일 내린 비는 26일 신시에 이르렀는데 저의 감영 측우기 수심이 총 2자 3치 5푼인 연유 및 공주 등 25개 고을이 물에 잠긴 경위는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그날의 비로 앞서 보고한 것 이외에 홍주·덕산·면천·당진·해미·서산·태안·한산·서천·비인·남포·보령·결성·진천·청안·괴산·연풍·음성·청주·충주·청풍·제천·단양·영춘·평신 등 24개 고을과 군영은 강과 시내가 범람하였고, 옥천·영동·황간·보은·청산·회인 등 6개 고을은 시내와 도랑이 불어나 넘쳤습니다. 인가가 떠내려가거나 무너지고 논밭이 산사태로 덮이고 곳곳이 다 그렇다고 합니다. 물이 빠지기를 기다려 날날이 적간하고 이내 즉시 별도로 조사하라는 뜻으로 단단히 지시하여 결정문을 보냈습니다. 이번 달 26일 신시 이후 먹구름이 흩어졌다 모였다 하고 후덥지근한 바람이 연이어 불더니, 또 28일 유시쯤 다시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더러 주룩주룩 내리거나 더러 뿌리다가 30일 오시에 이르렀는데, 저의 감영 측우기 수심은 5치 6푼이었습니다. 한 달이 넘는 긴 장마에 재해가 갖가지로 들이닥쳤고 줄곧 부슬부슬 내리거나 뿌리며 이제까지 개이지 않으니 백성들의 심정을 생각하면 정말로 그지없이 걱정입니다. 이후 경위 및 각 고을의 빗물 양은 보고가 오기를 기다려 잇따라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 0506. 1874년(고종 11) 6월 17일(양력 7월 30일)

錦營啓錄 7책(88a~88b) /各司謄錄 7책 忠淸道篇 2책(298c~298d)

道內農形, 已爲連次馳啓爲白有在果, 續接各邑所報, 則無論田畝各穀, 依山傍川之酷被水災, 汰覆沈墊, 全無穀形者外, 付種乾播方張茁長, 早移秧間或再耘, 晚移秧幾皆初耘, 早黍粟和種, 豆太及木花, 間因旱乾之太甚, 耘役愆期, 無善就, 根耕豆太及晚黍粟, 纔出地上, 長在水中, 及其水退之後, 旋被烈陽, 土堅如石, 鋤耘莫施, 而公州·連山·鎭岑等三邑, 有愆蠶蹲縮之患, 舒川蟹損大發, 痒稼非細是如爲白有臥乎所, 自四月二十九日, 至五月三十日, 首尾一朔之間, 殆乎無日不雨, 而其間大霖暴漲者爲五次, 屢經衝激, 完堤無不潰決, 允[久]被停滯, 軟苗已皆〈枯損〉, 山面缺落, 水道橫奔, 人命種種淹壓, 村里往往漂沒, 全省俱災, 沿峽無分, 而旋遭酷旱, 竟無餘望是如, 邑報民訴, 逐日踏至, 第以另加慰撫, 俾各安接之意, 題飭於邑守宰處是白在果, 漂頽民家, 淹壓人命, 各邑所報, 慮有爽實, 有不敢遽爾登聞, 或發遣徧裨而摘奸, 或申飭邑倅而遍審, 待其從實報來, 續當馳聞是白乎旆, 今月十六日酉時量始雨, 或霏或灑, 間間暴霖, 至十七日午時, 臣營下測雨器水深, 爲九寸一分, 而尙此霏灑不止是白如乎, 向後形止, 鱗次陳聞計料, 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충청도 내 농사 상황은 이미 연달아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논밭을 따질 것없이 각종 곡식의 경우 산에 의지하거나 냇가에 있어 혹독하게 수재를 입고 산사태로 덮이거나 잠겨서 전혀 곡식 형태를 갖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외에 무논에 범씨를 뿌린 것이나 마른 논에 씨앗을 뿌린 것은 한창 싹이 자라고 있고, 일찍 모내기를 한 것은 간혹 두벌매기를 하였고 늦게 모내기를 한 것은 거의 다 초벌 김매기를 하였고, 올기장·올조와 섞어짓는 콩·팥 및 묵화는 그사이 땅이 너무 메말라서 김매기 일하는 때를 놓쳐 잘 익지 못했고 그루같이한 콩·팥 및 늦기장·늦조는 땅 위로 싹이 나오자마자 오래 물속에 있었고 그 물이 빠진 후로는 또 바로 따가운 햇볕을 쬌어 흙이 돌처럼 단단해져 호미로 김매기를 할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또 공주·연산·진잠 등 3개 고을은 벼멸구와 쪽정이 근심이 있고 서천은 해충이 크게 발생하여 농작물 피해가 적지 않다고 합니다.

4월 29일부터 5월 30일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1달 내내 거의 비가 오지 않은 날이 없었으며 그사이 크게 주룩주룩 내려 세차게 불어난 것이 다섯 차례이고 여러 번 세찬 물결에 부딪혀 무너지고 터지지 않은 제방이 없습니다. 정말로 오래 고여 있었던 어린 모가 이미 다 말라버렸고 산비탈이 떨어져 나가고 물길이 제멋대로 흘러서 사람들은 종종 빠져 죽거나 깔려 죽고 시골 마을은 종종 떠내려갔고 온 도가 모두 재해를 입어서 바닷가나 골짜기나 구분이 없었습니다. 바로 또 혹독한 가뭄을 만나 결국 남은 가뭄이 없다고 합니다. 고을의 보고와 백성들의 하소연이 매일 몰려들어서 다만 별도로 위로하여 각자 편안히 지내도록 하라는 뜻으로 고을 수령에게 결정문으로 지시하였습니다. 떠내려가거나 무너진 백성 집과 빠져 죽거나 깔려 죽은 사람에 대해서는 각 고을의 보고가 사실과 다를까 염려되어 감히 선불리 아뢰지 못하고 더러 비서를 보내 적간하거나 더러 고을 수령에게 단단히 지시하여 두루 살피게 하고 사실대로 보고가 오기를 기다려 계속 긴급히 아뢰겠습니다. 이번 달 16일 유시쯤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더러 부슬부슬 내리거나 더러 뿌리다가 간간이 세차게 주룩주룩 내리다가 17일 오시에 이르렀는데, 저의 감영 측우기 수심은 9치 1푼이었습니다. 아직 이렇게 부슬부슬 내리거나 뿌리며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이후 경위는 잇따라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 0507. 1874년(고종 11) 6월 25일(양력 8월 7일)

錦營啓錄 7책(92a~93b) /各司謄錄 7책 忠淸道篇 2책(300b~301a)

今夏雨水, 各邑被災形止及人命渰壓·民家漂頽, 待其報來, 鱗次陳聞計料緣由, 已爲馳啓爲白有在果, 續接各邑所報, 則公州段, 人命渰死爲七名, 民家漂失爲一百三戶頽壓爲一百五十六戶. 恩津段, 人命渰死爲一名, 壓死爲一名, 民家漂壓爲五百十六戶. 石城段, 民家漂失爲三十九戶, 頽壓爲一百一十一戶. 扶餘段, 民家漂失爲三十八戶, 頽壓爲七十一戶. 林川段, 民家漂失爲四戶, 頽壓爲七十二戶. 魯城段, 民家頽壓爲五十二戶, 沃川段, 人命渰死爲七名民家漂失爲十四戶, 頽壓爲十戶. 報恩段, 人命壓死爲六名, 民家頽壓爲二十八戶. 懷德段, 人命渰死爲一名, 民家漂失爲一戶, 頽壓爲十六戶. 天安段, 民家漂失爲八戶, 頽壓爲十五戶. 新昌段, 人命渰死爲一名, 民家頽壓爲十五戶. 懷德段, 民家頽壓爲十六戶. 結城段, 民家頽壓爲二十四戶. 稷山段, 民家頽壓爲十六戶. 文義段, 民家漂失爲十二戶, 頽壓爲十九戶. 定山段, 民家頽壓爲三十九戶. 鴻山段, 人命渰死爲一名, 民家頽壓爲十戶. 平澤段, 民家頽壓爲十一戶. 鎭岑段, 民家頽壓爲九戶. 延豐段<人命>渰死爲二名, 民家漂失爲二戶. 青山段, 民家頽壓爲三戶. 統計其數, 人命渰死爲二十名, 壓死爲七名, 民家漂失爲二百二十一戶, 頽壓爲一千二百九戶是白乎所, 今年近古罕有田畝之潰覆, 禾穀糜爛, 已判全棄, 更無收榆之望. 此則猶屬遠憂, 姑不暇論是白遣, 最是木花渰壓漂頽之類, 以已報處見之, 其數若是顆[夥]然, 所聞無非絕慘是白如乎.

올 여름 비로 각 고을의 재해를 당한 경위 및 사람이 빠져 죽거나 깔려 죽고 백성 집가 떠내려가거나 무너진 것은 보고가 오기를 기다려 잇따라 아뢴 계획인 연유는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공주의 경우, 빠져 죽은 사람 7명, 떠내려간 백성 집 130가구, 너진 것 백성 집 156가구, 은진의 경우 빠져 죽은 사람 1명·깔려 죽은 사람 1명·떠내려가거나 깔린 백성 집 516가구, 석성의 경우, 떠내려간 백성 집 39호, 무너진 백성 집 111가구, 부여의 경우, 떠내려간 백성 집 38가구, 무너진 백성 집 71가구, 임천의 경우, 떠내려간 백성 집 4가구, 무너진 백성 집 72가구, 노성의 경우, 무너진 백성 집 52가구, 옥천의 경우 빠져 죽은 사람 7명, 떠내려간 백성 집 14가구,

무너진 백성 집 10가구, 보은의 경우, 깔려 죽은 사람 6명, 무너진 백성 집 28가구, 회덕의 경우, 빠져 죽은 사람 1명, 떠내려간 백성 집 1가구, 무너진 백성 집 16가구, 천안의 경우, 떠내려간 백성 집 8가구, 무너진 백성 집 15가구, 신창의 경우 빠져 죽은 사람 1명, 무너진 백성 집 15가구, 회덕의 경우 무너진 백성 집 16가구, 결성의 경우 무너진 백성 집 24가구, 직산의 경우 무너진 백성 집 16가구, 문의의 경우 떠내려간 백성 집 12가구, 무너진 백성 집 19가구, 정산의 경우, 무너진 백성 집 39가구, 홍산의 경우 빠져 죽은 사람 1명, 무너진 백성 집 10가구, 평택의 경우 무너진 백성 집 11가구, 진잠의 경우 무너진 백성 집 9가구, 연풍의 경우 빠져 죽은 사람 2명, 떠내려간 백성 집 2가구, 청산의 경우 무너진 백성 집 3가구입니다. 그 수를 통틀어 계산하면 빠져 죽은 사람 20명, 깔려 죽은 사람 7명, 떠내려간 백성 집 221가구, 무너진 백성 집 1,209가구라고 합니다.

올해는 예나 지금이나 없었던 논밭이 터져 모래로 덮이고 벼가 썩어 문드러져 이미 포기한 것으로 판가름이 났으며, 다시 늦게라도 거둬 가망이 없습니다. 이것은 오히려 먼 걱정에서 속하여 일단 따질 겨를이 없습니다. 바로 목화와 빠지거나 깔리고 떠내려가거나 무너진 항목은 이미 보고한 곳으로 보자면 그 수가 이처럼 매우 많아서 들리는 바가 매우 참혹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 0508. 1874년(고종 11) 6월 20일(양력 8월 2일)

錦營啓錄 7책(95a~95b) /各司謄錄 7책 忠淸道篇 2책(301d~302a)

道內農形及今月十六日以後連日之雨，公州等二十邑被沈形止，已爲馳啓爲白有在果，續接各邑所報，則伊日之雨，前啓外，稷山·平澤·溫陽·牙山·新昌·唐津·海美·瑞山·泰安·韓山·鎭岑·懷德·鎭川·淸安·槐山·延豐·陰城·永春·平薪等十九邑，鎭川渠漲溢·禮山·德山·沔川·舒川·保寧·結城·報恩·懷仁·沃川·永同·黃澗·青山·忠州·淸風·堤川·丹陽等十六邑，得二犁，而新築之堤塍，又致潰決，向蘇之禾稼，更被沈墊，到處所見，去益愁悶是如爲白遣，農形段，田畝各穀之連沈全棄者外，付種乾播漸次茁長，早移秧幾皆再耘，晚移秧方始再耘，早黍粟和種，豆太及木花連爲除草，根耕豆太及晚黍粟，方張初除草，而其中木花，最忌澇濕，莖葉摧殘，花房腐落，來頭善就，已無餘望，鎭岑·連山等愆蠶蹲縮，舒川蟹損之患，尙未寢息是如爲白乎旃，又於今月二十三日亥時量始雨，或霏或灑，間間霏微，至二十六日申時，臣營下測雨器水深，爲二寸二分，而尙此霏灑不止是白如乎，向後形止及各邑雨水，待其報來，鱗次陳聞計料，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충청도 내 농사 상황 및 이번 달 16일 이후 연일의 비로 공주 등 20개 고을의 물에 잠긴 경위는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그날의 비로 앞서 보고한 것 이외에 직산·평택·온양·아산·신창·당진·해미·서산·태안·한산·진잠·회덕·진천·청안·괴산·연풍·음성·영춘·평신 등 19개 고을과 군영은 시내와 도랑이 불어나 넘쳤고, 예산·덕산·면천·서천·보령·결성·보은·회인·옥천·영동·황간·청산·충주·청풍·제천·단양 등 16개 고을은 2려가 내렸습니다. 그런데 새로 쌓은 제방과 두둑이 또 터지자 살아나려던 벼가 다시 잠기게 되었습니다. 가는 곳마다 보니 갈수록 근심이고 걱정이라고 합니다.

농사 상황의 경우, 논밭의 각종 곡식이 연이어 침수되어 전부 포기한 것 이외에 무논에 벼씨를 뿌린 것이나 마른 논에 씨앗을 뿌린 것은 점차 싹이 자라고 있고, 일찍 모내기를 한 것은 거의 다 두벌매기를 하고 늦게 모내기를 한 것은 막 두벌매기를 시작하고 있고, 올기장·올조와 섞어짓는 콩·팥 및 목화는 연이어 김매기를 하고 그루같이한 콩·팥 및

늦기장·늦조는 한창 초벌 김매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습기를 가장 꺼리는 목화는  
줄기와 잎이 꺾여 꽃봉우리는 썩어 떨어져서 이후 이미 잘 여물 가망이 없습니다. 진잠·연  
산 등은 벼멸구와 쪽정어, 서천은 해충에 대한 근심이 아직 그치지 않았다고 합니다.  
또 이번 달 23일 해시쯤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더러 주룩주룩 내리거나 더러 뿌리다가  
간간이 부슬부슬 내리다가 26일 신시에 이르렀는데, 저의 감영 측우기 수심은 2치 2푼이  
었습니다. 아직 이렇게 부슬부슬 내리거나 뿌리며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이후 경위  
및 각 고을에 내린 빗물은 보고가 오기를 기다려 잇따라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간급 보고합니다.



0509. 1874년(고종 11) 6월 28일(양력 8월 10일)

錦營啓錄 7책(95b~96a) /各司謄錄 7책 忠淸道篇 2책(302a~302b)

今月二十三日亥時始雨，至二十六日申時，臣營下水深爲二寸二分緣由，已爲馳啓爲白有在果，自二十六日申時以後，或霏或灑，載陰載暘[陽]，至二十八日午時，仍爲開霽，而更無所得分數之可論是白乎旃，續接各邑所報，則伊日之雨，公州·天安·稷山·牙山·新昌·禮山·青陽·大興·鴻山·藍浦·保寧·結城·連山·懷德·沃川等十五邑，得二犁，全義·木川·定山·洪州·石城·庇仁·魯城·懷仁·淸州·鎭川等十邑，得一犁，扶餘·舒川·恩津·文義·燕岐等五邑，得一鋤是如爲白有臥乎所，未報邑形止，隨其報來，鱗次陳聞計料，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이번 달 23일 해시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26일 신시에 이르렀는데 저의 감영 수심이 2치 2푼인 연유는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26일 신시 이후로 더러 부슬부슬 내리거나 더러 뿌리다가 언뜻언뜻 흐리거나 별이 나다가 28일 오시에 이르러 이내 개었는데, 내린 양은 다시 따질 것이 없다고 합니다. 계속해서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그날의 비로 공주·천안·직산·아산·신창·예산·청양·대흥·홍산·남포·보령·결성·연산·회덕·옥천 등 15개 고을은 2려가 내렸고, 전의·목천·정산·홍주·석성·비인·노성·회인·청주·진천 등 10개 고을은 1려가 내렸고, 부여·서천·은진·문의·연기 등 5개 고을은 1서가 내렸다고 합니다. 보고하지 않은 고을의 경위는 보고가 오는 대로 잇따라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0517. 1874년(고종 11) 7월 5일(양력 8월 16일)

錦營啓錄 7책(101b~101b) /各司臚錄 7책 忠淸道篇 2책(305a~305b)

今月初六日午時始雨，至初七日申時，臣營下水深爲二寸四分緣由，已爲馳啓爲白有在果，續接各邑所報，則伊日之雨，公州·連山·鎭岑·懷德·沃川·永同·黃澗等七邑，得二犁，定山·德山·泰安·庇仁·藍浦·恩津·靑山·懷仁·靑州·延豐·平薪等十一邑鎭，得一犁，全義·木川·新昌·靑陽·洪州·石城·扶餘·林川·鴻山·舒川·魯城·燕岐·鎭川·槐山·陰城·忠州等十六邑，得一鋤是如爲白有臥乎所，未報邑形止，隨其報來，鱗次陳聞計料，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이번 달 초6일 오시쯤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초7일 신시에 이르렀는데 저의 감영 측우기 수심이 2치 4푼인 연유는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그날의 비로 공주·연산·진잠·회덕·옥천·영동·황간 등 7개 고을은 2려가 내렸고, 정산·덕산·태안·비인·남포·은진·청산·회인·청주·연풍·평신 등 11개 고을과 군영은 1려가 내렸고, 전의·목천·신창·청양·홍주·석성·부여·임천·홍산·서천·노성·연기·진천·괴산·음성·충주 등 16개 고을은 1서가 내렸다고 합니다. 보고하지 않은 고을의 경위는 보고가 오는 대로 잇따라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0510. 1874년(고종 11) 7월 8일(양력 8월 19일)

錦營啓錄 7책(103a~103b) /各司謄錄 7책 忠淸道篇 2책(305d~305d)

道內農形, 已爲連次馳啓爲白有在果, 續接各邑所報, 則田畝各穀之酷被水災, 已判全棄者外, 付種乾播及早移, 漸次茁茂, 晚移已皆再耘, 早黍粟次第發穗, 和種豆太連爲起花, 木花方始結顆, 根耕豆太及晚黍粟幾皆除草, 前啓中, 公州等三邑愆蠶蹲縮·舒川蟹損尙未寢息, 前啓外, 瑞山·泰安兩邑, 有愆蹲[蠶]蹲縮之患, 痒稼非細是如爲白有臥乎所, 向後農形, 鱗次陳聞計料, 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충청도 내 농사 상황은 이미 연달아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논밭의 각종 곡식이 혹심한 수재를 입어 이미 전부 포기한 것으로 관가름 난 것 이외에 무논에 범씨를 뿌리고 마른논에 씨앗을 뿌린 것과 일찍 모내기를 한 것은 점차 싹이 자라고, 늦게 모내기를 한 것은 이미 다 두벌갈이를 하였고 올기장·올조는 차례로 이삭이 패고 섞여지은 콩·팥은 연이어 꽃이 피고 목화는 막 다래를 맺기 시작하고 있고, 그루같이한 콩·팥 및 늦기장·늦조는 거의 다 김매기를 하였다고 합니다. 앞서 보고한 것 가운데 공주 등 3개 고을은 벼멸구와 쪽정이에 대한 근심이 아직 그치지 않고, 앞서 보고한 것 이외에 서산·태안 등 2개 고을은 벼멸구와 쪽정이에 대한 근심이 있어 농작물 피해가 적지 않다고 합니다. 이후 농사 상황은 잇따라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 0511. 1874년(고종 11) 7월 18일(양력 8월 29일)

錦營啓錄 7책(107b~107b) /各司臚錄 7책 忠淸道篇 2책(307d~307d)

道內農形, 已爲連次馳啓爲白有在果, 續接各邑所報, 則各穀之備經水災, 已判全棄者外, 付種乾播及早稻, 已皆胚胎, 間或發穗, 中·晚稻, 晚黍·粟幾皆茁茂, 早黍粟漸次入實, 和種豆太方張結殼, 木花連爲結穎, 根耕豆太次第起花. 前啓中公州等五邑愆蠶蹲縮, 舒川蟹損, 稍有寢息之望是如爲白乎旃. 今月十六日午時量始雨, 或霏或灑, 至十七日申時開霽, 臣營下測雨器水深, 爲二寸四分是白如乎, 各邑所得, 隨其報來, 鱗次陳聞計料, 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충청도 내 농사 상황은 이미 연달아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각종 곡식이 온갖 수재를 겪어 이미 포기한 것으로 관가름 난 것 이외에 무논에 벼씨를 뿌리고 마른논에 씨앗을 뿌린 것 및 올벼는 이미 다 알을 배고 있고 간혹 이삭이 패고 중벼·늦벼와 늦기장·늦조는 거의 다 싹이 무성하고 올기장·올조는 점차 알이 차고 섞어지은 콩·팥은 한창 꼬투리를 맺고, 목화는 연이어 다래를 맺고 그루같이 콩·팥은 차례로 꽃이 피고 있다고 합니다. 앞서 보고한 것 가운데 공주 등 5개 고을은 벼멸구와 쪽정이, 서천은 게로 인한 손상이 조금 그칠 가망이 있다고 합니다. 이번 달 16일 오시쯤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더러 주룩주룩 내리거나 더러 뿌리다가 17일 신시에 이르러 개었는데, 저의 감영 측우기 수심은 2치 4푼이었습니다. 각 고을에 내린 것은 보고가 오는 대로 잇따라 아될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 0512. 1874년(고종 11) 7월 18일(양력 8월 29일)

錦營啓錄 7책(108b~110a) /各司謄錄 7책 忠淸道篇 2책(308b~309a)

道內公州等二十一邑人命渰壓·家舍漂頽形止, 前已馳啓爲白有在果, 去月十六日盈尺之雨, 暴霖於一晝夜之間, 前此被沈將頽之家舍, 未及修葺, 仍致傾覆者, 比比有之是如, 邑報民訴, 式日斯至. 故一體摘奸, 從實以報之意, 申飭題送是白有加尼, 各邑所報, 今纔齊到, 而前啓中公州段, 民家頽壓爲九戶, 恩津段, 民家頽壓爲二十七戶, 平澤段, 民家頽壓爲十二戶, 扶餘段, 民家頽壓爲十七戶, 沃川段, 人命渰死爲一名, 魯城段, 民家頽壓爲二戶, 前啓外忠州段, 民家頽壓爲五十一戶, 洪州段, 民家頽壓爲八十戶. 淸州段, 人命渰死爲二名, 民家漂失爲二戶, 頽壓爲四十六戶, 牙山段, 人命渰死爲一名, 壓死爲五名, 民家頽壓爲六十二戶, 海美段, 人命渰死爲二名, 壓死爲一名, 民家頽壓爲二十四戶, 沔川段, 民家頽壓爲二十四戶, 唐津段, 人命渰死爲一名, 壓死爲二名, 民家頽壓爲四十九戶, 永同段, 人命渰死爲一名, 民家漂失爲九戶, 頽壓爲二十二戶, 瑞山段, 民家頽壓爲二十五戶. 堤川段, 人命渰死爲一名, 民家頽壓爲十七戶, 連山段, 民家頽壓爲三十五戶, 禮山段, 民家頽壓爲二十六戶, 青陽段, 民家頽壓爲二十戶, 舒川段, 民家頽壓爲十三戶, 鎭川段, 人命渰死爲三名, 民家頽壓爲二十戶, 木川段, 民家頽壓爲九戶, 永春段, 民家漂失爲四戶, 頽壓爲五戶. 全義段, 民家漂失爲二戶, 頽壓爲六戶, 黃澗段, 人命渰死爲一名, 民家頽壓爲九戶, 德山段, 民家頽壓爲九戶, 保寧段, 民家頽(壓)爲六戶, 淸安段, 民家頽壓爲四戶, 庇仁段, 民家頽壓爲三戶. 統計其數, 人命渰死爲十三名, 壓死爲九名, 民家漂失爲十七戶, 頽壓爲六百三十二戶是白乎所, 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충청도 내 공주 등 21개 고을의 사람이 빠져죽거나 깔려 죽고 집이 떠내려간 경위는 전에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지난달 18일 1자 정도의 비가 하루 밤 낮 사이에 세차게 주룩주룩 내려서 그 전에 이미 침수 피해를 입어 무너지려던 집이 미처 집수리를 하지 못한 채로 이내 엎어진 것이 일이 곳곳에서 발생했다는 고을의 보고와 백성들의 하소연이 날마다 이르렀습니다. 그러므로 모두 적간하여 사실대로 보고하라는 뜻으로 단단히 지시하여 결정문을 보냈더니 각 고을의 보고가 지금 막 일제히 도착하였습니다. 앞서 보고한 것 가운데 공주의 경우 무너진 백성 집 9가구, 은진의 경우 무너진 백성 집 27가구,

평택의 경우 무너진 백성 집 12가구, 부여의 경우 무너진 백성 집 17가구, 옥천의 경우 빠져 죽은 사람 1명, 노성은 무너진 백성 집 2가구입니다.

앞서 보고한 것 이외에 충주의 경우 무너진 백성 집 51가구, 홍주의 경우 무너진 백성 집 80가구, 청주의 경우 빠져 죽은 사람 2명·떠내려간 백성 집 2가구·무너진 백성 집 46 가구, 아산의 경우 빠져 죽은 사람 1명, 깔려 죽은 사람 5명, 무너진 백성 집 62가구, 해미의 경우 빠져 죽은 사람 2명, 깔려 죽은 사람 1명, 무너진 백성 집 24가구, 먼천의 경우 무너진 백성 집 24가구, 당진의 경우 빠져 죽은 사람 1명·깔려 죽은 사람 2명·무너진 백성 집 49가구, 영동의 경우 빠져 죽은 사람 1명·떠내려간 백성 집 9가구·무너진 백성 집 22가구, 서산의 경우 무너진 백성 집 25가구, 제천의 경우 빠져 죽은 사람 1명·무너진 백성 집 17가구, 연산의 경우 무너진 백성 집 35가구, 예산의 경우 무너진 백성 집 26가구, 청양의 경우 무너진 백성 집 20가구, 서천의 경우 무너진 백성 집 13가구, 진천의 경우 빠져 죽은 사람 3명·무너진 백성 집 20가구, 목천의 경우 무너진 백성 집 9가구, 영춘의 경우 떠내려간 백성 집 4가구·무너진 백성 집 5가구, 황간의 경우 빠져 죽은 사람 1명·무너진 백성 집 9가구, 덕산의 경우 무너진 백성 집 9가구, 보령의 경우 무너진 백성 집 6가구, 청안의 경우 무너진 백성 집 4가구, 비인의 경우 무너진 백성 집 3가구입니다. 그 수를 통틀어 계산하면 빠져 죽은 사람 13명, 깔려 죽은 사람 9명, 떠내려간 백성 집 17가구, 무너진 백성 집 632가구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 0513. 1874년(고종 11) 7월 28일(양력 9월 8일)

錦營啓錄 7책(111b~112a) /各司謄錄 7책 忠淸道篇 2책(309c~309d)

道內農形及今月十六日之雨, 公州等三十四邑鎭所得分數, 已爲連次馳啓爲白有在果, 續接各邑所報, 則伊日之雨, 前啓外, 保寧·結城·報恩·文義·淸風·堤川·丹陽·永春等八邑, 得一犁, 天安·稷山·平澤·溫陽·牙山·禮山·大興·沔川·唐津·海美·瑞山·韓山·淸安等十三邑, 得一鋤是如爲白乎旅, 農形段, 各穀之被災孔酷, 已判全棄者外, 付種乾播及早稻幾皆發穗, 中晚稻及晚黍粟次第胚胎, 間或發穗, 早黍粟和種, 豆太漸次入實, 木花連爲結顆[果], 根耕豆太方張結穀, 而瑞山·泰安·海美·結城·舒川等五邑, 蟲損大發, 藍浦蟹損熾盛, 痒稼非細是如爲白有臥乎所, 向後農形, 鱗次陳聞計料, 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충청도 내 농사 상황 및 이번 달 16일의 비로 공주 등 34개 고을과 군영에 내린 양은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그날의 비로 앞서 보고한 것 이외에 보령·결성·보은·문의·청풍·제천·단양·영춘 등 8개 고을은 1려가 내렸고, 천안·직산·평택·온양·아산·예산·대흥·면천·당진·해미·서산·한산·청안 등 13개 고을은 1서가 내렸다고 합니다.

농사 상황의 경우, 각종 곡식이 혹독하게 재해를 입어 이미 포기한 것으로 판가름 난 것 이외에 무논에 범씨를 뿌리고 마른논에 씨앗을 뿌린 것과 올벼는 거의 다 이삭이 패고, 그 가운데 벼와 늦벼와 늦기장·늦조는 차례로 알을 배고, 간혹 이삭이 패고 올기장·올조와 섞여지은 콩·팥은 점차 알이 차고 목화는 연이어 다래를 맺고 그루같이한 콩·팥은 한창 꼬투리를 맺고 있다고 합니다. 서산·태안·해미·결성·서천 등 5개 고을은 충해가 크게 발생하였고 남포는 게로 인한 손상이 세차게 번져 농작물의 피해가 적지 않다고 합니다. 이후 농사 상황은 잇따라 아될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 0514. 1874년(고종 11) 8월 9일(양력 9월 19일)

錦營啓錄 7책(112a~112b) /各司臚錄 7책 忠淸道篇 2책(309d~310a)

道內農形, 已爲連次馳啓爲白有在果, 續接各邑所報, 則汰覆·沈墊, 已判全棄者外, 早稻·早黍粟次第成實, 中晚稻及晚黍粟已皆發穗, 和種豆太次第向熟, 木花隨其綻絮, 間或摘取, 根耕豆太方張入實, 而前啓外瑞山·泰安·海美·結城·舒川等五邑及前啓外洪州·藍浦·保寧·庇仁·韓山·林川·扶餘·新昌·靑陽·魯城·石城·恩津·連山·鎭岑·公州等十五邑, 蟲災大發, 小者如蜉蝣, 大者如蟬形, 色青有翼, 或飛或躍, 着接禾穀, 揮之不去, 根◆[莖]穗葉, 無不盡食, 全一坪無穀形者, 在在皆然, 無復餘望, 邑報民訴, 式日踏至是白乎所, 巨浸之餘, 蟲災斯酷, 民情穡事, 誠甚悶然, 向後形止, 鱗次陳聞計料, 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충청도 내 농사 상황은 이미 연달아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사태로 덮이거나 잠겨서 이미 전부 포기한 것으로 판가름이 난 것 이외에 올벼와 올기장·올조는 차례로 여물고 중벼·늦벼와 늦기장·늦조는 이미 다 이삭이 패고 섞여지은 콩·팥은 차례로 익어가고 목화는 다래가 벌어지는 대로 간혹 따서 거두었으며 그루같이한 콩·팥은 한창 알이 차고 있습니다.

앞서 보고한 것 이외에 서산·태안·해미·결성·서천 등 5개 고을 및 홍주·남포·보령·비인·한산·임천·부여·신창·청양·노성·석성·은진·연산·진잠·공주 등 15개 고을은 충해가 크게 발생했다고 합니다. 작은 것은 하루살이 같고 큰 것은 매미같은 형태인데 푸른색에 날개가 있어 날거나 뛰어서 벼와 곡식에 달라붙어 휘휘 쫓아도 가지 않고 뿌리와 줄기와 이삭과 잎사귀를 싹 먹어치우지 않는 것이 없어 한 평 전체에 곡식의 형태가 없는 것이 곳곳이 다 그러하며 더이상 아무런 가망이 없다고 하는 고을의 보고와 백성의 하소연이 날마다 들려든다고 합니다. 크게 잠긴 끝에 충해가 이렇게 흑심하니 백성들의 심정과 농사가 정말로 매우 걱정입니다. 이후 경위는 잇따라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0515. 1874년(고종 11) 8월 18일(양력 9월 28일)

錦營啓錄 7책(112b~113a) /各司臚錄 7책 忠淸道篇 2책(310a~310a)

道內農形, 已爲連次馳啓爲白有在〈果〉, 續接各邑所報, 則酷〈被〉災傷, 已判全棄者外, 早稻·早黍粟及和種·豆太, 漸次成實, 中晚稻及晚黍粟方張向熟, 木花次第摘取, 根耕豆太幾皆入實, 前啓中瑞山等二十邑, 蟲災雖或稍息, 終未快祛, 全坪禾穀, 隨處食盡, 永無穀形者, 在在皆然, 滿目愁慘是如爲白有臥乎所, 水災極備, 蟲損繼酷, 言念民情, 極爲悶然, 向後農形, 鱗次陳聞計料, 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충청도 내 농사 상황은 이미 연달아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혹독하게 재해 피해를 입어 이미 전부 포기한 것으로 판가름이 난 것 이외에 올벼와 올기장·올조 및 섞어짓는 콩·팥은 점차 여물었고 중벼·늦벼와 늦기장·늦조는 한창 익어가고 목화는 차례로 따서 거두고 그루갈이한 콩·팥은 거의 다 알이 차고 있습니다. 앞서 보고한 것 가운데 서산 등 20개 고을은 충해가 비록 조금 그쳤더라도 끝내 시원하게 소멸되지는 않아서 온 들판의 벼와 곡식을 곳곳을 다 파먹어 영구히 곡식의 형태가 없는 것이 곳곳이 다 그러하며 눈에 띄는 모든 것이 시름겹고 참혹하다고 합니다. 수재를 그지없이 겪은 데다 충해가 계속 흑심하니 백성들의 심정[民情]을 생각하면 그지없이 걱정입니다. 이후 농사 상황은 잇따라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 0516. 1874년(고종 11) 8월 29일(양력 10월 9일)

錦營啓錄 7책(114a~114b),各司臚錄 7책 忠淸道篇 2책(310d~311a)

道內農形及今月十九日亥時始雨,至二十一日卯時開霽,臣營下水深爲一寸七分緣由,已爲連次馳啓爲白有在果,續接各邑所報,則伊日之雨,公州·全義·稷山·新昌·大興·洪州·德山·結城·沃川·永同·黃澗等十一邑,得一犁,木川·天安·平澤·牙山·溫陽·禮山·定山·青陽·鴻山·舒川·庇仁·魯城·恩津·懷德·報恩·懷仁·陰城·忠州等十八邑,得一鋤是如爲白乎旆,農形段,被災全棄者外,早稻·早黍粟及和種豆太,幾皆成熟,中晚稻·晚黍粟·根耕豆太,漸次向熟,木花顯房鮮少,綻絮絕罕,盡日摘取,不盈傾筐,而前啓瑞山等二十邑蟲災,乍寢旋發,終祛[乃]根莖穗葉,莫不被傷,向熟之穀,食盡無餘,一望全坪,在(在)皆然,右沿諸邑,已爲判歎是如爲白有臥乎所,向後農形及未報邑雨澤,隨其報來,鱗次陳聞計料,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충청도 내 농사 상황 및 이번 달 19일 해시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21일 묘시에 이르러 개었는데, 저의 감영 측우기 수심이 1치 7푼인 연유는 이미 연달아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그날의 비로 공주·전의·직산·신창·대흥·홍주·덕산·결성·옥천·영동·황간 등 11개 고을은 1려가 내렸고, 목천·천안·평택·아산·온양·예산·정산·청양·홍산·서천·비인·노성·은진·회덕·보은·회인·음성·충주 등 18개 고을은 1서가 내렸다고 합니다.

농사 상황의 경우, 재해를 입어 전부 포기한 것 이외에 올벼와 올기장·올조 및 섞어짓는 콩·팥은 거의 다 익었고 중벼·늦벼와 늦기장·늦조 및 그루같이한 콩·팥은 점차 익어가고 목화는 다래가 드물고 작은 데다가 벌어진 솜은 매우 드물어 하루종일 따서 거두어도 기울어진 바구니를 채울 수 없습니다. 그리고 앞서 보고한 서산 등 20개 고을의 충해는 잠시 그쳤다가 이내 발생하여 결국 뿌리와 줄기와 이삭과 잎사귀에 손상을 입지 않은 것이 없고 익어가던 곡식을 다 먹어치워 남은 것이 없을 지경이니 한눈에 보이는 온 들판이 곳곳이 모두 그러하여 오른쪽 바닷가의 모든 고을이 이미 흉년이 들 것이라고 판가름 났다고 합니다. 이후 농사 상황 및 보고하지 않은 고을의 우택은 잇따라 보고가 오는 대로 잇따라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0517. 1874년(고종 11) 9월 9일(양력 10월 18일)

錦營啓錄 7책(127a~127a) /各司臚錄 7책 忠淸道篇 2책(316b~316b)

道內農形, 已爲連次馳啓爲白有在果, 續接各邑所報, 則酷被災傷, 已判全棄者外, 早稻·早黍粟及和種豆太, 方張刈獲, 中晚稻·晚黍粟·根耕豆太, 次第成熟, 木花顆房既鮮, 餘絮無幾是如爲白遣, 公州·全義·木川·天安·稷山·平澤·牙山·溫陽·新昌·禮山·定山·洪州·石城·扶餘·鴻山·藍浦·魯城·恩津·連山·鎮岑·黃澗·報恩·文義·燕岐·淸州·鎮川·槐山·延豐·忠州·淸風·堤川等三十一邑, 今月初一日夜霜降是如爲白有臥乎所, 向後形止, 鱗次陳聞計料, 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충청도 내 농사 상황은 이미 연달아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혹심한 재해와 손실을 입어 이미 전부 포기한 것으로 판가름이 난 것 이외에 올벼와 올기장·올조 및 섞어짓는 콩·팥은 한창 베어 거두고, 중벼·늦벼와 늦기장·늦조 및 그루같이한 콩·팥은 차례로 익어가며 목화의 다래는 이미 드물고 남은 솜도 거의 없다고 합니다. 공주·전의·목천·천안·직산·평택·아산·온양·신창·예산·정산·홍주·석성·부여·홍산·남포·노성·은진·연산·진잠·황간·보은·문의·연기·청주·진천·괴산·연풍·충주·청풍·제천 등 31개 고을은 이번 달 초1일 밤에 서리가 내렸다고 합니다. 이후 경위는 잇따라 바로 보고할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0518. 1874년(고종 11) 9월 16일(양력 10월 25일)

錦營啓錄 7책(127b~128a) /各司臚錄 7책 忠淸道篇 2책(316c~316d)

道內農形及公州等三十一邑今月初二日夜霜降緣由，已爲馳啓，而續接各邑所報，則青陽·沔川·唐津·海美·泰安·懷德·沃川·永同·青山·懷仁·淸安·陰城·丹陽·永春等十四邑， 今月初五〈日〉夜霜〈降〉，大興·德山·瑞山·林川·韓山·舒川·庇仁·保寧·結城·平薪等十邑鎮，初八日夜霜降是如爲白遣，農形段，被災全棄者外，無論田畝各穀，隨其成熟，次第收穫而木花晚顆殘絮，無足摘取是如爲白有臥乎所，今年穡事，分而言之，雖有優劣之別，統而論之，未免全省俱災是白如乎，列邑分等酌量磨鍊，追後登聞計料，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충청도 내 농사 상황 및 공주 등 31개 고을은 이번 달 초2일 밤에 서리가 내린 연유는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각 읍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청양·면천·당진·해미·태안·회덕·옥천·영동·청산·회인·청안·음성·단양·영춘 등 14개 고을은 이번 달 초5일 밤에 서리가 내렸고, 대흥·덕산·서산·임천·한산·서천·비인·보령·결성·평신 등 10개 고을과 군영은 초8일 밤에 서리가 내렸다고 합니다.

농사 상황의 경우, 재해를 입어 전부 포기한 것 이외에 밭이든 논이든 따질 것 없이 각종 곡식을 익는 대로 차례로 수확하고 있으며 목화는 늦게 맺힌 다래에 숨이 남아 있기는 하지만 따서 거둘 만큼 충분치가 않다고 합니다. 올해의 농사는 구분해서 말하자면 비록 잘되고 못된 차이가 있지만 통틀어 따지면 온 고을이 모두 재해를 면하지 못합니다. 여러 고을의 풍흉 분등을 참작하여 마련해서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0519. 1875년(고종 12) 2월 19일(양력 3월 26일)

錦營啓錄 7책(167b~168a) /各司謄錄 7책 忠淸道篇 2책(335b~335c)

勸農一事·歲首綸音, 不啻懇摯, 其所對揚, 尤宜警惕乙仍于, 助給役糧, 勸借農器, 俾各服勤, 期有實效之意, 已爲措辭關飭於列邑守宰處爲白有在果, 近接各邑所報, 則農形段, 秋麴今始敷青, 春麴間或耕播, 治塋修堤次第經紀是如爲白乎旆. 今月十八日辰時量始雨, 或霏或灑, 至同日戌時開霽, 臣營下測雨器水深, 爲四分是白如乎, 向後農形及各邑雨澤, 鱗次陳聞計料, 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농사를 권장하는 한 가지 일에 대해 연초에 내린 임금님의 훈음은 간곡할 뿐만 아니라 받들어 널리 알리는 데 더욱 경각심을 가져야 마땅합니다. 일과 양식을 도와주고 농기구를 빌려주도록 권하여 각각 부지런히 힘써 꼭 실제적인 효과를 거두라는 뜻으로 이미 문구를 만들어 여러 고을의 수령에게 관문으로 지시했습니다.

요즘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농사 상황의 경우, 가을보리는 이제 푸른빛을 띠기 시작하였고 봄보리는 간혹 땅을 갈고 씨앗을 뿌렸습니다. 밭두둑을 고치고 둑을 만드는 일을 차례로 추진한다고 합니다. 이번 달 18일 진시쯤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더러 부슬부슬 내리거나 더러 뿌리다가 같은 날 술시에 이르러 개었는데, 저의 감영 측우기 수심은 4푼이었습니다. 이후 농사 상황 및 각 고을의 내린 우택은 잇따라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0520. 1875년(고종 12) 2월 23일(양력 4월 28일)

錦營啓錄 7책(168a~168b) /各司臚錄 7책 忠淸道篇 2책(335c~335c)

今月十八日辰時量始雨，至同日戌時，臣營下水深爲四分緣由，已爲馳啓爲白有在果，續接各邑所報，則伊日之雨，海美·瑞山·泰安·連山·鎭岑·懷德等六邑，得一鋤，公州·全義·木川·天安·稷山·定山·靑陽·大興·扶餘·石城·恩津·燕岐·淸州等十四邑，泥塵是如爲白乎旃，又於今月二十日申時量始雨，或霏或灑，載陰載陽[陽]，至二十二日申時乃止，臣營下測雨器水深，爲五分是白如乎，各邑雨澤，隨其報來，鱗次陳聞計料，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이번 달 10일 진시쯤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같은 날 술시에 이르렀는데, 저의 감영 측우기 수심은 4푼인 연유는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각 읍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그날의 비로 해미·서산·태안·연산·진잠·회덕 등 6개 고을은 1서가 내렸고, 공주·전의·목천·천안·직산·정산·청양·대흥·부여·석성·은진·연기·청주 등 14개 고을은 먼지만 적실 정도였다고 합니다. 이번 달 20일 신시쯤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더러 부슬부슬 내리거나 더러 뿌리다가 언뜻언뜻 흐리거나 별이 나다가 22일 신시에 이르러 이내 그쳤는데, 저의 감영의 측우기 수심은 5푼이었습니다. 각 고을의 우택은 보고가 오는 대로 잇따라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 0521. 1875년(고종 12) 3월 20일(양력 4월 25일)

錦營啓錄 7책(168b~169a) /各司臚錄 7책 忠淸道篇 2책(335c~335d)

道內農形及今月初九日之雨, 公州等三十一邑所得分數, 已爲連次馳啓爲白有在果, 續接各邑所報, 則伊日之雨, 前啓外, 泰安·保寧·結城·鎭川·淸安·平薪等六邑, 得一犁, 沔川·唐津·海美·沃川·永同·黃澗·靑山·報恩·文義·懷仁·槐山·延豐·陰城·忠州·淸風·堤川·丹陽·永春等十八邑, 得一鋤是如爲白遣, 農形段, 秋甦漸次向長, 春甦間或立苗, 鍤役幾皆垂畢, 秧板方始翻耕是如爲白乎旆, 又於今月十八日辰時量始雨, 或霏或灑, 間間霏下, 至十九日申時開霽, 臣營下測雨器水深, 爲一寸三分是白如乎, 向後農形及各邑雨澤, 待其報來, 鱗次陳聞計料, 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충청도 내 농사 상황 및 이번 달 초9일 내린 비로 공주 등 31개 고을에 내린 양은 이미 연달아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각 읍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그날의 비로 앞서 보고한 것 이외에 태안·보령·결성·진천·청안·평신 등 6개 고을은 1려가 내렸고, 먼천·당진·해미·옥천·영동·황간·청산·보은·문의·회인·괴산·연풍·음성·충주·청풍·제천·단양·영춘 등 18개 고을은 1서가 내렸다고 합니다.

농사 상황의 경우, 가을보리는 점차 자라가고 봄보리는 간혹 싹이 자라고 있으며 가래 일은 거의 다 끝났고 못자리는 막 갈아엎기 시작하였다고 합니다. 또 이번 달 18일 진시쯤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부슬부슬 내리거나 더러 뿌리다가 간간이 주룩주룩 내리다가 19일 신시에 이르러 개었는데, 저의 감영 측우기 수심은 1치 3푼이었습니다. 이후 농사 상황 및 각 고을의 우택은 보고가 오기를 기다려 잇따라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 0522. 1875년(고종 12) 3월 23일(양력 4월 28일)

錦營啓錄 7책(171a~171a) /各司臚錄 7책 忠淸道篇 2책(336d~337a)

道內農形及今月初九日之雨, 公州等三十一邑所得分數, 已爲連次馳啓爲白有在果, 續接各邑所報, 則伊日之雨, 前啓外, 泰安·保寧·結城·鎭川·淸安·平薪等六邑鎭, 得一犁, 沔川·唐津·海美·沃川·永同·黃澗·靑山·報恩·文義·懷仁·槐山·延豐·陰城·忠州·淸風·堤川·丹陽·永春等十八邑, 得一鋤是如爲白遣, 農形段, 秋麴漸次向長, 春麴間或立苗, 鋤役幾皆垂畢, 秧板方始翻耕是如爲白乎旆, 又於今月十八日辰時量始雨, 或霏或灑, 間間霏下, 至十九日申時開霽, 臣營下測雨器水深, 爲一寸三分是白如乎, 向後農形及各邑雨澤, 待其報來, 鱗次陳聞計料, 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충청도 내 농사 상황 및 이번 달 초9일 내린 비로 공주 등 31개 고을에 내린 양은 이미 연달아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각 읍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그날의 비로 앞서 보고한 것 이외에 태안·보령·결성·진천·청안·평신 등 6개 고을과 군영에 1려가 내렸고, 면천·당진·해미·옥천·영동·황간·청산·보은·문의·회인·괴산·연풍·음성·충주·청풍·제천·단양·영춘 등 18개 고을은 1서가 내렸다고 합니다.

농사 상황의 경우, 가을보리는 점차 자라나고, 봄보리는 간혹 싹이 났으며, 가래질은 거의 모두 끝냈고, 못자리는 막 갈아엎기 시작하였다고 합니다. 또 이번 달 18일 진시쯤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더러 부슬부슬 내리거나 더러 뿌리다가 간간이 주룩주룩 내리다가 19일 신시에 이르러 날이 개었는데, 저의 감영 측우기 수심은 1치 3푼이었습니다. 이후 농사 상황 및 각 고을의 우택은 보고가 오기를 기다려 잇따라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0523. 1875년(고종 12) 3월 27일(양력 5월 2일)

錦營啓錄 7책(172a~172a) /各司謄錄 7책 忠淸道篇 2책(337b~337c)

今月十八日辰時始雨, 至十九日申時開<霽>, 臣營下水深爲一寸三分緣由, 已爲馳啓爲白有在果, 續接各邑所報, 則伊日之雨, 公州·定山·靑陽·大興·沔川·唐津·瑞山·魯城·沃川·永同·文義等十一邑, 得一犁, 全義·木川·天安·稷山·平澤·禮山·洪州·德山·林川·韓山·舒川·恩津·連山·懷德·報恩·懷仁·燕岐·淸州·鎭川·淸安·槐山等二十一邑, 得一犁是如爲白有臥乎所, 未報邑雨澤, 待其報來, 鱗次陳聞計料, 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이번 달 18일 진시쯤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19일 신시에 이르러 개였는데 측우기 수심은 1치 3푼인 연유는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각 읍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그날의 비로 공주·정산·청양·대흥·면천·당진·서산·노성·옥천·영동·문의 등 11개 고을은 2려가 내렸고, 전의·목천·천안·직산·평택·예산·홍주·덕산·임천·한산·서천·은진·연산·회덕·보은·회인·연기·청주·진천·청안·괴산 등 21개 고을은 1려가 내렸다고 합니다. 보고하지 않은 고을의 우택은 기다려 보고가 오는 대로 잇따라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 0524. 1875년(고종 12) 4월 1일(양력 5월 5일)

錦營啓錄 7책(173a~173b) /各司臚錄 7책 忠淸道篇 2책(338a~338b)

道內農形及去月十八日之雨，公州等三十二邑所得分數，已爲連次馳啓爲白有在果，續接各邑所報，則伊日之雨，前啓外，海美·泰安·扶餘·石城·林川·平薪等六邑鎭，得一犁，牙山·溫陽·新昌·庇仁·藍浦·保寧·結城·鎭岑·黃澗·靑山·延豐·陰城·忠州·淸風·堤川·丹陽·永春等十七邑，得一鋤是如爲白乎旆，農形段，秋麴幾皆茁長，春麴次第敷靑，畚庫間或翻耕，注秧付種方始經紀是如爲白有臥乎所，向後農形，鱗次陳聞計料，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충청도 내 농사 상황 및 지난달 18일 내린 비로 공주 등 32개 고을에 내린 양은 이미 연달아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각 읍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그날의 비로 앞서 보고한 것 이외에 해미·태안·부여·석성·임천·평신 등 6개 고을과 군영에 1려가 내렸고, 아산·온양·신창·비인·남포·보령·결성·진잠·황간·청산·연풍·음성·충주·청풍·제천·단양·영춘 등 17개 고을은 1서가 내렸다고 합니다.

농사 상황의 경우, 가을보리는 거의 다 싹이 자랐고 봄보리는 차례로 푸른빛을 띠고, 논은 간혹 갈아엎고 못자리에 물을 대고 벼씨를 뿌리는 것을 막 추진하기 시작하였다고 합니다. 이후 농사 상황은 잇따라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 0525. 1875년(고종 12) 4월 11일(양력 5월 15일)

錦營啓錄 7책(173b~174a) /各司謄錄 7책 忠淸道篇 2책(338b~338c)

道內農形及今月初六日申時始雨, 至初三日申時開霽, 臣營下水深爲一寸七分緣由, 已爲連次馳啓爲白有在果, 續接各邑所報, 則伊日之雨, 公州·平澤·新昌·藍浦·沃川·文義·槐山·陰城·延豐等九邑, 得一犁, 全義·木川·天安·稷山·溫陽·定山·青陽·洪州·德山·海美·瑞山·泰安·扶餘·鴻山·韓山·魯城·燕岐·清安·鎭川·平薪等二十邑, 得一鋤, 石城·林川·舒川·唐津·恩津·連山·鎭岑·懷德等八邑, 泥塵是如爲白遣, 農形段, 秋耨次第胚胎, 春耨連爲向茂, 畚庫方始翻耕是如爲白乎旆, 又於今月初八日辰時量始雨, 或霏或灑, 至初十日申時開霽, 臣營下測雨器水深, 爲四寸九分是白如乎, 向後農形及各邑雨澤, 待其報來, 鱗次陳聞計料, 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충청도 내 농사 상황 및 이번 달 초6일 신시쯤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초3일 신시에 이르러 개였는데, 저의 감영 측우기 수심이 1치 7푼인 연유는 이미 연달아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그날의 비로 공주·평택·신창·남포·옥천·문의·괴산·음성·연풍 등 9개 고을은 1려가 내렸고, 전의·목천·천안·직산·온양·정산·청양·홍주·덕산·해미·서산·태안·부여·홍산·한산·노성·연기·청안·진천·평신 등 20개 고을과 군영은 1서가 내렸고, 석성·임천·서천·당진·은진·연산·진잠·회덕 등 8개 고을은 먼지만 적실 정도였다고 합니다.

농사 상황의 경우, 가을보리는 차례로 알을 배고 있고 봄보리는 연이어 무성해가고 논은 막 갈아엎기 시작하였다고 합니다. 이번 달 초8일 진시쯤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더러 주룩주룩 내리거나 더러 뿌리다가 초10일 신시에 이르러 개였는데, 저의 감영 측우기 수심이 4치 9푼이었습니다. 이후 농사 상황 및 각 고을의 우택은 보고가 오기를 기다려 잇따라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 0526. 1875년(고종 12) 4월 21일(양력 5월 25일)

錦營啓錄 7책(174a~174b) /各司臚錄 7책 忠淸道篇 2책(338c~338d)

道內農形及今月初八日之雨, 公州等二十八邑所得分數, 已爲連次馳啓爲白有在果, 續接各邑所報, 則伊日之雨, 前啓外, 禮山·大興·沔川·唐津·海美·陰城·忠州·堤川·丹陽·永春等十邑, 川渠漲滿, 泰安·韓山·永同·黃澗·淸州·鎭川·平薪等七邑鎭, 得二犁是如爲白遣, 農形段, 秋楚次等[第]發穗, 春楚間或胚胎, 注秧付種已皆了畢, 畚庫連爲翻耕, 早黍粟·和<種>豆太及木花方張耕播是如爲白臥乎所, 向後農形, 鱗次陳聞計料, 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충청도 내 농사 상황 및 이번 달 초8일 내린 비로 공주 등 28개 고을에 내린 양은 이미 잇따라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각 읍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그날의 비로 앞서 보고한 것 이외에 예산·대흥·면천·당진·해미·음성·충주·제천·단양·영춘 등 10개 고을은 시내와 도랑이 불어나 가득 찼고, 태안·한산·영동·황간·청주·진천·평신 등 7개 고을과 군영에는 2려가 내렸다고 합니다.

농사 상황의 경우, 가을보리는 차례로 이삭이 패고 봄보리는 간혹 알을 배고 있고 못자리 에 물을 대고 벼씨를 뿌리는 것은 이미 다 끝났고 논은 연이어 갈아엎었고 올기장·올조와 섞어짓는 콩·팥 및 목화는 한창 땅을 갈고 씨앗을 뿌리고 있다고 합니다. 이후 농사 상황은 잇따라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 0527. 1875년(고종 12) 5월 1일(양력 6월 4일)

錦營啓錄 7책(174b~174b) /各司謄錄 7책 忠淸道篇 2책(338d~338d)

道內農形及去月二十四日之雨, 公州等二十八邑所得分數, 已爲連次馳啓爲白有在果, 續接各邑所報, 則伊日之雨, 前啓外, 報恩·懷仁·延豐·陰城·忠州·淸風·堤川·丹陽·永春等九邑, 川渠漲滿, 德山·唐津·海美·瑞山·泰安·舒川·庇仁·藍浦·保寧·結城·永同·黃澗·槐山·平薪等十四邑鎮, 得二犁是如爲白遣, 農形段, 秋粳次第向黃, 春粳間或發穗, 注秧付種漸以茁長, 早黍粟和種, 豆太及木花, 方始立苗是如爲白有臥乎所, 向後農形, 鱗次陳聞計料, 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충청도 내 농사 상황 및 지난달 4월 24일 내린 비로 공주 등 28개 고을에 내린 양은 이미 연달아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각 읍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그날의 비로 앞서 보고한 것 이외에 보은·회인·연풍·음성·충주·청풍·제천·단양·영춘 등 9개 고을은 시내와 도랑이 불어나 가득 찼고, 덕산·당진·해미·서산·태안·서천·비인·남포·보령·결성·영동·황간·괴산·평신 등 14개 고을은 2려가 내렸다고 합니다.

농사 상황의 경우, 가을보리는 차례로 누렇게 되었고 봄 보리는 간혹 이삭이 났고 못자리에 물을 대고 벼씨를 뿌린 것은 점차 싹이 자라고, 올기장·올조와 섞어짓는 콩·팥 및 목화는 막 싹이 돋기 시작하였다고 합니다. 이후 농사 상황은 잇따라 아뉘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 0528. 1875년(고종 12) 5월 11일(양력 6월 14일)

錦營啓錄 7책(175a~175a) /各司臚錄 7책 忠淸道篇 2책(339a~339b)

道內農形, 已爲連次馳啓爲白有在果, 續接各邑所報, 則秋甦幾皆向熟, 春甦已盡發穗, 洞畝裕水處, 間或移秧, 付種乾播方始初鋤, 早黍粟和種, 豆太及木花, 次第初除草是如爲白乎旆. 今月初八日亥時量始雨, 或霏或灑, 間間霏微, 至初十日午時開霽, 臣營下測雨器水深, 爲二寸六分是白如乎, 向後農形及各邑雨澤, 待其報來, 鱗次陳聞計料, 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충청도 내 농사 상황은 이미 연달아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각 읍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가을보리는 이미 다 익었고 봄보리는 이미 다 이삭이 났고 동네논에 물이 넉넉한 곳은 간혹 모내기를 하였고 무논에 볍씨를 뿌리고 마른논에 씨앗을 뿌린 것은 막 초벌 김매기를 시작하였고, 올기장·올조와 섞어짓는 콩·팥 및 목화는 차례로 초벌 김매기를 시작하였다고 합니다. 이번 달 초8일 해시쯤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더러 주룩주룩 내리거나 더러 뿌리다가 간간이 부슬부슬 내리다가 초10일 오시에 이르러 개었는데, 저의 감영 측우기 수심은 2치 6푼이었습니다. 이후 농사 상황 및 각 고을의 우택은 보고가 오기를 기다려 잇따라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0529. 1875년(고종 12) 5월 18일(양력 6월 21일)

鎭營啓錄 7책(175b~175b) /各司謄錄 7책 忠淸道篇 2책(339b~339c)

今月初八日之雨, 公州等二十四邑所得分數, 今月十三日申時始雨, 至十四日酉時開霽, 臣營下水深爲五寸四分緣由, 已爲馳啓爲白有在果, 續接各邑所報, 則初八日之雨, 前啓外, 牙山·新昌·沃川·永同·黃澗·靑山·報恩·懷仁·文義·稷山·平澤·淸風·堤川·丹陽·永春等十五邑, 得二犁, 德山·沔川·唐津·海美·瑞山·泰安·舒川·庇仁·藍浦·保寧·結城·槐山·延豐·陰城·忠州·平薪十六邑鎭, 得一犁是如爲白乎旆, 十三日之雨, 公州·全義·溫陽·新昌·禮山·定山·靑陽·大興·洪州·德山·扶餘·石城·魯城·恩津·連山·鎭岑·懷德等十七邑, 川渠漲滿, 木川·天安·稷山·平澤·牙山·沔川·唐津·海美·林川·鴻山·燕岐等十一邑, 得二犁是如爲白有臥乎所, 未報邑形止, 隨其報來, 鱗次陳聞計料, 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이번 달 초8일 내린 비와 공주 등 24개 고을에 내린 양과 이번 달 13일 신시쯤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14일 유시에 이르러 개었는데, 저의 감영 측우기 수심이 5치 4푼인 연유는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그날의 비로 앞서 보고한 것 이외에 아산·신창·옥천·영동·황간·청산·보은·회인·문의·직산·평택·청풍·제천·단양·영춘 등 15개 고을은 2려가 내렸고, 덕산·면천·당진·해미·서산·태안·서천·비인·남포·보령·결성·괴산·연풍·음성·충주·평신 등 16개 고을과 군영은 1려가 내렸다고 합니다. 그날의 비로 공주·전의·온양·신창·예산·정산·청양·대흥·홍주·덕산·부여·석성·노성·은진·연산·진잠·회덕 등 17개 고을은 시내와 도랑이 불어나 넘쳤고 목천·천안·직산·평택·아산·면천·당진·해미·임천·홍산·연기 등 11개 고을은 2려가 내렸다고 합니다. 보고하지 않은 고을의 경위는 보고가 오는 대로 잇따라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 0530. 1875년(고종 12) 5월 21일(양력 6월 24일)

錦營啓錄 7책(176a~176a) /各司臚錄 7책 忠淸道篇 2책(339c~339d)

道內農形及今月十三日之雨, 公州等二十八邑所得分數, 已爲連次馳啓爲白有在果, 續接各邑所報, 則伊日之雨, 前啓外, 韓山·舒川·沃川·報恩·文義·懷仁·忠州·陰城·淸風·堤川·丹陽·永春等十二邑, 川渠漲滿, 瑞山·泰安·庇仁·藍浦·保寧·結城·永同·黃澗·靑山·淸州·鎭川·淸安·槐山·延豐·平薪等十五邑鎭, 得二犁是如爲白乎旆. 農形段, 秋耨次第刈取, 春耨已盡向黃, 畓庫漸次移秧, 付種乾播間或再鋤, 早黍粟和種, 豆太及木花, 幾皆初除草是如爲白有臥乎所, 向後農形, 鱗次陳聞計料, 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충청도 내 농사 상황 및 이번 달 13일 내린 비로 공주 등 28개 고을에 내린 양은 이미 잇따라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각 읍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그날의 비로 앞서 보고한 것 이외에 한산·서천·옥천·보은·문의·회인·충주·음성·청풍·제천·단양·영춘 등 12개 고을은 시내와 도랑이 불어나 넘쳤고 서산·태안·비인·남포·보령·결성·영동·황간·청산·청주·진천·청안·괴산·연풍·평신 등 15개 고을과 군영에 2려가 내렸다고 합니다.

농사 상황의 경우, 가을보리는 차례로 베어 거두고 봄보리는 이미 다 누렇게 되었고, 논은 점차 모내기를 하고 있고 무논에 볍씨를 뿌리고 마른논에 씨앗을 뿌린 것은 간혹 두벌매기를 하고 올기장·올조와 섞어짓는 콩·팥 및 목화는 거의 다 초벌 김매기를 하였다고 합니다. 이후 농사 상황은 잇따라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0531. 1875년(고종 12) 5월 26일(양력 6월 29일)

錦營啓錄 7책(176a~176b) /各司謄錄 7책 忠淸道篇 2책(339d~339d)

今月二十三日申時量始雨，或霏或灑，間間霏微，至二十五日午時開霽，臣營下測雨器水深，爲二寸二分是白如乎，各邑所得，待其報來，鱗次陳聞計料，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이번 달 23일 신시쯤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더러 주룩주룩 내리거나 더러 뿌리디가 간간이 부슬부슬 내리다가 25일 오시에 이르러 개었는데, 저의 감영 측우기 수심은 2치 2푼이었습니다. 각 고을에 내린 것은 보고가 오기를 기다려 잇따라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 0532. 1875년(고종 12) 6월 1일(양력 7월 3일)

錦營啓錄 7책(176b~177a) /各司臚錄 7책 忠淸道篇 2책(339d~340a)

道內農形及去月二十三日申時始雨, 至二十五日午時, 臣營下水深爲二寸二分緣由, 已爲馳啓爲白有在果, 續接各邑所報, 則伊日之雨, 鎭岑·懷德·沃川·永同·黃澗·靑山·報恩·懷仁·文義等九邑, 川渠漲滿, 公州·全義·木川·定山·靑陽·大興·洪州·魯城·恩津·連山·燕岐·靑州·鎭川等十三邑, 得二犁, 天安·稷山·平澤·牙山·溫陽·新昌·禮山·扶餘·石城·林川等十邑, 得一鋤是如爲白遣, 農形段, 秋麴幾皆登場, 春麴次第刈穫, 畓庫連爲移秧, 早黍粟和種, 豆太及木花間或再除草, 根耕豆太及晚黍粟, 方始耕播是如爲白乎旆, 又於去月二十七日申時量始雨, 或霏或灑, 間間暴下, 至今月初二日午時, 臣營下測雨器水深, 爲四寸七分, 而一雨成霖, 乍止旋霖, 尙無開霽之意是白如乎, 向後形止, 鱗次陳聞計料, 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충청도 내 농사 상황 및 지난달 5월 23일 신시쯤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25일 오시에 이르렀는데, 저의 감영 측우기 수심은 2치 2푼인 연유는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각 읍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그날의 비로 진잠·회덕·옥천·영동·황간·청산·보은·회인·문의 등 9개 고을은 시내와 도랑이 불어나 넘쳤고 공주·전의·목천·정산·청양·대흥·홍주·노성·은진·연산·연기·청주·진천 등 13개 고을은 2려가 내렸고, 천안·직산·평택·아산·온양·신창·예산·부여·석성·임천 등 10개 고을은 1서가 내렸다고 합니다.

농사 상황의 경우, 가을보리는 거의 다 타작을 하였고 봄보리는 차례로 베어 거두었고 논은 연이어 모내기를 하였고, 올기장·올조와 섞어짓는 콩·팥 및 묵화는 간혹 두벌매기를 하였고 그루같이한 콩·팥 및 늦기장·늦조는 막 땅을 갈고 씨앗을 뿌리기 시작하였다고 합니다. 또 지난달 27일 신시쯤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더러 부슬부슬 내리거나 뿌리기도 하다가 간간이 세차게 내리다가 이번 달 초2일 오시에 이르러 그쳤는데, 저의 감영 측우기 수심은 4치 7푼이었습니다. 이내 주룩주룩 내리며 아직 개일 조짐이 없습니다. 이후 경위는 잇따라 아될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 0533. 1875년(고종 12) 6월 11일(양력 7월 13일)

錦營啓錄 7책(177a~177b) /各司謄錄 7책 忠淸道篇 2책(340a~340b)

道內農形及去月二十七日以後連日之雨, 公州等三十一邑所得分數, 已爲連次馳啓爲白有在果, 續接各邑所報, 則伊日之雨, 前啓外, 永同·黃澗·靑山·報恩·懷仁·文義·延豐·忠州·淸風·堤川·丹陽·永春等十二邑, 川渠漲滿, 唐津·海美·瑞山·泰安·保寧·結城·淸州·鎭川·淸安·槐山·陰城·平薪等十二邑鎭, 得二犁是如爲白乎旃. 農形段, 秋麴刈穫垂畢, 付種乾播方張茁長, 畚庫隨其人力暇及, 高低次第畢移, 而早移者間或初鋤, 早黍粟和種, 豆太及木花連爲除草, 根耕豆太及晚黍粟, 幾盡耕播是如爲白有臥乎所, 向後農形, 鱗次陳聞計料, 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충청도 내 농사 상황 및 지난달 5월 27일 이후 연일 내린 비로 공주 등 32개 고을에 내린 양은 이미 연달아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각 읍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그날의 비로 앞서 보고한 것 이외에 영동·황간·청산·보은·회인·문의·연풍·충주·청풍·제천·단양·영춘 등 12개 고을은 시내와 도랑이 불어나 가득 찼고, 당진·해미·서산·태안·보령·결성·청주·진천·청안·괴산·음성·평신 등 12개 고을과 군영에는 2려가 내렸다고 합니다. 농사 상황의 경우, 가을보리는 베어 수확이 거의 끝나고 무논에 벼씨를 뿌리고 마른논에 씨앗을 뿌린 것은 한창 싹이 자라고 있으며, 논은 수시로 사람들이 일을 하고 높고 낮은 곳에 차례로 모내기가 끝나고 일찍 모내기를 한 것은 간혹 초벌 김을 매고 올기장·올조와 섞어짓는 콩·팥 및 묵화는 연이어 김매기를 하였으며 그루같이한 콩·팥 및 늦기장·늦조는 거의 다 갈아 파종을 하였다고 합니다. 이후 농사 상황은 잇따라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 0534. 1875년(고종 12) 6월 23일(양력 7월 25일)

錦營啓錄 7책(180b~181a) /各司臚錄 7책 忠淸道篇 2책(342a~342b)

道內農形及今月十七日申時始雨, 至十九日辰時, 臣營下水深爲四寸三分緣由, 已爲連次馳啓爲白有在果, 自十九日辰時以後, 載陽載陰, 或霏或灑, 二十二日之夜, 挾風暴霖, 至二十三日午時, 臣營下測雨器水深, 又爲八寸二分, 統計前後, 合爲一尺五寸, 而尙此霖灑, 終無開霽之意是白乎旆, 續接各邑所報, 則公州·全義·木川[沃川]·天安·稷山·平澤·牙山等七邑, 川渠漲滿, 禮山·新昌·溫陽·定山·扶餘·石城·魯城·恩津·連山·鎭岑·懷德·文義·燕岐·淸州等十四邑, 先以始雨形止報來是白遣, 農形段, 早稻方張胚胎, 中晚稻次第茁長, 早黍粟幾皆發穗, 和種豆太漸次結穎, 根耕豆太及晚黍粟已皆除草, 而前啓中公州等六邑愆蠶蹲縮之患, 姑無寢息之報是白如乎, 一雨成霖, 旣風且暴, 田畝之潰決汰覆, 各穀之沈墊摧敗, 難保必無, 誠甚悶然, 而向後形止, 鱗次陳聞計料, 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충청도 내 농사 상황 및 이번 달 17일 신시쯤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19일 진시에 이르러 개었는데, 저의 감영 측우기 수심은 4치 3푼인 연유는 이미 연달아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이번 달 19일 진시 이후로 언뜻언뜻 흐리거나 별이 나다가 더러 부슬부슬 내리거나 더러 뿌리다가 22일 밤 강풍과 함께 세차게 주룩주룩 내리다가 23일 오시에 이르러 그쳤는데, 저의 감영 측우기 수심은 8치 2푼이었습니다. 지금까지 것을 통틀어 계산하면 총 1자 5치였습니다. 계속해서 각 읍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공주·전의·목천·천안·직산·평택·아산 등 7개 고을은 시내와 도랑이 불어나 넘쳤고 예산·신창·온양·정산·부여·석성·노성·은진·연산·진잠·회덕·문의·연기·청주 등 14개 고을은 앞서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는 보고가 왔다고 합니다.

농사 상황의 경우, 올벼는 한창 알을 배고 있고 중벼와 늦벼는 차례로 싹이 자라고, 올기장·올조는 거의 다 이삭이 났고, 섞어짓는 콩·팥은 점차 꼬투리를 맺고, 그루같이한 콩·팥 및 늦기장·늦조는 이미 다 김매기를 하였다고 합니다. 앞서 보고한 것 가운데 공주 등 6개 고을에 발생했던 벼멸구와 쭉정이에 대한 근심이 그쳤다는 보고가 아직 없습니다.

한번 비가 내리면 장마를 이루고 바람까지 세차니 논밭의 독이 터지고 사태로 모래로 뒤덮여 각종 곡식이 잠기고 꺾여 상하는 일이 꼭 없다고 보장하기 어려우니 정말로 매우 걱정입니다. 이후 경위는 잇따라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 0535. 1875년(고종 12) 6월 28일(양력 7월 30일)

錦營啓錄 7책(181b~182a) /各司臚錄 7책 忠淸道篇 2책(342c~342d)

今月十八日之雨, 公州等二十七邑所得分數及二十一日卯時始雨, 至二十二日申時乃止, 臣營下水深爲五寸三分緣由, 已爲馳啓爲白有在果, 續接各邑所報, 則十八日之雨, 前啓外, 德山·沔川·唐津·海美·瑞山·泰安·永同·黃澗·靑山·報恩·懷仁·忠州·淸風·堤川·丹陽·永春·平薪十七邑鎮, 川〈渠漲〉滿, 韓山·舒川·庇仁·藍浦·保寧·結城·鎭川·淸安·槐山·延豐·陰城等十一邑, 得二犁是如爲白遣, 二十一日之雨, 公州·定山·扶餘·石城·林川·魯城·恩津·沃川·永同·文義·燕岐·淸州邑[等]十二邑, 江川汎濫. 全義·木川·天安·稷山·平澤·禮山·靑陽·大興·洪州·連山·鎭岑·懷德·懷仁等十三邑, 川渠漲滿, 而堤塍之潰缺, 各穀之沈墊, 在在皆然是如爲白有臥乎所, 未報邑形止, 隨其報來, 鱗次陳聞計料, 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이번 달 18일 내린 비로 공주 등 27개 고을에 내린 양 및 21일 묘시쯤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22일 신시에 이르러 이내 그쳤는데, 저의 감영 측우기 수심은 5치 3푼인 연유는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18일의 비로 앞서 보고한 것 이외에 덕산·면천·당진·해미·서산·태안·영동·황간·청산·보은·회인·충주·청풍·제천·단양·영춘·평신 등 17개 고을과 군영은 시내와 도랑이 불어나 넘쳤고 한산·서천·비인·남포·보령·결성·진천·청안·괴산·연풍·음성 등 11개 고을은 2려가 내렸다고 합니다. 21일 내린 비로 공주·정산·부여·석성·임천·노성·은진·홍주·영동·문의·연기·청주 등 12개 고을은 강과 시내가 범람하였고, 전의·목천·천안·직산·평택·예산·청양·대흥·홍주·연산·진잠·회덕·회인 등 13개 고을은 강과 시내가 범람하였다고 합니다. 제방과 두둑이 터져 각종 곡식이 잠겼는데 곳곳에 다 그렇다고 합니다. 보고하지 않은 고을의 경위는 보고가 오는 대로 잇따라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 0536. 1875년(고종 12) 7월 3일(양력 8월 3일)

錦營啓錄 7책(182a~182b) /各司謄錄 7책 忠淸道篇 2책(342d~343a)

道內農形及去月二十一日之雨，公州等二十五邑所得分數，已爲連次馳啓爲白有在果，續接各邑所報，則伊日之雨，前啓外，槐山·延豐·忠州·陰城·淸風·堤川·丹陽·永春等八邑，江川汎濫，牙山·溫陽·新昌·德山·沔川·唐津·海美·瑞山·泰安·鴻山·韓山·舒川·庇仁·藍浦·保寧·結城·黃澗·靑山·報恩·鎭川·淸安·平薪等二十二邑鎭，川渠漲滿是如爲白遣，農形段，付種乾播連爲茁長，早移秧間或再鋤，晚移秧方始初鋤，早黍粟和種，豆太及木花幾盡〈初除〉草，根耕豆太及晚黍粟，次第初耘是如爲白有臥乎所，向後農形，鱗次陳聞計料，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所[事].

충청도 내 농사 상황 및 지난달 6월 21일 내린 비로 공주 등 25개 고을에 내린 양은 이미 연달아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각 읍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그날의 비로 앞서 보고한 것 이외에 괴산·연풍·충주·음성·청풍·제천·단양·영춘 등 8개 고을은 강과 시내가 범람하였고, 아산·온양·신창·덕산·면천·당진·해미·서산·태안·홍산·한산·서천·비인·남포·보령·결성·황간·청산·보은·진천·청안·평신 등 22개 고을은 시내와 도랑이 불어나 가득 찼다고 합니다.

농사 상황의 경우, 무논에 볍씨를 뿌리고 마른논에 씨앗을 뿌린 것은 연이어 썩이 자라고, 일찍 모내기를 한 것은 간혹 두벌매기를 하고 늦게 모내기를 한 것은 막 초벌 김매기를 시작하였고, 올기장·올조와 섞어짓는 콩·팥 및 목화는 거의 다 초벌 김매기를 하였으며 그루같이한 콩·팥과 늦기장·늦조는 초벌 김매기를 하였다고 합니다. 이후 농사 상황은 잇따라 아될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 0537. 1875년(고종 12) 7월 13일(양력 8월 13일)

錦營啓錄 7책(184b~184b) /各司臚錄 7책 忠淸道篇 2책(344a~344a)

道內農形, 已爲連次馳啓爲白有在果, 續接各邑所報, 則付種乾播早移秧漸次茁茂, 晚移秧方張再鋤, 早黍粟幾皆胚胎, 和種豆太及木花間間開花, 根耕豆太及晚黍粟次第再除草, 而近古早乾之太甚, 田畝各種, 多致萎枯之中, 公州魯城·連山·恩津·鴻山·文義等六邑, 有愆蠶蹲〈縮〉之患, 痒稼非細是如爲白有臥乎所, 去月念間得雨之後, 于今跨朔, 一直亢旱, 雖或有數邑點滴之處, 不過是一時驟灑之雨, 無足解渴, 同歸被旱, 言念穡事, 誠甚悶然, 而[向]後形止, 鱗次陳聞計料, 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충청도 내 농사 상황은 이미 연달아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각 읍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무논에 범씨를 뿌리고 마른논에 씨앗을 뿌린 것과 일찍 모내기를 한 것은 점차 싹이 무성하고 늦게 모내기를 한 것은 한창 두벌매기를 하였고, 올기장·올조는 거의 다 알을 배고, 섞어짓는 콩·팥 및 목화는 간간이 꽃이 피고 그루같이한 콩·팥 및 늦기장·늦조는 차례로 두벌매기를 하였다고 합니다. 예나 지금이나 없었던 가뭄이 매우 심하여 논밭의 각 종자가 시들어 말라버린 가운데 공주·노성·연산·은진·홍산·문의 등 6개 고을은 벼멸구와 족정이에 대한 근심이 있어 농작물 피해가 적지 않다고 합니다.

지난달 20일쯤 비 온 이후 지금 1달이 넘도록 줄곧 극심하게 가뭄어 비록 간혹 몇 고을은 빗방울이 떨어진 곳이 있기는 하지만 일시의 소나기에 불과하여 갈증 해소에는 충분하지 않고 모두 가뭄의 피해를 입게 되었으니 농사를 생각하면 정말로 매우 걱정입니다. 이후 경위는 잇따라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0538. 1875년(고종 12) 7월 19일(양력 8월 19일)

錦營啓錄 7책(184b~185a) /各司謄錄 7책 忠淸道篇 2책(344a~344b)

今月十七日申時量始雨，或霏或灑，間間霏下，至十九日辰時，臣營下測雨器水深，爲四寸三分，而尙此霏微不止是如乎，久旱渴望之餘，得此甘澍，爲民事誠萬幸，遠邇均洽，方切顙望，向後形止及各邑所得，鱗次陳聞計料，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이번 달 17일 신시쯤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부슬부슬 가랑비가 내리기도 하고 혹 간간이 주룩주룩 내리다가 19일 진시에 이르러 그쳤는데, 저의 감영 측우기 수심은 4치 3푼이었으며 아직 이렇게 부슬부슬 내리고 있습니다. 오래 가뭄에 갈망하던 끝에 이런 단비가 내려 백성들의 사정을 위해 정말 천만다행입니다. 멀고 가까운 곳 골고루 적셔주기를 막 간절히 바랍니다. 이후 경위 및 각 고을에 내린 것은 잇따라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 0539. 1875년(고종 12) 7월 23일(양력 8월 23일)

錦營啓錄 7책(185a~185b) /各司臚錄 7책 忠淸道篇 2책(344b~344c)

道內農形及今月十七日申時始雨, 至十九日辰時, 臣營下水深爲四寸三分緣由, 已爲連次馳啓爲白有在果, 自十九日辰時以後, 載陰載陽, 或霏或灑, 二十二日之夜, 挾風暴霖, 至二十三日午時, 臣營下測雨器水深, 又爲八寸二分, 統計前後, 合爲一尺二寸五分, 而尙此霑灑, 終無開霽之意是白乎旃, 續接各邑所報, 則公州·全義·木川·天安·稷山·平澤·牙山等七邑, 川渠漲滿, 禮山·新昌·溫陽·定山·扶餘·石城·魯城·恩津·連山·鎮岑·懷德·文義·燕岐·清州等十四邑, 先以始雨形止報來是白遣, 農形段, 早稻方漲[張]胚胎, 中晚稻次第茁長, 早黍<粟>幾皆發穗, 和種豆太漸次結殼, 木花間或結顆, 根耕豆太及晚黍粟已皆除草, 而前啓中公州等六邑, 愆蠶蹲縮之患, 姑無寢息之報是白如乎, 一雨成霖, 旣風且暴, 田畝之潰決汰覆, 各穀之沈墊摧敗, 難保必無, 誠甚悶然, 向後形止, 鱗次陳聞計料, 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충청도 내 농사 상황 및 이번 달 17일 신시쯤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19일 진시에 이르렀는데, 저의 감영 수심이 4치 3푼인 연유는 이미 연달아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이번 달 19일 진시 이후로 언뜻언뜻 흐리거나 별이 나다가 더러 부슬부슬 내리거나 더러 뿌리다가 22일 밤에 강풍과 함께 세차게 주룩주룩 내리다가 23일 오시에 이르렀는데, 저의 감영 측우기 수심은 8치 2푼이었습니다. 지금까지 통틀어 계산하면 총 1자 2치 5푼이었습니다. 계속해서 각 읍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그날의 비로 공주·전의·목천·천안·직산·평택·아산 등 7개 고을은 시내와 도랑이 불어나 넘쳤고·예산·신창·온양·정산·부여·석성·노성·은진·연산·진잠·회덕·문의·연기·청주 등 14개 고을은 비가 내리기 시작한 경위에 대해서는 앞서 보고가 왔습니다.

농사 상황의 경우, 올벼는 한창 알을 배고 있고 중벼와 늦벼는 차례로 싹이 자라고, 올기장·올조는 거의 다 이삭이 났고 섞어짓는 콩·팥은 점차 꼬투리를 맺고 목화는 간혹 다래를 맺고 그루같이한 콩·팥 및 늦기장·늦조는 이미 다 김매기를 하였습니다. 앞서 보고한 것 가운데 공주 등 6개 고을은 벼멸구와 쪽정이에 대한 근심이 그쳤다는 보고가 아직 없습니다. 한번 비가 내리면 장마를 이루고 바람까지 세차 논밭의 독이 터지고

사태로 모래로 덮여 각종 곡식은 잠기고 꺾이고 상하는 일이 꼭 없다고 보장하기 어려우니 정말로 매우 걱정입니다. 이후 경위는 잇따라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 0540. 1875년(고종 12) 7월 26일(양력 8월 26일)

錦營啓錄 7책(186a~186b) /各司臚錄 7책 忠淸道篇 2책(344d~345a)

今月十九日申時始雨, 至二十三日午時, 臣營下水深合爲一尺二寸五分緣由及公州等七邑所得分數, 已爲馳啓爲白有在果, 自二十三日午時以後, 大風暴雨, 一時交作, 至二十五日申時, 始乃開霽, 臣營下測雨器水深, 又爲四寸五分是乎旃. 續接各邑所報, 則前啓外, 溫陽·新昌·禮山·定山·靑陽·大興·洪州·扶餘·石城·林川·鴻山·魯城·恩津·連山·鎭岑·懷德·沃川·懷仁·文義·燕岐·淸州·鎭川等二十二邑, 川渠漲滿, 而沿◆[江]之地, 濁浪橫侵. 依峽之處, 急湍直衝, 田畝之沈覆潰決, 在在相續接, 胚胎之禾穀, 摧折漂灑, 全棄者居多, 結穎之木花, 委靡腐〈敗〉, 成樣者幾稀是如爲白有臥乎所, 參互列邑所報, 被災到處同然. 言念民事, 誠甚悶然, 未報邑形止, 待其報來, 鱗次陳聞計料, 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이번 달 19일 신시쯤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23일 오시에 이르렀는데, 저의 감영측우기 수심이 총 1자 2치 5푼인 연유와 공주 등 7개 고을에 내린 양은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이번 달 23일 오시 이후 강풍과 폭우가 일시에 섞여내리다가 25일 신시에 이르러 개었는데, 저의 감영 측우기 수심은 4치 5푼이었습니다. 계속해서 각 읍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그날의 비로 앞서 보고한 것 이외에 온양·신창·예산·정산·청양·대흥·홍주·부여·석성·임천·홍산·노성·은진·연산·진잠·회덕·옥천·회인·문의·연기·청주·진천 등 22개 고을은 시내와 도랑이 불어나 가득 찼고, 바닷가 지역은 흙탕물이 뒤섞이고 산골짜기에 의지한 곳은 급한 여울물이 곧장 부딪혀 논밭이 모래로 덮이고 터져 곳곳이 서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삭을 뻗 뻗 버는 꺾여 떠내려가거나 녹아버려서 전부 포기한 것이 대부분이고, 다래를 맺은 목화는 시들고 썩어서 모양새를 갖춘 것이 거의 드물다고 합니다. 여러 고을에서 보고한 것을 참조하면 재해를 입은 곳이 곳곳이 똑같습니다. 백성들의 사정을 생각하면 정말로 매우 걱정입니다. 보고하지 않은 고을의 경위는 보고가 오기를 기다려 잇따라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 0541. 1875년(고종 12) 7월 30일(양력 8월 30일)

錦營啓錄 7책(186b~187a) /各司謄錄 7책 忠淸道篇 2책(345a~345b)

今月十七日以後連日之雨，公州等二十九邑被沈形止，已爲馳啓爲白有在果，續接各邑所報，則伊日之雨，前啓外，槐山·忠州·淸風·丹陽·永春等五邑，江川汎濫，德山·沔川·唐津·海美·瑞山·泰安·韓山·舒川·庇仁·藍浦·保寧·結城·永同·黃澗·靑山·報恩·淸安·延豐·陰城·堤川·平薪等二十一邑鎮，川渠漲滿，而宿水未退，新漲又添，濁浪洪流，一望滔滔，間或有陵谷互變峽野不辨之處。至於田畝沈覆潰決者，在在相續，若其被沈偏酷之地，則不但田形·穀色之病無可論，沙礫堆積，水道橫流，日後耕墾，更無其望是如爲白乎旆。又於今月二十七日酉時量始雨，或霏或灑，間間霏微，至二十九日申時乃止，臣營下測雨器水深，爲二寸三分是白如乎，向後形止及各邑所得，鱗次陳聞計料，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이번 달 17일 이후 연일 내린 비로 공주 등 29개 고을의 침수 경위는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각 읍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그날의 비로 앞서 보고한 것 이외에 괴산·충주·청풍·단양·영춘 등 5개 고을은 강과 시내가 범람하였고, 덕산·면천·당진·해미·서산·태안·한산·서천·비인·남포·보령·결성·영동·황간·청산·보은·청안·연풍·음성·제천·평신 등 21개 고을과 군영은 시내와 도랑이 불어나 넘쳤습니다. 고인 물이 미처 빠지지 않았는데 새로 불어나 또 더해져 흐린 물결이 세차게 아득히 굽이쳐 흘러가서 간혹 언덕과 골짜기가 서로 변하고 골짜기인지 들판인지 판가름할 수 없는 데가 생기고 논밭이 모래로 뒤덮이고 독이 터지기에 이르는 것이 곳곳이 서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침수 피해가 심하게 흑심한 곳은 밭 형태와 곡식 모습이 병들어 따질 것이 없을 뿐만 아니라 모래와 자갈이 쌓이고 물길이 제멋대로 흘러 뒷날에 다시 일구어 갈 가마가 없다고 합니다. 또 27일 유시쯤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더러 부슬부슬 내리거나 더러 뿌리다가 부슬부슬 내리다가 29일 신시에 이르러 이내 그쳤는데, 저의 감영 측우기 수심은 2치 3푼이었습니다. 이후 경위 및 각 고을에 내린 것은 잇따라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 0542. 1875년(고종 12) 8월 3일(양력 9월 2일)

錦營啓錄 7책(187a~187b) /各司臚錄 7책 忠淸道篇 2책(345b~345c)

道內農形及去月二十七日酉時始雨, 至二十九日申時乃止, 臣營下水深爲二寸三分緣由, 已爲馳啓爲白有在果, 續接各邑所報, 則伊日之雨, 公州·全義·木川·天安·稷山·平澤等六邑, 得二犁, 定山·靑山·大興·洪州·扶餘·石城·林川·魯城·恩津·燕岐·淸州等十二邑, 得一犁是如爲白遣, 農形段, 早稻·早黍粟及和種豆太, 次第入實, 中稻幾盡發穗, 晚稻·晚黍粟方張胚胎, 木花間或綻絮, 根耕豆太連爲起花, 而浹旬之雨, 旣過霏, 連日之雨[風], 又暴吹, 早晚各種之沈墊蹂躪, 已無可言, 而人家之頽壓, 樹木之折落, 種種有之. 至於木花, 最忌風雨, 方茁之莖節, 無不摧敗, 已結之顙房, 多致腐落是如爲白有臥乎所, 頽壓人家摘奸報來之意, 申飭題送爲白乎旡, 未報邑雨澤, 向後農形, 鱗次陳聞計料, 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충청도 내 농사 상황 및 지난달 27일 유시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29일 신시에 이르러 그쳤는데, 저의 감영 측우기 수심이 2치 3푼인 연유는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각 읍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그날의 비로 공주·전의·목천·천안·직산·평택 등 6개 고을은 2려가 내렸고, 정산·청산·대흥·홍주·부여·석성·임천·노성·은진·연기·청주 등 12개 고을은 1려가 내렸다고 합니다.

농사 상황의 경우, 올벼와 올기장·올조 및 섞어짓는 콩·팥은 차례로 알이 차고, 중벼는 거의 다 이삭이 났고, 늦벼와 늦기장·늦조는 한창 알을 배고 있고, 목화는 간혹 다래가 벌어져 숨이 나오고 그루같이한 콩·팥은 연이어 꽃이 피고 있다고 합니다. 열흘 동안 비가 이미 지나치게 주룩주룩 내렸는데 또 연일의 비 오고 또 바람이 세차게 불어 조만의 각종 곡식은 물에 잠기고 바람에 깃뺏혀 이미 말할 수 없을 정도이고 인가가 무너지고 수목이 꺾여 떨어지는 일이 종종 있습니다. 목화는 가장 비바람을 꺼리는데 막 싹 트고 있던 줄기의 마디가 꺾여 손상되지 않은 것이 없고 이미 맺혔던 다래가 썩어서 떨어진 것이 많다고 합니다. 무너진 인가를 적간하여 보고해 오라는 뜻으로 단단히 지시하여 결정문을 보냈습니다. 보고하지 않은 고을의 우택과 이후 농사 상황은 잇따라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0543. 1875년(고종 12) 8월 13일(양력 9월 12일)

錦營啓錄 7책(188a~188a) /各司謄錄 7책 忠淸道篇 2책(345d~345d)

道內農形, 已爲連次馳啓爲白有在果, 續接各邑所報, 則早稻·早黍粟及和種豆太, 幾皆入實, 中稻已盡發穗, 晚稻·晚黍粟間或發穗, 木花方始摘取, 起[根]耕豆太漸次結殼是如爲白有臥乎所, 向後農形, 鱗次陳聞計料, 緣由馳啓爲白臥乎事.

충청도 내 농사 상황은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각 읍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올벼와 올기장·올조 및 섞어짓는 콩·팥은 거의 다 알이 차고 중벼는 이미 다 이삭이 패고 늦벼와 늦기장·늦조는 간혹 이삭이 패고 목화는 막 숨을 따서 거두기 시작하고 그루같이한 콩·팥은 점차 꼬투리를 맺고 있다고 합니다. 이후 농사 상황은 잇따라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0544. 1875년(고종 12) 8월 23일(양력 9월 22일)

錦營啓錄 7책(188b~189b) /各司臚錄 7책 忠淸道篇 2책(346b~346c)

道內農形, 已爲連次馳啓爲白有在果, 續接各邑所報, 則早稻·早黍粟漸次向熟, 中晚稻及晚黍粟·根耕豆太, 次第入實, 木花連爲摘取是如爲白有臥乎所, 向後形止, 鱗次陳聞計料, 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충청도 내 농사 상황은 이미 연달아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각 읍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올벼와 올기장·올조는 점차 익어가고 중벼·늦벼와 늦기장·늦조 및 그루 같이 콩·팥은 차례로 여물고 목화는 연이어 숨을 따서 거두고 있다고 합니다. 이후 경위는 잇따라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0545. 1875년(고종 12) 9월 4일(양력 10월 2일)

錦營啓錄 7책(200a~200a) /各司臚錄 7책 忠淸道篇 2책(351b~351c)

道內農形, 已爲連次馳啓爲白有在果, 續接各邑所報, 則早稻·早黍粟及和種豆太, 次第成熟, 中晚稻及晚黍粟根耕豆太, 幾皆入實, 木花連爲摘取是如爲白乎旆. 今月初二日寅時量始雨, 或霏或灑, 間間霏微, 至初三日申時開霽, 臣營下測雨器水深, 爲一寸四分是白如乎, 向後農形及各邑雨澤, 待其報來, 鱗次陳聞計料, 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충청도 내 농사 상황은 이미 연달아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각 읍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올벼와 올기장·올조 및 섞어짓는 콩·팥은 차례로 성숙하게 익어가고 중벼·늦벼와 늦기장·늦조 및 그루같이한 콩·팥은 거의 다 여물고 목화는 연이어 솜을 따서 거두고 있다고 합니다. 이번 달 초2일 인시쯤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더러 주룩주룩 내리거나 더러 뿌리다가 간간이 부슬부슬 내리다가 초3일 신시에 이르러 개었는데, 저의 감영 측우기 수심은 1치 4푼이었습니다. 이후 농사 상황 및 각 고을의 우택은 보고가 오기를 기다려 잇따라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0546. 1875년(고종 12) 9월 14일(양력 10월 12일)

錦營啓錄 7책(200b~201a) /各司臚錄 7책 忠淸道篇 2책(351d~351d)

道內農形, 已爲連次馳啓爲白有在果, 續接各邑所報, 則早稻·早黍粟及和種豆太方張收穫, 中稻晚黍粟及根耕豆太次第向熟, 木花晚顆殘絮, 摘取無幾是如爲白遣, 忠州·天安·陰城·清安·永同·全義·木川·稷山·平澤等九邑, 今月初六日夜霜降, 公州·溫陽·槐山·燕岐·魯城·連山·鎭岑等七邑, 初十日夜霜降是如爲白有臥乎所, 向後農形, 鱗次陳聞計料, 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충청도 내 농사 상황은 이미 연달아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각 읍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올벼와 올기장·올조 및 섞어짓는 콩·팥은 한창 수확을 하고 있고, 중벼·늦벼와 늦기장·늦조 및 그루같이한 콩·팥은 차례로 익어가고, 목화는 늦은 다래는 숨을 따서 거두고 있다고 합니다. 충주·천안·음성·청안·영동·전의·목천·직산·평택 등 9개 고을은 이번 달 초6일 밤에 서리가 내렸고, 공주·온양·괴산·연기·노성·연산·진잠 등 7개 고을은 초10일 밤에 서리가 내렸다고 합니다. 이후 농사 상황은 잇따라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 0547. 1875년(고종 12) 9월 22일(양력 10월 20일)

錦營啓錄 7책(201a~201a) /各司臚錄 7책 忠淸道篇 2책(351d~352a)

道內農形及忠州等十六邑霜降緣由, 已爲馳啓爲白有在果, 續接各邑所報, 則洪州·林川·恩津·扶餘·石城·鴻山·靑陽·藍浦·結城·新昌·牙山等十一邑, 今月十四日夜霜降, 淸州·淸風·報恩·沃川·懷德·懷仁·木川·鎭川·淸安·堤川·丹陽·永春等十二邑, 十五日夜霜降是如爲白遣, 農形段, 無論田畝各穀, 隨其成熟, 次第收穫, 木花殘顆幾盡枯落, 敗絮無足摘取是如爲白有臥乎所, 今年穡事, 分而言之, 雖有優劣之差殊, 通而論之, 未免災實之互錯是白如乎, 列邑分等酌量磨鍊, 迫于登聞計料, 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충청도 내 농사 상황 및 충주 등 16개 고을에 서리가 내린 연유는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각 읍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홍주·임천·은진·부여·석성·홍산·청양·남포·결성·신창·아산 등 11개 고을은 이번 달 14일 밤에 서리가 내렸고, 청주·청풍·보은·옥천·회덕·회인·목천·진천·청안·제천·단양·영춘 등 12개 고을은 15일 밤에 서리가 내렸다고 합니다.

농사 상황의 경우, 논과 밭의 각종 곡식은 익은 대로 차례로 수확하고 목화는 부실한 다래가 거의 다 말라 떨어지고 망가진 솜을 따서 거들 만큼 충분하지 충분치 않다고 합니다. 올해 농사는 구분하여 말한다면 비록 잘되고 못된 차이가 있지만 통틀어 따지자면 재해와 결실이 서로 뒤섞인 것에서 면하지 못합니다. 여러 고을의 풍흉 등급을 참작하고 마련하여 나중에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0548. 1876년(고종 13) 3월 2일(양력 3월 27일)

錦營啓錄 7책(256b~257a) /各司臚錄 7책 忠淸道篇 2책(381b~381b)

今月初二日卯時量始雨，或霏或灑，至初二日寅時開霽，臣營下測雨器水源[深]，爲一寸一分是白如乎，各邑所得，待其報來，鱗次陳聞計料，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이번 달 초1일 묘시쯤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더러 부슬부슬 내리거나 더러 뿌리다가 초2일 인시에 이르러 개었는데, 저의 감영 측우기 수심은 1치 1푼이었습니다. 각 고을에 내린 것은 보고가 오기를 기다려 잇따라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0549. 1876년(고종 13) 3월 10일(양력 4월 4일)

錦營啓錄 7책(257a~257a) /各司臚錄 7책 忠淸道篇 2책(381b~381b)

道內農形及今月初一日卯時量始雨, 至二日寅時開霽, 臣營下水源[深]爲一寸一分緣由, 已爲馳啓爲白有在果, 續接各邑所報, 則伊日之雨, 公州·定山·靑陽·大興·泰<安>等五邑, 得一犁, 全義·木川·天安·稷山·新昌·禮山·洪州·德山·沔川·林川·鴻山·結城·懷德·沃川·報恩·燕岐·忠州等十八邑, 得一鋤, 唐津·石城·扶餘·韓山·舒川·庇仁·魯城·恩津·連山·鎭岑·黃澗·淸州等十二邑, 浥塵是如爲白乎旃. 農形段, 秋牟[甦]漸益敷青, 春牟[甦]幾皆耕播, 插役方始徑紀是如爲白有臥乎所, 向後農形及未報邑雨澤, 隨其報來, 鱗次陳聞計料, 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충청도 내 농사 상황 및 이번 달 초1일 묘시쯤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초2일 인시에 이르러 개었는데, 저의 감영 측우기 수심이 1치 1푼인 연유는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각 읍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그날의 비로 공주·정산·청양·대흥·태안 등 5개 고을은 1려가 내렸고, 전의·목천·천안·직산·신창·예산·홍주·덕산·면천·임천·홍산·결성·회덕·옥천·보은·연기·충주 등 18개 고을은 1서가 내렸고, 당진·석성·부여·한산·서천·비인·노성·은진·연산·진잠·황간·청주 등 12개 고을은 먼지만 적실 정도였다고 합니다.

농사 상황의 경우, 가을보리는 점차 푸르게 되고 봄보리는 거의 다 갈아 파종을 하였으며 가래 일이 이제 시작하고 있는 중이라고 합니다. 이후 농사 상황 및 보고하지 않은 고을의 우택은 잇따라 아될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0550. 1876년(고종 13) 3월 20일(양력 4월 14일)

錦營啓錄 7책(258b~258b) /各司臚錄 7책 忠淸道篇 2책(382a~382a)

道內農形, 已爲連次馳啓爲白有在果, 續接各邑所報, 則秋耨漸次向長, 春耨間或立苗, 鋤役幾皆垂畢, 秧坂方始鰾耕是如爲白臥乎所, 向後農形, 鱗<次>陳聞計料, 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충청도 내 농사 상황은 이미 연달아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각 읍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가을보리는 점차 자라고 있으며 봄보리는 간혹 싹틔고 가래 일은 거의 다 끝났고 못자리는 비로소 갈아엎었다고 합니다. 이후 농사 상황은 잇따라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0551. 1876년(고종 13) 3월 29일(양력 4월 23일)

錦營啓錄 7책(258b~258b) /各司謄錄 7책 忠淸道篇 2책(382a~382b)

今月二十八日寅時量始雨，或霏或灑，間間霏微，至二十九日丑時乃止，臣營下測雨器水源[深]，爲二寸八分是白如乎，各邑所得，待其報來，鱗次陳聞計料，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이번 달 28일 인시쯤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소나기가 내리기도 하고 혹 간간이 가랑비가 내리다가 29일 축시에 이르러 이내 그쳤는데, 나의 감영 측우기 수심은 2치 8푼이었습니다. 각 고을에 내린 것은 보고가 오기를 기다려 잇따라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0552. 1876년(고종 13) 4월 1일(양력 4월 24일)

錦營啓錄 7책(259a~259a) /各司臚錄 7책 忠淸道篇 2책(382b~382b)

道內農形及去月二十八日寅時始雨，至二十九日丑時乃止，臣營下水源[深]爲二寸八分緣由，已爲連次馳啓爲白有在果，續接各邑所報，〈則〉伊日之雨，公州·全義兩邑，得二犁，木川·定山·燕岐·淸州等四邑，得一鋤，石城·魯城兩邑，浥塵是如爲白乎旆。農形段，秋牟[秋耨]漸次茁茂，春牟[春耨]次第敷青，畓庫間或翻耕，注秧付種方始徑紀是如爲白有臥乎所，向後農形，各邑得雨多寡，鱗次陳聞計料，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충청도 내 농사 상황 및 지난달 28일 인시쯤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29일 축시에 이르러 이내 그쳤는데, 저의 감영 측우기 수심은 2치 8푼인 연유는 이미 연달아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각 읍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그날의 비로 공주, 전의 등 2개 고을은 2려가 내렸고, 목천·정산·연기·청주 등 4개 고을은 1서가 내렸고, 석성·노성 등 2개 고을은 먼지만 적실 정도였다고 합니다.

농사 상황의 경우, 가을보리는 점차 싹이 나와 무성하고 봄보리는 차례로 푸르게 되고 논은 간혹 갈아엎고 물을 대어 벼씨를 못자리에 씨앗을 뿌려는 일이 이제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이후 농사 상황 및 각 고을에 내린 양은 잇따라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0553. 1876년(고종 13) 4월 3일(양력 4월 26일)

錦營啓錄 7책(259a~259b) /各司謄錄 7책 忠淸道篇 2책(382b~382c)

去月二十八日之雨, 公州等八邑所得分數, 已爲馳啓爲白有在果, 續接各邑所報, 則伊日之雨, 前啓外, 天安·溫陽·禮山·靑陽·大興·□□·懷仁·文義·鎭川等九邑, 得一鋤, 稷山·牙山·德山·舒川·結城·恩津·連山·鎭岑·懷德·靑安·陰城等十一邑, 浥塵是如爲白乎旆, 又於今月初二日寅時始雨, 或霏〈或灑〉, 間間霏微, 至初三日卯時開霽, 臣營下測雨器水源[深], 爲一寸一分是白如乎, 各邑所得, 待其報來, 鱗次陳聞計料, 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지난달 28일 내린 비로 공주 등 8개 고을에 내린 양은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각 읍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그날의 비의 경우, 앞서 보고한 것 이외에 천안·온양·예산·청양·대흥·회인·문의·진천 등 9개 고을은 1서가 내렸고, 직산·아산·덕산·서천·결성·은진·연산·진잠·회덕·청안·음성 등 11개 고을은 먼지만 적실 정도였다고 합니다. 이번 달 초2일 인시쯤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소나기가 내리기도 하고 혹 간간이 가랑비가 내리다가 초3일 묘시에 이르러 개였는데, 저의 감영 측우기 수심은 1치 1푼이었습니다. 각 고을에 내린 것은 보고가 오기를 기다려 잇따라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0554. 1876년(고종 13) 4월 22일(양력 5월 15일)

忠淸監營啓錄 8책(1a~1a) /各司謄錄 7책 忠淸道篇 2책(383a~383b)

道內農形, 已爲連次馳啓爲白有在果, 續接各邑所報, 則秋粃方張發穗, 春粃間或胚胎, 畝庫幾皆翻耕, 注秧付種次第立苗, 早黍粟和種, 豆太及木花方始耕播, 而今月初二日之雨, 既不優洽, 伊後一念, 嘆乾孔酷, 粃麥多致經[徑]枯, 秧坂舉皆乾涸是如爲白有臥乎所, 杲曝轉甚, 雨意愈邈, 言念民情, 萬萬憂悶, 各邑祈雨祭, 卽爲設行之意, 今方發關申飭, 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충청도 내 농사 상황은 이미 연달아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가을보리는 한창 이삭이 패고 있고, 봄보리는 간혹 알을 배고, 논은 거의 다 갈아엎었고, 못자리에 물을 대고 벼씨를 뿌린 것은 차례로 싹이 났으며, 올기장·올조와 섞어짓는 콩·팥 및 목화는 막 땅을 갈고 씨앗을 뿌리기 시작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번 달 초2일에 내린 비는 이미 흠족하게 내리지 않은 데다 이후 줄곧 가뭄이 매우 심하여 보리가 대부분 지레 시들었고 못자리도 거의 다 말랐다고 합니다. 가뭄이 점점 심하고 비가 올 조짐은 더욱 아득하니 백성들의 심정을 생각하면 매우매우 근심이고 걱정입니다. 각 고을에 기우제를 즉시 시행하라는 뜻으로 지금 막 관문을 보내 단단히 지시하였습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0555. 1876년(고종 13) 4월 25일(양력 5월 18일)

忠淸監營啓錄 8책(1b~1b) /各司臚錄 7책 忠淸道篇 2책(383b~383c)

道內農形憫旱之狀, 各邑祈雨祭卽爲設行之意, 發關申飭緣由, 已爲馳啓爲白有果, 續接各邑所報, 則木川今月二十一日爲始設行, 天安·牙山·稷山·平澤等四邑, 二十二日爲始設行, 公州·大興·定山·燕岐·德山等五邑, 二十三日爲始設行, 全義·魯城·鎭岑·禮山等四邑, 二十四日爲始設行是如爲白乎旆. 今月二十四日戌時量始雨, 或霏或灑, 至二十五日辰時開霽, 臣營下測雨器水深, 爲一寸五分是白如乎, 久旱渴望之餘, 所得優洽, 言念民事, 去益間然, 向後形止及各邑雨澤, 隨其報來, 鱗次陳聞計料, 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충청도 내 농사 상황 및 가뭄상황과 각 고을의 기우제 요청과 시행에 관한 연유는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목천고을은 이번 달 21일부터 기우제를 시행하였고, 천안·아산·직산·평택 등 4개 고을은 22일부터 시행하였고, 공주·대흥·정산·연기·덕산 등 5개 고을은 23일부터 시행하였고, 전의·노성·진잠·예산 등 4개 고을은 24일부터 시행하였다고 합니다. 이번 달 24일 술시쯤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더러 부슬부슬 내리거나 더러 뿌리다가 25일 진시에 이르러 개었는데, 저의 감영 측우기 수심은 1치 5푼이었다고 합니다. 오랜 가뭄으로 갈망하던 끝에 흠족하게 비가 내렸으니 백성들의 사정을 생각하면 갈수록 참으로 매우 다행입니다. 이후 경위 및 각 고을에 내린 것은 보고가 오는 대로 잇따라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 0556. 1876년(고종 13) 4월 27일(양력 5월 20일)

忠淸監營啓錄 8책(1b~2b) /各司臚錄 7책 忠淸道篇 2책(383c~383d)

道內木川等十四邑祈雨祭設行形止及今月二十四日戌時始雨，至二十四日辰時開霽，臣營下水深爲一寸五分緣〈由〉，已爲馳啓爲白有在果，續接各邑所報，則公州·木川·天安·新昌·大興·洪州·沔川·鎭岑·懷德·沃川·槐山等十一邑，得一犁，稷山·平澤·牙山·禮山·定山·德山·唐津·庇仁·保寧·結城·懷仁·文義·燕岐·清州·清安·全義等十六邑，得一鋤，石城·扶餘·鴻山·魯城·連山·藍浦等六邑，浥塵是如爲白乎旃。祈雨祭段，前啓外，清安今月二十三日爲始設行，青陽·保寧·溫陽·石城·懷仁·懷德·連山·林川·庇仁·沔川等十邑，二十四日爲始設行，唐津二十五日爲始設行，文義·新昌兩邑，二十六日爲始設行是如爲白遣，前啓設行邑中，魯城縣監閔種烈，以恩津地人命致死獄事三檢官，今方馳往行檢，燕岐縣監閔泳大，以丹陽地文敬公成近默延謚時差備官，馳往該郡，而祈雨祭，該倅有故，則毋得替行，曾有定式，不得已姑令停止爲白在果，旱餘之雨，無異點適，不得解渴，言念穡事，去益憂悶，向後形止及未報邑雨澤，隨其報來，鱗次陳聞計料，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충청도 내 목천 등 14개 고을의 기우제 시행상황과 이번 달 24일 술시쯤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25일 진시에 이르러 개었는데, 저의 감영 수심이 1치 5푼인 연유는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그날의 비로 공주·목천·천안·신창·대흥·홍주·면천·진잠·회덕·옥천·괴산 등 11개 고을은 1려가 내렸고, 직산·평택·아산·예산·정산·덕산·당진·비인·보령·결성·회인·문의·연기·청주·청안·전의 등 16개 고을은 1서가 내렸고, 석성·부여·홍산·노성·연산·남포 등 6개 고을은 먼지만 적실 정도였다고 합니다. 기우제는 앞서 보고한 것 이외에 청안은 이번 달 23일부터 기우제를 시행하였고, 청양·보령·온양·석성·회인·연산·임천·비인·면천 등 10개 고을은 24일부터 시행했으며 당진 고을은 25일부터 시행하였고, 문의·신창 등 2개 고을은 26일부터 기우제는 시행하였다고 합니다. 앞서 실행하겠다고 보고한 고을 가운데 노성의 현감 민종렬은 은진에서 사람이 죽어 옥사의 삼검관으로 지금 검시하기 위해 달려갔고 연기현감 민영대는 단양에서 문경공 성근목을 연시할 때 차비관으로 해당 군에 달려갔습니다.

기우제는 해당 고을의 원이 연고가 있으면 대신 행할 수 없는 것이 일찍이 정식이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우선 중지하게 했거니와 가뭄 끝에 내린 비가 물방울과 다름이 없어 해갈할 수가 없었으니 농사를 생각하면 갈수록 걱정이 되고 애가 탑니다. 이후 경위 및 보고하지 않은 고을의 우택은 잇따라 보고가 오는 대로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 0557. 1876년(고종 13) 5월 3일(양력 5월 25일)

忠淸監營啓錄 8책(2b~3a) /各司臚錄 7책 忠淸道篇 2책(383d~384a)

道內農形及去月二十四五兩日之雨，公州等三十三邑所得分數及木川等二十八邑祈雨祭設行之由，已爲連次馳啓爲白有在果，續接各邑所報，則伊日之雨。前啓外，溫陽·靑陽·海美·鎭川·陰城·延豐·忠州·堤川·丹陽·平薪等十邑鎭，得一黎，瑞山·永同·黃澗·靑山·報恩·淸風等六邑，得一鋤，泰安·林川·韓山·舒川·恩津·永春等六邑，沍塵是如爲白乎旃。祈雨祭段，前啓外，藍浦·靑山·泰安·沃川·報恩·海美等六邑，去月二十五日爲始設行，韓山·鴻山兩邑，二十六日爲始設行，鎭川二十七日爲始設行，黃澗·洪州兩邑，二十八日爲始設行，扶餘今月初二日爲始設行是如爲白遣，農形段，秋耨次第入實，春耨方張發穗，注秧付種漸次向長，早黍粟和種，豆太及木花間或立苗，而向日之雨，旣不均霑，近旬之暘，又此果曝，田畚各種，無不惜乾是如爲白有臥乎所，圭璧連舉，一霈尙靳，言念民事，益切悶然，向後農形，鱗次陳聞計料，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충청도 내 농사 상황 및 지난달 24, 25일의 비로 공주 등 33개 고을에 내린 양 및 목천 등 28개 고을에서 기우제를 시행한 연유는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그날의 비로 앞서 보고한 것 이외에 온양·청양·해미·진천·음성·연풍·충주·제천·단양·평신 등 10개 고을과 군영은 1가 내렸고, 서산·영동·황간·청산·보은·청풍 등 6개 고을은 1서가 내렸고, 태안·임천·한산·서천·은진·영춘 등 6개 고을은 먼지만 적실 정도였다고 합니다.

기우제는 앞서 보고한 것 이외에 남포·청산·태안·옥천·보은·해미 등 6개 고을은 지난달 25일부터 기우제를 시행하였고, 한산·홍산 등 2개 고을은 26일부터 시행하였고, 진천 고을은 27일부터 시행하였고, 황간·홍주 등 2개 고을은 28일부터 시행하였고, 부여 고을은 이번 달 초2일부터 기우제를 각각 시행하였다고 합니다.

농사 상황의 경우, 가을보리는 차례로 알이 차고 봄보리는 한창 이삭이 패고 있고, 못자리 에 물을 대고 벼씨를 뿌린 것은 점차 자라고 있으며, 올기장·올조와 섞어짓는 콩·팥 및 목화는 간혹 싹이 돋았다고 합니다. 지난달 내린 비가 이미 골고루 땅을 적시지 못했고

열흘 가까이 맑은 날씨에다 피약별이 내려 쪼어 논밭의 각종 곡식이 마르지 않은 것이 없다고 했습니다. 기우제를 연이어 거행했지만 한줄기 시원스런 비가 아직 내리지 않으니 백성들의 사정을 생각하면 더욱 걱정입니다. 이후 농사 상황은 잇따라 아될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 0558. 1876년(고종 13) 5월 8일(양력 5월 30일)

忠淸監營啓錄 8책(3a~3b) /各司臚錄 7책 忠淸道篇 2책(384a~384b)

道內農形憫旱之狀及木川等四十邑祈雨祭設行緣由, 已爲馳啓爲白有在果, 續接各邑所報, 則前啓外, 永同今月初一日爲始設行, 淸州·結城兩邑, 初二日爲始設行, 瑞山·延豐兩邑, 初五日爲始設行, 前啓停止邑中, 燕岐初六日爲始設行, 魯城初七日爲始更爲設行是如爲白乎旆. 今月初八日寅時量始雨, 或霏或灑, 至同日辰時乃止, 臣營下測雨器水深爲五分是白如乎, 久旱望望[寬]之餘, 今番所得, 又未免點適, 言念民事, 去益悶然, 向後形止及各邑雨澤, 隨其報來, 鱗次陳聞計料, 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충청도 내 농사 상황 및 가뭄상황과 목천 등 40개 고을의 기우제를 지낸 연유는 이미 보고 드 린 바 있습니다. 계속해서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앞서 보고한 것 이외에 영동고을에서 이번 달 초1일부터 기우제를 시행하였고, 청주·결성 등 2개 고을은 초2일부터 시행하였고, 서산·연풍 등 2개 고을은 초5일부터 시행하였고, 앞서 보고에서 중지한 고을 가운데 연기 고을은 초6일부터 기우제를 시행하였고, 노성 고을은 초7 일부터 기우제를 시행하였다고 합니다. 이번 달 초8일 인시경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더러 부슬부슬 내리거나 더러 뿌리다가 같은 날 진시에 이르러 그쳤는데 측우기 수심은 5푼이었습니다. 오랜 가뭄으로 무지개가 뜨기를 고대했지만 이번에 내린 비도 물방울을 면하지 못했으나 백성들의 사정을 생각하면 갈수록 걱정입니다. 이후 경위 및 각 고을에 내린 것은 보고가 오는 대로 잇따라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 0559. 1876년(고종 13) 5월 12일(양력 6월 3일)

忠淸監營啓錄 8책(3b~4a) /各司臚錄 7책 忠淸道篇 2책(384b~384c)

道內木川等四十七邑祈雨祭設行形止及今月初八日寅時始雨，至同日辰時開霽，臣營下水深爲五分緣由，已爲馳啓爲白有在果，續接各邑所報，則伊日之雨。鎭岑·懷德·永同·庇仁等四邑，得一黎，天安·溫陽·洪州·沔川·魯城·藍浦·連山·懷仁·槐山等九邑，得一鋤，公州·全義·木川·稷山·平澤·牙山·定山·大興·青陽·唐津·海美·石城·扶餘·林川·鴻山·韓山·舒川·結城·恩津·青山·文義·燕岐·清州·清安·延豐·陰城·忠州·平薪等二十八邑，鎭浥塵是如爲白乎旆，又於今月十一日酉時量始雨，或霏或灑，間間霑下，至十二日卯時開霽，臣營下測雨器水深爲四寸二分是白如乎，各邑所得，雖姑未知，推以臣營下所見，高低原溫[隰]，幾盡周洽，爲民事誠甚萬幸，各邑祈雨祭，隨其雨澤所報，姑令觀勢停止計料，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충청도 내 목천 등 47개소에서 기우를 시행한 상황과 이번 달 초8일 인시쯤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같은 날 진시에 이르러 개었는데, 저의 감영 측우기 수심이 5푼인 연유는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그날의 비로 진잠·회덕·영동·비인 등 4개 고을은 1려가 내렸고, 천안·온양·홍주·면천·노성·남포·연산·회인·괴산 등 9개 고을은 1서가 내렸고, 공주·전의·목천·직산·평택·아산·정산·대흥·청양·당진·해미·석성·부여·임천·홍산·한산·서천·결성·은진·청산·문의·연기·청주·청안·연풍·음성·충주·평신 등 28개 고을과 군영은 먼지만 적실 정도였다고 합니다. 이번 달 11일 유시쯤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더러 부슬부슬 내리거나 더러 뿌리다가 간간이 주룩주룩 내리다가 12일 묘시에 이르러 개었는데, 저의 감영 측우기 수심은 4치 2푼이었습니다. 각 고을에 내린 비는 아직 알 수가 없습니다. 저의 감영에서 본 것으로 추측해 보건데 높은 비탈이나 낮은 습지대할 것 없이 거의 다 두루 흠뻑 내렸지 싶으니 백성들의 사정을 생각하면 정말로 다행입니다. 각 고을의 기우제와 우택은 보고되는 대로 일단 형세를 봐서 중지할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 0560. 1876년(고종 13) 5월 13일(양력 6월 4일)

忠淸監營啓錄 8책(4a~4b) /各司謄錄 7책 忠淸道篇 2책(384c~384d)

道內農形及今月十一日酉時始雨，至十二日卯時開霽，臣營下水深爲四寸二分，雨各邑祈雨祭，隨其雨澤所報，姑令觀勢停止計料緣由，已爲馳啓爲白有在果，續接各邑所報，則公州·木川·天安·連山等四邑，川渠漲滿，全義·靑陽·魯城等三邑，得一黎，鴻山·沃川兩邑，得一鋤是如爲白乎旆。祈雨祭段，前啓外，丹陽今月初六日爲始設行，槐山初七日爲始設行，堤川初十日爲始設行，前啓已行邑中，公州·天安·木川·連山等四邑，得雨仍停是如爲白遣，農形段，秋麴方張向黃，春麴次第入實，注秧付種漸次茁長，早黍粟和種，豆太及木花，幾盡立苗，間或初鋤是如爲白有臥乎所，向後農形及未報邑雨澤，隨其報來，鱗次陳聞計料，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충청도 내 농사 상황 및 이번 달 11일 유시쯤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12일 묘시에 이르러 개었는데, 저의 감영 측우기 수심은 4치 2푼인 연유와 각 고을의 기우제와 우택이 보고되는 대로 일단 형편을 보아 기우제를 중지한 계획의 연유는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시다. 계속해서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그날의 비로 공주·목천·천안·연산 등 4개 고을은 시내와 도랑이 불어나 넘쳤고 전의·청양·노성 등 3개 고을은 1려가 내렸고, 홍산·옥천 등 2개 고을은 1서가 내렸다고 합니다.

기우제는 앞서 보고한 것 이외에 단양 고을은 이번 달 초6일부터 기우제를 시행했으며 괴산 고을은 초7일부터 시행하였고, 제천 고을은 초10일부터 시행하였습니다. 앞서 보고에 이미 기우제를 시행한 고을 가운데 공주·천안·목천·연산 등 4개 고을은 비가 내려 기우제를 중지하였다고 합니다.

농사 상황의 경우, 가을보리는 한창 누렇게 되었고 봄보리는 차례로 알이 차고, 못자리에 물을 대고 벼씨를 뿌린 것은 점차 싹이 자라고, 올기장·올조와 섞어짓는 콩·팥 및 목화는 거의 다 싹이 텄고, 간혹 초벌 김매기를 하였다고 합니다. 이후 농사 상황 및 보고하지 않은 고을의 우택은 보고가 오는 대로 잇따라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 0561. 1876년(고종 13) 5월 16일(양력 6월 7일)

忠淸監營啓錄 8책(4b~5a) /各司臚錄 7책 忠淸道篇 2책(384d~385b)

今月十一日之雨, 公州等九邑所得分數及公州等四邑祈雨祭停止緣由, 已爲馳啓爲白有在果, 續接各邑所報, 則伊日之雨. 前啓外, 溫陽·洪州·文義·懷仁等四邑, 川渠漲滿, 牙山·大興·沔川·庇仁·藍浦·結城·鎭岑·忠州等八邑, 得二犁, 稷山·平澤·新昌·禮山·定山·德山·海美·保寧·懷德·黃澗·報恩·燕岐·清州·槐山·陰城等十五邑, 得一犁, 唐津·石城·扶餘·林川·韓山·舒川·恩津·永同·青山·清安等十邑, 得一鋤是如爲白乎旃. 祈雨祭段, 已行邑中前啓外, 大興·牙山·溫陽·懷仁·懷德·庇仁·沔川·文義·藍浦·沃川·報恩·洪州·結城·陰城等十四邑, 得雨仍停是如爲白遣, 又於今月十五日午時量始雨, 或霏或灑, 至十六日卯時開霽, 臣營下測雨器水深爲一寸五分是白如乎, 向後形止及各邑雨澤, 待其報來, 鱗次陳聞計料, 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이번 달 11일 공주 등 9개 고을에 내린 강우량과 공주 등 4개 고을은 기우제를 중지한 연유는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그날의 비로 앞서 보고한 것 이외에 온양·홍주·문의·회인 등 4개 고을은 시내와 도랑이 불어나 가득 찼고, 아산·대흥·면천·비인·남포·결성·진잠·충주 등 8개 고을은 2려가 내렸고, 직산·평택·신창·예산·정산·덕산·해미·보령·회덕·황간·보은·연기·청주·괴산·음성 등 15개 고을은 1려가 내렸고, 당진·석성·부여·임천·한산·서천·은진·영동·청산·청안 등 10개 고을은 1서가 내렸다고 합니다.

기우제는 이미 시행한 고을 가운데 앞서 보고한 것 이외에 대흥·아산·온양·회인·회덕·비인·면천·문의·남포·옥천·보은·홍주·결성·음성 등 14개 고을은 비가 내려 기우제를 중지하였다고 합니다. 이번 달 15일 오시쯤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더러 주룩주룩 내리거나 더러 뿌리다가 16일 묘시에 이르러 개었는데 측우기 수심은 1치 5푼이었습니다. 이후 경위 및 각 고을의 우택은 보고가 오기를 기다려 잇따라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 0562. 1876년(고종 13) 5월 23일(양력 6월 14일)

忠淸監營啓錄 8책(5a~5b) /各司謄錄 7책 忠淸道篇 2책(385b~385c)

道內農形及今月十一日之雨, 公州等四十六邑所得分數, 大興等十四邑祈雨祭停止, 十五日午時始雨, 至十六日卯時開霽, 臣營下水深爲一寸五分緣由, 已爲馳啓爲白有在果, 續接各邑所報, 則十一日之雨, 前啓外, 瑞山·鎭川·延豐·淸風·堤川·丹陽·永春·平薪等八邑鎭得一犁, 泰安·沔塵是如爲白乎旆. 祈雨祭段, 已行邑中, 前啓外, 定山·燕岐·金義·魯城·鎭岑·禮山·林川·新昌·黃澗·恩津·淸州·延豐·槐山·丹陽等十四邑, 得雨仍停, 十五日之雨, 魯城·恩津·鎭岑·槐山·延豐·丹陽等六邑, 川渠漲滿, 公州·木川·洪州·林川·連山·懷德·沃川·永同·黃澗·報恩·文義·懷仁·淸州·淸安·忠州·淸風等十六邑, 得一犁, 全義·天安·稷山·牙山·溫陽·新昌·定山·青陽·大興·石城·青山·燕岐·鎭川等十三邑, 得一鋤, 平澤·禮山·扶餘·鴻山·海美·德山·保寧等七邑, 沔塵是如爲白遣, 農形段, 秋耨方張刈穫, 春耨幾盡向黃, 洞畚裕水處, 間或移秧, 付種乾播, 方始初鋤, 早黍粟和種, 豆太及木花, 次第初除草是如爲白有臥乎所, 向後農形及未報邑雨澤, 待其報來, 鱗次陳聞計料, 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충청도 내 농사 상황 및 이번 달 11일 공주 등 46개 고을에 내린 양과 대홍 등 14개 고을의 기우제 중지와 15일 오시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16일 묘시에 이르러 개였는데, 저의 감영 측우기 수심이 1치 5푼인 연유는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11일 내린 비의 경우, 앞서 보고한 것 이외에 서산·진천·연풍·청풍·제천·단양·영춘·평신 등 8개 고을과 군영은 1려가 내렸고, 태안 고을은 먼지만 적실 정도였다고 합니다.

기우제는 이미 시행한 고을 가운데 앞서 보고한 것 이외에 정산·연가·전의·노성·진잠·예산·임천·신창·황간·은진·청주·연풍·괴산·단양 등 14개 고을은 비가 내려 이내 중지하였습니다. 15일 내린 비로 노성·은진·진잠·괴산·연풍·단양 등 6개 고을은 시내와 도랑이 불어나 가득 찼고, 공주·목천·홍주·임천·연산·회덕·옥천·영동·황간·보은·문의·회인·청주·청안·충주·청풍 등 16개 고을은 1려가 내렸고, 전의·천안·직산·아산·온양·신창·정산·청양·대홍·석성·청산·연가·진천 등 13개 고을은 1서가 내렸고, 평신·예산·부여·홍산·해미·덕산·보령

등 7개 고을은 먼지만 적실 정도였다고 합니다.

농사 상황의 경우, 가을보리는 한창 베어 거두고 있고 봄보리는 거의 다 누렇게 되었고, 골짜기 논 가운데 물이 넉넉한 곳은 간혹 모내기를 하였고, 무논에 벼씨를 뿌리고 마른논에 씨앗을 뿌린 것은 막 초벌 김매기를 시작하였고, 올기장·올조와 섞어짓는 콩·팥 및 목화는 차례로 초벌 김매기를 하였다고 합니다. 이후 농사 상황 및 보고하지 않은 고을의 우택은 보고가 오기를 기다려 잇따라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 0563. 1876년(고종 13) 5월 29일(양력 6월 20일)

忠淸監營啓錄 8책(5b~6a) /各司臚錄 7책 忠淸道篇 2책(385c~385d)

今月十五日之雨, 魯城等二十五邑所得分數, 定山等十四邑祈雨祭停止緣由, 已爲馳啓爲白有在果, 續接各邑所報, 則伊日之雨. 前啓外, 堤川·永春兩邑, 川渠漲滿, 瑞山·庇仁·藍浦·陰城·等四邑, 得一鋤, 沔川·唐津·泰安·韓山·舒川·結城·平薪等七邑泥塵是如爲白遣, 祈雨祭段, 已行邑中, 堤川得雨仍停, 稷山·平澤·德山·保寧·石城等五邑, 既準十二次之限, 姑爲停止是如爲白遣, 前此已行邑中, 結城·報恩·連山等三邑, 雨無優洽之澤, 早有渴急之患, 更請設行, 故使之虔禱之意, 申飭題送爲白有加尼, 結城今月十六日爲始設行是如爲白有臥乎所, 秧節方闌, 雨澤尙靳, 言念民情, 誠甚悶然, 向後形止, 鱗次陳聞計料, 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이번 달 15일 노성 등 25개 고을에 내린 강우량과 정산 등 14개 고을의 기우제를 중지한 연유는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그날의 비로 앞서 보고한 것 이외에 제천·영춘 등 2개 고을은 시내와 도랑이 불어나 가득 찼고, 서산·비인·남포·음성 등 4개 고을은 1가 내렸고, 면천·당진·태안·한산·서천·결성·평신 등 7개 고을은 먼지만 적실 정도였다고 합니다.

기우제의 경우, 이미 시행한 고을 가운데 제천은 비가 내려 이내 중지하였고 직산·평택·보령·석성 등 5개 고을은 이미 12차 기준까지 일기한으로 기우제 시행한 후에 중지하였다고 합니다. 앞서 이미 기우제를 지낸 고을 가운데서 결성·보은·연산 등 3개 고을은 비가 내리지 않아 우려가 많아 가뭄이 가시기를 염원하다가 단단히 지시하여 결정문을 보냈습니다. 기도하고 있으며 그 중 결성 고을은 이번 달 16일부터 기우제를 지냈다고 합니다. 모내기철이 한창인데 우택이 아직 부족하니 백성들의 심정을 생각하면 정말로 매우 걱정입니다. 이후 경위는 잇따라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0564. 1876년(고종 13) 윤5월 3일(양력 6월 24일)

忠淸監營啓錄 8책(6a~6b) /各司臚錄 7책 忠淸道篇 2책(385d~386a)

道內農形及堤川等六邑祈雨祭停止, 結城等三邑更請設行緣由, 已爲馳啓爲白有在果, 續接各邑所報, 則秋麴已盡登場, 春麴刈穫垂畢, 畚農之付種乾播, 間或再鋤, 而惱旱不茂, 堤汙引漑處, 已移者無幾, 而旋即乾涸, 舉皆萎枯, 早黍粟和種, 豆太及木花, 立苗不齊, 除草愆時, 根耕豆太及晚黍粟, 土壤燥堅, 耕播失時是如爲白乎旆. 祈雨祭段, 已行邑中, 青山·韓山·泰安·鎭川·鴻山等五邑, 既準十二次之限, 姑爲停止, 前啓請行邑中, 報恩去月二十九日爲始設行, 連山今月初一日爲始設行是如爲白遣, 沔川·燕岐·木川·德山等四邑, 亦爲請行, 故使之虔禱, 外他各邑, 隨其緩急, 亦卽設行之意, 一體題飭, 而圭璧再舉, 霈澤一遲, 言念民事, 萬萬悶然, 向後形止, 鱗次陳聞計料, 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충청도 내 농사 상황 및 제천 등 6개 고을은 기우제 중지와 결성 등 3개 고을은 다시 청구하여 시행한 연유는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가을보리는 이미 다 타작을 하고 봄보리는 베어 수확을 거의 마쳤습니다. 논꼬 가운데 무논에 벼씨를 뿌리고 마른논에 씨앗을 뿌린 것은 간혹 재벌 김을 매었는데 가뭄 해를 입어 무성하게 자라지 못하고 독과 보에서 물을 끌어대어 이미 모내기를 한 것도 얼마 지나지 않아 모두 시들었습니다. 올기장·올조와 섞어짓는 콩·팥 및 목화는 싹이 들쭉날쭉 올라 오는데 김매기해야 할 시기를 놓쳤습니다. 그루같이한 콩·팥 및 늦기장·늦조는 토양이 건조하고 단단하여 갈아서 파종할 시기를 놓쳤다고 합니다.

기우제는 이미 지내겠다고 청한 고을 가운데 청산·한산·태안·진천·홍산 등 5개 고을은 이미 12차례를 지냈으므로 우선 기우제를 그만두었고 앞서 기우제를 지내기를 청한 고을 가운데 보은 고을은 지난달 5월 29일에 비로소 지냈고 연산고을은 이번 달 초1일에 기우제를 지냈고 면천·연기·목천·덕산 등 4개 고을도 청해오므로 기우제를 정성을 들여 지내도록 했습니다. 그 외에 다른 각 고을은 완급에 따라 또한 즉시 실행하도록 일체 제척 하였습니다. 기우제를 재차 거행했는데도 시원스런 비가 한결같이 내리지 않으니 백성들의 사정을 생각하면 매우 매우 걱정입니다. 이후 경위는 잇따라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0565. 1876년(고종 13) 윤5월 6일(양력 6월 27일)

忠淸監營啓錄 8책(6b~7a) /各司臚錄 7책 忠淸道篇 2책(386a~386b)

道內靑陽等十邑祈雨祭設行形止，已爲馳啓爲白有在果，續接各邑所報，則已行邑中，淸安旣準十二次之限，姑爲停止，前啓請行邑中，沔川去月二十八日爲始設行，燕岐·木川兩邑，今月初二日爲始設行，前啓外，林川·魯城·忠州三邑，今月初一日爲始設行，淸州·平薪兩邑鎮，初二日爲始設行，大興·禮山兩邑，初三日爲始設行，公州初六日爲始設行是如爲白有臥乎所，圭壁屢舉，雨澤尙靳，秧節漸晚，群情益切，更觀數日，臣亦躬禱計料，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충청도 내 청양 등 10개 고을은 기우제를 지낸 상황은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이미 기우제를 지낸 고을 가운데 청안 고을은 12차례 기한으로 기우제를 그만두었고 기우제를 청한 고을 중 먼천 고을은 지난달 28일부터 지냈고 연기·목천 등 2개 고을은 이번 달 초2일부터 지냈으며 또 임청·노성·충주 등 3개 고을은 이번 달 초1일부터 지냈습니다. 청주·평신 등 양 고을과 군영은 이번 달 초2일부터 지냈으며 대흥·예산 등 2개 고을은 초3일부터 지냈고 공주 고을은 초6일부터 기우제를 지냈다고 합니다. 기우제를 누차 거행했지만 비가 아직까지 내리지 않고 모내기철은 점점 늦어지니 백성들의 심정이 더욱 간절합니다. 다시 며칠을 본 다음 신도 직접 기도를 드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0566. 1876년(고종 13) 윤5월 8일(양력 6월 29일)

忠淸監營啓錄 8책(7a~7b) /各司臚錄 7책 忠淸道篇 2책(386b~386c)

道內靑陽等二十邑鎮祈雨祭設行緣由, 已爲馳啓爲白有在果, 續接各邑所報, 則前啓外, 洪州·溫陽·沃川等三邑, 今月初四日爲始設行, 鎮岑初五日爲始設行, 前啓請行邑中, 德山初五日爲始設行, 已行邑中, 靑陽旣準十二次之限姑爲停止是如爲白有臥乎所, 一霈尙靳, 三農俱愆, 民情如焚, 去益罔措是白乎等以, 臣於今月初九日, 躬禱于公州牧社稷壇計料, 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충청도 내 청양 등 20개 고을과 군영은 기우제를 지낸 연유는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앞서 보고한 것 이외에 홍주·온양·옥천 등 3개 고을은 이번 달 초4일부터 지냈고, 진잠 고을은 초5일부터 기우제를 지냈다고 합니다. 앞서 보고에서 청하여 시행한 고을 가운데 덕산 고을은 초5일부터 지냈고 이미 시행한 고을 가운데 청양 고을은 12차례 기한으로 기우제를 중지하였다고 합니다. 한줄기 시원스런 비가 아직도 내리지 않아 삼농이 모두 어긋나 백성들의 심정이 타들어가는 듯 해 갈수록 어찌할지 모르겠습니다. 이번 달 초9일에 직접 공주목 사직단에서 기도를 드릴 예정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0567. 1876년(고종 13) 윤5월 11일(양력 7월 2일)

忠淸監營啓錄 8책(7b~7b) /各司臚錄 7책 忠淸道篇 2책(386c~386c)

道內唐津等二十四邑鎮祈雨祭設行，今月初九日臣躬禱于公州牧社稷壇緣由，已爲馳啓爲白有在果，續接各邑所報，則已行邑中，唐津·海美·瑞山等三邑，旣準十二次之限，姑爲停止，前啓外，保寧今月初五日爲始設行，平澤今月初六日爲始設行，藍浦·牙山·庇仁等三邑，初七日爲始設行，定山初八日爲始設行是如爲白有臥乎所，秧節已晚，雨澤終靳，言念民情，萬萬渴急乙仍于，臣又於今月十二日，躬禱于公州牧城隍壇計料，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충청도 내 당진 등 24개 고을과 군영 기우제 시행과 이번 달 초9일에 제가공주목 사직단에 서 몸소 기도를 드린 연유는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이미 기우제를 시행한 고을 가운데 당진·해미·서산 등 3개 고을은 이미 12차례 기한으로 기우제를 중지하였습니다. 앞서 보고한 것 이외에 보령 고을은 이번 달 초5일부터 지냈고 평택 고을은 초6일부터 지냈으며 정산 고을은 초8일부터 기우제를 지냈다고 합니다. 모내기철이 이미 늦었는데 비가 끝내 오지 않으니 백성들의 심정을 생각하면 매우 속이 달아오를 지경으로 급하기에 신이 또 이번 달 12일에 공주목 성황단에서 몸소 기도를 드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0568. 1876년(고종 13) 윤5월 13일(양력 7월 4일)

忠淸監營啓錄 8책(7b~8a) /各司臚錄 7책 忠淸道篇 2책(386c~386d)

道內農形及扶餘等二十七邑鎮祈雨祭設行，今月十二日臣躬禱于公州牧城隍壇緣由，已爲馳啓爲白有在果，續接各邑所報，則農形段，如干旱移，未霑膏澤，貼地焦枯，無望成就，早黍粟和種，豆太及木花，田無潤塊土如硬石，鋤耘久廢，根耕豆太及晚黍粟，耒耜莫施，耕播失時，自致停役是如，遑急之報，一辭同然是如遣，祈雨祭段，前啓文義今月初八日爲始設行，天安·稷山兩邑，初九日爲始設行，陰城·靑陽·槐山等三邑，初十日爲始設行是如爲白有臥乎所，小暑只隔，甘霖此遲，言念民事，去益渴悶，向後形止，鱗次陳聞計料，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충청도 내 농사 상황 및 부여 등 27개 고을과 군영의 기우제를 지낸 상황과 이번 달 12일에 신이 몸소 공주목 성황당에서 지낸 연유는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농사 상황의 경우, 조금 일찍 모내기를 한 것은 단비가 적셔주지 않아 땅에 붙어 타들어가고 말라 수확할 가망이 없으며 올기장·올조와 섞어짓는 콩·팥과 목화는 밭에 축축한 덩이가 없고 흙이 단단하여 돌 같아 김매는 일을 오랫동안 못하고 있고 그루같이한 콩·팥 및 늦기장·늦조는 가래질도 못해 갈아서 파종하는 시기를 놓쳐서 자연 일을 그만두게 되었다고 황급하게 보고하는 것이 한결같이 똑같았습니다. 기우제는 앞서 보고한 것 이외에 문의 고을은 이번 달 초8일부터 시행하였고, 천안·직산 등 2개 고을은 초9일부터 시행했으며 음성·청양·괴산 등 3개 고을은 초10일부터 기우제 시행하였다고 합니다. 소서가 하루밖에 남지 않았는데도 단비가 이렇게 더디니 백성들의 사정을 생각하면 갈수록 더욱 애가 타고 걱정입니다. 이후 경위는 잇따라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0569. 1876년(고종 13) 윤5월 13일(양력 7월 4일)

忠淸監營啓錄 8책(8a~8b) /各司臚錄 7책 忠淸道篇 2책(386d~387a)

道內扶餘等三十三邑鎮祈雨祭設行形止，已爲馳啓爲白有在果，續接各邑所報，則前啓外，全義·懷德兩邑，今月十二日爲始設行是如爲白有臥乎所，雨意邈然，群情如焚，臣又於今月十五日，躬禱于公州牧熊津計料，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충청도 내 부여 등 33개 고을과 군영의 기우제를 시행한 경위는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앞서 보고한 것 이외에 전의·회덕 등 2개 고을은 이번 달 12일부터 기우제를 시행하였다고 합니다. 비가 올 조짐이 아득하니 백성들이 마음이 불에 타는듯하여 신이 또 이번 달 15일에 공주목 웅진에서 몸소 기도를 드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0570. 1876년(고종 13) 윤5월 17일(양력 7월 8일)

忠淸監營啓錄 8책(8b~8b) /各司臚錄 7책 忠淸道篇 2책(387a~387a)

道內扶餘等三十五邑鎮祈雨祭設行, 今月十五日臣躬禱于熊津緣由, 已爲馳啓爲白有在果, 續接各邑所報, 則鎮川今月十二日爲始設行, 新昌·懷仁·韓山·淸安等四邑, 十三日爲始設行, 石城十四日爲始設行是如爲白有臥乎所, 小暑已過, 初庚只隔, 而尙靳知時之雨, 久被踰月之旱, 言念穡事, 心與俱焚, 臣又於今月十六日, 躬禱于公州神院計料, 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충청도 내 부여 등 35개 고을과 군영이 기우제 시행과 이번 달 15일에 신이 몸소 웅진에서 기우제를 지낸 연유는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진천고을은 이번 달 12일부터 기우제를 지냈고 신창·회인·한산·청안 등 4개 고을은 13일부터 지냈으며 석성고을은 14일부터 기우제를 지냈다고 합니다. 소서가 이미 지나고 초복은 다만 좀 지나야 하는데 아직도 때를 알고 내려는 비가 내려주기를 바랐으나 오래도록 달을 넘기는 가뭄을 입으니 농사일을 말하고 생각하면 마음이 함께 타는듯합니다. 저도 또한 이번 달 16일에 몸소 공주 신원에서 기우제를 지낼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0571. 1876년(고종 13) 윤5월 20일(양력 7월 11일)

忠淸監營啓錄 8책(8b~9a) /各司謄錄 7책 忠淸道篇 2책(387a~387b)

道內扶餘等四十一邑鎮祈雨祭設行，今月十八日臣躬禱于公州牧神院緣由，已爲馳啓爲白有在果，續接各邑所報，則延豐今月十二日爲始設行，泰安十五日爲始設行，唐津十六日爲始設行是如爲白有臥乎所，庚伏已廟，節序將晚，趁今得雨，難望有秋，而一直亢旱，三農俱愆，言念民情，罔知攸措，臣又於二十一日，躬禱于連山縣龍湫計料，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충청도 내 부여 등 41개 고을과 군영의 기우제 시행과 이번 달 18일 신이 몸소 공주목 신원에서 기우제를 지낸 연유는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연풍 고을은 이번 달 12일부터 기우제를 지냈고 태안 고을은 15일부터 지냈으며 당진 고을은 16일부터 기우제를 지냈다고 합니다. 경북이 이미 이르러 절서가 늦어지려 하니 진작 비가 내리더라도 추구할 가망이 없는데 줄곧 가뭄이 대단하여 삼농이 모두 시기를 어기니 백성들의 심정을 생각하면 어찌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21일에 연산현 용추에서 직접 기도를 드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 0572. 1876년(고종 13) 윤5월 22일(양력 7월 13일)

忠淸監營啓錄 8책(9a~9b) /各司臚錄 7책 忠淸道篇 2책(387b~387c)

道內農形及扶餘等四十五邑鎮祈雨祭設行, 今月二十一日臣躬禱于連山龍湫緣由, 已爲馳啓爲白有在果, 續接各邑所報, 則淸風今月十六日爲始設行, 舒川十七日爲始設行, 堤川十八日爲始設行是如爲白遣, 農形段, 付種乾播, 間或再鋤, 而久被乾曝, 不得茁長, 早黍粟和種, 豆太及木花, 鋤耘失時, 舉多荒蕪, 汚下洞畝之如干早移, 拔手旋涸, 貼地焦枯, 未移之秧苗, 在坂黃萎, 雖得雨澤, 無望移插, 根耕豆太, 已播之處, 纔苗旋枯, 未耕之田, 耒耜不入, 束手停役是白乎所, 此則臣之今番祈雨之行, 往來目睹者也. 節序漸晚, 時雨終靳, 言念民事, 心如焚燬, 向後形止, 鱗次陳聞計料, 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충청도 내 농사 상황 및 부여 등 45개 고을과 군영의 기우제 시행과 이번 달 21일에 신이 몸소 연산 용추에서 기우제를 지낸 연유는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청안 고을은 이번 달 16일부터 기우제를 지냈고 서천 고을은 17일부터 지냈으며 제천 고을은 18일부터 기우제를 지냈다고 합니다.

농사 상황의 경우, 무논에 볍씨를 뿌리고 마른논에 씨앗을 뿌린 것은 간혹 두벌매기를 하는데 오랫동안 가뭄을 입어 싹이 자라지 못하며, 올기장·올조와 섞어짓는 콩·팥 및 목화는 김매 시기를 놓쳐 대부분 황폐하며 지대가 낮은 동답에 조금 일찍 모내기를 한 것은 심자마자 바로 말라 땅에 붙은 채 타들어가고 아직 모내기하지 않은 것은 못자리에서 누렇게 시들어가니 비록 비가 내리더라도 옮겨 쪼을 가망이 없고 그루같이한 콩·팥은 이미 과중한 곳에 싹이 터서 바로 마르며 아직 갈지 않은 밭은 쟁기와 보습이 들어가지 않아 손도 못쓰고 일을 중지했습니다. 이는 신이 이번 기우제를 실행하기 위해 오가면서 눈으로 본 것입니다. 절서가 점차 늦어지는데 단비가 끝내 내리지 않으니 백성들의 사정을 생각하면 마음이 불에 타는 듯합니다. 이후 경위는 잇따라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0573. 1876년(고종 13) 윤5월 23일(양력 7월 14일)

忠淸監營啓錄 8책(9b~9b) /各司臚錄 7책 忠淸道篇 2책(387c~387c)

道內扶餘等四十八邑鎮祈雨祭設行，已爲馳啓爲白有在果，續接各邑所報，則靑山今月二十日爲始設行是如爲白有臥乎所，節序雖晚，圭璧屢舉，誠未上格，尙闕靈應，萬萬悚悶，臣又於今月二十四日，更爲躬禱于公州牧社稷壇計料，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충청도 내 부여 등 48개 고을과 군영의 기우제 시행은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청산고을은 이번 달 20일부터 기우제를 지냈다고 합니다. 절서가 늦었지만 기우제를 누차 거행했는데도 정성이 위에까지 도달되지 않아 아직 신령스러운 감응이 없으니 매 송구스럽고 안타깝습니다. 신이 또 이번 달 24일에 제가 몸소 공주목 사직단에서 기우제를 지낼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0574. 1876년(고종 13) 윤5월 26일(양력 7월 17일)

忠淸監營啓錄 8책(9b~10a) /各司臚錄 7책 忠淸道篇 2책(387d~387d)

道內扶餘等四十九邑鎮祈雨祭設行，今月二十四日臣更禱于公州牧社稷壇緣由，已爲馳啓爲白有在果，續接各邑所報，則永春今月十六日爲始設行，丹陽十七日爲始設行，瑞山二十二日爲始設行，鴻山二十三日爲始設行是如爲白有臥乎所，晝則日曝，釀雨無意，夜而雲布，零露不滋，川流久矣已斷，泉井隨而亦渴，有秋之望尙矣。呼癸之患方切，臣又於今月二十七日，更爲躬禱于公州牧城隍壇計料，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충청도 내 부여 등 49개 고을과 군영 기우제 시행한 것과 이번 달 24일에 제가 몸소 공주목 사직단에서 기도를 드린 연유는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영춘 고을은 이번 달 16일부터 기우제를 지냈고 단양 고을은 17일부터 지냈으며 서산 고을은 22일부터 지내고 홍산 고을은 23일부터 기우제를 지냈다고 합니다. 낮에는 햇볕이 내리쬐어 비를 내릴 조짐이 없고 밤에는 구름이 퍼져 떨어지는 이슬이 불어나지 않아 흐르던 냇물이 이미 끊어진 지 오래고 샘도 따라서 말랐으니 가을에 수확할 가망이 없어 굶주릴 걱정이 매우 절실합니다. 그래서 제가 또 이번 달 27일에 다시 공주목 성황단에서 몸소 기도를 드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0575. 1876년(고종 13) 윤5월 29일(양력 7월 20일)

忠淸監營啓錄 8책(10a~10a) /各司謄錄 7책 忠淸道篇 2책(387d~388a)

道內扶餘等五十三邑鎮祈雨祭設行，今月二十七日臣更禱于公州牧城隍壇緣由，已爲馳啓爲白有在果，續接各邑所報，則扶餘·永同兩邑，旣準十二次之限，姑爲停止是如爲白有臥乎所，農節已晚，雨澤已降，民情穡事，去益悶[罔]涯，臣又於六月初一日，更爲躬禱于公州牧熊津計料，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충청도 내 부여 등 53개 고을과 군영은 기우제 시행과 이번 달 27일에 신이 몸소 공주목 성황단에서 기우제를 지낸 연유는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부여·영동 등 2개 고을은 12차례의 기한으로 기우제를 중지하였다고 합니다. 농사철이 늦었는데 비가 이미 더디니 백성들의 심정과 농사일이 갈수록 끝이 없습니다. 저는 또 6월 1일에 다시 몸소 공주목 웅진에서 기우제를 지낼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0576. 1876년(고종 13) 6월 3일(양력 7월 23일)

忠淸監營啓錄 8책(10a~10b) /各司臚錄 7책 忠淸道篇 2책(388a~388b)

道內農形及結城等五十一邑鎮祈雨祭設行，今月初一日臣更禱于公州牧熊津緣由，已爲馳啓爲白有在果，續接各邑所報，則結城既準十二次之限，姑爲停止是如爲白遣，農形段，付種乾播，早黍粟和種，豆太及木花，日益焦枯，根耕豆太晚黍粟，或苗而旋枯，煮而不苗是如爲白有臥乎所，野無除草之夫，殆同歇農之時，山多採榮之婦，皆是救荒之計，年形已判慘歉，穡事更無餘望，與其未移畝之廢棄而失稅，毋寧代播穀而裕食是如，間有列邑之所報是白乎乃，國計攸關，民命所係，有不敬遽爾仰請是白乎旅，目下所見，雨意邈然，心如焚灼，莫知所措，臣又於今月初四日，更爲躬禱于公州牧神院計料，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충청도 내 농사 상황 및 결성 등 51대 고을과 군영에 기우제 시행과 이번 달 초1일 신이 몸소 공 주목 웅진에서 기우제를 지낸 연유를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결성 고을은 이미 12차례를 기한으로 기우제를 중지하였다고 합니다.

농사 상황의 경우, 마른 논에 씨앗을 뿌린 거와 올기장·올조와 섞어짓는 콩·팥 및 묵화는 날이 더할수록 마르고 그루같이한 콩·팥 및 늦기장·늦조는 싹이 나오나 말라 시들고 있다고 합니다. 들에는 김을 매는 지아비가 없어 거의 농사를 쉬는 때와 같고 산에는 나물을 캐는 아낙이 많아 모두 구황할 계책을 합니다. 농사 상황은 이미 참혹한 흉년으로 관가름나 농사가 다시 남은 가망이 없으니 차라리 아직 모내기를 하지 못한 논을 폐기하여 세를 놓치기 보다는 곡식을 대체 파종하여 넉넉하게 먹는 것이 낫다고 간혹 여러 고을은 보고하는 바가 있으나 국가의 재정과 관계되고 백성들의 생명과 관계되는 일이라 감히 선불리 삼가 요청할 수 없으며 당장 보는 바로는 비가 올 조짐이 아득하니 마음이 불에 타는듯하여 어찌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또 이번 달 4일에 다시 공주목 신원에서 몸소 기도할 지낼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 0577. 1876년(고종 13) 6월 6일(양력 7월 26일)

忠淸監營啓錄 8책(10b~11a) /各司臚錄 7책 忠淸道篇 2책(388b~388c)

道內報恩等五十一邑鎮祈雨祭設行，今月初四日臣更禱于公州牧神院緣由，已爲馳啓爲白有在果，續接各邑所報，則恩津·連山·沔川·林川·魯城等五邑，既準十二次之限，姑爲停止是如爲白遣，今月初五日申時量始雨，或霏或灑，間間霏下，至初六日卯時乃止，臣營下測雨器水深，爲二寸七分是白如乎，各邑所得，雖未知久旱，渴望之餘，得此甘霖，穡事雖有愆違之歎，民情庶免渴急之患，臣營祈雨祭，姑爲停止爲白乎旆，節序已晚，雖無餘意，既得此霖，庶望有秋，則其在勤穡之道，宜其不遺餘力，故先從未移處，相宜引水，董督趁功之意，今方關飭，而各邑所得，待其報來，鱗次陳聞計料，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충청도 내 보은 등 51개 고을과 군영에서 기우제를 시행한 것과 이번 달 초4일에 제가 몸소 공주목 신원에서 다시 기도를 드린 연유를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은진·연산·면천·임천·노성 등 5개 고을은 이미 12차례를 기한으로 기우제를 중지하였다고 합니다. 이번 달 초5일 신시쯤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더러 부슬부슬 내리거나 더러 주룩주룩 내리다가 초6월 묘시에 이르러 이내 그쳤는데, 저의 감영 측우기 수심은 2치 7푼이었습니다.

각 고을에 내린 비는 아직 알 수가 없지만 오랜 가뭄으로 비를 갈망하던 끝에 이런 단비를 얻었으니 농사가 비록 때를 어긴 탄식은 있지만 백성들이 거의 속이 달아오를 지경으로 급하던 걱정을 면하게 되었으니 저의 감영에서 시행하는 기우제는 우선 중지하였습니다. 절서가 이미 늦어 남은 가뭄이 없었으나 이미 이런 단비를 얻어 거의 가을 수확의 가뭄이 있으니 부지런히 농사를 짓는 것도 도리에 있어서 여력을 남겨서는 안되므로 우선 아직 모내기하지 못한 곳부터 서로 물을 끌어당겨 감독해서 서둘러 일을 하도록 이제 막 관문으로 지시하였습니다. 각 고을에 내린 것은 보고가 오기를 기다려 잇따라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 0578. 1876년(고종 13) 6월 7일(양력 7월 27일)

忠淸監營啓錄 8책(11a~12a) /各司臚錄 7책 忠淸道篇 2책(388c~388d)

道內燕岐等四十五邑鎮祈雨祭設行及今月初五日申時始雨，至初六日卯時，臣營下水深爲二十七分，而臣營祈雨祭停止緣由，已爲馳啓爲白有在果，續接各邑所報，則伊日之雨，公州得二犁，結〈城〉得一犁，全義·定山兩邑，得一鋤，鴻山·韓山·魯城·燕岐等四邑溫塵是如爲白遣，祈雨祭段，燕岐·木川·沃川·大興·淸州·溫陽·忠州·保寧·平薪等九邑鎮，既準十二次之限，姑爲停止是如爲白有臥乎所，久旱之餘，甘霖伊始，竊有霑然之望，乍始旋止，多寡不同，猶未均霑，節序太晚，斷無餘望，及今代播之意，邑報民訴，迭相來呈是白乎所，當此秧晚旱酷之時，倍旋〔施〕功力，掘地及泉，其所得水之方，雖無飭勉，靡不庸極，而以其時晚，慮不勤穡，故不施桔槔，若得勻水之處，則毋惜倍入之功，幸望米出之穀，使之移插，至於高操〔燥〕奉天，莫可擬議者，則不得已許令代播是白在果，在前如此之時，以還餉中相當穀，量宜助給，卽有其例，而本道還穀，以米糶糴，則亦無助施之穀是白遣，今年根耕，惱旱不苗，甚至有再耕三播之舉，窮鄙民力，難求代播之種，必多陳廢之畝是如，聽聞所及，一省同然，言念民情，萬萬罔措，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충청도 내 연기 등 45개 고을과 군영에 기우제 시행과 이번 달 초5일 신시쯤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초6일 묘시에 이르렀는데, 저의 감영 측우기 수심이 2치 7푼이었고 저의 감영에서 기우제를 중지한 연유는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그날의 비로 공주 고을은 2려가 내렸고, 결성 고을은 2려가 내렸고, 전의, 정산 등 2개 고을은 1서가 내렸고, 홍산·한산·노성·연기 등 4개 고을은 먼지만 적실 정도였다고 합니다.

기우제는 연기·옥천·목천·대흥·청주·온양·충주·보령·평신 등 9개 고을과 군영은 이미 12차례를 기한으로 기우제를 중지하였다고 합니다. 오랜 가뭄 끝에 단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시원스럽게 내려주기를 바라고 있었는데 잠깐 내리기 시작하다가 바로 그쳐 다과가 갈지 않아 오히려 골고루 적시지 못했습니다. 절서가 너무 늦어 전혀 남은 가뭄이 없으니 지금이라도 대체 파종하도록 해달라 는 고을의 보고와 민소가 번갈아 서로 올라옵니다.

모내기가 늦고 가뭄이 혹심한 때를 당하여 공력을 곱절로 베풀어 샘물이 나올 때까지 땅을 파야 하니 그 물을 얻는 방도는 직면할 수 없으나 할 수 있는 데까지 해보아야 하는데 때가 늦어서 농사를 부지런히 짓지 않을까 염려되었으므로 두레박들을 설치하지 않았습니 다. 만약 한 국자의 물이라도 나는 곳이 있으면 갑절로 들어가는 공을 아까워하지 말고 쌀이 나는 곡식을 옮겨 쪼도록 바랄 뿐입니다.

고지대의 봉천답에 이르러 의의할 만한 것이 없다면 부득이 대체 파종하도록 허락하겠지만 이전에 이와 같은 때에는 환향 가운데 상당 곡을 알맞게 도와준 전례가 있습니다. 본도의 환곡을 쌀로써 조적한다면 또한 도와서 베풀 곡식이 없고 금년에 그루같이한 것이 혹심한 가뭄으로 싹이 나지 않아 심지어 두 번이나 갈고 세 번이나 파종할 일이 있으니 불쌍한 백성들의 힘으로는 대체 파종할 곡식을 구하기도 어려워 반드시 대부분 묵혀서 버리는 논의 많다고 합니다.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본도가 마찬가지로이니 백성들의 심정을 생각하면 도무지 어찌할지 모르겠습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 0579. 1876년(고종 13) 6월 13일(양력 8월 2일)

忠淸監營啓錄 8책(13a~13b) /各司謄錄 7책 忠淸道篇 2책(389c~389d)

道內農形及德山等三十六邑祈雨祭設行, 今月初五日之雨, 公州等八邑所得分數, 已爲馳啓爲白有在果, 續接各邑所報, 則伊日之雨. 更無得雨之邑, 只有憫旱之報, 祈雨祭段, 德山·平澤·藍浦·鎭岑·牙山·槐山等六邑, 既準十二次之限, 姑爲停止是如爲白遣, 農形段, 已移之未及着根者, 日益焦枯, 難望食實, 與未移竟無異同, 付種乾播早黍粟和種, 豆太及木花, 烈焰所曝, 雨露無潤, 枯萎焦消, 根耕豆太及晚黍粟, 因乾未耕, 雖播不苗, 而村井斷源, 無水可飲, 草木枯津, 非火自焚, 四顧白壤, 一望赤地是如爲白有臥乎所, 節晚時愆, 雖無益於移秧, 一連三朔, 未有解渴之雨, 言念民情, 誠甚燥悶, 向後形止, 鱗次陳聞計料, 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충청도 내 농사 상황 및 덕산 등 36개 고을은 기우제 시행과 이번 달 초5일에 공주 등 8개 고을에 내린 양은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그날 내린 비는 별로 내린 비가 없는 고을은 가뭄으로 걱정이 심하다고 합니다. 기우제는 덕산·평택·남포·진잠·아산·괴산 등 6개 고을은 이미 12차례를 기한으로 기우제를 중지하였다고 합니다. 농사 상황은 이미 모내기를 한 중에 아직 미처 뿌리내리지 못한 것은 날로 더욱 타 말라가 열매를 먹을 가망이 없어 모내기를 하지 않은 것과 다름이 없으며 무논에 볍씨를 뿌리고 마른논에 씨앗을 뿌린 것과 올기장·올조와 섞어짓는 콩·팥과 목화는 맹렬한 피약별만 내리쬘고 이슬이 적셔주지 않아 시들거나 타서 없어지며 그루같이한 콩·팥 및 늦기장·늦조는 가뭄으로 인해 갈지 못했습니다. 비록 과중한 것도 싹이 나지 않으며 마을 우물은 근원이 끊어져 마실 물도 없고 초목은 말라 불을 붙이지 않았는데도 저절로 타며 사방을 돌아보아도 흰 흙덩이고 어디를 바라봐도 벌거숭이라고 했습니다. 절서가 늦어 때가 어긋나 모내기에 도움은 없지만 석 달 연이어 해갈할 비가 내리지 않으니 백성들의 심정을 생각하면 정말로 매우 애가 타고 걱정입니다. 이후 경위는 잇따라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0580. 1876년(고종 13) 6월 17일(양력 8월 6일)

忠淸監營啓錄 8책(13b~14a) /各司臚錄 7책 忠淸道篇 2책(389d~390a)

道內農形及禮山等三十邑祈雨祭設行之由, 已爲馳啓爲白有在果, 今月十六日申時量始雨, 或霏或灑, 至同日亥時乃止, 臣營下測雨器水深, 爲一寸七分, 而多日嘆乾之餘, 所得不過爲濕土而止, 田畝各穀, 未足爲解渴是白岔除良, 至若未移處段, 節序已晚, 秧坂盡枯, 移插一款, 更無可論是白遣, 雖以代播言之, 種子舉皆難辦, 均播亦不如意, 言念民情, 去益渴悶是白乎所, 祈雨祭段, 禮山·天安·青陽·懷德等四邑, 既準十二次之限, 姑爲停止是如爲白有臥乎所, 向後形止, 各邑所得, 待其報來, 鱗次陳聞計料, 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충청도 내 농사 상황 및 예산 등 30개 고을은 기우제를 시행한 연유는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이번 달 16일 신시쯤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더러 부슬부슬 내리거나 더러 뿌리디고 하다가 같은 날 해시에 이르러 이내 그쳤는데, 저의 감영 측우기 수심은 1치 7푼이었습니다. 여러 달 가뭄 끝에 내린 비가 불과 흙을 축일 정도뿐이니 논밭의 각종 곡식이 충분히 해갈되지 않았을 뿐더러 아직 모내기를 하지 않은 곳은 절서가 이미 늦어 못자리가 다 말랐으니 옮겨 쫓는 일은 다시 따질 가치도 없습니다. 비록 대체 파종라는 것으로 말하더라도 종자를 모두 마련하기 곤란하여 고루 파종하는 것도 뜻대로 되지 않으니 백성들의 심정을 생각하면 갈수록 애가 타고 답답합니다. 기우제는 예산, 천안, 청양, 회덕 등 4개 고을은 이미 12차례를 기한으로 기우제를 중지하였다고 합니다. 이후 경위 및 각 고을에 내린 것은 보고가 오기를 기다려 잇따라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 0581. 1876년(고종 13) 6월 23일(양력 8월 12일)

忠淸監營啓錄 8책(14a~15a) /各司臚錄 7책 忠淸道篇 2책(390a~390c)

道內農形及今月十六日之雨，公州等二十二邑所得分數，十八日午時始雨，至同日戌時乃止，  
〈臣營下測雨器〉水深爲七分形止及文義等二十一邑祈雨祭設行緣由，已爲馳啓爲白有在果，  
續接各邑所報，則十六日之雨，前啓外，德山·沔川·海美·瑞山·黃澗·燕岐·清州·鎭川·淸安·槐  
山·延豐·平薪等十二邑鎭，得一犁，木川·唐津·藍浦·保寧·永同·懷仁·陰城等七邑，得一鋤，稷  
山·新昌·靑陽·泰安·林川·結城·懷德·文義·報恩·忠州·淸風·堤川·丹陽·永春等十四邑溫塵，十  
八日之雨，鎭岑·永同兩邑，得二犁，稷山·石城·懷仁·魯城·恩津·連山·沃川·文義·燕岐等九邑，  
得一犁，公州·平澤·全義·木川·天安·鎭川等六邑，得一鋤，定山·靑陽·洪州·淸州等四邑溫塵是  
如爲白遣，農形段，汚下畚之如干早移者，隨其沾濕，間或初鋤，付種乾播早黍粟和種，豆太及  
木花之枯萎焦縮者，漸次蘇醒，耘役方始，至若硬瘠處，姑難生意，根耕豆太及晚黍粟，雖或耕  
播，節序既晚，無望食實，高燥奉天畚未移處段，逐其土宜，連爲代播是如爲白有臥乎所，亢旱  
一雨，既不優洽，立秋已過，淒風連吹，向蘇之苗，代播之穀，難望有收，言念穡事，去益悶然是  
乎旃，又於今月二十一日巳時量始雨，或霏或灑，載陰載陽，至二十二日戌時乃止，臣營下測雨  
器水深爲八分是白遣，祈雨祭段，文義·洪州·陰城·全義·泰安·公州·定山·懷仁·鎭川·淸安·延  
豐·黃澗·唐津·淸風·堤川·永春·瑞山等十七邑，既準十二次之限，姑爲停止是如爲白有臥乎所，  
向後農形及各邑雨澤，待其報來，鱗次陳聞計料，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충청도 내 농사 상황 및 이번 달 16일에 공주 등 22개 고을과 군영에 내린 양과 18일  
오시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같은 날 술시에 이르러 그쳤는데, 수심이 7푼인 경위 및  
문의 등 21대 고을의 기우제를 지낸 연유는 이미 긴급 보고합니다. 계속해서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이번 달 16일에 내린 비의 경우, 앞서 보고한 것 이외에 덕산·면천·해  
미·서산·황간·연기·청주·진천·청안·괴산·연풍·평신 등 12개 고을과 군영에 1려가 내렸고,  
목천·당진·남포·보령·영동·회인·음성 등 7개 고을은 1서가 내렸고, 직산·선창·청양·태안·  
임천·결성·회덕·문의·보은·충주·청풍·제천·단양·영춘 등 14개 고을과 군영은 먼지만 적실  
정도였다고 합니다. 18일 내린 비로 진잠·영동 등 2개 고을은 2려가 내렸고, 직산·석성·회

인·노성·은진·연산·옥천·문의·연기 등 9개 고을은 1려가 내렸고, 공주·평택·전의·목천·천안·진천 등 6개 고을은 1서가 내렸고, 정산·청양·홍주, 청주 등 4개 고을은 먼지만 적실 정도였다고 합니다.

농사 상황의 경우, 낮은 지역에 일찍 모내기를 한 논은 물기가 있는 대로 간혹 초벌 김매기를 하였고 마른 논에 씨앗을 뿌리고 올기장·올조와 섞어짓는 콩·팥 및 목화는 말라 시들어가던 것이 점차 소생하여 김매기가 막 시작되었는데 단단하고 척박한 곳에 이르러는 짐짓 소생하기 어려울 듯합니다. 그루같이한 콩·팥 및 늦기장·늦조는 비록 갈아 파종을 했지만 절후가 이미 늦어 열매는 먹을 가망이 없습니다. 높고 메마른 봉천답 가운데 아직 모내기하지 않은 곳은 그 토질에 따라 차례로 대체 파종하였습니다. 극심한 가뭄에 한차례 비가 내렸지만 이미 흡족하게 내리지 않았고 입추가 이미 지나 차가운 바람이 연일 불어와 소생하리던 싹들과 대체 파종한 곡물은 수확할 가망이 없습니다. 농사일을 말하고 생각하면 갈수록 걱정입니다.

이번 달 21일 사시쯤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더러 부슬부슬 내리거나 더러 뿌리기고 하다가 언뜻언뜻 흐리거나 별이 나다가 22일 술시에 이르러 개었는데, 저의 감영 측우기 수심은 8푼이었습니다. 기우제는 문의·홍주·음 성·전의·태안·공주·정산·회인·진천·청안·연풍·황간·당진·청풍·제천·영춘·서산 등 17개 고을은 이미 12차례를 기한으로 기우제를 중지하였다고 합니다. 이후 농사 상황 및 각 고을의 우택은 보고가 오기를 기다려 잇따라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 0582. 1876년(고종 13) 6월 27일(양력 8월 16일)

忠淸監營啓錄 8책(15a~15b) /各司謄錄 7책 忠淸道篇 2책(390c~390d)

道內石城等四邑祈雨祭設行, 今月十八日之雨鎭岑等二十一邑所得分數, 二十一日巳時始雨, 至二十一日戌時, 臣營下水深爲八分緣由, 已爲馳啓爲白有在果, 續接各邑所報, 則十八日之雨, 前啓外, 泰安·堤川·平薪等三邑鎭, 得一犁, 懷德·報恩·靑山·忠州·丹陽等五邑, 得一鋤, 二十一日之雨, 大興·洪州·德山·海美·瑞山·泰安·結城·懷仁·平澤等九邑鎭, 得二犁, 溫陽·禮山·定山·靑陽·沔川·唐津·藍浦·保寧·靑山·報恩等十邑, 得一犁, 公州·全義·木川·新昌·鴻山·庇仁·連山·沃川·文義·淸州·忠州等十一邑, 得一鋤, 天安·魯城·恩津·石城·林川·懷德·燕岐等七邑, 溫塵是如爲白遣, 祈雨祭段, 石城·鴻山·丹陽等四[三]邑, 旣準十二次之限, 靑山連得犁鋤之雨, 皆爲停止是如爲白有臥乎所, 未報邑雨澤, 待其報來, 鱗次陳聞計料, 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충청도 내 석성 등 4개 고을의 기우제 시행과 이번 달 18일에 진잠 등 21개 고을에 내린 양과 21일 사시쯤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22일 술시에 이르렀는데, 저의 감영 수심이 8푼인 연유는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그날의 비로 앞서 보고한 것 이외에 태안·제천·평신 등 3개 고을과 군영에는 1려가 내렸고, 회덕·보은·청산·충주·단양 등 5개 고을은 1서가 내렸다고 합니다. 그날의 비로 대흥·홍주·덕산·해미·서산·태안·결성·회인·평택 등 9개 고을은 2려가 내렸고, 온양·예산·정산·청양·면천·당진·남포·보령·청산·보은 등 10개 고을은 1려가 내렸고, 공주·전의·목천·신창·홍산·비인·연산·옥천·문의·청주·충주 등 11개 고을은 1서가 내렸고, 천안·노성·은진·석성·임천·회덕·연기 등 7개 고을은 먼지만 적실 정도였다고 합니다. 기우제는 석성·서산·단양 등 3개 고을은 이미 12차례를 기한으로 또 청산고을은 1려 1서정과 내려 기우제를 중지하였다고 합니다. 보고하지 않은 고을의 우택은 보고가 오기를 기다려 잇따라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 0583. 1876년(고종 13) 7월 4일(양력 8월 22일)

忠淸監營啓錄 8책(15b~16a) /各司臚錄 7책 忠淸道篇 2책(390d~391a)

道內農形及石城等四邑祈雨祭停止, 去月十八日之雨, 鎭岑等二十九邑鎭, 二十一日之雨, 大興等三十七邑鎭所得分數, 已爲馳啓爲白有在果, 續接各邑所報, 則十八日之雨, 前啓外, 更無得雨之邑, 二十一日之雨, 前啓外, 丹陽·永春兩邑, 得一犁, 稷山·平澤·牙山·韓山·舒川·永同·黃澗·鎭川·淸安·槐山·延豐·陰城·淸風·堤川等十四邑, 得一鋤, 扶餘·鎭岑兩邑沍塵是如爲白遣, 農形段, 早稻方張胚胎, 中稻莖葉敷青, 漸次茁長, 晚移尙帶秧色, 終無勃興之望, 早黍粟次第發穗, 和種豆太連爲起花, 木花間或結顆, 根耕豆太及晚黍粟, 幾盡再除草, 未移畚代播穀, 方始立苗, 而各穀之幸未焦鑠者, 今番得雨之後, 或有蘇醒之效, 凡其出於土而苟其宜於人者, 無物不歉, 無歉不慘是如爲白有臥乎所, 向後形止, 鱗次陳聞計料, 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충청도 내 농사 상황 및 석성 등 4개 고을은 기우제를 중지한 것과 지난달 18일 내린 비로 진잠 등 29개 고을과 군영과 21일 내린 비로 대흥 등 37개 고을과 군영에 내린 양은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18일에 내린 비의 경우, 앞서 보고한 것 이외에 다시 비가 내렸다는 고을은 없습니다. 21일에 내린 비의 경우, 앞서 보고한 것 이외에 단양·영춘 등 2개 고을은 1려가 내렸고, 직산·평택·아산·한산·서천·영동·황간·진천·청안·괴산·연풍·음성·청풍·제천 등 14개 고을은 1서가 내렸고, 부여·진잠 등 2개 고을은 먼지만 적실 정도였다고 합니다.

농사 상황의 경우, 올벼는 한창 알을 배고 있고 중벼는 줄기와 잎사귀가 푸른빛을 띠며 점차 싹이 자라고, 늦게 모내기를 한 것은 아직 모의 모습을 띠고 있어 끝내 쭉쭉 자라날 가망이 없습니다. 올기장·올조는 차례로 이삭이 패고, 섞어짓는 콩·팥은 연이어 꽃이 피고 목화는 간혹 다래를 맺고 그루같이한 콩·팥 및 늦기장·늦조는 거의 다 두벌매기를 하였습니다. 아직 모를 심지 않은 논에 대체 파종한 곡물은 막 싹이 돋기 시작하고 있고, 각종 곡물 가운데 다행히 타들어 가지 않은 것은 이번에 비가 내린 뒤 혹 살아날 듯합니다. 대체로 그 지역에서 나서 사람들에게 마땅한 것은 어느 곡물이건 흉년이 들지 않은 것이

없고 흉년이 드는 데 끼이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이후 경위는 잇따라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 0584. 1876년(고종 13) 7월 14일(양력 9월 1일)

忠淸監營啓錄 8책(16b~16b) /各司臚錄 7책 忠淸道篇 2책(391a~391b)

道內農形及今月初七日亥時始雨, 至初九日辰時, 臣營下測雨器水深爲八分緣由, 已爲馳啓爲白有在果, 續接各邑所報, 則大興·洪州·藍浦·恩津等四邑, 得二犁, 牙山·溫陽·新昌·林川·沃川等五邑, 得一犁, 公州·全義·木川·天安·稷山·平澤·禮山·定山·青陽·洪州·韓山·報恩·懷仁·文義·淸州·鎭川·淸安等十七邑, 得一鋤, 石城·扶餘·槐山·舒川·魯城·連山·鎭岑·懷德·燕岐等九邑浥塵是如爲白遣, 農形段, 早稻·早黍粟次第發穗, 中稻方張胚胎, 晚移秧貼地不茁, 無望成就, 和種豆太方始結穀根耕豆太晚黍粟, 連爲除草, 未移畚之代播各穀, 漸益茂成是如爲白有臥乎所, 向後形止, 鱗次陳聞計料, 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충청도 내 농사 상황 및 이번 달 초7일 해시쯤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초9일 진시에 이르렀는데, 저의 감영 측우기 수심이 8푼인 연유는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그날의 비로 대흥·홍주·남포·은진 등 4개 고을은 2려가 내렸고, 아산·온양·신창·임천·옥천 등 5개 고을은 1려가 내렸고, 공주·전의·목천·천안·직산·평택·예산·정산·청양·홍주·한산·보은·회인·문의·청주·진천·청안 등 17개 고을은 1서가 내렸고, 석성·부여·괴산·서천·노성·연산·진잠·회덕·연기 등 9개 고을은 먼지만 적실 정도였다고 합니다.

농사 상황의 경우, 올벼와 올기장·올조는 차례로 이삭이 났고 중벼는 한창 알을 배고 있고, 늦게 모내기를 한 것은 땅에 붙어 가리지 않으니 성취할 가망이 없습니다. 섞어짓는 콩·팥 및 늦기장·늦조는 연이어 김매기를 하였고 아직 모내기를 하지 않은 논에 대체 파종한 각종 곡물은 점점 더욱 무성해져 간다고 합니다. 이후 경위는 잇따라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0585. 1876년(고종 13) 7월 21일(양력 9월 8일)

忠淸監營啓錄 8책(18a~18a) /各司臚錄 7책 忠淸道篇 2책(392a~392a)

今月二十日申時量始雨，或霏或灑，間間霏下，至二十一日辰時乃止，臣營下測雨器水深爲一寸是白如乎，各邑所得，待其報來，鱗次陳聞計料，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이번 달 20일 신시쯤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부슬부슬 내리거나 뿌리기도 하다가 간간이 주룩주룩 내리다가 21일 진시에 이르러 이내 그쳤는데, 저의 감영 측우기 수심은 1치이었습니다. 각 고을에 내린 것은 보고가 오기를 기다려 잇따라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 0586. 1876년(고종 13) 8월 4일(양력 9월 21일)

忠淸監營啓錄 8책(18a~18b) /各司臚錄 7책 忠淸道篇 2책(392a~392b)

道內農形及去月二十日之雨, 溫陽等十六邑所得分數, 已爲馳啓爲白有在果, 續接各邑所報, 則伊日之雨. 前啓外, 稷山·平澤·牙山·禮山·靑陽·大興·洪州·海美·瑞山·泰安·藍浦·文義·淸安·槐山·忠州·淸風·永春·平薪等十八邑鎮, 得一犁, 德山·沔川·扶餘·韓山·舒川·保寧·結城·恩津·連山·鎭岑·永同·黃澗·靑山·報恩·懷仁·淸州·鎭川·延豐·陰城·堤川·丹陽等二十一邑, 得一鋤是如爲白遣, 農形段, 早稻·早黍粟和種, 豆太次第向熟, 中稻漸次垂穎, 根耕豆太, 代播各穀, 方始結穀, 木花間間摘取是如爲白有臥乎所, 向後形止, 鱗次陳聞計料, 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충청도 내 농사 상황 및 지난달 20일 내린 비로 온양 등 16개 고을에 내린 양은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그날의 비로 앞서 보고한 것 이외에 직산·평택·아산·예산·청양·대흥·홍주·해미·서산·태안·남포·문의·청안·괴산·충주·청풍·영춘·평신 등 18개 고을과 군영에는 1려가 내렸고, 덕산·면천·부여·한산·서천·보령·결성·은진·연산·진잠·영동·황간·청산·보은·회인·청주·진천·연풍·음성·제천·단양 등 21개 고을은 1서가 내렸다고 합니다.

농사 상황의 경우, 올벼와 올기장·올조 및 섞어짓는 콩과 팥은 차례로 익어가고 중벼는 점차 거의 열매가 들고 그루같이한 콩·팥 및 대체 파종한 각종 곡식은 이제 꼬투리를 맺기 시작하고 목화는 간간이 숨을 따서 거두고 있다고 합니다. 이후 경위는 잇따라 아될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 0587. 1876년(고종 13) 8월 14일(양력 10월 1일)

忠淸監營啓錄 8책(18b~19a) /各司謄錄 7책 忠淸道篇 2책(392b~392c)

道內農形, 已爲馳啓爲白有在果, 續接各邑所報, 則早稻·早黍粟及和種豆太, 漸次成熟, 中稻方始向黃, 而驟看似是實稔, 逼視則虛粒, 根耕豆太次第入實, 代播木麥, 蹲而不立, 花而不穀, 木花雖或摘取, 纔顚旋落, 或綻不絮, 一家所耕, 未得全正之織, 終日所摘, 難拾傾筐之盈, 而夜不降露, 頓無鼓潤之膏, 晝必噓涼, 舉<罹>枯萎之痒, 至於晚秧, 僅挿於晚雨之後, 已枯於未霜之前, 統論全省, 無往不甚, 而右沿一路, 田畝無間, 滿地草萊, 極目蕭條是如爲白遣, 公州·燕岐·定山·溫陽·扶餘·全義·木川·天安·牙山等九邑, 今月十一日霜降, 未熟之穀, 仍無餘望是如爲白有臥乎所, 向後形止, 鱗次陳聞計料, 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충청도 내 농사 상황은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올벼와 올기장·올조 및 섞어짓는 콩·팥은 점차 익어가고, 중벼는 막 누렇게 되기 시작하여 언뜻 보면 알맹이가 익은 듯하지만 가까이 보면 빈 알갱이입니다. 그루같이한 콩·팥은 차례로 알이 차고 대체 파종한 메밀은 주저앉아 서지 못하고 꽃만 피고 꼬투리를 맺지 못하며 목화는 비록 숨을 따서 거두어들이지만 알이 되자마자 떨어지고 터져서 숨이 되지 않아 한집에서 경작한 것이 옷을 찢 전필을 얻지 못하고 종일 탄 것이 광주리 구석을 채울 만큼도 줍기 어려우며 밤에는 이슬이 내리지 않아 도무지 윤택하게 적셔줄 기름이 없고 낮에는 서늘한 바람이 불어 모두 시드는 병에 걸렸습니다. 늦게 모내기를 한 것은 늦은 비가 온 뒤에 겨우 꽃아 서리가 내려 기도 전에 이미 말랐으니 통틀어 전체를 논하면 어디를 가든 심하지 않은 곳이 없는 데 우연 일로는 논밭이 차이가 없이 온 땅에 잡초가 가득하여 눈길 닿는 데까지 을씨년스럽다고 합니다. 공주·연기·정산·온양·부여·전의·목천·천안·아산 등 9개 고을은 이번 달 11일에 서리가 내려 아직 익지 못한 곡식은 앞으로 가망이 없다고 합니다. 이후 경위는 잇따라 아될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 0588. 1876년(고종 13) 8월 21일(양력 10월 8일)

忠淸監營啓錄 8책(19a~19b) /各司臚錄 7책 忠淸道篇 2책(392c~392d)

道內農形及公州等九邑霜降緣由, 已爲馳啓爲白有在果, 續接各邑所報, 則恩津·海美·德山·洪州·鎭岑·報恩·文義·懷仁·結城·連山·淸州·靑陽·稷山·魯城·石城·保寧·唐津·大興·沔川·沃川·靑山·淸安·鴻山·丹陽·忠州·平澤·槐山·永同·藍浦·黃澗·陰城·鎭川·韓山·懷德·舒川等三十五邑, 今月十一日夜霜降是如爲白遣, 農形段, 旱以終始, 所謂移種, 百不存一, 而霜又早急, 方花之種, 將熟之穀, 遽成白藁, 統而言之, 沿峽無間, 已判慘歉是白如乎, 列邑分等, 酌量磨鍊, 迫于登聞計料, 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충청도 내 농사 상황 및 공주 등 9개 고을에 서리가 내린 연유는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은진·해미·덕산·홍주·진잠·보은·문의·회인·결성·연산·청주·청양·직산·노성·석성·보령·당진·대흥·면천·옥천·청산·청안·홍산·단양·충주·평택·괴산·영동·남포·황간·음성·진천·한산·회덕·서천 등 35개 고을은 이번 달 11일 밤에 서리가 내렸다고 합니다. 농사 상황의 경우, 처음부터 끝까지 가뭄이 들어 모내기했다고는 하나 백에 하나도 남지 않은데 게다가 서리가 또 일찍 내려서 막 꽃이 피리는 종자와 익어가려는 곡물들이 갑자기 흰 쭉처럼 되어버렸습니다. 통틀어 물가나 산골짜기가 차이가 없어 이미 참담한 흉년이 들 것으로 판가름 났습니다. 여러 고을의 등급은 수량을 짐작하고 마련하여 추가로 보고할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0589. 1876년(고종 13) 2월 13일(양력 3월 27일)

忠淸監營啓錄 8책(39b~39b) /各司騰錄 7책 忠淸道篇 2책(403d~403d)

勸農一事，歲首綸音，不啻懇摯，其所對揚，尤宜警惕乙仍于，助給役糧，勸借農器，俾各服勤，期有實效之意，已爲措辭關飭於列邑守宰處爲白有在果，近接各邑所報，則農形段，秋麴今始敷青，春麴間或耕播，治墜修堤，次第經紀是如爲白遣，今月十二日辰時量始雨，或霏或灑，至同日申時開霽，臣營下測雨器水深爲五分是白如乎，各邑所得，向後農形，鱗次陳聞計料，緣由馳啓爲白臥乎事。〔各司騰錄7 忠淸道篇2 四〇三〕

농사를 권장하는 한 가지 일에 대해 연초에 내린 임금님의 율음은 간곡할 뿐만 아니었으니 받들어 널리 알리는 일은 더욱 경각심을 가져야 마땅합니다. 일과 양식을 도와주고 농기구를 빌려주도록 권하여 각각 부지런히 일하도록 하여 꼭 실제적인 효과를 거두라는 뜻으로 이미 말을 만들어 여러 고을의 수령에게 단단히 지시했습니다.

요즘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농사 상황의 경우, 가을보리는 이제 푸른빛을 띠기 시작하였고 봄보리는 간혹 땅을 갈고 씨앗을 뿌렸습니다. 밭두둑을 고치고 둑을 만드는 일을 차례로 추진한다고 합니다. 이번 달 12일 진시쯤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더러 부슬부슬 내리거나 더러 뿌리다가 같은 날 신시에 이르러 개었는데, 저의 감영 측우기 수심은 5푼이었습니다. 각 고을에 내린 것과 이후 농사 상황은 잇따라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충청도 2-403]

0590. 1876년(고종 13) 2월 23일(양력 4월 6일)

忠淸監營啓錄 8책(39b~40a) /各司臚錄 7책 忠淸道篇 2책(403d~404a)

道內農形及今月十二日辰時始雨，至同日申時開霽，臣營下水深爲五分緣由，已爲馳啓爲白有在果，續接各邑所報，則伊日之雨，洪州·保寧·沃川·永同等四邑，得一鋤，公州·稷山·牙山·定山·扶餘·鴻山·魯城·連山·淸州等九邑，浥塵是如爲白遣，農形段，秋耨漸益敷青，春耨幾盡耕播，糞田鑿畚，間或始役是如爲白有臥乎所，向後形止，鱗次陳聞計料，緣由馳啓爲白臥乎事。

충청도 내 농사 상황 및 이번 달 12일 진시쯤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같은 날 신시에 이르러 개었는데, 저의 감영 수심이 5푼인 연유는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그날의 비로 홍주·보령·옥천·영동 등 4개 고을은 1서가 내렸고, 공주·직산·아산·정산·부여·홍산·노성·연산·청주 등 9개 고을은 먼지만 적실 정도였다고 합니다.

농사 상황의 경우, 겨울보리는 점차 더욱 푸른빛을 띠었고 봄보리는 거의 다 같이 파종을 하고 밭과 논에는 거름을 뿌렸으며 일을 시작하였다고 합니다. 이후 경위는 잇따라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0591. 1876년(고종 13) 2월 25일(양력 4월 8일)

忠淸監營啓錄 8책(40a~40a) /各司臚錄 7책 忠淸道篇 2책(404a~404a)

今月二十四日辰時量始雨，或霏或灑，間間霏下，至二十五日卯時乃止，臣營下測雨器水深，爲二寸是白如乎，各邑所得，待其報來，鱗次陳聞計料，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이번 달 25일 진시쯤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부슬부슬 가랑비가 내리기도 하고 혹 소나기가 내리다가 25일 묘시에 이르러 이내 그쳤는데, 저의 감영 측우기 수심은 2치이었습니  
다. 각 고을에 내린 것은 보고가 오기를 기다려 잇따라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0592. 1876년(고종 13) 2월 28일(양력 4월 11일)

忠淸監營啓錄 8책(40b~40b) /各司臚錄 7책 忠淸道篇 2책(404b~404b)

今月二十四日辰時量始雨，至二十五日卯時，臣營下水深爲二寸緣由，已爲馳啓爲白有在果，續接各邑所報，則伊日之雨。公州·全義·大興·洪州·德山·文義等六邑，得一犁，扶餘·石城·魯城等三邑，得一鋤是如爲白遣，又於今月二十六日卯時量始雨，或霏或灑，間間霑下，至二十七日午時開霽，臣營下測雨器水深爲三寸是白如乎，各邑所得，待其報來，鱗次陳聞計料，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이번 달 24일 진시쯤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25일 묘시에 이르러 그쳤는데 측우기 수심이 2치인 연유는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그날의 비로, 전의·대흥·홍주·덕산·문의 등 6개 고을은 1려가 내렸고, 부여·석성·노성 등 3개 고을은 1서가 내렸다고 합니다. 이번 달 26일 묘시쯤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더러 부슬부슬 내리거나 더러 뿌리다가 간간이 주룩주룩 내리다가 27일 오시에 이르러 개었는데, 저의 감영 측우기 수심은 3치이었습니다. 각 고을에 내린 것은 보고가 오기를 기다려 잇따라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0593. 1876년(고종 13) 3월 3일(양력 4월 16일)

忠淸監營啓錄 8책(43a~43b) /各司臚錄 7책 忠淸道篇 2책(405b~405d)

道內農形及去月二十四日之雨, 公州等九邑所得分數, 二十六日卯時始雨, 至二十七日午時開霽, 臣營下水深爲三寸緣由, 已爲馳啓爲白有在果, 續接各邑所報, 則二十四日之雨, 前啓外, 木川·溫陽·靑陽·瑞山·鴻山·庇仁·保寧·結城·連山·鎭岑·靑山·燕岐·槐山·延豐·平薪等十五邑鎭, 得一犁, 牙山·新昌·禮山·定山·沔川·唐津·海美·泰安·藍浦·懷德·沃川·永同·黃澗·報恩·懷仁·鎭川·靑安·陰城·忠州·靑風·堤川·丹陽·永春等二十三邑, 得一鋤, 天安·平澤·稷山·林川·韓山·舒川·恩津·靑州等八邑, 浥塵, 二十六日之雨, 公州·鴻山·懷仁等三邑, 得二犁, 全義·牙山·禮山·定山·靑陽·大興·洪州·扶餘·石城·韓山·舒川·鎭川·懷德·燕岐·靑州·鎭岑·靑安等十七邑, 得一犁, 稷山·德山·沔川·林川·魯城·沃川·恩津·連山等八邑, 得一鋤是如爲白遣, 農形段, 秋粳漸次向長, 春粳次第立苗, 鍾役方張爲之, 秧坂間或翻耕是如爲白有臥乎所, 向後形止, 鱗次陳聞計料, 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충청도 내 농사 상황 및 지난달 24일 내린 비로 공주 등 9개 고을에 내린 양과 26일 묘시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27일 오시에 이르러 개었는데, 저의 감영 수심이 3치인 연유는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지난달 24일 내린 비의 경우, 앞서 보고한 것 이외에 목천·온양·청양·서산·홍산·비인·보령·결성·연산·진잠·청산·연기·괴산·연풍·평신 등 15개 고을과 군영에는 1려가 내렸고, 아산·신창·예산·정산·면천·당진·해미·태안·남포·회덕·옥천·영동·황간·보은·회인·진천·청안·음성·충주·청풍·제천·단양·영춘 등 23개 고을은 1서가 내렸고, 천안·평택·직산·임천·한산·서천·은진·청주 등 8개 고을은 먼지만 적실 정도였다고 합니다. 26일 내린 비로 공주·홍산·회인 등 3개 고을은 2려가 내렸고, 전의·아산·예산·정산·청양·대흥·홍주·부여·석성·한산·서천·진천·회덕·연기·청주·진잠·청안 등 17개 고을은 1려가 내렸고, 직산·덕산·면천·임천·노성·옥천·은진·연산 등 8개 고을은 1서가 내렸다고 합니다.

농사 상황의 경우, 가을보리는 점차 자라고 봄보리는 차례로 싹이 트고, 가래질이 한창이고 못자리는 간혹 갈아엎었다고 합니다. 이후 경위는 잇따라 아될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 0594. 1876년(고종 13) 3월 5일(양력 4월 18일)

忠淸監營啓錄 8책(43b~44a) /各司臚錄 7책 忠淸道篇 2책(405d~405d)

去月二十六日之雨, 公州等二十八邑所得分數, 已爲馳啓爲白有在果, 續接各邑所報, 則伊日之雨, 前啓外, 溫陽·新昌·庇仁·藍浦·保寧·結城·永同·黃澗·靑山·報恩·平澤·文義·槐山·延豐·忠州·陰城·淸風·堤川·丹陽·永春·平薪等二十邑鎮, 得一犁, 木川·天安·唐津·海美·瑞山·泰安等六邑, 得一鋤是如爲白遣, 今月初三日戌時量始雨, 或霏或灑, 間間霑下, 至初四日午時開霽, 臣營下測雨器水深爲一寸二分是白如乎, 各邑所得, 待其報來, 鱗次陳聞計料, 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지난달 26일 공주 등 28개 고을에 내린 양은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그날의 비로 앞서 보고한 것 이외에 온양·신창·비인·남포·보령·결성·영동·황간·청산·보은·평택·문의·괴산·연풍·충주·음성·청풍·제천·단양·영춘·평신 등 20개 고을과 군영은 1려가 내렸고, 목천·천안·당진·해미·서산·태안 등 6개 고을은 1서가 내렸다고 합니다. 이번 달 초3일 술시쯤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더러 부슬부슬 내리거나 더러 뿌리다가 간간이 주룩주룩 내리다가 초4일 오시에 이르러 개었는데, 저의 감영 측우기 수심은 1치 2푼이었습니다. 각 고을에 내린 것은 보고가 오기를 기다려 잇따라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0595. 1876년(고종 13) 3월 13일(양력 4월 26일)

忠淸監營啓錄 8책(44a~44b) /各司臚錄 7책 忠淸道篇 2책(406a~406a)

道內農形及今月初三日之雨，公州等二十五邑所得分數，已爲馳啓爲白有在果，續接各邑所報，則伊日之雨。前啓外，結城·文義·淸安·槐山·延豐·永春等六邑，得一犁，德山·沔川·唐津·海美·韓山·泰安·連山·沃川·永同·黃澗·靑山·報恩·懷仁·陰城·淸風·忠州·堤川·丹陽·平薪等十九邑鎮，得一鋤，天安·稷山·平澤·溫陽·鎭岑等五邑，浥塵，農形段，秋甦漸次向茂，春甦方始敷靑，鋤役或至了畢，秧坂間或始役是如爲白遣，今月十一日丑時量始雨，或霏或灑，間間霑下，至十三日午時，臣營下測雨器水深爲四寸二分是白如乎，向後形止，鱗次陳聞計料，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충청도 내 농사 상황 및 이번 달 초3일 공주 등 25개 고을에 내린 양은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그날의 비로 앞서 보고한 것 이외에 결성·문의·청안·괴산·연풍·영춘 등 6개 고을은 는 1려가 내렸고, 덕산·면천·당진·해미·한산·태안·연산·옥천·영동·황간·청산·보은·회인·음성·청풍·충주·제천·단양·평신 등 19개 고을과 군영은 1서가 내렸고, 천안·직산·평택·온양·진잠 등 5개 고을은 먼지만 적실 정도였다고 합니다.

농사 상황의 경우, 가을보리는 점차 무성해가고 봄보리는 이제 푸른빛을 띠기 시작하였고 가래질은 더러 끝났고 못자리는 간혹 일이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이번 달 11일 축시쯤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더러 부슬부슬 내리거나 더러 뿌리다가 간간이 주룩주룩 내리다가 13일 오시에 이르러 그쳤는데, 저의 감영 측우기 수심은 4치 2푼이었습니다. 이후 경위는 잇따라 아뿔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 0596. 1876년(고종 13) 3월 18일(양력 5월 1일)

忠淸監營啓錄 8책(44b~45a) /各司臚錄 7책 忠淸道篇 2책(406a~406b)

今月十一日丑時量始雨，至十三日午時，臣營下水深爲四寸二分緣由，已爲馳啓爲白有在果，續接各邑所報，則伊日之雨。公州·靑陽·保寧·鎭岑·靑山·延豐等六邑，川渠漲滿，定山·大興·全義·木川·禮山·新昌·扶餘·藍浦·燕岐·淸州·淸安·陰城等十二邑，得二犁，天安·稷山·平澤·牙山·洪州·海美·鴻山·魯城·永同·懷仁·文義·鎭川等十二邑，得一犁，德山·沔川·石城·林川·舒川·連山·沃川·報恩等八邑，得一鋤是如爲白遣，又於今月十七日午時量始雨，或霏或灑，至同日戌時乃止，臣營下測雨器水深，爲二寸七分是白如乎，各邑所得，待其報來，鱗次陳聞計料，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이번 달 11일 축시쯤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13일 오시에 이르렀는데, 저의 감영 수심이 4치 2푼인 연유는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그날의 비로 공주·청양·보령·진잠·청산·연풍 등 6개 고을은 시내와 도랑이 불어나 넘쳤고, 정산·대흥·전의·목천·예산·신창·부여·남포·연기·청주·청안·음성 등 12개 고을은 2려가 내렸고, 천안·직산·평택·아산·홍주·해미·홍산·노성·영동·회인·문의·진천 등 12개 고을은 1려가 내렸고, 덕산·면천·석성·임천·서천·연산·옥천·보은 등 8개 고을은 1서가 내렸다고 합니다. 이번 달 17일 오시쯤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더러 부슬부슬 내리다가 더러 뿌리다가 같은 날 술시에 이르러 이내 그쳤는데, 저의 감영 측우기 수심은 2치 7푼이었습니다. 각 고을에 내린 것은 보고가 오기를 기다려 잇따라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 0597. 1876년(고종 13) 3월 23일(양력 5월 6일)

忠淸監營啓錄 8책(45a~45b) /各司謄錄 7책 忠淸道篇 2책(406b~406d)

道內農形及今月十一日之雨, 公州等三十八邑所得分數, 十七日午時量始雨, 至同日戌時, 臣營下水深爲二寸七分緣由, 已爲馳啓爲白有在果, 續接各邑所報, 則十一日之雨, 前啓外, 懷德·黃澗·丹陽等三邑, 川渠漲滿, 瑞山·結城兩邑, 得二犁, 溫陽·韓山·庇仁·槐山·忠州·堤川·永春·平薪等八邑鎮, 得一犁, 唐津·泰安·恩津·淸風等四邑, 得一鋤是如爲白遣, 十七日之雨, 淸陽·燕岐·鎭川等三邑, 川渠漲滿, 公州·全義·木川·溫陽·大興·洪州·藍浦等七邑, 得二犁, 稷山·牙山·新昌·定山·德山·瑞山·林川·庇仁·結城·魯城·懷德·懷仁·忠州等十三邑, 得一犁, 扶餘·石城·鴻山·恩津·沃川·永同·淸風等七邑, 得一鋤, 農形段, 秋楚間或胚胎, 春楚漸次向長, 注秧付種方始爲之是如爲白遣, 又於今月二十一日卯時量始雨, 或霏或灑, 間間霑下, 至二十二日酉時乃止, 臣營下測雨器水深, 爲五寸九分是白如乎, 向後農形及各邑所得, 待其報來, 鱗次陳聞計料, 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충청도 내 농사 상황 및 이번 달 11일 공주 등 38개 고을에 내린 양과 17일 오시쯤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같은 날 술시에 이르렀는데, 저의 감영 수심이 2치 7푼인 연유는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이번 달 11일 내린 비는 앞서 보고한 것 이외에 회덕·황간·단양 등 3개 고을은 시내와 도랑이 불어나 가득 찼고, 서산·결성 등 2개 고을은 2려가 내렸고, 온양·한산·비인·괴산·충주·제천·영춘·평신 등 8개 고을과 군영에 1려가 내렸고, 당진·태안·은진·청풍 등 4개 고을은 1서가 내렸다고 합니다. 17일 내린 비로 청양·연기·진천 등 3개 고을은 시내와 도랑이 불어나 가득 찼고, 공주·전의·목천·온양·대흥·홍주·남포 등 7개 고을은 2려가 내렸고, 직산·아산·신창·정산·덕산·서산·임천·비인·결성·노성·회덕·회인·충주 등 13개 고을은 1려가 내렸고, 부여·석성·홍산·은진·옥천·영동·청풍 등 7개 고을은 1서가 내렸다고 합니다.

농사 상황의 경우, 가을보리는 간혹 알을 배고 있고 봄보리는 점차 자라고 모판에 물을 대고 법씨를 뿌리는 일을 이제 시작하였다고 합니다. 이번 달 21일 묘시쯤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더러 부슬부슬 내리거나 더러 뿌리다가 간간이 주룩주룩 내리다가 22일 유시에

이르러 이내 그쳤는데, 저의 감영 측우기 수심은 5치 9푼이었습니다. 이후 농사 상황 및 각 고을에 내린 것은 보고가 오기를 기다려 잇따라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 0598. 1876년(고종 13) 4월 4일(양력 5월 16일)

忠淸監營啓錄 8책(45b~46a) /各司謄錄 7책 忠淸道篇 2책(406d~407a)

道內農形及去月二十一日之雨, 公州等三十八邑所得分數, 二十八日辰時始雨, 至二十九日戌時, 臣營下水深爲三寸二分緣由, 已爲馳啓爲白有在果, 續接各邑所報, 則二十一日之雨, 前啓外, 黃澗·靑山·延豐·丹陽等四邑川渠漲滿, 海美·瑞山·泰安·庇仁·保寧·結城·陰城·槐山·堤川·永春·平薪等十一邑鎮, 得一犁, 忠州·淸風兩邑, 得一鋤是如爲白乎旆, 二十八日之雨, 公州·溫陽·靑陽·洪州·海美·藍浦·懷仁等七邑, 川渠漲滿, 全義·木川·天安·稷山·平澤·禮山·大興·德山·沔川·唐津·海美·結城·沃川·懷仁·文義·燕岐·淸州等十七邑, 得二犁, 新昌·定山·扶餘·林川·石城·鴻山·韓山·舒川·庇仁·魯城等十邑, 得一犁, 恩津·連山·鎭岑·陰城等四邑, 得一鋤是如爲白遣, 農形段, 秋麴次第發穗, 春麴方張胚胎, 畚庫方始翻耕, 注秧付種幾皆爲之是如爲白有臥乎所, 向後形止, 鱗次陳聞計料, 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충청도 내 농사 상황 및 지난달 21일 내린 비로 공주 등 38개 고을에 내린 양과 28일 진시쯤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29일 술시에 이르렀는데, 저의 감영 측우기 수심이 3치 2푼인 연유는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21일 내린 경우, 앞서 보고한 것 이외에 황간·청산·연풍·단양 등 4개 고을은 시내와 도랑이 불어나 넘쳤고, 해미·서산·태안·비인·보령·결성·음성·괴산·제천·영춘·평신 등 11개 고을과 군영은 1려가 내렸고, 충주·청풍 등 2개 고을은 1서가 내렸다고 합니다. 28일 내린 비로 공주·온양·청양·홍주·해미·남포·회인 등 7개 고을은 시내와 도랑이 불어나 가득 찼고, 전의·목천·천안·직산·평택·예산·대흥·덕산·면천·당진·해미·결성·옥천·회인·문의·연기·청주 등 17개 고을은 2려가 내렸고, 신창·정산·부여·임천·석성·홍산·한산·서천·비인·노성 등 10개 고을은 1려가 내렸고, 은진·연산·진잠·음성 등 4개 고을은 1서가 내렸다고 합니다.

농사 상황의 경우, 가을보리는 차례로 이삭이 패고 봄보리는 한창 알을 배고 있고, 논은 이제 갈아엎기 시작하였고, 못자리에 물을 대고 벼씨를 뿌리는 것은 거의 다 하였다고 합니다. 이후 경위는 잇따라 아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0599. 1877년(고종 14) 4월 24일(양력 6월 5일)

忠淸監營啓錄 8책(46a~46b) /各司臚錄 7책 忠淸道篇 2책(407a~407b)

道內農形及今月十九日戌時量驟雨，臣營下水深爲一寸緣由，已爲馳啓爲白有在果，續接各邑所報，則伊日之雨，公州·禮山·德山等三邑，得一犁，平澤·新昌·定山·青陽·大興·唐津等七邑，得一鋤，稷山·魯城·林川等三邑泥塵是如爲白遣，農形段，秋麴幾皆入實，春麴次第發穗，注秧付種漸次向長，早黍粟和種，豆太及木花，方始初鋤是如爲白有臥乎所，向後形止鱗次陳聞計料，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충청도 내 농사 상황 및 이번 달 19일 술시쯤 소나기가 내렸는데, 저의 감영 수심이 1치인 연유는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그날의 비로 공주·예산·덕산 등 3개 고을은 1려가 내렸고, 평택·신창·정산·청양·대흥·당진 등 7개 고을은 1서가 내렸고, 직산·노성·임천 등 3개 고을은 먼지만 적실 정도였다고 합니다. 농사 상황의 경우, 가을보리는 거의 다 알이 차고 봄보리는 차례로 이삭이 패고 못자리에 물을 대고 벼씨를 뿌린 것은 점차 자라가고 올기장·올조와 섞어짓는 콩·팥 및 목화는 이제 초벌 김매기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후 경위는 잇따라 아될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0600. 1877년(고종 14) 4월 28일(양력 6월 9일)

忠淸監營啓錄 8책(46b~46b) /各司臚錄 7책 忠淸道篇 2책(407b~407b)

今月二十七日寅時量始雨，或霏或灑，間間霑下，至同日戌時開霽，臣營下測雨器水深爲二寸是白如乎，各邑所得，待其報來，鱗次陳聞計料，緣由馳啓爲白臥乎事。

이번 달 27일 인시쯤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더러 부슬부슬 내리거나 더러 뿌리다가 간간이 주룩주룩 내리다가 같은 날 술시에 이르러 개었는데, 저의 감영 측우기 수심은 2치이었습니다. 각 고을에 내린 것은 보고가 오기를 기다려 잇따라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 0601. 1877년(고종 14) 5월 5일(양력 6월 15일)

忠淸監營啓錄 8책(46b~47a) /各司臚錄 7책 忠淸道篇 2책(407b~407c)

道內農形及去月二十七日寅時始雨，至同日戌時開霽，臣營下水深爲二寸緣由，已爲馳啓爲白有在果，續接各邑所報，則伊日之雨，公州·洪州·韓山·永同·鎭川等五邑，得二犁，全義·木川·天安·稷山·平澤·牙山·溫陽·禮山·定山·靑陽·大興·德山·石城·鴻山·沃川·懷仁·淸州等十七邑，得一犁，新昌·扶餘·魯城·恩津·連山·鎭岑·懷德·文義·燕岐·淸安·陰城等十一邑，得一鋤是如爲白遣，農形段，秋耨幾皆向熟，春耨次第入實，畚庫間或移秧，付種乾播，方始初鋤，早黍粟和種，豆太及木花，漸次初除草是如爲白有臥乎事，向後形止，鱗次陳聞計料，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충청도 내 농사 상황 및 지난달 4월 27일 인시쯤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당을 술시에 이르러 개었는데, 저의 감영 수심이 2치인 연유는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그날의 비로 공주·홍주·한산·영동·진천 등 5개 고을은 2려가 내렸고, 전의·목천·천안·직산·평택·아산·온양·예산·정산·청양·대흥·덕산·석성·홍산·옥천·회인·청주 등 17개 고을은 1려가 내렸고, 신창·부여·노성·은진·연산·진잠·회덕·문의·연기·청안·음성 등 11개 고을은 1서가 내렸다고 합니다.

농사 상황의 경우, 가을보리는 거의 다 익었고 봄보리는 차례로 열매가 들고 논은 간혹 모내기를 하였고 무논에 벼씨를 뿌리고 마른논에 씨앗을 뿌린 것은 이제 초벌 김매기를 시작하였고 올기장·올조와 섞어짓는 콩·팥 및 목화는 점차 초벌 김매기를 하였다고 합니다. 이후 경위는 잇따라 아될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0602. 1877년(고종 14) 5월 12일(양력 6월 22일)

忠淸監營啓錄 8책(47a~47b) /各司謄錄 7책 忠淸道篇 2책(407c~407d)

去月二十七日之雨，公州等三十三邑所得分數，已爲馳啓爲白有在果，續接各邑所報，則伊日之雨，前啓外，沔川·唐津·海美·林川·舒川·庇仁·藍浦·結城·黃澗·槐山·延豐·忠州·丹陽·永春·平薪等十五邑鎮，得一犁，瑞山·泰安·保寧·靑山·報恩·淸風·堤川等七邑，得一鋤是如爲白遣，又於今月初十日辰時量始雨，或霏或灑，間間霑下，至十二日午時，臣營下測雨器水深，爲三寸二分是白如乎，各邑所得，待其報來，鱗次陳聞計料，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지난달 4월 27일 공주 등 33개 고을에 내린 양은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그날의 비로 앞서 보고한 것 이외에 면천·당진·해미·임천·서천·비인·남포·결성·황간·괴산·연풍·충주·단양·영춘·평신 등 15개 고을과 군영은 1려가 내렸고, 서산·태안·보령·청산·보은·청풍·제천 등 7개 고을은 1서가 내렸다고 합니다. 또 이번 달 초10일 진시쯤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더러 부슬부슬 내리거나 뿌리기도 하다가 간간이 주룩주룩 내리다가 12일 오시에 이르러 그쳤는데, 저의 감영 측우기 수심은 3치 2푼이었습니다. 각 고을에 내린 것은 보고가 오기를 기다려 잇따라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 0603. 1877년(고종 14) 5월 15일(양력 6월 25일)

忠淸監營啓錄 8책(47b~48a) /各司臚錄 7책 忠淸道篇 2책(407d~408a)

道內農形及今月初十日辰時始雨,至十二日午時,臣營下水深爲三寸二分緣由,已爲馳啓爲白有在果,續按各邑所報,則伊日之雨,沃川·永同·靑山等三邑,川渠漲滿,公州·平澤·牙山·禮山·洪州·沔川·海美·石城·鎭岑等九邑,得二犁,全義·木川·天安·溫陽·新昌·定山·靑陽·大興·德山·藍浦·懷仁·文義·燕岐·淸州·鎭川等十五邑,得一犁,扶餘·舒川·庇仁·鴻山·林川·韓山·魯城·恩津·連山等九邑,得一鋤是如爲白遣,又於今月十四日戌時量始雨,或霏或灑,間間霑下,至十五日申時,臣營下測雨器水深爲五寸是白乎旂.農形段,秋粃次第刈穫,春粃幾皆向熟,畚庫方張移秧,付種乾播,初鋤垂畢,早黍粟和種,豆太及木花,間或再除草是如爲白有臥乎所,向後形止,鱗次陳聞計料,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충청도 내 농사 상황 및 이번 달 초10일 진시쯤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12일 오시에 이르렀는데, 저의 감영 수심이 3치 2푼인 연유는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그날의 비로 옥천·영동·청산 등 3개 고을은 시내와 도랑이 불어나 넘쳤고, 공주·평택·아산·예산·홍주·면천·해미·석성·진잠 등 9개 고을은 1려가 내렸고, 전의·목천·천안·온양·신창·정산·청양·대흥·덕산·남포·회인·문의·연기·청주·진천 등 15개 고을은 1려가 내렸고, 부여·서천·비인·홍산·임천·한산·노성·은진·연산 등 9개 고을은 1서가 내렸다고 합니다. 이번 달 14일 술시쯤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더러 부슬부슬 내리거나 더러 뿌리다가 간간이 주룩주룩 내리다가 15일 신시에 이르러 그쳤는데, 저의 감영 측우기 수심은 5치였었습니다.

농사 상황의 경우, 가을보리는 차례로 베어 거두었고 봄보리는 거의 다 익어가고 논은 한창 모내기를 하였고, 무논에 벼씨를 뿌리고 마른논에 씨앗을 뿌린 것은 초벌 김매기를 거의 끝냈고 올기장·올조와 섞어짓는 콩·팥 및 목화는 간혹 두벌매기를 하였다고 합니다. 이후 경위는 잇따라 아될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 0604. 1877년(고종 14) 5월 21일(양력 7월 1일)

忠淸監營啓錄 8책(48a~48b) /各司臚錄 7책 忠淸道篇 2책(408a~408b)

今月初十日之雨, 沃川等三十六邑所得分數及十四日戌時量始雨, 至十五日申時, 臣營下水深爲五寸緣由, 已爲馳啓爲白有在果, 續接各邑所報, 則初十日之雨, 前啓外, 懷德·黃澗·延豐·淸風等四邑, 川渠漲滿, 稷山·唐津·槐山·平薪等四邑鎭, 得二犁, 瑞山·泰安·保寧·結城·報恩·淸安·陰城·忠州·堤川·丹陽·永春等十一邑, 得一犁是如爲白遣, 十四日之雨, 公州·報恩·懷仁·文義·燕岐·槐山等六邑, 川渠漲滿全義·木川·稷山等三邑, 得二犁, 定山·淸陽·扶餘·石城·淸州·陰城等六邑, 得一犁是如爲白乎旆, 又於今月十七日申時量始雨, 或霏或灑, 間間霑下, 至二十一日辰時, 臣營下測雨器水深爲三寸五分是白如乎, 各邑所得, 待其報來, 鱗次陳聞計料, 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이번 달 초10일 옥천 등 26개 고을에 내린 강우량과 14일 술시쯤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15일 진시에 이르렀는데, 저의 감영 측우기 수심이 5치인 연유는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초10일에 내린 비의 경우, 앞서 보고한 것 이외에 회덕·황간·연풍·청풍 등 4개 고을은 시내와 도랑이 불어나 가득 찼고, 직산·당진·괴산·평신 등 4개 고을 진에는 2려가 내렸고, 서산·태안·보령·결성·보은·청안·음성·충주·제천·단양·영춘 등 11개 고을은 1려가 내렸다고 합니다. 14일의 비로 공주·보은·회인·문의·연기·괴산 등 6개 고을은 시내와 도랑이 넘치도록 비가 내렸고, 전의·목천·직산 등 3개 고을은 2려가 내렸고, 정산·청양·부여·석성·청주·음성 등 6개 고을은 1려가 내렸다고 합니다. 이번 달 17일 신시쯤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더러 부슬부슬 내리거나 더러 뿌리다가 간간이 주룩주룩 내리다가 21일 진시에 이르렀는데, 저의 감영 측우기 수심은 3치 5푼이었습니다. 각 고을에 내린 것은 보고가 오기를 기다려 잇따라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 0605. 1877년(고종 14) 5월 24일(양력 7월 4일)

忠淸監營啓錄 8책(48b~49a) /各司臚錄 7책 忠淸道篇 2책(408b~408d)

道內農形及今月十四日之雨, 公州等二十七邑所得分數, 十七日之雨, 至二十一日辰時, 溫陽等十二邑所得分數, 已爲馳啓爲白有在果, 續接各邑所報, 則十四日之雨, 前啓外, 連山·鎮岑·沃川·永同·黃澗·靑山等六邑, 得二犁, 平澤·溫陽·新昌·鎮川·靑安·延豐·靑風·堤川·丹陽·永春等十邑, 得一犁, 洪州·海美·德山·沔川·唐津·瑞山·泰安·鴻山·韓山·庇仁·保寧·平薪等十二邑鎮, 得一鋤是如爲白遣, 十七日之雨, 前啓外, 木川·稷山·平澤·牙山·新昌·定山·大興·洪州·德山·沔川·唐津·海美·瑞山·泰安·林川·魯城·恩津·連山·懷德·沃川·永同·黃澗·靑山·報恩·懷仁·文義·燕岐·靑州·鎮川·陰城·槐山·延豐·忠州·靑風·堤川·丹陽·永春·平薪等三十八邑鎮, 川渠漲滿, 韓山·舒川·庇仁·保寧·結城等五邑, 得一犁是如爲白乎跡, 二十一日辰時以後, 連爲連翳, 間間霏微, 別無分數之可論, 而至二十四日戌時, 一急霖下, 至二十五日午時, 臣營下測雨器水深, 又爲四寸是白遣, 農形段, 秋麴幾盡登場, 春麴次第刈穫, 付種乾播, 間或再鋤, 早稻·早黍粟和種, 豆太及木花, 連爲除草, 晚黍粟根耕豆太, 方始耕播是白如乎, 何乃知時之雨, 反成彌月之霖, 纔插之秧, 無地着根, 未收之麥, 棲畝生芽, 已是可悶, 而可耘之苗, 當播之穀, 滯雨停役, 坐待愆期, 爲民事誠切悶然, 向後形止, 鱗次陳聞計料, 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충청도 내 농사 상황 및 이번 달 14일 공주 등 27개 고을에 내린 양과 17일에 비가 내려 21일 진시까지 온양 등 12개 고을에 내린 양은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그날의 비로 앞서 보고한 것 이외에 연산·진잠·옥천·영동·황간·청산 등 6개 고을은 2려가 내렸고, 평택·온양·신창·진천·청안·연풍·청풍·제천·단양·영춘 등 10개 고을은 1려가 내렸고, 홍주·해미·덕산·면천·당진·서산·태안·홍산·한산·비인·보령·평신 등 12개 고을과 군영은 1서가 내렸다고 합니다. 그날의 비로 앞서 보고한 것 이외에 목천·직산·평택·아산·신창·정산·대흥·홍주·덕산·면천·당진·해미·서산·태안·임천·노성·은진·연산·회덕·옥천·영동·황간·청산·보은·회인·문의·연기·청주·진천·음성·괴산·연풍·충주·청풍·제천·단양·영춘·평신 등 38개 고을과 군영은 시내와 도랑이 불어나 넘쳤고, 한산·서천·비인·보령·결성 등 5개 고을은 1서가 내렸다고 합니다. 이번 달 21일 진시

쫘 연일 구름이 끼고 간간이 부슬부슬 가랑비가 조금씩 내렸는데 특별히 논할만한 강우량은 없습니다. 24일 술시쫘 한 차례 급하게 주룩주룩 내리다가 25일 오시에 이르러 그쳤는데, 저의 감영 측우기 수심은 4치였습니다.

농사 상황의 경우, 가을보리는 거의 다 타작을 하고 봄보리는 차례로 베어 거두고 무논에 볍씨를 뿌리고 마른논에 씨앗을 뿌린 것은 간혹 두벌매기를 하였고 올벼와 올기장·올조와 섞어짓는 콩·팥 및 목화는 연이어 김매기를 하였으며 늦기장·늦조 및 그루같이한 콩·팥은 이제 갈아 파종을 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때를 아는 비가 도리어 달을 넘기는 장맛비에 이르러 겨우 쫘은 모든 땅에 뿌리를 붙이지 못하고 아직 거두어들이지 못한 보리는 밭이랑에서 썩어 나오니 너무 걱정스럽습니다. 김매기를 할 못자리와 파종해야 할 곡물은 비 때문에 지체되어 그만두었으니 앓아 기다리다가 시기를 놓치고 있으니 백성들의 사정이 정말로 매우 걱정입니다. 이후 경위는 잇따라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 0606. 1877년(고종 14) 5월 30일(양력 7월 10일)

忠淸監營啓錄 8책(50b~51b) /各司臚錄 7책 忠淸道篇 2책(409c~409d)

今月十七日以後連日之雨, 溫陽等五十五邑鎭所得分數及二十四日戌時之雨, 至二十五日午時, 臣營下水深, 又爲四寸緣由, 已爲馳啓爲白有在果, 續接各邑所報, 則伊日之雨, 公州·全義·木川·天安·稷山·平澤·牙山·溫陽·新昌·禮山·定山·青陽·大興·洪州·扶餘·石城·林川·魯城·恩津·連山·鎭岑·懷德·沃川·永同·黃澗·青山·報恩·懷仁·文義·燕岐·清州·鎭川·清安·槐山·延豐·忠州·陰城·淸風·堤川·丹陽·永春等四十一邑, 川渠漲滿, 德山·沔川·唐津·海美·瑞山·泰安·鴻山·韓山·舒川·庇仁·藍浦·保寧·結城·平薪等十四邑鎭, 得二犁是如爲白遣, 二十五日午時以後, 或霏或止, 載陰載陽, 又自二十八日寅時, 暴雨大作, 連爲霍下, 至二十九日酉時乃止, 臣營下近處觀之, 瀑急所過, 山面崩落, 新漲又添, 水道橫奔, 未穫之麥, 纔移之秧, 俱被漂失, 民家頽壓, 又潦相續是白乎所, 凡言大水者, 前稱壬辰, 後稱甲戌, 而不過一晝夜之間, 猶無二尺餘之多矣, 一雨極備, 霎時失災, 如是其酷, 言念民情, 誠切憂悶, 各邑所得, 待其報來, 鱗次陳聞計料, 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이번 달 17일 이후 연일 온양 등 55개 고을과 군영에 내린 양 및 24일 술시쯤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25일 오시에 이르렀는데, 저의 감영 수심은 4치인 연유는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그날의 비로 공주·전와·목천·천안·직산·평택·아산·온양·신창·예산·정산·청양·대흥·홍주·부여·석성·임천·노성·은진·연산·진잠·회덕·옥천·영동·황간·청산·보은·회인·문의·연기·청주·진천·청안·괴산·연풍·충주·음성·청풍·제천·단양·영춘 등 41개 고을은 시내와 도랑이 불어나 가득 찼고, 덕산·면천·당진·해미·서산·태안·홍산·한산·서천·비인·남포·보령·결성·평신 등 14개 고을과 군영에는 2려가 내렸다고 합니다. 이번 달 25일 오시 이후로 더러 부슬부슬 내리거나 더러 뿌리거나 더러 그치기도 하다가 언뜻언뜻 흐리거나 별이 나기도 하였습니다. 또 28일 인시쯤에 폭우가 크게 쏟아졌고 연이어 주룩주룩 내리다가 29일 유시에 이르러 이내 그쳤습니다. 저의 감영 근처에서 살펴보니 폭우가 급히 지나간 곳은 산허리가 붕괴되고 물이 새로 불어나 또 더해져 물길의 흐름대로 치달리 아직 수확하지 않은 보리와 겨우 모내기를

한 모가 모두 떠내려가는 손실을 입었고 백성 집가 무너지고 또 흙탕물이 연속했습니다. 대체로 홍수를 말할 경우에는 앞에는 임진년(1832)을 말한 뒤에는 갑술년(1874)을 말하지만 불과 하루 낮과 밤사이에 무리 2자 남짓이나 많이 내린 적은 없었습니다. 한 차례 비가 홍수에 이르러 삼시간에 이처럼 혹심하게 수재를 입은 백성들의 사정을 생각하면 진실로 매우 근심이고 걱정입니다. 각 고을에 내린 것은 보고가 오기를 기다려 잇따라 아될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 0607. 1877년(고종 14) 6월 5일(양력 7월 15일)

忠淸監營啓錄 8책(51b~52a) /各司臚錄 7책 忠淸道篇 2책(409d~410b)

道內農形及去月二十五日之雨, 公州等五十五邑鎭所得分數, 二十八日之雨, 臣營下水深爲二尺三寸七分緣由, 已爲馳啓爲白有在果, 續接各邑所報, 則伊日之雨, 公州·定山·扶餘·石城·林川·魯城·恩津·連山·燕岐等九邑江川汎濫, 全義·木川·天安·平澤·稷山·牙山·溫陽·新昌·禮山·青陽·大興·洪州·德山·沔川·唐津·鴻山·韓山·舒川·庇仁·藍浦·保寧·結城·鎭岑·懷德·沃川·文義·懷仁等二十七邑, 川渠漲滿, 而家舍之頽壓漂失, 田畝之潰決汰覆, 邑邑皆然, 待水退摘奸更報計料, 農形段, 秋麴已皆登場, 春麴刈穫垂畢, 而未及收入, 委積田間者, 非漂則芽, 全棄居多, 畝庫高低畢移, 而積雨暴漲, 新舊相仍, 沿江污下處, 破潰堤堰, 永失區域者, 十之七八, 早黍粟和種豆太, 着在淤泥, 鋤耘莫施, 根耕豆太及晚黍粟, 幾盡耕播, 間或立苗, 而蕪沒草萊, 耘役愆期, 其中木花, 最以惡濕之種, 長在水中, 根莖腐消, 無望蘇醒是如爲白遣, 今月初三日丑時量始雨, 至初五日辰時, 臣營下測雨器水深, 又爲六寸五分, 尙此霏灑不止是白如乎, 去月二十八日之暴霖, 殆是近古所無, 痒稼甚大, 而跨朔長霖, 又此支離, 言念民情, 萬萬憂悶, 向後形止, 鱗次陳聞計料, 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충청도 내 농사 상황 및 지난달 5월 25일에 공주 등 55개 고을과 군영에 내린 양과 28일에 내린 측우기 수심이 2자 3치 7푼인 연유는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그날의 비로 공주·정산·부여·석성·임천·노성·은진·연산·연기 등 9개 고을은 시내와 도랑이 범람하였고, 전의·목천·천안·평택·직산·아산·온양·신창·예산·청양·대흥·홍주·덕산·면천·당진·홍산·한산·서천·비인·남포·보령·결성·진잠·회덕·옥천·문의·회인 등 27개 고을은 시내와 도랑이 불어나 가득 찼습니다. 집이 무너져 깔렸거나 떠내려갔고 논밭이 독이 터져 가뼀에 뒤덮인 것이 고을마다 모두 같았으나 물이 빠지기를 기다려 적간하여 다시 보고할 계획입니다.

농사 상황의 경우, 가을보리는 이미 다 타작하였고 봄보리는 베어 거두기를 끝냈지만 아직 거둬들이지 못하고 밭에 쌓아 둔 것은 떠내려가지 않으면 싹이 나 전부 포기한 것이 많습니다. 논은 높은 곳이나 낮은 곳에 모두 모내기를 했는데 장맛비에 갑자기



물이 불어나 새 물과 예전 물이 서로 합쳐서 연감의 낮은 곳은 독이 터져 영원히 구역을 잃게 된 것이 열에 일곱, 여덟이나 됩니다. 올기장·올조 및 섞어짓는 콩·팥은 진흙이 붙어있어 호미로 김매기를 할 수 없고 그루같이한 콩·팥 및 늦기장·늦조는 거의 다 갈아서 파종하여 간혹 싹이 트는데 잡초가 우거져 김매기를 할 시기를 놓쳤습니다. 그 가운데 목화는 가장 축축한 기온을 싫어하는 종자인데 오랫동안 물속에 있다 보니 뿌리와 줄기가 썩어 없어져 살아날 가망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이번 달 초3일 축시쯤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초5일 진시에 이르렀는데, 저의 감영 측우기 수심은 또 6치 5푼이었습니다. 아직 이렇게 부슬부슬 내리거나 뿌리기도 하며 그치지 않습니다. 지난달 28일에 쏟아진 폭우는 거의 근고에 없던 일이어서 곡식을 병들게 한 것이 매우 큼니다. 한 달에 걸쳐 긴 장맛비가 또 언더리가 나게 내리니 백성들의 심정을 생각하면 매우 걱정스럽고 안타깝습니다. 이후 경위는 잇따라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 0608. 1877년(고종 14) 6월 15일(양력 7월 25일)

忠淸監營啓錄 8책(52a~52b) /各司臚錄 7책 忠淸道篇 2책(410b~410c)

道內農形及今月初三日以後連日之雨, 公州等三十二邑所得分數, 自初五日或霏或灑, 至初十日開霽, 臣營下水深, 又爲二寸八分緣由, 已爲馳啓爲白有在果, 續接各邑所報, 則伊日之雨. 前啓外, 忠州·淸風·丹陽·永春·淸安·陰城·槐山·延豐·黃澗·靑山·報恩·唐津·泰安·舒川等十四邑, 川渠漲滿, 鎭川·永同·堤川·平薪等四邑鎭, 得二犁, 海美·庇仁·藍浦·保寧·結城等五邑, 得一犁, 農形段, 無論田畝各穀, 依山傍川之酷被水災, 全無穀形者外, 付種乾播, 方始茁長, 早移秧次第再鋤, 而屢經沈墊, 在在披靡, 晚移秧弱植未及蕃滋, 嫩苗多致消灑, 而隨其水退, 次第初鋤, 早黍粟初種, 豆太及木花, 再耘垂畢, 而長於雨水, 莖葉軟脆者, 又於今初七日大風, 舉被摧殘, 全棄其多, 根耕豆太及晚黍粟, 間多初除草是如爲白有臥乎所, 向後農形, 鱗次陳聞計料, 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충청도 내 농사 상황 및 이번 달 초3일 이후 연일 내린 비로 공주 등 32개 고을에 내린 양과 이번 달 초5일부터 더러 부슬부슬 내리거나 더러 뿌리다가 초10일에 이르러 개였는데, 저의 감영 수심이 또 2치 8푼인 연유는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그날의 비로 앞서 보고한 것 이외에 충주·청풍·단양·영춘·청안·음성·괴산·연풍·황간·청산·보은·당진·태안·서천 등 14개 고을은 시내와 도랑이 불어나 가득 찼고, 진천·영동·제천·평신 등 4개 고을과 군영에 2려가 내렸고, 해미·비인·남포·보령·결성 등 5개 고을은 1려가 내렸다고 합니다.

농사 상황의 경우, 논밭의 각종 곡물은 물론하고 산 옆이나 방천 가운데 흑심하게 수재를 입은 것은 완전히 곡물의 모양도 없습니다. 그 외에 무논에 벼씨를 뿌리고 마른논에 씨앗을 뿌린 것은 막 싹이 자라기 시작하고 일찍 모내기를 한 것은 두벌매기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자주 물에 잠기고 곳곳이 쓰러지고 늦게 모내기를 한 약한 식물은 아직 미처 불어나지 못했으며 어린 싹은 많이 녹아 버렸습니다. 물이 빠지는 대로 차례로 초벌 감매기를 하였고, 늦기장·늦조는 섞어 심었으며 콩·팥 및 목화는 두벌매기를 하였습니다. 오랜 빗물에 줄기와 잎사귀가 약하게 되었고 또 이번 달 초7일에 크게 바람이 불어 모두

꺾여 전부 포기한 것이 많습니다. 그루같이한 콩·팥 및 늦기장·늦조는 간간이 초벌 김매기를 많이 하였다고 합니다. 이후 농사 상황은 잇따라 아될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 0609. 1877년(고종 14) 6월 25일(양력 8월 4일)

忠淸監營啓錄 8책(52b~53b) /各司臚錄 7책 忠淸道篇 2책(410c~410d)

道內農形及今月十九日寅時量始雨, 至二十一日, 臣營下水深爲二寸三分緣由, 連爲馳啓爲白有在果, 二十一日辰時以後, 連爲霽霏, 至二十四日申時乃止, 臣營下測雨器水深, 又爲二寸三分是白乎脉, 續接各邑所報, 則十九日以後連日之雨, 木川·恩津·連山·鎭岑·文義·懷仁·永同·黃澗等八邑, 川渠漲滿, 公州·全義·溫陽·魯城·懷德·燕岐·清州等七邑, 得二犁, 天安·禮山·定山·青陽·大興·扶餘·石城·林川·平薪等九邑鎭, 得一犁, 農形段, 被災不甚之地, 付種乾播及早移秧, 次第茁長, 晚移秧連爲初鋤, 和種豆太及木花, 腐消摧折, 永屬全棄者外, 再耘未畢, 而或多因雨停役, 根耕豆太及晚黍粟, 方張初除草, 而連值潦濘, 未及落種, 仍多陳廢, 其中舒川段, 間發愆蹲, 又值蟹損, 痒稼非細是如爲白有臥乎所, 向後形止, 鱗次陳聞計料, 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충청도 내 농사 상황 및 이번 달 19일 인시쯤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21일 진시에 이르렀는데, 저의 감영 수심이 2치 3푼인 연유는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이번 달 21일 진시 이후 연이어 주룩주룩 내리거나 소나기가 내리기도 하다가 24일 신시에 이르러 이내 그쳤는데, 저의 감영 측우기 수심이 또 2치 3푼인 연유는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19일 이후 연일 내린 비로 목천·은진·연산·진잠·문의·회인·영동·황간 등 8개 고을에서 시내와 도랑이 불어나 가득 찼고, 공주·전의·온양·노성·회덕·연기·청주 등 7개 고을은 2려가 내렸고, 천안·예산·정산·청양·대흥·부여·석성·임천·평신 등 9개 고을과 군영은 1려가 내렸다고 합니다.

농사 상황의 경우, 피해가 극심하지 않은 지역은 무논에 벼씨를 뿌리고 마른논에 씨앗을 뿌린 것과 일찍 모내기를 한 것은 차례로 싹이 자라고, 늦게 모내기를 한 것은 연이어 초벌 김매기를 하였고, 쉬어짓는 콩·팥 및 목화는 싹어서 없어지고 꺾여 끝내 전부 포기한 것 이외에 두벌매기도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 혹 비 때문에 일을 중지한 곳이 많았습니다. 그루같이한 콩·팥 및 늦기장·늦조는 한창 초벌 김매기를 하고 있고, 계속 장맛비를 만나 종자를 뿌리지 못해 묵혀서 내팽개친 땅이 많으며 그 가운데 서천 고을은 그 사이 근간에 벼멸구와 족쟁이가 발생하고 또 계로 인한 손상을 만나 농작물 피해가 적지 않다고 합니다. 이후 경위는 잇따라 아될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 0610. 1877년(고종 14) 7월 6일(양력 8월 14일)

忠淸監營啓錄 8책(55b~56a) /各司謄錄 7책 忠淸道篇 2책(412a~412b)

道內農形及去月十九日以後連日之雨, 木川等二十四邑鎭所得分數, 已爲馳啓爲白有在果, 續接各邑所報, 則伊日之雨, 前啓外, 沃川·靑山·報恩·鎭川·淸安·槐山·延豐·忠州·陰城等九邑川渠漲滿, 舒川·庇仁·藍浦·保寧·結城·淸州·瑞山·泰安等八邑, 得二犁, 德山·海美·新昌·稷山·平澤·牙山·沔川·丹陽·永春等十四邑, 得一犁, 農形段, 付種乾播及早移秧, 一向茁長, 晚移秧間或再耘, 和種豆太及木花, 不至摧消者, 近得調陽, 方始起花, 根耕豆太及晚黍粟, 連爲除草, 而舒川郡愆蹲蟹損之患, 尙未止息是如爲白遣, 今月初三日酉時量始雨, 或霏或灑, 至初五日申時乃止, 臣營下測雨器水深, 爲四寸一分是白如乎, 向後農形及各邑所得, 鱗次陳聞計料, 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충청도 내 농사 상황 및 지난달 6월 19일 이후 연일 목천 등 24개 고을과 군영에 내린 양은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그날의 비로 앞서 보고한 것 이외에 옥천·청산·보은·진천·청안·괴산·연풍·충주·음성 등 9개 고을은 시내와 도랑이 불어나 가득 찼고, 서천·비인·남 포·보령·결성·청주·서산·태안 등 8개 고을은 2려가 내렸고, 덕산·해미·신창·직산·평택·아산·면천·단양·영춘 등 9개 고을은 1려가 내렸다고 합니다.

농사 상황의 경우, 무논에 볍씨를 뿌리고 마른논에 씨앗을 뿌린 것과 일찍 모내기를 한 것은 줄곧 싹이 자라고, 늦게 모내기를 한 것은 간혹 두벌매기를 하였고, 섞어짓는 콩·팥 및 목화는 꺾여서 죽지 않은 것은 요사이 고른 햇볕을 받아 막 막 꽃이 피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루같이한 콩·팥·늦기장·늦조는 연이어 김매기를 하였다고 합니다. 서천 고을은 벼멸구와 족쟁이 그리고 게로 인한 손상에 대한 근심이 아직 그치지 않았다고 하였습니다. 이번 달 초3일 유시쯤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더러 부슬부슬 내리거나 더러 뿌리다가 초5일 신시에 이르러 이내 그쳤는데, 저의 감영 측우기 수심은 4치 1푼이었습니다. 이후 농사 상황 및 각 고을에 내린 것은 잇따라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 0611. 1877년(고종 14) 7월 12일(양력 8월 20일)

忠淸監營啓錄 8책(56a~56b) /各司臚錄 7책 忠淸道篇 2책(412b~412c)

今月初三日酉時量始雨, 至初五日申時乃止, 臣營下水深爲四寸一分緣由, 已爲馳啓爲白有在果, 續接各邑所報, 則伊日之雨, 公州·魯城·恩津·懷德·沃川·燕岐, 文義等七邑, 川渠漲滿, 全義·木川·溫陽·天安·禮山·定山·青陽·大興·石城·林川·連山·鎮岑·懷仁·淸州·扶餘等十五邑, 得二犁, 稷山·洪州·海美·保寧·平薪等十五邑鎮, 得一犁是如爲白乎旆, 又於今月初九日申時量始雨, 或霏或灑, 至十一日午時, 臣營下測雨器水深, 爲三寸六分是白如乎, 向後形止, 鱗次陳聞計料, 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이번 달 초3일 유시쯤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초5일 신시에 이르러 그 쳄는데 측우기 수심은 4치 1푼인 연유는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그날의 비로 공주·노성·은진·회덕·옥천·연기·문의 등 5개 고을은 시내와 도랑이 불어나 가득 찼고, 전의·목천·온양·천안·예산·정산·청양·대흥·석성·임천·연산·진잠·회인·청주·부여 등 15개 고을은 2려가 내렸고, 직산·홍주·해미·보령·평신 등 5개 고을과 군영은 1려가 내렸다고 합니다. 이번 달 초9일 신시쯤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더러 부슬부슬 내리거나 뿌리기도 하다가 11일 오시에 이르러 그 쳄는데, 저의 감영 측우기 수심은 3치 6푼이었습니다. 이후 경위는 잇따라 아될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 0612. 1877년(고종 14) 7월 16일(양력 8월 24일)

忠淸監營啓錄 8책(56b~57a) /各司臚錄 7책 忠淸道篇 2책(412c~412d)

道內農形及今月初三日之雨，公州等二十七邑所得分數，初九日申時量始雨，至十一日乃止，臣營下水深爲三寸六分緣由，已爲馳啓爲白有在果，續接各邑所報，則初三日之雨，前啓外，結城·鎭川·槐山·延豐·報恩·靑山·黃澗等七邑，得二犁，新昌·唐津·瑞山·泰安·淸安·陰城·忠州等七邑，得一犁，平澤·牙山·德山·沔川·鴻山·韓山·舒川·庇仁·藍浦·永同·淸風·堤川·丹陽·永春等十四邑，得一鋤，初九日之雨，公州·溫陽·大興·魯城·恩津·沃川·瑞山·泰安等八邑，川渠漲滿，全義·木川·天安·稷山·禮山·定山·靑陽·洪州·林川·鎭岑·懷德·文義·懷仁·燕岐·淸州等十五邑，得二犁，扶餘·石城·鴻山·連山·藍浦·牙山·新昌·海美等八邑，得一犁是如爲白遣，農形段，早稻·早黍粟漸次胚胎，晚移方張再鋤，和種豆太，次第結穀，木花高燥向陽處，間或結穎，根耕豆太及晚黍粟，幾盡除草，而舒川郡愆蹲蟹損之患，始爲窮息是如爲白有臥乎所，向後農形，鱗次陳聞計料，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충청도 내 농사 상황 및 이번 달 초3일의 비로 공주 등 27개 고을에 내린 양과 초9일 신시쯤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11일에 이르러 이내 그쳤는데, 저의 감영 수심이 3치 6푼인 연유는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각 읍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그날의 비로 앞서 보고한 것 이외에 결성·진천·괴산·연풍·보은·청산·황간 등 7개 고을은 2려가 내렸고, 신창·당진·서산·태안·청안·음성·충주 등 7개 고을은 1려가 내렸고, 평택·아산·덕산·면천·홍산·한산·서천·비인·남포·영동·청풍·제천·단양·영춘 등 14개 고을은 1서가 내렸고, 초9일의 비로 공주·온양·대흥·노성·은진·옥천·서산·태안 등 8개 고을은 시내와 도랑이 불어나 가득 찼고, 전의·목천·천안·직산·예산·정산·청양·홍주·임천·진잠·회덕·문의·회인·연기·청주 등 15개 고을은 2려가 내렸고, 부여·석성·홍산·연산·남포·아산·신창·해미 등 8개 고을은 1려가 내렸다고 합니다.

농사 상황의 경우, 올벼와 올기장·올조는 점차 알을 배고 늦게 모내기를 한 것은 한창 두벌매기를 하였고, 섞어짓는 콩·팥은 차례로 꼬투리를 맺고, 목화는 벌을 향한 높고 메마른 곳은 간혹 다래를 맺고, 그루같이한 콩·팥 및 늦기장·늦조는 거의 다 김매기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서천군은 벼멸구와 쪽정이 그리고 계로 인한 손상에 대한 근심이 비로소 다 그쳤다고 합니다. 이후 경위는 잇따라 아될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 0613. 1877년(고종 14) 7월 26일(양력 9월 3일)

忠淸監營啓錄 8책(57a~57b) /各司臚錄 7책 忠淸道篇 2책(412d~413a)

道內農形及今月初九日之雨，公州等三十二邑所得分數，已爲馳啓爲白有在果，續接各邑所報，則伊日之雨，前啓外，鎭川·淸安·槐山·延豐·淸風·堤川·丹陽·永春·沔川·報恩·靑山等十一邑，川渠漲滿，平澤·唐津·德山·舒川·保寧·黃澗等六邑，得二犁，韓山·庇仁·結城·陰城·忠州·平薪等六邑鎭，得一犁，農形段，早稻·早黍粟間或發穗，中稻漸次胚胎，晚稻方張茁長，和種豆太及木花，次第結穎，根耕豆太及晚黍粟，幾盡再除草是如爲白有臥乎所，向後形止，鱗次陳聞計耕，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충청도 내 농사 상황 및 이번 달 초9일에 공주 등 32개 고을에 내린 양은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그날의 비로 앞서 보고한 것 이외에 진천·청안·괴산·연풍·청풍·제천·단양·영춘·면천·보은·청산 등 11개 고을은 시내와 도랑이 불어나 넘쳤고 평택·당진·덕산·서천·보령·황간 등 6개 고을은 2려가 내렸고, 한산·비인·결성·음성·충주·평신 등 6개 고을과 군영에 1려가 내렸습니다.

농사 상황의 경우, 올벼와 올기장·올조는 간혹 이삭이 패고 중벼는 점차 알을 배고 있고 늦벼는 한창 싹이 자라고 있고, 섞어짓는 콩·팥 및 목화는 차례로 꼬투리를 맺고, 그루갈이한 콩·팥 및 늦기장·늦조는 거의 다 두벌매기를 하였다고 합니다. 이후 경위는 잇따라 아될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0614. 1877년(고종 14) 8월 4일(양력 9월 10일)

忠淸監營啓錄 8책(57b~57b)各司謄錄 7책 忠淸道篇 2책(413a~413a)

今月初二日寅時量始雨，或霏或灑，間間霏下，至初三日酉時乃止，臣營下測雨器水深爲三寸六分是白如乎，各邑所得，待其報來，鱗次陳聞計料，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이번 달 초2일 인시쯤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더러 부슬부슬 내리거나 더러 뿌리다가 간간이 주룩주룩 내리다가 초3일 유시에 이르러 이내 그쳤는데, 저의 감영 측우기 수심은 3치 6푼이었습니다. 각 고을에 내린 것은 보고가 오기를 기다려 잇따라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0615. 1877년(고종 14) 8월 7일(양력 9월 13일)

忠淸監營啓錄 8책(57b~58a) /各司臚錄 7책 忠淸道篇 2책(413a~413b)

道內農形及今月初二日寅時始雨, 至初三日酉時乃止, 臣營下水深爲三寸六分緣由, 已爲馳啓爲白有在果, 續接各邑所報, 則伊日之雨, 公州·全義·木川·天安·稷山·溫陽等六邑, 得二犁, 定山·靑陽·大興·燕岐·淸州·靑山·藍浦等七邑, 得一犁, 扶餘·石城·林川·鴻山·魯城·恩津·連山·鎭岑·懷德·沃川·文義·懷仁等十二邑, 得一鋤, 農形段, 早稻·早黍粟, 已盡發穗, 間或入實, 中晚稻及晚黍粟, 方將胚胎, 和種豆太, 次第入實, 木花連爲結顆, 而莖幹矮短, 窠房稀少, 無望綻絮, 根耕豆太, 方始起花是如爲白有臥乎所, 向後農形及未報邑雨澤, 待其報來, 鱗次陳聞料, 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충청도 내 농사 상황 및 이번 달 초2일 인시쯤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초3일 유시에 이르러 이내 그쳤는데, 저의 감영 수심이 3치 6푼인 연유는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그날의 비로 공주·전의·목천·천안·직산·온양 등 6개 고을은 2려가 내렸고, 정산·청양·대흥·연기·청주·청산·남포 등 7개 고을은 1려가 내렸고, 부여·석성·임천·홍산·노성·은진·연산·진잠·회덕·옥천·문의·회인 등 12개 고을은 1서가 내렸다고 합니다.

농사 상황의 경우, 올벼와 올기장·올조는 이미 다 이삭이 났고 간혹 알이 차고 중벼·늦벼와 늦기장·늦조는 한창 알을 배고 있고 섞어짓는 콩·팥은 차례로 알이 차고 목화는 연이어 다래를 맺는데 줄기가 짧은 것은 다래가 작아 숨이 터질 가망이 없으며 그루같이한 콩·팥은 막 꽃이 피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이후 농사 상황 및 보고하지 않은 고을의 우택은 보고가 오기를 기다려 잇따라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 0616. 1877년(고종 14) 8월 17일(양력 9월 23일)

忠淸監營啓錄 8책(58a~58b) /各司臚錄 7책 忠淸道篇 2책(413b~413c)

道內農形及今月初二日之雨，公州等二十五邑所得分數，已爲馳啓爲白有在果，續接各邑所報，則伊日之雨，前啓外，平澤·牙山·新昌·瑞山·泰安·鎭川·平薪等七邑鎭，得二犁，稷山·洪州·海美·舒川·庇仁·保寧·結城·延豐·丹陽·永春·報恩等十一邑，得一犁，德山·沔川·唐津·韓山·永同·黃澗·淸安·槐山·陰城·忠州·淸風·堤川等十二邑，得一鋤，農形段，早稻·早黍粟及和種豆太，次第成實，中晚稻及晚黍粟，方將發穗，木花隨其綻絮，間或摘取，根耕豆太，漸次結穀是如爲白乎旆。今月十六日辰時量始雨，或霏或灑，至十七日卯時開霽，臣營下測雨器水深爲一寸三分是白如乎，向後農形及各邑所得，待其報來，鱗次陳聞計料，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충청도 내 농사 상황 및 이번 달 초2일 내린 비로 공주 등 25개 고을에 내린 양은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그날의 비로 앞서 보고한 것 이외에 평택·아산·신창·서산·태안·진천·평신 등 7개 고을과 군영은 2려가 내렸고, 직산·홍주·해미·서천·비인·보령·연풍·단양·영춘·보은 등 11개 고을은 1려가 내렸고, 덕산·면천·당진·한산·영동·황간·청안·괴산·음성·충주·청풍·제천 등 12개 고을은 1서가 내렸다고 합니다.

농사 상황의 경우, 올벼와 올기장·올조 및 섞어짓는 콩·팥은 차례로 여물고 중벼·늦벼와 늦기장·늦조는 한창 이삭이 패고 목화는 다래가 숨이 벌어지는 대로 간혹 따서 거두고 그루같이한 콩·팥은 점차 꼬투리를 맺는다고 합니다. 이번 달 16일 진시쯤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더러 부슬부슬 내리거나 더러 뿌리다가 27일 묘시에 이르러 개었는데, 저의 감영 측우기 수심은 1치 3푼이었습니다. 이후 농사 상황 및 각 고을에 내린 것은 보고가 오기를 기다려 잇따라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 0617. 1877년(고종 14) 8월 27일(양력 10월 3일)

忠淸監營啓錄 8책(58b~59a) /各司臚錄 7책 忠淸道篇 2책(413c~414a)

道內農形及今月十六日辰時量始雨，至十七日卯時開霽，臣營下水深爲一寸三分緣由，已爲馳啓爲白有在果，續接各邑所報，則伊日之雨，公州·全義·木川·定山·青陽·大興·洪州·德山·沔川·瑞山·林川·鴻山·韓山·保寧·結城·槐山等十六邑，得一犁，扶餘·石城·舒川·沃川·青山·報恩·懷仁·文義·燕岐·清州·鎭川·清安·延豐·忠州等十四邑，得一鋤，天安·稷山·平澤·牙山·溫陽·新昌·禮山·魯城·恩津·連山·鎭岑·懷德等十一邑，浥塵是如爲白遣，農形段，早稻·早黍粟及和種豆太，漸次向熟，中稻及晚黍粟，已盡發穗，而今初九十兩日及二十四日三次暴雨，早晚各種，披靡摧敗，纔秀者被偃，受辛者旋枯，加之日候不調，寒氣促節，向日豐聲，變歸失稔，木花雖或摘取，顆盡含縮，綻亦不絮，盡日所收，不盈一掬，根耕豆太方將入實，而全義·天安·懷德·鎭岑等四邑，今十八日夜霜降，未熟各穀，仍無餘望，舒川段，二十四日驟雨，水雹雜下，大如鉛丸，方熟方之禾，舉被剝落，所見愁慘是如爲白有臥乎所，霜信太促，雹災又酷，言念穡事，極爲悶然，向後農形及未報邑雨澤，待其報來，鱗次陳聞計科，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충청도 내 농사 상황 및 이번 달 16일 진시쯤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17일 묘시에 이르러 개였는데, 저의 감영 측우기 수심이 1치 3푼인 연유는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그날의 비로 공주·전의·목천·정산·청양·대흥·홍주·덕산·면천·서산·임천·홍산·한산·보령·결성·괴산 등 16개 고을은 1려가 내렸고, 부여·석성·서천·옥천·청산·보은·회인·문의·연기·청주·진천·청안·연풍·충주 등 14개 고을은 1서가 내렸고, 천안·직산·평택·아산·온양·신창·예산·노성·은진·연산·진잠·회덕 등 11개 고을은 먼지만 적실 정도였다고 합니다.

농사 상황의 경우, 올벼와 올기장·올조 및 섞어짓는 콩·팥은 점차 익어가고 중벼와 늦기장·늦조는 이미 이삭이 패었다고 합니다. 이번 달 초9, 10일 양 일 및 24일에 세 차례 폭우가 내려 조만의 각종 곡물이 쓰러져 꺾였습니다. 겨우 이삭이 핀 것은 드러누워 고통을 받다가 바로 말라버렸는데 게다가 날씨가 고르지 못하여 환절기가 다가와 해를 향해 풍년을 기원하던 소리가 변하여 흉년이 들었다고 합니다. 목화는 비록 따서 거두고

봉우려가 다 오므라들었고 터진 것도 숨이 없으니 날을 마치도록 거두어 들여도 한 움큼도 차지 못하며 그루같이한 콩은 비로소 열매가 차갑니다. 전의, 천안, 회덕, 진잠 등 4개 고을은 이번 달 18일 밤에 서리가 내려 아직 익지 않은 각 고을의 나머지는 가뭄이 없습니다. 서천 고을은 24일에 갑자기 비가 내려더니 우박이 섞어 내렸는데 크기가 납덩이만하여 이제 막 익어가던 벼가 모두 떨어지게 되었으니 보기에 근심스럽고 처참하다고 합니다. 서리가 온다는 말이 너무 촉박하고 또 우박의 재해도 혹심하니 농사를 말하고 생각하면 매우 걱정입니다. 이후 농사 상황 및 보고하지 않은 고을의 우택은 보고가 오기를 기다려 잇따라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0618. 1877년(고종 14) 9월 17일(양력 10월 23일)

忠淸監營啓錄 8책(59b~60a) /各司臚錄 7책 忠淸道篇 2책(414a~414b)

道內農形及全義等四邑霜降緣由, 已爲馳啓爲白有在果, 續接各邑所報, 則淸風·堤川·延豐·丹陽等四邑, 今月初一日夜霜降, 公州·洪州·平澤·鴻山·槐山·忠州·恩津·定山·海美·韓山·林川·禮山·稷山·牙山·扶餘·舒川·黃澗·靑山·溫陽·懷仁·保寧·新昌·大興·靑陽等二十五邑, 初二日夜霜降, 燕岐·藍浦兩邑, 十五日夜霜降是如爲白遣, 農形段, 早稻·早黍粟及和種豆太, 次第登場, 中稻晚稻晚黍粟及根耕豆太, 間或刈取, 木花一直含縮, 無望摘取是白乎所, 大抵今年穡事, 分而言之, 雖有此勝彼遜之別, 統而觀之, 不無名大實小之歎是白如乎, 列邑分等酌, 量磨鍊, 追後登聞計料, 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충청도 내 농사 상황 및 전의 등 4개 고을에 서리가 내린 연유는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청풍·제천·연풍·단양 등 4개 고을은 이번 달 초1일 밤에 서리가 내렸고, 공주·홍주·평택·홍산·괴산·충주·은진·정산·해미·한산·임천·예산·직산·아산·부여·서천·황간·청산·온양·회인·보령·신창·대흥·청양 등 25개 고을은 초2일 밤에 서리가 내렸고, 연기·남포 등 2개 고을은 15일 밤에 서리가 내렸다고 합니다. 농사 상황의 경우, 올벼와 올기장·올조 및 섞어짓는 콩·팥 및 차례로 타작을 하고 중벼·늦벼·늦기장·늦조와 그루같이한 콩·팥은 간혹 베어 거두고 목화는 한결같이 오므라들어 따서 거두어들일 가망이 없습니다. 대체로 올해 농사는 구분해 말하면 이것은 낮고 저것은 좀 못한 구별이 있지만 통틀어서 보면 이름만 거창하고 실속이 적은 탄식이 없지 않습니다. 여러 고을의 풍흉등급을 참작해 마련해서 뒤이어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 0619. 1877년(고종 14) 10월 14일(양력 11월 18일)

忠淸監營啓錄 8책(64b~67b) /各司臚錄 7책 忠淸道篇 2책(417a~418c)

道內農形，已爲概陳於前後狀本中是白在果，雨暘調適於倣載之時，乾耕水耕，從心所爲，功力不怠於播注之候，早稻晚稻，惟土可種，咸懷昨歉之餘悸，益望新豐之上瑞，不控而自勉，無教而趨力，幸自夏至之交，及至芒種之際，此疆彼界，頗有早移之喜，連堤接塍，庶多同稼之謠，夫何五初始雨，一連成霖，直至七旬，首尾三朔，無日不霖，無霖不暴，急湍所激，大江橫流，長堤所缺，全坪覆沙，永不改壅，仍屬廢棄，丙子慘歉，亘古所無，穀雖無收，土固自在，今年之災，竝與土穀而俱失，此是往往有之，雖非處處皆然，實爲當之者之慘禍是白遣，至於秧不足力不逮，自致陳廢者，亦是樂歲之所不免，而流離失業，死亡廢耕，比常最甚，已種者雖曰善就，所收者難望裕足，而幸免巨浸者，長在雨中，未經暘曝，莖弱葉軟，〈雜〉草埋泥，鋤耘失時，穎實何望，適際慘凶之後，可曰成樣，若在屢豐之餘，未免失稔，而八念之風，一何乖常，連吹數日，未發之穗，含縮不發，將實之穀，枯白不實，所見愁慘是白乎旃，昨陳之畚，云有倍收之效，纔移之秧，有似援助之長，迺者潦收，逮夫發穗，積澇成瘵，無力自建，仍卽蹲縮，舉致腐消，鎌無可掛，錘不初試，若其根耕，燥猶可播，潦爲最忌，而右沿土品，俱是埴墳，旱成塊壤，堅不可鉅，兩便淤泥，迄不能播，只漂已熟之粳麥，仍廢當種之豆太，旣無卒歲之儲，難待受明之資，邑報告悶，民訴呼冤，故別遣耳目，隨處摘探，而臣於省掃之行，遍歷幾郡是白乎則，始慮傳說之或訛，終信親覩之不爽，大抵今年穡事，遽因始雨而終風，轉致名存而實無是白乎所，檢田給災，大政也重務也，上關國計，下係民隱，屢回關飭，申加團束，宜審且慎，寧約無濫，及其概報之來呈，另行查別，停當執摠是白乎則，七月已報之，成川浦落，爲二千三百十三結六十七負一束，而各邑所報，恐涉爽實，川浦名色，與他有異，不得到底詳察，故更加查櫛，待明年僅可以修築起壅者，姑令歸之覆沙，其中潰決汰覆永判廢棄者，精略執摠，則爲一千三百九十八結七十二負七束是白乎所，勿給永災，曾有朝飭，蓋防僞冒之意也，而此非徒列宰之躬審，又是臣之目擊，其在爲官分憂之地，豈有任吏弄奸之理乎？則十平所指，衆目難掩，永頃之令，雖未及下，當給之災，不必斬許，若未蒙永頃之處分，足可爲干和之一端是白乎旃，此外今覆沙爲一千六百三十二結三十六負四束，未移爲一千五十六結九十七負二束，晚移爲一百六十五結三十三負二束，愆蠶蹲縮爲八百三十結七負一束，水沈爲九百六十五結九十三負，風損爲九百八十



九結二十八負六束，雹損爲二十八結八十九負，都合各樣災頃，爲六千九百六十七結五十七負四束是白如乎，俱是目前所覩加減不得者，而精略爲主，查櫛已盡，縱近苛摘，庶免踰濫，茲敢據實登聞爲白去乎，事目災一百結外，不足災六千八百六十七結五十七負四束，特許準劃教是白乎則，臣謹當宣揚德意，塗抹均俵，使彼被災之民，得免白徵之冤是白乎旂

충청도 내 농사 상황은 이미 전후 장본 가운데 대강 아뢰었습니다. 농사를 시작할 때에 알맞게 비가 내리고 별이 나 건경과 수경을 마음대로 하였고, 공력이 파종하거나 못자리에 물을 대는 기후에 어긋나지 않아 올벼와 늦벼를 땅에 심을 만했습니다. 모두 작년 흉년의 남은 두려움을 생각하며 더욱 새해 풍년의 상서를 바라서, 당기지 않아도 스스로 힘쓰고 가르치지 않아도 힘을 다해 다행히 하지에서 망중 사이에 이쪽저쪽 경계에서 꽤 일찍 모내기를 하는 기쁨이 있었고, 논둑과 밭두둑을 이어서 함께 일하며 노래하는 소리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5월 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줄곧 이어져 장마가 되어 바로 70일에 이르렀으니, 꼬박 석 달 동안 장맛비가 내리지 않은 날이 없었고 세차지 않은 적이 없어서, 급한 여울이 치는 곳은 큰 강이 멋대로 흐르고 긴 둑이 터진 곳은 온 들판이 모래에 뒤덮여 영원히 개간하지 않고 그대로 내팽개칠 판이었습니다. 병자년의 참혹한 흉년은 예전에 없던 일이라 곡식은 비록 수확이 없었으나 토지는 진실로 그대로 있었는데, 올해의 재해는 토지와 곡식을 아울러 모두 잃어버렸습니다. 이는 가끔 있는 일이고 곳곳마다 모두 그런 것은 아니니 실재 해당되는 사람에게만 참담한 화가 될 뿐이고, 모가 부족하거나 힘이 미치지 못해 저절로 묵혀져서 내버려진 것은 또한 풍년에도 면하지 못하는 바입니다. 떠돌아다니며 생업을 잃고 죽어서 경작을 포기하는 일이 평상시에 비해 가장 심하니, 이미 심은 것은 잘 자란다고 하지만 거두는 것은 넉넉하기를 바라기가 어려웠습니다. 다행히 큰 침수를 면한 것은 오랫동안 빗속에서 폭염을 겪지 않아 줄기가 약하고 잎이 부드러운데 잡초와 진흙에 파묻혀 김매 시기를 놓쳤으니 이삭이 차기를 어찌 바라겠습니까? 마침 참혹한 뒤에 모양을 이루었다고 할 만하지만, 여러 해 풍년이 든 나머지 흉년을 면하지 못할 것 같았습니다.

염려하던 바람이 한결같이 어찌나 괴상하여 며칠 동안 연이어 불어 패지 않은 이삭은 오프라들어 패지 않고, 알이 차려던 곡식은 시들어 하얗게 되어 알이 차지 않으니, 보기에 참담하였습니다. 작년 묵혔던 논은 배로 거두는 효과가 있다고 하지만 겨우 모내기한

것은 뽑아 올려 사람을 돕는 듯 했습니다. 이에 장마가 겹쳐 이삭이 패게 된 것은 오랜 장마에 병이 들어 스스로 설 힘이 없어 그대로 주저앉아 버리고 모두 썩어서 녹아버려 낫질할 만한 것이 없어 낫질을 아예 시도도 못했습니다. 그루같이한 경우 메마르면 오히려 땅을 갈고 씨앗을 뿌릴 수 있어도 장마는 가장 꺼립니다. 오른쪽 물가의 땅이 모두 찰흙인 데다 가물어 덩어리가 되어 단단하여 쟁기질을 할 수가 없고, 양쪽이 진흙이어서 지금까지 땅을 갈고 씨앗을 뿌리지도 못했는데 다만 이미 익은 보리는 떼내려갔고, 종자에 해당하는 콩·팥을 그대로 버려 이미 해를 버틸 만큼 저축해 둔 것도 없어 내년에 살아갈 밑천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고을의 보고가 안타까움을 아뢰고 백성들의 하소연이 원통함을 호소하므로 별도로 측근을 보내 곳곳마다 캐내고 탐문하게 했습니다. 제가 성묘하러 가는 길에 몇 고을을 두루 지나가 보니, 전하는 말이 더러 와전되었을까 처음에는 염려했었지만 직접 본 것이 끝내 어긋나지 않았음을 믿게 되었습니다.

대개 올해 농사는 갑자기 처음에 비가 내리고 끝에 가서 바람이 불어서 점점 이름만 있었을 뿐 실상이 없었습니다. 토지 조사와 조세 감면은 나라의 큰 정사이고 중요 임무이니 위로는 국가 재정과 관계되고 아래로는 백성들의 고통과 관계됩니다. 그래서 여러 차례 공문으로 지시하고 거듭 더 단속하여 잘 살피고 삼가서 차라리 간략하게 하고 넘치지 않게 하도록 하였더니, 대략적인 보고를 와서 바치게 되면 별도로 조사하고 바로잡아 정당하게 집중하니, 7월에 이미 보고한 논밭이 시내로 변하고 떨어져 나간 것이 2,313결 67부 1속이 되었습니다. 각 고을에서 보고하는 것이 사실과 어긋날까 염려되고, 논밭이 시내로 변하고 떨어져 나간 명색은 다른 것과 차이가 있으므로 철저하고 상세하게 살피지 않을 수 없었으므로 다시 더 살살이 조사하여 내년을 기다려 겨우 수축하고 개간할 수 있는 것은 일단 모래로 뒤덮인 것으로 돌리고, 그 중에 독이 터져 모래로 뒤덮여 영영 버려야 하는 것으로 판가름난 것만 정확하게 집중하니, 1,398결 72부 7속이 되었습니다. 영재를 주지 말라는 일찍이 조정의 지시가 있는 것은 대개 허위로 지나치게 집중하는 것을 막을 의도였습니다. 이는 여러 수령이 직접 살폈을 뿐만 아니라 또 제가 목격한 것이니, 벼슬을 하여 지방관의 지위에 있는 사람치고 어찌 아전이 농간하는 대로 돌리가 있겠습니까? 열 개의 손이 가리키고 많은 사람들의 눈을 가리기 어렵습니다. 영구적인 재해의 명령이 비록 내려오지는 않았지만 마땅히 조세를 감면해야 하는 것은 허락을 아낄 필요가 없습니다. 만약 영구히 면제하는 처분을 입지 못한다면 조화로운 기운을

저해하는 한 가지 단서가 되기에 충분합니다.

그밖에 지금 모래로 뒤덮인 것이 1,632결 36부 4속, 모내기하지 못한 것이 1,056결 97부 2속, 늦게 모내기한 것이 165결 33부 2속, 벼멸구와 쭉정이가 830결 7부 1속, 물에 잠긴 것이 965결 93부, 바람으로 인한 손상이 989결 28부 6속, 우박으로 인한 손상이 28결 89부로 총 각종 재탈이 6,967결 57부 4속이니, 모두 눈앞에서 본 것으로 더하거나 줄일 수 없는 것입니다. 정확함을 위주로 하여 살살이 조사를 이미 다했으니, 비록 가혹하게 적발한 데 가깝더라도 지나치게 했다는 평가에서 벗어나기를 바랍니다. 이에 감히 사실에 근거하여 아뢰니, 사목재 100결 이외에 부족재 6,867결 57부 4속을 특별히 수량대로 확정해 해주신다면, 제가 삼가 마땅히 덕의를 선양하여 지위 없애고 고루 나누어 주어 저 재해를 입은 백성들이 백정되는 억울함에서 벗어나게 하겠습니다.

## 0620. 1878년(고종 15) 2월 23일(양력 3월 26일)

忠淸監營啓錄 8책(91a~91a) /各司臚錄 7책 忠淸道篇 2책(430d~430d)

勸農一事，歲首綸音，不啻懇摯，其所對揚，尤宜警惕乙仍于，助給役糧，勸借農器，俾各服勤，期有實效之意，已爲措辭關飭于列邑守宰處爲白在果，近接各邑所報，則農形段，秋麴方始敷青，春麴間或耕播，治墜修堤，次第經紀是如爲白遣，今月二十二日午時量始雨，或霏或灑，至二十三日辰時開霽。臣營下測雨器水深爲一寸是如乎，各邑所得，向後農形，鱗次陳聞計料，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농사를 권장하는 한 가지 일에 대해 연초에 내린 임금님의 율음은 간곡할 뿐만 아니라 받들어 널리 알리는 데 더욱 경각심을 가져야 마땅합니다. 일과 양식을 도와주고 농기구를 빌려주도록 권하여 각각 부지런히 힘써 꼭 실제적인 효과를 거두라는 뜻으로 이미 문구를 만들어 여러 고을의 수령에게 관문으로 지시하였습니다.

요즘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농사 상황의 경우, 가을보리는 이제 푸른빛을 띠기 시작하였고 봄보리는 간혹 땅을 갈고 씨앗을 뿌렸습니다. 발두둑을 고치고 둑을 만드는 일을 차례로 추진한다고 합니다. 이번 달 22일 오시쯤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더러 부슬부슬 내리거나 더러 뿌리다가 23일 진시에 이르러 개었는데, 저의 감영 측우기 수심은 1치였습니다. 각 고을에 내린 것과 이후 농사 상황은 잇따라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 0621. 1896년(건양 1) 월 일

公文編案 32 公州府

公州府 觀察使 李乾夏 報告(第九十七號)

各郡得雨形止는 임의 報告하여습거니와 各郡所報를 接準하온즉 本月三日以後之雨에 前報外에 鎭岑 沃川 懷仁 淸州等 四邑은 川渠가 漲滿이다이오며 又於本月十三日 辰量에 始雨하야 或霏灑하야 十四日 辰時에 乃止하고 府下測雨器 水深이 爲四寸이올다온 連日霏灑하야 農事多欠하오니 誠甚憂悶이온지라 向後形止를 鱗次詳陳하기습기로 茲에 報告함.

公州府 관찰사 이건하 보고(제97호)

각 군에 내린 비의 경위는 이미 보고하였습니다. 각 군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이번 달 3일 이후의 비는 앞서 보고한 것 외에 진잠·옥천·회인·청주 등 4개 고을은 시내와 도랑이 불어나 가득 찼다고 합니다. 또 이번 달 13일 진시쯤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더러 부슬부슬 내리거나 뿌리다가 14일 진시에 이내 그쳤는데, 관찰부 측우기 수심이 4치였습니다. 연일 부슬부슬 내리기도 하고 뿌리기도 하여 농사에 많이 해로우니 정말로 매우 근심되고 걱정스럽습니다. 이후 경위는 잇따라 상세히 아될 계획입니다. 이에 보고합니다.

## 0622. 1897년(건양 2) 7월 8일

公文編案 61 公州府

公州府 觀察使 李乾夏 報告(第一百四號)

各郡守報告書를 接準호은즉 祈雨祭壇은 前報外에 燕岐 海美 兩郡은 本月二日爲始設行호고 牙山 扶餘 藍浦 泰安 等四郡은 三日爲始設行호고 文義 林川 兩郡은 四日爲始設行호고 鴻山 保寧 鎭岑 懷德 等四郡은 五日爲始設行이다 이오며 本月六日午時量에 始雨호와 或霏 或灑호야 八日辰時에 乃止호니 府下測雨器水深이 爲八寸七分이 오며 陰雲이 散合호야 餘意가 尙多호은바 旱餘一霈가 爲民萬幸이라 遠邇均霑을 今姑未知 故로 各郡祈雨祭는 雨報를 待호와 量宜停設케호오며 茲에 報告함.

공주부 관찰사 이건하 보고(제104호)

각 군수의 보고서를 접수해 보니, 기우제의 경우 앞서 보고한 것 외에 연기·해미 2개 군은 이번 달 2일부터 시행하였고, 아산·부여·남포·태안 등 4개 군은 3일부터 시행하였고, 문의·임천 2개 군은 4일부터 시행하였고, 홍산·보령·진잠·회덕 등 4개 군은 5일부터 시행하였다고 합니다. 이번 달 6일 오시쯤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더러는 부슬부슬 내리기도 하고 더러는 뿌리기도 하다가 8일 진시에 이내 그쳤는데, 관찰부 측우기 수심이 8치 7푼이었습니다. 그러나 먹구름이 흩어졌다 합쳤다 하여 조짐이 아직도 많으니 가뭄 끝에 한차례 퍼부은 비는 백성들을 위해 매우 다행입니다. 멀고 가까운 곳을 고루 적셨는지를 지금은 아직 알지 못하므로 각 군의 기우제는 비에 대한 보고를 기다려 적절히 헤아려 시행을 중지하게 하겠습니다. 이에 보고합니다.

## 0623. 1897년(건양 2) 7월 13일

公文編案 61 公州府

公州府 觀察使 李乾夏 報告(第一百七號)

各郡守報告書를 連接호은즉 本月六日之雨에 公州 魯城 鎭岑 文義 等四郡은 川渠漲滿호고 全義 稷山 溫陽 牙山 德山 懷德林川 等七郡은 得二犁호고 天安 平澤 石城扶餘 定山 洪州恩津 連山 等八郡은 得一犁호고 鴻山 藍浦 瑞山 泰安 等四郡은 得一鋤호고 祈雨祭壇은 前報外에 唐津은 本月二日爲始設行호고 平澤 瑞山 德山 等三郡은 四日爲始設行호고 禮山 韓山 兩郡은 五日爲始設行호고 新昌 結城 洪州 等三郡은 六日爲始設行이오며 公州 全義 天安 稷山 平澤 溫陽 牙山 石城 扶餘 林川 定山 德山 魯城 恩津 連山 鎭岑 文義 等十七郡停止이다 이오며 本月九日申時量에 始雨호와 或止或霏호야 十二日午時에 仍止호오니 府下 測雨器水深이 爲三寸四分이옴고 餘意網多이온 故로 玆에 報告함.

공주부 관찰사 이견하 보고(제107호)

각 군수의 보고서를 연이어 접수해 보니 이번 달 6일의 비로 공주·노성·진잠·문의 등 4개 군은 시내와 도랑이 불어나 가득 찼고, 전의·직산·온양·아산·덕산·회덕·임천 등 7개 군은 2려가 내렸고, 천안·평택·석성·부여·정산·홍주·은진·연산 등 8개 군은 1려가 내렸고, 홍산·남포·서산·태안 등 4개 군은 1서가 내렸다고 합니다. 기우제의 경우, 앞서 보고한 것 외에 당진은 이번 달 2일부터 시행하고, 평택·서산·덕산 등 3개 군은 4일부터 시행하고, 예산·한산 2개 군은 5일부터 시행하고, 신창·결성·홍주 등 3개 군은 6일부터 시행하였습니다. 그리고 공주·전의·천안·직산·평택·온양·아산·석성·부여·임천·정산·덕산·노성·은진·연산·진잠·문의 등 17개 군은 기우제를 중지하였다고 합니다. 이번 달 9일 신시쯤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더러 그쳤다가 더러 부슬부슬 내리다가 12일 오시에 이내 그쳤는데, 관찰부 측우기 수심이 3치 4푼이었고, 비가 더 올 조짐이 매우 많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보고합니다.

## 0624. 1897년(건양 2) 8월 8일

公文編案 61 公州府

公州府 觀察使 李乾夏 報告(第一百十八號)

各郡報告書를 連接 〰 온즉 上月二十一日之雨前報外에 舒川은 江川이 汎濫 〰 고 稷山牙山 鴻山 洪州 沔川 鎭岑 魯城 等七郡은 川渠漲滿 〰 고 韓山 靑陽 恩津 等三郡은 得二犁 〰 고 藍浦는 得一犁이오며 本月四日以後로 連爲霏灑 〰 고 間或暴霖 〰 야 至七日卯時에 乃止 〰 오니 府下測雨器水深이 爲五寸五分이온바 一雨成霖 〰 와 彌月不開 〰 온디 前水가 未退 〰 고 新漲이 又添 〰 야 稚秧弱根이 舉皆判棄이오니 爲念民情에 誠甚悶然이온지라. 向後形止는 鱗次馳報 〰 기쓰오며 茲에 報告 〰 함.

공주부 관찰사 이건하 보고(제118호)

각 군의 보고서를 연이어 접수해 보니, 지난달 21일의 비로 앞서 보고한 것 외에 서천군은 강과 시내가 범람하였고, 직산·아산·홍산·홍주·면천·진잠·노성 등 7개 군은 시내와 도랑이 불어나 가득 찼고, 한산·청양·은진 등 3개 군은 2려가 내렸고, 남포는 1려가 내렸다고 합니다. 이번 달 4일 이후로 연이어 부슬부슬 내리거나 뿌리다가 간혹 세차게 쏟아지다가 7일 묘시에 이내 그쳤는데, 관찰부 측우기 수심이 5치 5푼이었습니다. 한차례 비가 장마가 되어 한 달 동안 개지 않는데, 이전 물이 빠지지 않고 새 물이 또 더하니 어린 모의 약한 뿌리가 대부분 못쓰게 된 것으로 판가름 났으니 백성들의 심정을 생각하면 정말로 매우 걱정스럽습니다. 이후 경위는 잇따라 긴급 보고하겠습니다. 이에 보고합니다.



## 0625. 1897년(건양 2) 8월 14일

公文編案 61 公州府

公州府 觀察使 李乾夏 報告(第一百二十二號)

各郡守報告書을 連接호은즉 本月四日之雨에 公州 稷山 魯城 文義 等四郡은 川渠漲溢호고 天安은 得二犁호고 牙山 禮山 保寧 林川 等四郡은 得一犁이다이오며 又於十二日巳時量에 始雨호와 或霏或灑호고 又爲挾風連霖호와 十三日辰時에 乃止호오니 府下測雨器水深이 爲一尺二寸이온바 一雨連綿호와 一朔一旬에 至호온디 前水가 停滯不退호고 今下가 又此 巨浸호와 府下近野로 觀之호와도 沿江諸處이 一望如天이오니 農家有秋를 大爲失望이온 지라 向後形止은 鱗次馳報호깃삼기로 茲에 報告함.

공주부 관찰사 이견하 보고(제122호)

각 군수의 보고서를 연이어 접수해 보니, 이번 달 4일의 비로 공주·직산·노성·문의 등 4개 군은 시내와 도랑이 불어나 넘쳤고, 천안은 2려가 내렸고, 아산·예산·보령·임천 등 4개 군은 1려가 내렸다고 합니다. 또 12일 사시쯤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더러 부슬부슬 내리거나 뿌리다가 또 바람과 함께 연이어 주룩주룩 내리다가 13일 진시에 이내 그쳤는데, 관찰부 측우기 수심이 1자 2치였습니다. 비가 죽 연이어 와서 한 달 열흘에 이르렀는데 이전의 물이 고여서 빠지지 않고 지금 내린 비가 또 이렇게 크게 침수하여, 관찰부가 가까운 들판으로 보자면 강 주변 여러 곳이 한눈에 보기에 하늘과 같으니 농가에서는 가을에 크게 실망할 것입니다. 이후 경위는 잇따라 긴급 보고하겠습니다. 이에 보고합니다.

## 0626. 1897년(광무 1) 9월 2일

公文編案 61 公州府

公州府 觀察使 李乾夏 報告(第一百三十號)

各郡守報告書를 連接호온즉 農形산은 早稻早黍粟은 次第發穗호고 中稻는 方張胚胎호고 晚稻晚黍稷은 再鋤已畢호고 和種豆太는 間多結穀호고 根耕豆太는 間或起花이온바 二朔 長霖에 連被沈墊호야 蹲縮腐傷과 蟲食風損이 痒稼非細호야 舉一坪全棄者往往有之이다 호온바 兩朔一雨가 連日或間日호야 且霏且灑에 誠爲支離호온지라. 又於本月二十七日以後로 至三十一日巳時量에 府下測雨器水深이 爲五寸三分이온디 爲念民事에 極爲憂悶호온 故로 茲에 報告함.

공주부 관찰사 이건하 보고(제130호)

각 군수의 보고서를 연이어 접수해 보니, 농사 상황의 경우, 올벼와 올기장·올조는 차례로 이삭이 패고 중벼는 한창 알을 배고, 있고 늦벼와 늦기장·늦조는 두벌 김매기를 이미 마쳤고, 섞어 짓는 콩·팥은 그사이에 꼬투리를 맺고, 그루같이한 콩·팥은 간혹 꽃이 피고 있습니다. 두 달간의 장마에 연이어 물에 잠겨 쪽정이가 되고 썩어서 상하고 벌레가 먹고 바람에 손상된 벼가 적지 않아 온 들판이 전부 못쓰게 된 것이 종종 있다고 합니다. 두 달간 비가 연일 또는 격일로 내리면서 또 주룩주룩 내리다가 또 뿌리며 정말로 지루하게 내렸습니다. 또 이번 달 27일 이후로 31일 사시쯤에 이르러 관찰부 측우기 수심이 5치 3푼이었습니다. 백성들의 사정을 생각하면 그지없이 근심과 걱정이 크기 때문에 이에 보고합니다.

## 0627. 1898년(광무 2) 4월 20일

公文編案 41 忠淸南道

忠淸南道 觀察使 李乾夏 報告(第三十八號報告)

各郡所報를 續接호즉 本月八日之雨에 全義溫陽牙山定山藍浦文義等六郡은 得一鋤호고 禮山新昌兩郡은 浥塵이오며 農形차는 秋耨는 漸益敷靑호고 春耨는 次第立苗호고 糞田整畝은 間或始役이다이오며 本月十九日酉時量에 始雨호와 或霏或灑호야 二十日卯時에 乃止호오니 府下測雨器水深이 爲三寸五分이온바 向後形止를 鱗次馳報호 曄습기로 茲에 報告함.

忠淸南道 관찰사 이건하 보고(제38호)

각 군의 보고를 계속해서 접수해 보니, 이번 달 8일의 비로 전의·온양·아산·정산·남포·문의 등 6개 군은 1서가 내렸고, 예산·신창 2개 군은 먼지만 적실 정도로 내렸다고 합니다. 농사 상황의 경우, 가을보리는 점점 더 푸르러지고 봄보리는 차례로 싹이 돋고, 밭에 거름을 주고 논을 가는 일을 간혹 시작하였다고 합니다. 이번 달 19일 유시쯤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더러 부슬부슬 내리거나 뿌리다가 20일 묘시에 이내 그쳤는데, 관찰부 측우기 수심이 3치 5푼이었습니다. 이후 경위를 잇따라 긴급 보고하겠습니다. 이에 보고합니다.

## 0628. 1898년(광무 2) 6월 5일

公文編案 41 忠淸南道

忠淸南道 觀察使 鄭周永 報告(第六十號報)

各郡報告書를 續接 〇온즉 上月二十六日之雨에 前報外에 公州牙山德山燕岐等四郡은 得一  
鋤 〇고 天安稷山溫陽新昌石城扶餘鴻山林川連山文義等十郡은 浥塵 〇고 二十九日之雨에  
公州燕岐兩郡은 浥塵이다이오며 本月三日申時量에 始雨 〇와 或霏或灑 〇야 至四日辰時에  
乃止 〇오니 府下測雨器水深이 爲一寸一分이오며 伊後載陰載陽 〇야 同日酉時에 開霽이옵  
기로 茲에 報告함.

충청남도 관찰사 정주영 보고(제60호)

각 군의 보고서를 계속해서 접수해 보니, 지난달 26일의 비로 앞서 보고한 것 외에 공주·  
아산·덕산·연기 등 4개 군은 1서가 내렸고, 천안·직산·온양·신창·석성·부여·홍산·임천·연  
산·문의 등 10개 군은 먼지만 적실 정도로 내렸고, 29일에 내린 비로 공주·연기 등 2개  
군은 먼지만 적실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번 달 3일 신시쯤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더러 부슬부슬 내리거나 뿌리다가 4일 진시에 이르러 이내 그쳤는데, 관찰부 측우기  
수심이 1치 1푼이었습니다. 이후 언뜻언뜻 흐렸다 별이 났다 하다가 같은 날 유시에  
개었습니다. 이에 보고합니다.

## 0629. 1898년(광무 2) 6월 12일

公文編案 41 忠淸南道

忠淸南道 觀察使 鄭周永 報告(第六十一號)

本月三日에 得雨形止는 임의 報告호엿습거니와 各郡所報를 續接호온즉 伊日之雨에 天安 石城鎭岑等三郡은 溫塵호고 公州牙山溫陽泰安林川懷德燕岐等七郡은 得一鋤호고 保寧一郡은 得一犁이다이오며 本月九日寅時量에 始雨호와 或霏或灑호야 至十一日寅時에 乃止호오니 府下測雨器水深이 爲一寸七分이오며 陰雲이 散合호와 尙有餘意故로 向後形止은 鱗次陳報호기쑈오며 茲에 報告함.

충청남도 관찰사 정주영 보고(제61호)

이번 달 3일에 내린 비의 경위는 이미 보고하였습니다. 각 군의 보고를 계속해서 접수해보니, 그날 비로 천안·석성·진잠 등 3개 군은 먼지만 적실 정도였고, 공주·아산·온양·태안·임천·회덕·연기 등 7개 군은 1서가 내렸고, 보령 1개 군은 1려가 내렸다고 합니다. 이번 달 9일 인시쯤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더러 부슬부슬 내리거나 뿌리다가 11일 인시에 이르러 이내 그쳤는데, 관찰부 측우기 수심이 1치 7푼이었습니다. 그러나 먹구름이 흩어졌다 합쳤다 하여 아직 비가 더 올 조짐이 있으므로 이후 경위는 잇따라 아뢰겠습니다. 이에 보고합니다.

0630. 1898년(광무 2) 6월 26일

公文編案 41 忠淸南道

忠淸南道 觀察使 鄭周永 報告(第七十一號)

本月二十四日卯時量에 始雨 ㄱ와 或霏或灑 ㄱ야 至二十五日酉時에 乃止 ㄱ오니 府下測雨器 水深이 爲一寸이온바 向日之雨가 驟過旋止 ㄱ고 今番之雨가 終未快霽 ㄱ야 沿峽之間이 未 免浥塵 ㄱ오니 言念民情에 去益憂悶이옵기 茲에 報告함.

충청남도 관찰사 정주영 보고(제71호)

이번 달 24일 묘시쯤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더러 부슬부슬 내리거나 뿌리다가 25일 유시에 이르러 이내 그쳤는데, 관찰부 측우기 수심이 1치였습니다. 저번에 내린 비는 지나가는 소나기로 곧바로 그쳤고 이번에 내린 비는 끝내 시원하게 주룩주룩 내리지 않아 해안이든 산골짜기든 먼지만 적실 정도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백성들의 심정을 생각하면 갈수록 근심과 걱정입니다. 이에 보고합니다.

## 0631. 1898년(광무 2) 6월 29일

公文編案 41 忠淸南道

忠淸南道 觀察使 鄭周永 報告(第七十四號)

各郡報告書를 接準 〇온즉 內開 本月二十四日之雨에 前報外에 石城은 得一犁 〇고 懷德은 得二鋤 〇고 公州全義燕岐等三郡은 得一鋤 〇고 文義는 浥塵이다이오며 二十八日寅時量에 始雨 〇와 未時에 乃止 〇오니 府下測雨器水深이 爲二寸이오며 農形狀은 春耨는 方張刈穫 〇고 洞畚裕水處는 幾盡移秧 〇고 付種乾播는 再鋤 〇고 早黍粟和種豆太及木花는 次第再 除草이온디 小署가 在邇에 一霈가 尙遲 〇와 舉多未移秧 〇오니 言念民情에 益切憂悶이옵 기 茲에 報告함.

충청남도 관찰사 정주영 보고(제74호)

각 군의 보고서를 접수해 보니 내용에, 이번 달 24일의 비로 앞서 보고한 것 외에 석성은 1려가 내렸고, 회덕은 2서가 내렸고, 공주·전의·연기 등 3개 군은 1서가 내렸고, 문의는 먼지만 적실 정도였다고 합니다. 28일 인시쯤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미시에 이내 그쳤는데 관찰부 측우기 수심이 2치였습니다.

농사 상황의 경우, 봄보리는 한창 베어서 수확하고 물이 넉넉한 동네 논은 거의 다 모내기 했으며, 부종하고 건파한 것은 두벌매기하고 올기장·올조와 섞어 짓는 콩·팥 및 목화는 차례로 두벌 김매기를 합니다. 소서가 가까운데 아직도 한차례 시원하게 쏟아지는 비가 없어서 대부분 모내기를 못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의 심정을 생각하면 근심과 걱정이 더욱 절실합니다. 이에 보고합니다.

## 0632. 1898년(광무 2) 7월 2일

公文編案 41 忠淸南道

忠淸南道 觀察使 鄭周永 報告(第七十五號)

上月二十九日亥時量에 始雨 ㄱ와 或灑或霏 ㄱ와 本月二日午時量에 乃止 ㄱ오니 府下測雨器 水深이 爲五寸이온바 一霽가 優洽 ㄱ야 未移를 旋插 ㄱ오니 言念民事에 誠切萬幸이오디 以近野言之 ㄱ오면 田畓各穀之沉墊이 比比有之이온지라 各郡得雨形止는 待其報來 ㄱ야 鱗 次馳報 ㄱ깃스오며 茲에 報告함.

충청남도 관찰사 정주영 보고(제75호)

지난달 29일 해시쯤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더러 뿌리기도 하고 주룩주룩 내리기도 하다가 이번 달 2일 오시쯤에 이내 그쳤는데, 관찰부 측우기 수심이 5치였습니다. 한차례 퍼부은 비가 매우 흡족하여 모내기하지 못한 곳에 곧바로 심고 있으니 백성들의 사정을 생각하면 정말로 매우 다행입니다. 하지만 가까운 들판으로 말하자면 논밭의 각종 곡식이 물에 잠긴 곳이 종종 있습니다. 각 군에 내린 비의 경위는 보고가 오기를 기다려 잇따라 긴급 보고하겠습니다. 이에 보고합니다.



## 0633. 1898년(광무 2) 7월 4일

公文編案 41 忠淸南道

忠淸南道 觀察使 鄭周永 報告(第七十六號)

各郡農形에 憂悶한 情狀은 前已連續報來하고 祈雨祭를 觀勢設行할 意로 指令하고 엿습더니 各郡報告書를 續接하고 온즉 祈雨祭를 韓山舒川兩郡은 上月二十二日設行하고 舒川은 二十五日에 再次設行하고 韓山은 二十六日에 再次設行하고 天安은 二十七日에 設行하고 木川 溫陽泰安等三郡은 二十八日에 設行하고 恩津稷山兩郡은 二十九日에 設行이다이오며 二十四日之雨에 前報外林川鴻山定山靑陽等四郡은 得一鋤하고 稷山韓山兩郡은 浥塵하고 二十八日之雨에 公州保寧兩郡은 得一犁하고 全義天安燕岐林川瑞山等五郡은 得一鋤하고 泰安은 浥塵하고 二十九日之雨에 公州는 江川이 汎濫하고 全義魯城은 川渠가 漲滿이다이오며 本月三日已時量에 始雨하고 或灑或霑하고 四月辰時에 乃止하고 오니 府下測雨器水深이 又爲三寸一分이온디 并與二十八九兩日所得으로 通計하고 오면 合爲一尺一分이온지라 霈澤이 連霑에 爲民萬幸이온바 遠邇均霑을 今姑未知이오나 各郡祈雨祭는 觀勢停止케 하고며 茲에 報告함.

충청남도 관찰사 정주영 보고(제76호)

각 군의 농사 상황이 근심되고 걱정되는 정상은 앞서 이미 연속으로 보고가 와서 기우제는 형세를 보아 시행하라는 뜻으로 지령하였습니다. 각 군의 보고서를 계속해서 접수해 보니, 기우제의 경우 한산·서천 2개 군은 지난달 22일 시행하였고, 서천은 25일에 재차 시행하고, 한산은 26일에 재차 시행하고, 천안은 27일에 시행하고, 목천·온양·태안 등 3개 군은 28일에 시행하고, 은진·직산 2개 군은 29일에 시행했다고 합니다. 24일의 비로 앞서 보고한 것 외에 임천·홍산·정산·청양 등 4개 군은 1서가 내렸고, 직산·한산 2개 군은 먼지만 적실 정도였습니다. 28일의 비로 공주·보령 2개 군은 1려가 내렸고, 전의·천안·연기·임천·서산 등 5개 군은 1서가 내렸고, 태안은 먼지만 적실 정도였다고 합니다. 29일의 비로 공주는 강과 시내가 범람하였고, 전의·노성 2개 군은 시내와 도랑이 불어나 가득 찼다고 합니다. 이번 달 3일 사시쯤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더러 뿌리기도 하고

주룩주룩 내리기도 하더니 4일 진시에 이내 그쳤는데, 관찰부 측우기 수심이 또 3치 1푼이었으며, 아울러 28·29일 이틀간 내린 것을 통틀어 계산하면 총 1자 1푼입니다. 큰비가 연이어 주룩주룩 내려 백성들을 위해 매우 다행으로 멀고 가까운 것을 고루 적셨는지는 지금 아직 알지 못하지만 각 군의 기우제는 형세를 보아 중지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보고합니다.

## 0634. 1898년(광무 2) 7월 12일

公文編案 41 忠淸南道

忠淸南道 觀察使 鄭周永 報告(第七十八號)

各郡報告書를 連接 ㅎ온즉 祈雨祭壇은 前報外에 藍浦은 上月二十五日에 爲始設行 ㅎ고 天安藍浦兩郡은 二十八日再次設行 ㅎ고 舒川은 同日에 三次設行 ㅎ고 韓山은 二十九日에 三次設行 ㅎ고 新昌唐津兩郡은 三十日에 爲始設行 ㅎ고 木川溫陽兩郡은 本月一日에 再次設行 ㅎ고 稷山은 二日에 再次設行 ㅎ고 瑞山은 三日에 爲始設行 ㅎ고 新昌은 同日에 再次設行 ㅎ고 天安은 四日에 三次設行 이오며 舒川藍浦唐津天安稷山木川溫陽新昌恩津等九郡은 得雨停止 이다 이오며 上月二十九日之雨에 前報外에 扶餘는 江川이 汎濫 ㅎ고 木川定山懷德文義等四郡은 川渠가 漲滿 ㅎ고 天安溫陽舒川藍浦保寧恩津等六郡은 得二犁 ㅎ고 燕岐稷山兩郡은 得一犁 ㅎ고 禮山新昌林川等三郡은 得一鋤 ㅎ고 本月三日之雨에 公州石城兩郡은 江川이 汎濫 ㅎ고 全義木川稷山溫陽禮山唐津林川連山懷德等九郡은 川渠가 漲滿 ㅎ고 牙山新昌舒川魯城四郡은 得二犁 ㅎ고 五日午時量에 始雨 ㅎ와 或灑或霏 ㅎ야 十二日辰時에 乃止 ㅎ오니 府下測雨器水深이 爲四寸九分 이온바 一雨가 彌旬에 過霪暴漲 ㅎ야 沿江傍川之地에 潰覆沈墊之患이 無處不然 이다 邑報가 踵至 ㅎ오니 言念民情에 誠極憂悶 이온지라 未報 邑零祭는 并爲停止 케 ㅎ옵고 向後形止를 鱗次續報 ㅎ기 습기 茲에 報告 함.

忠淸南道 관찰사 정주영 보고(제78호)

각 군의 보고서를 접수해 보니, 기우제의 경우 앞서 보고한 것 외에 남포는 지난달 25일부터 시행하였고, 천안·남포 2개 군은 28일 재차 시행하고, 서천은 같은 날에 3차 시행하고, 한산은 29일에 3차 시행하고, 신창·당진 2개 군은 30일부터 시행하고, 목천·온양 2개 군은 이번 달 1일에 재차 시행하고, 직산은 2일에 재차 시행하고, 서산은 3일부터 시행하고, 신창은 같은 날 재차 시행하고, 천안은 4일에 3차 시행하고, 서천·남포·당진·천안·직산·목천·온양·신창·은진 등 9개 군은 비가 내려 주지하였다고 합니다. 지난달 29일의 비로 앞서 보고한 것 외에 부여는 강과 시내가 범람하고, 목천·정산·회덕·문의 등 4개 군은 시내와 도랑이 불어나 가득 찼고, 천안·온양·서천·남포·보령·은진 등 6개 군은 2려가

내렸고, 연기·직산 2개 군은 1려가 내렸고, 예산·신창·임천 등 3개 군은 1서가 내렸다고 합니다. 이번 달 3일의 비로 공주·석성 2개 군은 강과 시내가 범람하고, 전의·목천·직산·온양·예산·당진·임천·연산·회덕 등 9개 군은 시내와 도랑이 불어나 가득 찼고, 아산·신창·서천·노성 등 4개 군은 2려가 내렸다고 합니다. 5일 오시쯤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더러 뿌리기도 하고 주룩주룩 내리기도 하다가 12일 진시에 이내 그쳤는데, 관찰부 측우기 수심이 4치 9푼이었습니다. 한 차례의 비가 열흘 동안 지나치게 주룩주룩 내리고 갑자기 불어나 강 주변과 시냇가 지역은 독이 터지고 흙에 덮이고 물에 잠기는 재해가 발생하지 않는 곳이 없다고 고을의 보고가 몰려오니 백성들의 심정을 생각하면 정말로 근심과 걱정이 그지없이 큼니다. 미처 보고하지 못한 고을의 기우제는 모두 중지하도록 하였습니 다. 이후 경위는 잇따라 계속 보고하겠습니다. 이에 보고합니다.

## 0635. 1898년(광무 2) 7월 25일

公文編案 41 忠淸南道

忠淸南道 觀察使 鄭周永 報告(第八十三號)

各郡報告書를 續接 〇온즉 本月三日之雨前報外에 靑陽瑞山保寧結城等四郡은 川渠가 漲滿 〇고 沔川은 得二犁 〇고 泰安韓山藍浦等三郡은 得一犁 〇고 五日之雨 前報外에 定山林川兩郡은 江川이 汎濫 〇고 稷山平澤溫陽牙山禮山新昌大興德山鴻山結城連山鎭岑文義等十三郡은 川渠가 漲滿 〇고 海美은 得二犁 〇고 韓山은 得一犁이다이오며 本月二十三日丑時 量에 始雨 〇와 或霖或灑 〇야 二十四日巳時에 開霽 〇오니 府下測雨器水深이 爲九分이온바 各郡所得은 待其齊報 〇와 鱗次馳報 〇기잡기로 玆에 報告함.

충청남도 관찰사 정주영 보고(제83호)

각 군의 보고서를 계속해서 접수해 보니, 이번 달 3일의 비로 앞서 보고한 것 외에 청양·서산·보령·결성 등 4개 군은 시내와 도랑이 불어나 가득 찼고, 면천은 2려가 내렸고, 태안·한산·남포 등 3개 군은 1려가 내렸으며, 5일의 비로 앞서 보고한 것 외에 정산·임천 2개 군은 강과 시내가 범람하고, 직산·평택·온양·아산·예산·신창·대흥·덕산·홍산·결성·연산·진잠·문의 등 13개 군은 시내와 도랑이 불어나 가득 찼고, 해미는 2려가 내렸고 한산은 1려가 내렸다고 합니다. 이번 달 23일 축시쯤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더러 주룩주룩 내리기도 하고 뿌리기도 하더니 24일 사시에 개었는데, 관찰부 측우기 수심이 9푼이었습니 다. 각 군에 내린 것은 일제히 보고하기를 기다려 잇따라 긴급 보고하겠습니다. 이에 보고합니다.

## 0636. 1898년(광무 2) 7월 31일

公文編案 41 忠淸南道

忠淸南道 觀察使 鄭周永 報告(第八十七號)

各郡報告를 接準 ्ह온즉 本月二十三日之雨에 公州木川鎭岑文義等四郡은 川渠가 徵漲 ्ह고 燕岐林川韓山等三郡은 得一鋤이다이오며 農形畓은 付種乾播 ्ह 漸次茁茂 ्ह고 早稻 ्ह 連爲再鋤 ्ह고 中晚稻 ्ह 間多初鋤 ्ह고 早黍粟和種豆太及木花 ्ह 再除草 ्ह고 晚黍粟根耕豆太 ्ह 方始初除草이온되 南風이 連吹之餘에 愆蠶蹲縮之患이 無處不熾盛 ्ह와 誠切憂悶이다이오며 本月二十四日酉時量에 始雨 ्ह와 或霏或霪 ्ह야 至二十九日辰時, 府下測雨器水深이 爲三寸八分이온바 向後形止를 鱗次續報 ्ह기썅기 茲에 報告함.

충청남도 관찰사 정주영 보고(제87호)

각 군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이번 달 23일의 비로 공주·목천·진잠·문의 등 4개 군은 시내와 도랑이 조금 불어나고, 연기·임천·한산 등 3개 군은 1서가 내렸다고 합니다. 농사 상황의 경우, 부족하고 건파한 것은 점차 삭이 무성해지고, 올벼는 연이어 두벌매기 하고 중벼와 늦벼는 그사이에 많이 초벌 김매기를 하고, 올기장·올조와 섞어 짓는 콩·팥 및 목화는 두벌 김매기하고, 늦기장·늦조와 그루같이한 콩·팥은 막 초벌 김매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남풍이 연이어 분 끝에 건잠준축의 근심이 세차게 번지지 않는 곳이 없어서 정말로 근심과 걱정이 절실하다고 합니다. 이번 달 24일 유시쯤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더러 부슬부슬 내리기도 하고 주룩주룩 내리기도 하다가 29일 진시에 이르렀는데, 관찰부 측우기 수심이 3치 8푼이었습니다. 이후 경위는 잇따라 계속해서 보고하겠습니다. 이에 보고합니다.

## 0637. 1898년(광무 2) 8월 6일

公文編案 41 忠淸南道

忠淸南道 觀察使 鄭周永 報告(第八十八號)

各郡報告書를 接準 〇온즉 上月二十四日之雨에 前報外에 新昌德山沔川等三郡은 得二犁 〇고 二十四日之雨에 公州燕岐魯城懷德等四郡은 川渠漲滿 〇고 牙山은 得二犁 〇고 天安保寧林川石城等四郡은 得一犁 〇고 韓山藍浦兩郡은 得一鋤이다이오며 三十日酉時量에 始雨霏灑 〇야 本月二日까지 爲二寸一分이오며 又同月三日午時量始雨 〇와 或灑或霏 〇야 五日戌時에 乃止 〇오니 府下測雨器水深이 爲八寸 〇와 通計前後에 合爲一尺一分이온바 前水가 未退에 新漲이 又添 〇와 早晚各穀이 舉多判棄이오니 言念民情에 誠切憂悶이온지라 向後形止는 鱗次馳報 〇기썻오며 茲에 報告함.

충청남도 관찰사 정주영 보고(제88호)

각 군의 보고서를 접수해 보니, 지난달 24일의 비로 앞서 보고한 것 외에 신창·덕산·면천 등 3개 군은 2려가 내렸고, 24일의 비로 공주·연기·노성·회덕 등 4개 군은 시내와 도랑이 불어나 가득 찼고, 아산은 2려가 내렸고, 천안·보령·임천·석성 등 4개 군은 1려가 내렸고, 한산·남포 2개 군은 1서가 내렸다고 합니다. 30일 유시쯤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부슬부슬 내리기도 하고 뿌리기도 하여 이번 달 2일까지 2치 1푼이며, 또 같은 달 3일 오시쯤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더러 뿌리기도 하고 더러 주룩주룩 내리다가 5일 술시에 이내 그쳤는데, 관찰부 측우기 수심이 8치여서 지금까지 통틀어 계산하면 총 1자 1푼입니다. 이전의 물이 빠지지 않았는데 새로 불어나 또 더하여 올곡·늦고 각종 곡식이 대부분 못쓰게 된 것으로 관가름 났으니, 백성들의 심정을 생각하면 정말로 근심과 걱정이 절실합니다. 이후 경위는 잇따라 긴급 보고하겠습니다. 이에 보고합니다.

## 0638. 1898년(광무 2) 8월 15일

公文編案 41 忠淸南道

忠淸南道 觀察使 鄭周永 報告(第九十一號)

各郡報告書를 接準호은즉 上月三十日之雨에 前報外에 平澤은 江川이 汎濫호고 林川韓山大興等三郡은 川渠가 漲滿호고 本月十日之雨에 公州禮山林川等三郡은 川渠가 漲滿이다이오며 農形은 田畓各穀이 酷被水災호와 潰缺覆沙에 區域을 另失호고 穀形이 全無호는 者外에 早稻는 已盡再鋤호고 中晚稻는 間或再鋤호고 早黍粟은 方張胚胎호고 和種豆太及木花는 次第起花호고 根耕豆太及晚黍粟은 連爲再除草이다이오며 又於十三日午時量에 始雨호와 或霏或灑호야 至十五日辰時에 乃止호오니 府下測雨器水深이 爲三寸이온바 陰雲이 濃合호와 晴意가 尙無이옵고 橫流怒濤가 進退無常호오니 言念農事에 尤極憂悶이온지라 向後形止는 鱗次續報호기답기 玆에 報告함.

충청남도 관찰사 정주영 보고(제91호)

각 군의 보고서를 접수해 보니, 지난달 30일의 비로 앞서 보고한 것 외에 평택은 강과 시내가 범람하고, 임천·한산·대흥 등 3개 군은 시내와 도랑이 불어나 가득 찼고, 이번 달 10일의 비로 공주·예산·임천 등 3개 고을은 시내와 도랑이 불어 가득 찼다고 합니다. 농사 상황의 경우, 논밭의 각종 곡식이 혹심하게 수해를 입어 독이 무너지고 모래에 덮여 구역을 별도로 잃고 곡식 형상이 전혀 없는 것을 제외하고 올벼는 이미 두벌 김매기를 마쳤고 중벼와 늦벼는 간혹 두벌매기하고 올기장과 올조는 한창 알을 배고, 있으며, 섞어 짓는 콩·팥 및 목화는 차례로 꽃이 피고, 그루같이한 콩·팥 및 늦기장·늦조는 연이어 두벌 김매기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 13일 오시쯤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더러 부슬부슬 내리거나 뿌리다가 15일 진시에 이르러 이내 그쳤는데, 관찰부 측우기 수심이 3치였습니다. 먹구름이 짙게 합쳐서 날이 갠 조짐이 아직 없고 휩쓸고 가는 성난 물결의 들고 남이 일정치 않으니 농사를 생각하면 근심과 걱정이 더욱 그지없습니다. 이후 경위는 잇따라 계속 보고하겠습니다. 이에 보고합니다.



## 0639. 1898년(광무 2) 8월 19일

公文編案 41 忠淸南道

忠淸南道 觀察使 鄭周永 報告(第九十三號)

各郡報告書을 連接 ㅎ온즉 上月三十日之雨 前報外에 溫陽唐津海美等三郡은 江川이 汎濫 ㅎ고 全義結城兩郡은 川渠가 漲滿 ㅎ고 本月十日之雨 前報外에 天安溫陽結城魯城等四郡은 川渠가 漲滿 ㅎ고 十三日之雨에 公州連山兩郡은 川渠가 漲滿이온디 人命渰死와 家舍漂 頽와 田畝潰缺이 無處不然이다이오며 又於十七日巳時量의 始雨大霪 ㅎ와 至十九日辰時에 乃止 ㅎ오니 府下測雨器水深이 爲一尺一寸이온디 爲先以府下所見으로 論 ㅎ오면 近二丈之 大通橋에 怒濤가 越 ㅎ야 奔入閭家 ㅎ고 錦江左右數三十里平原之地에 一望是上下天光이온 지라 近而如是 ㅎ니 遠可推知이온바 言念民事에 大爲憂悶이오며 各郡形止 鱗次續報 ㅎ기삼기 茲에 報告함.

충청남도 관찰사 정주영 보고(제93호)

각 군의 보고서를 연이어 접수해 보니, 지난달 30일의 비로 앞서 보고한 것 외에 온양·당진·해미 등 3개 군은 강과 시내가 범람하고, 전의·결성 2개 군은 시내와 도랑이 불어나 가득 찼으며, 이번 달 10일의 비로 앞서 보고한 것 외에 천안·온양·결성·노성 등 4개 군은 시내와 도랑이 불어나 가득 찼으며, 13일의 비로 앞서 보고한 것 외에 공주·연산 2개 군은 시내와 도랑이 불어나 가득 찼으니, 사람이 물에 빠져 죽고 집이 떠내려가거나 무너지고 논밭이 무너지지 않은 곳이 없다고 합니다. 또 17일 사시쯤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크게 주룩주룩 내리다가 19일 진시에 이르러 이내 그쳤는데, 관찰부 측우기 수심이 1자 1치였습니다. 우선 관찰부에서 본 것으로 따지자면 2길 가까운 큰 다리에 성난 물결이 넘쳐서 백성들 집으로 달려들고, 금강 좌우의 2, 30리 평야 지역은 한눈에 보기에 위아래 모두 하늘색입니다. 가까운 곳이 이와 같으니 먼 곳도 미루어 알만합니다. 백성들의 사정을 생각하면 근심과 걱정이 큼니다. 각 군의 경위는 잇따라 계속 보고하겠습니다. 이에 보고합니다.

## 0640. 1898년(광무 2) 9월 30일

公文編案 41 忠淸南道

忠淸南道 觀察使 署理 公州郡守 趙命鎬 報告(第一百號)

道內農形及本月十二日 十四日至 府下得雨形止는 觀察使在任時에 임의 報告하엿습거니와 各郡報告書를 接準하온즉 伊日之雨에 牙山은 川渠가 漲滿하고 溫陽新昌瑞山第三郡은 得一犁하고 燕岐는 得二鋤하고 公州天安藍浦文義等四郡은 得一鋤하고 林川魯城鎭岑等三郡은 溫塵하고 農形畓은 早稻早黍及和種豆太는 漸次向熟하고 中晚稻晚黍粟及根耕豆太는 次第入實하고 木花는 綻絮가 稀少하고 摘取가 無幾이다오며 本月二十八日丑時量에 始雨霑灑하고 至二十九日寅時에 開霽하오니 府下測雨器水深이 爲四寸九分이온바 非時之雨가 過霑하고 各穀之受損이 想多이오니 言念農事에 誠極憂悶이온지라 各郡得雨는 待其 報來하야 更爲陳報하 갓쌌기 玆에 報告함.

충청남도 관찰사 서리 공주 군수 조명호 보고(제100호)

충청도 내 농사 상황 및 이번 달 12일부터 14일까지 관찰부에 내린 비의 경위는 관찰사 재임 시에 이미 보고하였습니다. 각 군의 보고서를 접수해 보니, 그날 비로 아산은 시내와 도랑이 불어나 가득 찼고, 온양·신창·서산 등 3개 군은 1려가 내렸고, 연기는 2서가 내렸고, 공주·천안·남포·문의 등 4개 군은 1서가 내렸고, 임천·노성·진잠 등 3개 군은 먼지만 적실 정도였다고 합니다.

농사 상황의 경우, 올벼와 올기장·올조 및 섞어 짓는 콩·팥은 점차 익어가고, 중벼·늦벼와 늦기장·늦조 및 그루같이한 콩·팥은 차례로 알이 들고, 목화는 터지는 솜이 드물어 따서 거두는 것이 거의 없다고 합니다. 이번 달 28일 축시쯤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주룩주룩 내리기도 하고 뿌리기도 하다가 29일 인시에 이르러 개었는데, 관찰부 측우기 수심이 4치 9푼이었습니다. 때아닌 비가 지나치게 주룩주룩 내려 각종 곡식이 입은 손해가 생각 건대 많으니, 농사를 생각하면 정말로 근심과 걱정이 그지없습니다. 각 군에 내린 비는 보고가 오기를 기다려 다시 아뢰겠습니다. 이에 보고합니다.

## 0641. 1900년(광무 4) 6월 23일

公文編案 87 忠淸南道

忠淸南道 觀察使 金永憲 報告

報告書를 接準호은즉 本月九日之雨 前報外에 稷山 德山兩郡은 得一犁호고 平澤 庇仁兩郡은 得一鋤호고 林川 藍浦 泰安 等三郡은 泥塵이다 이오며 二十二日申時量에 始雨霏微호야 至二十三日巳時乃止호오니 府下測雨器水深이 爲六分이온바 夏至가 已屆에 一霈가 尙靳호와 移秧이 差遲호오니 言念穡事에 極爲憂悶이옵기 茲에 報告함.

충청남도 관찰사 김영덕 보고

보고서를 접수해 보니, 이번 달 9일의 비로 앞서 보고한 것 외에 직산·덕산 2개 군은 1려가 내렸고, 평택·비인 2개 군은 1서가 내렸고, 임천·남포·태안 등 3개 군은 먼지만 적실 정도였다고 합니다. 22일 신시쯤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부슬부슬 내리다가 23일 사시에 이르러 이내 그쳤는데, 관찰부 측우기 수심이 6푼이었습니다. 하지가 이미 지났는데 아직도 한차례 시원하게 퍼붓지 않아 모내기가 조금 지체되니, 농사를 생각하면 근심과 걱정이 그지없습니다. 이에 보고합니다.

## 0642. 1900년(광무 4) 6월 25일

公文編案 87 忠淸南道

忠淸南道 觀察使 金永憲 報告

各郡報告를 接準호은즉 本月九日之雨 前報外에 溫陽 新昌 懷德 等三郡은 得一鋤호고 二十二日之雨에 公州는 得一鋤이다이오며 二十三日亥時量에 驟雨가 暴霖호고 疾雨이 大作호야 至二十四日寅時에 乃止호오니 府下測雨器水深이 爲二寸이온바 隨風驟過之雨가 遠邇均霑은 實難預料이온즉 言念民情에 尤極悶然이옵기 玆에 報告함.

충청남도 관찰사 김영덕 보고

각 군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이번 달 9일의 비로 앞서 보고한 것 외에 온양·신창·회덕 등 3개 군은 1서가 내렸고, 22일의 비로 공주는 1서가 내렸다고 합니다. 23일 해시쯤에 소나기가 갑자기 주룩주룩 내리더니 세차게 쏟아지며 크게 내리다가 24일 인시에 이르러 이내 그쳤는데, 관찰부 측우기 수심이 2치였습니다. 바람을 따라 신속하게 지나가는 비가 멀고 가까운 곳을 고루 적시기는 정말로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백성들의 심정을 생각하면 근심과 걱정이 더욱 그지없습니다. 이에 보고합니다.

## 0643. 1900년(광무 4) 9월 3일

公文編案 87 忠淸南道

忠淸南道 觀察使 朴容大 報告

各郡報告書를 續接 〇온즉 上月二十四日之雨 前報外에 溫陽은 川渠漲溢 〇고 禮山은 得二犁 〇고 全義 稷山 新昌 藍浦 定山 靑山 洪州 等七郡은 得一犁 〇고 燕岐 結城魯城 等三郡은 得一鋤 〇고 木川 林川 鴻山 等三郡은 溫塵 〇고 二十六日之雨에 公州는 得一鋤이다 이오며 本月二日午時量에 風起雨始 〇와 或注或洒라가 至三日寅時乃止 〇오니 府下測雨器水深이 爲三寸五分이온바 不緊之雨 挾風暴注 〇와 早晚各穀이 想必受害이오니 言念農形에 誠爲悶然이온지라 各郡所得은 待其報來 〇와 鱗次更報 〇깃습기 玆에 報告함.

충청남도 관찰사 박용대 보고

각 군의 보고서를 계속해서 접수해 보니, 지난달 24일의 비로 앞서 보고한 것 외에 온양은 시내와 도랑이 불어나 넘쳤고, 예산은 2려가 내렸고, 전의·직산·신창·남포·정산·청산·홍주 등 7개 군은 1려가 내렸고, 연기·결성·노성 등 3개 군은 1서가 내렸고, 목천·임천·홍산 등 3개 군은 먼지만 적실 정도였다고 합니다. 26일의 비로 공주는 1서가 내렸다고 합니다. 이번 달 2일 오후에 바람이 불며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더러는 주룩주룩 내리고 더러는 뿌리다가 3일 인시에 이르러 이내 그쳤는데, 관찰부 측우기 수심이 3치 5푼이었습니다. 긴요하지 않은 비가 바람과 함께 갑자기 쏟아져 올곡·늦곡 모두 생각건대 분명히 손상을 입었을 것입니다. 농사 상황을 생각하면 정말로 걱정스럽습니다. 각 군에 내린 것은 보고가 오기를 기다려 잇따라 다시 보고하겠습니다. 이에 보고합니다.

## 0644. 1900년(광무 4) 9월 22일

公文編案 87 忠淸南道

忠淸南道 觀察使 朴容大 報告

本月十七日酉時量에 挾風始雨 ㄹ와 或霪或灑 ㄹ고 十九日以後로 間間霏微라가 至二十二日 卯時開霽 ㄹ오니 府下測雨器水深이 爲三寸九分이온바 禾稻受辛之際에 多日陰翳도 實所 可畏이온디 冷雨가 暴注 ㄹ고 加之以猛風 ㄹ와 被災想多이오니 言念穡事에 極切憂悶이온 지라 各郡雨下는 待其報來 ㄹ야 鱗次續報 ㄹ깃습기 茲에 報告함.

충청남도 관찰사 박용대 보고

이번 달 17일 유시쯤에 바람과 함께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더러 주룩주룩 내리기도 하고 뿌리기도 하더니 19일 이후로 간간이 부슬부슬 내리다가 22일 묘시에 이르러 개었는데, 관찰부 측우기 수심이 3치 9푼이었습니다. 벼가 고통을 겪을 즈음에는 여러 날 짙은 구름도 정말로 두려워할 만한데 찬비가 갑자기 쏟아지고 사나운 바람마저 더하여 생각건대 피해가 많을 것입니다. 농사를 생각하면 근심과 걱정이 그지없이 절실합니다. 각 군에 내린 비는 보고가 오기를 기다려 잇따라 계속해서 보고하겠습니다. 이에 보고합니다.



발행인	박수희
총괄	김은영
기획	김재영
책임번역	최주희(덕성여자대학교)
공동번역	이상식·유성국·오연숙
출판편집	덕성여자대학교 역사문화연구소
감수	조윤선(전주대학교)·김상환(고문헌연구원)
제작	흐름

발간등록번호	11-1360000-001872-01
ISBN	979-11-6988-371-9(93450)
발행일	2024년 11월 17일
발행처	기상청 국립기상박물관 서울특별시 종로구 송월길 52 <a href="https://science.kma.go.kr/museum">https://science.kma.go.kr/museum</a>
자료협조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국사편찬위원회

비매품

© 국립기상박물관

© National Meteorological Museum of Korea

이 책에 수록되어 있는 글은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저작물이므로 무단사용을 금합니다.

국립기상박물관 소장자료에 대해서는 적법한 절차를 통해 활용 가능합니다.

출간에 협조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국립기상박물관

National Meteorological Museum of Korea

